

2004. 12

도농교류의 유형별 수요분석 및 교류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mand Analysis and Strategy Based on
Urban-Rural Interchange



농림부 도서관



0011179

4-197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도농교류의 유형별 수요분석 및 교류방안에 관한 연구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1 연구의 필요성

왜 도농교류가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그것은 도시와 농촌은 제각기 매력요인과 결핍요인을 가지고 있어서 상호교류를 통해 상대적인 결핍요인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최근들어 부쩍 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는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생활편의시설, 교통기반 및 문화환경 측면에서는 선진화되고 있으나 인구 집중, 교통체증, 자연 녹지공간의 부족과 환경오염, 누적된 스트레스의 일상화, 수입농산물의 범람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에 농촌은 지속적인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사회를 유지하기가 곤란해지고, DDA 협상, FTA 확대, 경제 블록화 등으로 농어업인의 경제사정은 어려워지고 있으나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환경보전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농촌의 자연환경과 문화,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와 농촌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농촌의 경우 지역의 활력, 농외소득, 농산물의 판매를 통한 소득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도시의 경우 여유로운 여가활동, 전통과 문화 체험 및 교육, 안전한 농산물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시-농촌의 교류라 함은 상호관계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 물품, 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제 측면에서 이뤄질 수 있다.

2004년에 ‘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하 삶의질특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도농교류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도농교류센터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삶의질향상법’에서는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를 통하여 농림어업과 농산어촌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농산어촌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관광자원의 개발과 관광마을의 육성, 교육 및 홍보, 자매결연, 농산어촌 체험 등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농교류센터’가 제도적인 설립근거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농촌투자유치센터’의 업무기능¹⁾을 확대하여 2004년 2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5월 초에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도농교류센터는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산어촌 관광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농산어촌지역 활력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농산어촌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농촌관광을 적극 지원하고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장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농교류센터가 설립·운영됨으로써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고, 구체적인 교류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

1) 농촌투자유치센터의 임무는 ①농촌투자유치를 위하여 가용자원 정보제공, 대상 사업 발굴, 제도개선, ②농촌관광사업의 발굴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었다면, 도농교류센터의 임무는 ①농산어촌 관광마을 육성, 자원개발, 교육·홍보, ②도시자본 투자정보 제공, 사업발굴, 제도개선, ③도농교류 자매결연, 농촌체험P/G개발, 웹사이트 운영 등이다.

다.

주 5일 근무제가 본격 도입될 경우 여행 및 관광은 4.9%에서 25.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한국관광연구원, 2001),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가까운 자연환경을 찾아 떠날 기회가 많아 질 것이므로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예측에 의하면 2001년 3090만 명에서 2011년에는 1억 4600만 명으로 추정되며, 국내 관광 총량 중 농촌관광 수요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9.4%에서 2011년에는 24.1%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정부는 1984년부터 농어촌휴양단지 사업을 통하여 그리고 '99년부터는 농·소·정 협력지원 사업을 통하여 도농교류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알리고, 농산물의 홍보와 교육, 보존 운동에 있어서 나름대로 기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교류활동들은 대부분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개별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여 국민적인 차원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며 대등한 관계의 교류²⁾가 아니라는 비판이 지적되어 왔다.

한편, 2002년부터 도입된 녹색농촌체험마을, 테마마을 등 농촌관광마을사업의 활발한 도입으로 도농교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도농교류의 체계성과 지속성,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것과 자연스러운 나눔이나 교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제기들이 일고 있다. 최근 들어 도시와 농촌 간의 상대적인 결핍요인을 충족시켜줄 수 있다는 도농교류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사회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계기는 그 동안의 농·소·정 협력사업, 농촌관광의 전개 등을 통해서도 인식되어 왔으나 2003년 12월 농협과 농업인단체가 주관하고 농림부와 여성부, 소비자단체, 경제단체가 후원한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농촌사랑 선포식³⁾' 이후 올 5월 초에 도농교류센터 개소 및 1사1촌 자매결연이 있었고, 6월 초에 농협과 경제5단체 주관아래 1사1촌 자매결연 발대식이 개최되었으며, 점차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농촌과 도시 사이에는 이미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교류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나, 농촌측에서는 어떤 수요를 가진 도시민들이 농촌과 어떤 교류를 원하는 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도시에서도 안전한 먹거리, 농산어촌 체험 및 교육, 여행 등을 보내기 위해서 농촌과 자매결연을 원할 경우 농촌과의 자매결연 형태가 어떤 것인지 그 정보 유형과 교류형태에 대해서 파악된 바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도시-농촌의 교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어, 1사1촌 자매결연 등 교류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교류를 장려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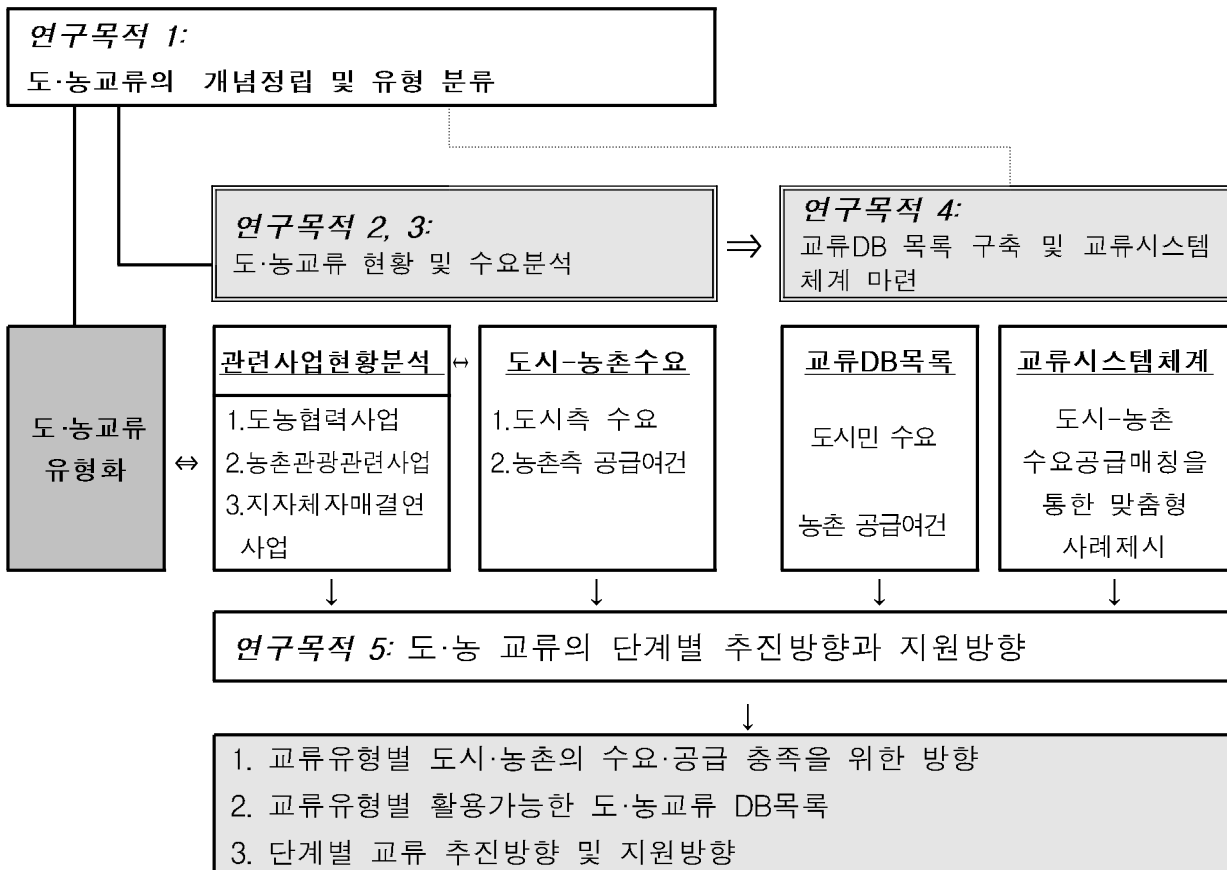
-
- 2) 도시민들을 유인하기 위해 농촌을 방문할 경우 금전적인 지원, 무료 또는 저가로 농산물이나 숙식을 제공하여 서로 존중하기 보다는 한 쪽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관계를 형성하는 교류로 지속적이지 못함
 - 3) 농촌사랑 선포식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어려움에 처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 농촌사랑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펼쳐가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농촌사랑에 대한 다짐과 실천사항을 담은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농업인들은 도시민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농업인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농산물 소비기반 확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으며, 경제단체는 1사1촌 자매결연 등 기업과 농촌의 교류확대를 도모할 것을, 농협은 농산물 직거래와 도시민의 농촌현장체험 등 도농교류사업 확대를 통해 농촌사랑 실천을 선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농민신문, 2003.12.12일자).

근거의 마련과 도농교류센터도 설립되었지만 도농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양측의 수요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적인 교류의 증가는 수요자의 질적인 만족감 충족과 함께 반복성,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양측의 수요를 파악하여 유형별로 어떻게 교류방안을 모색해야 하는지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

1.1.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도·농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와 농촌의 교류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기 수요에 맞는 교류 방안을 제시하여 도·농 교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선행의 연구결과와 현행 도농 교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도·농 교류의 개념을 정의하고 유형을 분류한다.
- 2) 도농 교류 관련사업에 관한 이론 고찰을 통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 교류 추진에 있어서 필요사항은 무엇이며, 장애 요인으로서는 무엇이 있는지 분석한다.
- 3) 도농 교류의 유형별 사례 조사를 하여 도시민의 요구와 농촌의 공급 여건을 분석한다.
- 4)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농 교류의 수요 및 공급 D/B를 구축하기 위한 목록을 제시하고, 사례를 통한 맞춤형 교류 시스템의 예를 제시한다.
- 5) 교류활성화를 위한 단·장기 도농 교류의 추진방향과 지원방향을 제시한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1.1.3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로서 문헌조사와 설문 조사, 현지조사 연구방법, 전문가 워크숍 등을 병행하였다. 연구목적별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1-1>과 같다.

설문조사는 도시민과 농촌주민으로 대상을 나누어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도농교류와 관련된 기존 문헌들을 토대로 작성하되 도시민 대상용과 농촌주민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도시민용 설문지에는 주로 도농교류의 수요자 측면에서, 농촌주민용 설문지에는 주로 공급자 측면에서 응답을 하도록 문항이 구성되었다.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도농교류 경험 및 만족도, 교류방식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교류유형별 교류관련 내용, 향후 교류지원방향 및 개선점 등으로 그 내용을 구성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원간 협의를 통하여 정제하였다. 또한 예비조사(pre-test)를 실시하여 설문지를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도시민 설문조사 대상은 비례층화표본추출법(Proportional Stratified Sampling)에 의해 선정되었다. 즉, 서울·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시민을 서베이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도시의 인구수를 토대로 표본수를 할당하였다. 또한 모집단의 성별, 연령별 비율을 기준으로 표본의 비율을 할당하였다. 할당된 비율에 따른 대상자들은 도농교류 경험이 있거나 또는 없는 불특정 수요자 모두를 포함하였다.

설문조사는 10월 11일~31일까지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였다. 도시민 대상 설문은 자기 기입식(self-administered) 설문지로 응답자들에게 제시되었으며, 설문지를 직접 기입하기 곤란한 고령 응답자의 경우에는 훈련된 조사자가 도와 설문지를 완성하게 하였다. 도시민 대상의 설문지는 1,050부를 회수하여 이 중 농촌거주자 응답인 2부를 제거하고 총 1,04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농촌주민에 대해서는 도농교류와 직접 관련된 농촌의 농가, 마을대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농촌주민용으로 작성된 설문지에 응답하게 하는 한편 도농교류에 대한 의견을 심층 인터뷰하는 등 질적인 조사방법을 이용하여 총 5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도시와 농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정한 지역과 대상자 기준은 <표 1-2>와 같다.

<표 1-1> 연구목적별 연구내용과 방법론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분석방법
1. 도농 교류 개념 정립 및 유형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농 교류의 개념 정의 및 정립 도·농 교류의 유형 분류 	문헌고찰 현지조사	질적분석
2. 도농 교류 관련사업 현황 및 문제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농 교류 관련사업 현황 교류관련사업의 종합 분석 및 논의 	문헌고찰	질적분석
3. 도농 교류 유형별 사례조사를 통한 수요 및 공급여건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수요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현황, 도농교류에 대한 태도 및 요구 교류유형별 선호 분석 유형별 선호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중로짓모델(Multi-logit Model) 분석 	설문조사	수량분석 (Frequencies, ANOVA, Crosstabs, Multi-logit Mod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급여건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류현황, 농촌주민의 도농교류 태도분석 	현지조사 설문조사	수량·질적 분석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측의 공급여건 마을사례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 공급여건의 문제점 및 극복방안 분석 	현지조사 관찰조사	질적분석
4. 도농 교류 유형별 수요 및 공급 D/B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 및 공급 D/B 메뉴얼 제시 맞춤형 교류시스템 사례제시를 통한 교류체계 	문헌, 설문조사, 현지조사	결과의 질적분석
5. 단기, 중장기 도농 교류의 추진방향, 지원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농교류 수요 및 공급 차원, 관련사업 측면 주체별 역할, 중앙단위 차원에서의 도농교류센터의 역할과 지역단위에서의 도농교류 임무, 홍보 및 교육 측면, 제도적 지원방향 	문헌, 설문, 현지조사	결과의 질적분석

<표 1-2> 설문조사대상지역 및 대상자

구 분	대상 지역	대상자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도시 위주 광역시 및 도의 인구에 대해 성별 및 연령대를 기준으로 할당추출법을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 단체, 자매결연 등 교류 경험에 있는 수요자 불특정수요자
농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관광마을, 자매결연 등 도시와 교류를 맺은 사례 중심 공간단위: 개별농장, 마을,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관광 사업 참여자, 주민대표

1.1.4 자료의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수량화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도농교류의 유형 분류, 도농교류 관련사업의 현황, 외국의 사례, 법적 지원체계 검토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문헌고찰에 의한 질적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농촌의 도농교류 사례 및 설문지에 의한 농촌 공급자로서의 심층면접한 내용에 대해서도 주로 질적 분석을 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도시민의 도농교류에 대한 수요조사 자료에 대해서는 SPSS(Ver. 11)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주로 수량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1.2 용어정의

(1) 도농교류

도시와 농촌이 어떤 식으로든 교류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간의 교류, 정보, 문화, 서비스, 물품 및 자본 등을 나누는 도시와 농촌의 상호관계를 말한다.

작게는 농촌에 살고 있는 부모님이나 친척 방문부터 자매결연, 일손 돕기 및 자원봉사부터 직거래 방식의 상품구입, 농촌 관광 및 체험, 농촌에 내 집 갖기, 주말농장 운영, 토지 구입 등 폭 넓은 분야를 도농교류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특히 농촌이라 함은 농촌, 산촌, 어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편의상 사용된다.

(2) 도농교류 유형

도농교류의 유형은 도시와 농촌이 서로 주고받는 내용, 방법 및 형태를 포함하여 분류한 교류방식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농교류 유형으로서 인적 교류, 물적 교류, 교육·문화 체험형 교류, 휴양·여가활동형 교류의 네 가지 유형으로 도농교류의 수요 공급을 논의하게 된다.

(3) 도농교류 수요·공급

도농교류의 수요·공급이라 함은 도시와 농촌이라는 각각의 공동사회가 각각의 입장에서 이익과 편익을 얻기 위해 상호 교류하려는 요구와 충족관계를 말한다. 즉, 도시는 상대적 결핍 요소인 자연 환경, 전통과 여유로운 문화, 안전한 농산물에 대해 농촌에서 충족시키려 하고, 반면 농촌에서는 도시를 통해 보다 발전된 문화, 정보, 경제적 여유를 얻으려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류의 목표를 농촌지역의 활성화에 두는 것이므로 농촌의 자연환경과 문화,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도시의 요구를 '도농교류의 수요'측으로, 그리고 이러한 도시측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농촌을 '도농교류의 공급'측으로 설정하였다.

2. 도농교류의 유형화 및 이론적 고찰

2.1 도농교류의 의의 및 유형화

2.1.1 도농교류의 의의

1) 도농교류의 개념

교류(interchange)라 함은 사전적 정의로서 ‘(무엇인가를) 교환 또는 주고받는 것’ 또는 서로 다른 무엇과 무엇이 접촉하는 것(中川聽七朗, 2003)을 뜻한다. ‘무엇인가가 있고 이것을 서로 주고받거나 접촉하는 상황이 교류라고 하면, ‘도농 교류(urban-rural interchange)’는 이 무엇인가를 서로 주고받거나 접촉하는 주체가 도시민과 농촌 주민인 셈이다.

본 연구의 핵심 개념인 ‘도농교류’가 농촌의 경제적·문화적 공동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도농교류센터가 설립되기까지에 이르렀으나, 아직 도농교류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도농교류라는 용어가 연구자에 따라 ‘농도간의 교류’(이상배, 1995), ‘도농녹색교류’(전국농업기술자협회, 2004) 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것은 도농교류를 다루는 관점이나 그 내용에 따라 매우 폭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도농교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이나 농촌관광과의 개념적인 관계도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채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그린투어리즘⁴⁾의 개념을 살펴보면 그 구성요소로서 도농교류가 강조되고 있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농촌 활성화 측면이 중시되는 특징이 있다. 그린투어리즘의 구성 요건으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가 강조된다(김병률 외, 2000).

- ① 자연을 상대로 하는 관광일 것
- ② 서비스의 주체가 농가 또는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일 것
- ③ 농촌이 가진 다양한 자원, 생활·문화 자산을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교류를 통하여 지역 사회의 활력 유지에 공헌할 것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관광

그린투어리즘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녹색관광”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오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살펴보면 <표 2-1>과 같다. 여기에서 보면 어느 경우나 농촌 또는 농산촌에서 이루어지는 체류형 휴양 및 관광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본 농림성의 정의에서는 녹색관광에서 도농교류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도 농림부의 경우 도시민과 주민간의 체류형 교류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는 도농교류의 농촌관광적 측면

4) Green tourism이라는 용어는 프랑스에서 농촌관광 개념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면서부터 널리 쓰이게 되었고,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번역하여 녹색관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나,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은 농촌관광(rural tourism)이라고 볼 수 있다.

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1> 녹색관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

구 분	녹색관광의 정의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루투어리즘, 화이트투어리즘, 그린투어리즘(녹색관광)으로 구분 • 녹색관광은 주로 농촌의 전원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체류형 ·휴양형 관광
일본 농림성 녹색관광연구회 (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요로운 자연을 가진 농산어촌지역에서 지역의 자연, 문화, 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체재형 여가활동
한국관광공사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관광과 생태관광을 동일시하는 입장과 녹색관광과 생태관광이 본질적 측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으나 추구하는 목적이나 자원이용 방식에 차이가 있어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는 입장이 공존 • 녹색관광은 농산촌의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휴양형 관광
한국 산림청 (19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전적 관광 • 농산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관광
한국 농림부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촌의 풍부하고 깨끗한 자연경관과 지역의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한 도시민과 농산촌 주민간의 체류형 교류활동

자료: 농림부(2002),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개발모형 정립과 실용화 방안. p 28.

또한 농촌관광(rural tourism)도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도시지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활동이나 행사에 참여하거나 어떤 대상을 보기 위한 목적으로 농촌지역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된 일종의 여가체험으로 정의되고 있다(www.sfc.ucdavis.edu/agritourism/definition.html). 이것은 농촌의 전원공간과 생활공간 또는 그 주변에서 농촌 내에 존재하는 생태·문화 자원 및 인적 자원을 주로 활용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중관광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간주된다(glossary.eea.eu.int/EEAGlossary/R/rural_tourism). 일반관광과 차별화되는 농촌관광의 특성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research.travel.state.tx.us).

- ① 아늑한 환경: 조용하고 넓은 공간과 매력있고 아기자기한 마을 또는 도읍
- ② 자연적인 요소: 자연적인 매력, 옥외활동, 야생 생태계, 아름다운 경관
- ③ 체험적 요소: 과일따기, 고구마캐기 등 직접 손으로 만지며 할 수 있는 체험활동의 기회
- ④ 농촌만이 갖는 문화와 정서: 포근함, 인정, 따뜻한 호의, 공동체 의식, 여유로움 등

한편, 도농교류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기도 하였는데, 이를 요약하여 보면 <표 2-2>와 같다. 여기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도시와 농촌간에 사람, 상품, 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교환과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와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도·농교류(urban-rural interchange)를 간단히 정의하자면, 사람, 물품, 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제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으로 규정할 수 있고, 상세하게는 도시와 농촌간에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나 자매결연 등을 통해 사람들간에 접촉이 이루어지고, 상품·정보·자본·서비스 등이 양방향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교환되고 거래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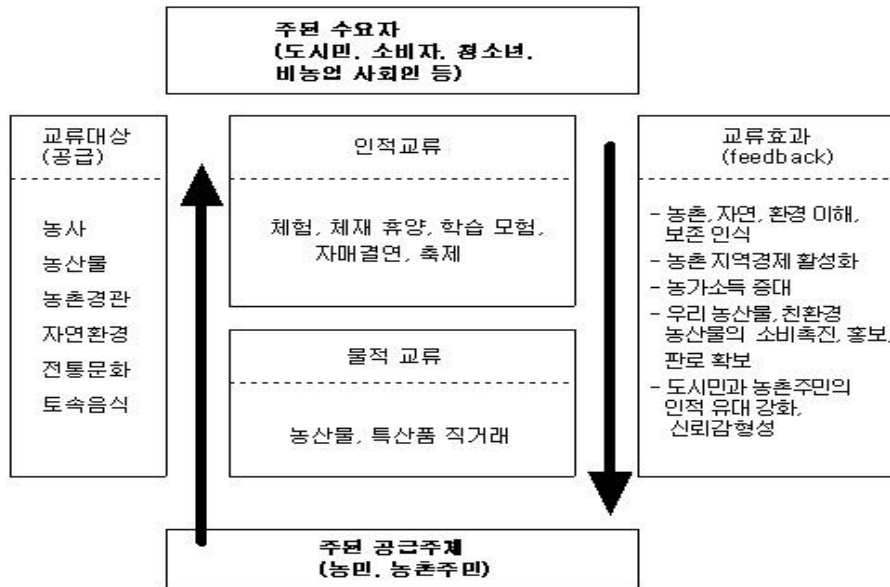
<표 2-2> 도농교류의 개념에 대한 정의

연구자	도·농교류의 개념	비고
이상배 (1995)	상호방문이나 농산물의 판매를 위한 거래라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 활동 뿐 아니라 교육·문화적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까지를 포함	“농도간의 교류”로 표현
송미령 (2003)	사람, 물품, 서비스, 정보, 문화 등 제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관계 여러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관계를 통해 상호만족을 얻고자 하는 방식	
한국농공학회 편(2003)	사람, 물품, 서비스, 정보, 문화 등 제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관계 도시와 농촌간의 양방향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져 농촌의 특산물이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나 자매결연 등을 통해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하여 볼 때, 도농교류가 녹색관광(green tourism), 농촌관광(rural tourism), 도농녹색교류, 녹색농촌체험 등 다양한 용어와 혼용되거나 비슷하게 이해되기도 하지만, 도농교류는 자연에 대한 이해와 농촌의 활성화와 같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사람의 교류에서부터 농산물이나 특산물과 같은 상품, 관광·휴양·체험 서비스, 정보, 문화, 자본 등의 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므로 녹색관광이나 농촌관광보다는 더 넓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2) 도농교류의 구성요소

도농교류의 개념을 좀 더 상세히 이해하기 위하여 그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도식화 해 보면 (그림 2-1)과 같다. 여기에서 보면, 도농교류의 구성요소는 수요자로서의 도시민과 공급자로서의 농업인 및 농촌주민이라는 교류 주체와 농사, 농산물, 농촌경관, 전통문화와 지역 특산물 등과 같은 교류대상,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적·물적 교류 활동 및 과정, 그리고 교류 효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1) 도농교류의 구성요소

자료: 庄宏行·三橋伸夫·藤本信義(2000), 「都市農村交流の展開と住民意義一新潟縣小國町を事例として」, 農村計畫論文集 2, pp.277-282.

도농교류가 성립되기 위한 주요 구성요소로서 교류 주체와 교류 대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교류 주체

교류 주체로서 도시와 농촌이라는 두 공동사회를 살펴보면, 우선 농촌의 경우 농업자와 비농업자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이며 농촌 내의 단체로서 각종 기업, 지방자치단체, 농업위원회, 농협, 산림조합, 상공회, 관광협회, 소방단, 노인회, 부인회, 청년회, 어린이회 등 다수의 기관, 조직, 단체, 그룹이 존재한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교의 교육기관과 병원·보건소 등의 의료기관 나아가 사찰과 교회 등도 존재하고 있다.

도시를 형성하는 주체로서는 개개의 주민이 다수이며 이들이 다양한 직업과 직종에 속해 있다. 기업과 노동조합이 있으며 또 의회, 행정기관, 상공회의소, 관광협회와 소비자단체, 소방조직 등의 다수의 기관, 조직, 단체가 농촌에 비하여 훨씬 많이 존재하고 있다. 교육기관과 의료기관도 다종·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농촌과 도시의 공동사회를 상호 연결하는 것이 교류라고 규정한다면 교류주체의 짝짓기는 무수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농촌도 도시도 교류 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고 선택의 폭도 매우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측이 교류를 추진하려는 경우 특히, 교류의 성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대방으로 좁히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고 또한, 그런 선택을 위한 노력은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농촌 측에서 교류를 추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방법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는 농촌내부에 있어 교류주체를 설정해야 하며, 둘째는 도시 측의 교류주체를 확실히 선택하며, 셋째는 어떠한 교류내용을 택할 것인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이들 세 가지 요소를 동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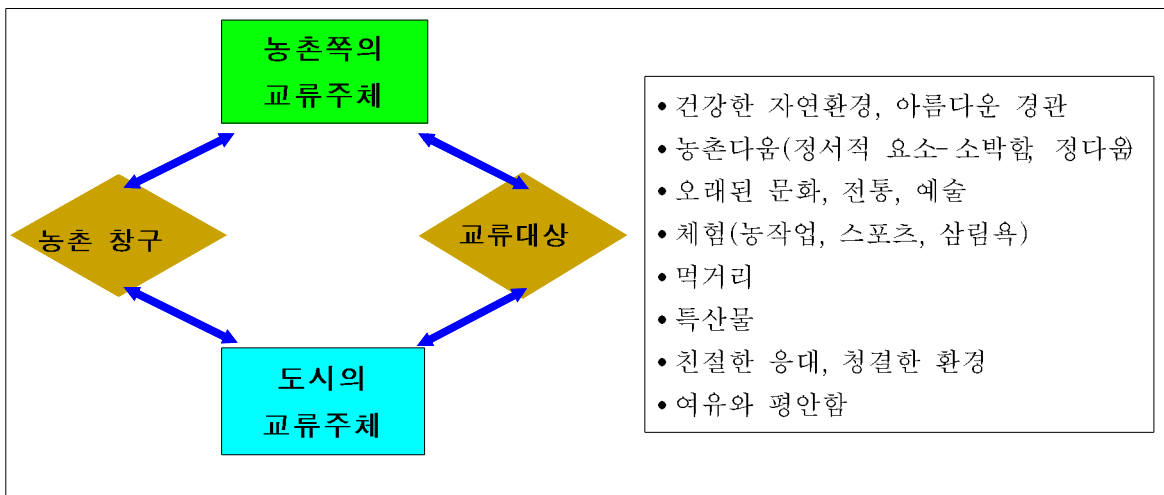
병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측의 교류주체의 설정에는 각 지역의 사정과 지역자원의 내용, 지역주민의 의향과 의욕 정도 등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역에 있어서 의견조율을 거쳐야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오래된 관습과 제도에 젖어있지 않은 새롭고 신선한 주체가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할 것이다.

한편, 농촌측이 도시측의 교류주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주체 구성원의 다수, 다양함을 고려할 때 책임감 있는 창구(인재)를 찾아내는 것이 과제이다. 핵심은 교류의 상대(주체)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있으며, 제대로 된 교류 상대의 선택을 통하여 교류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中川聽七朗, 2003).

② 교류 대상

도농교류의 주된 목표를 농촌의 활성화로 삼을 때 수요·공급의 관계는 도시가 수요자이고 농촌은 주로 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민의 요구를 염두에 둘 때 농촌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곧 교류의 대상이 되며 그러한 관계 및 내용은 (그림 2-2)와 같다. 여기에서 나열되는 교류 대상의 내용은 농촌에서 기대되는 기본적 요소들이며 이들을 다 갖춘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특별히 강조할 만한 몇 가지 요소만 가지고도 도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2) 도농 교류의 대상

또한 도시민이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촌이 갖추어야 할 여건을 기본사항과 하드웨어 측면 및 소프트 웨어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 도농교류 공급 측면에서 농촌이 갖추어야 할 여건

기본사항	하드웨어 측면	소프트웨어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이 풍부한 자연환경 · 드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경관 · 농촌다움(소박, 질박, 정다움) · 오래된 문화, 전통, 예능 · 체험(농작업, 스포츠, 삼림욕) · 개성있는 식사, 특산물 · 청결한 환경, 친절한 응대 · 여유와 편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업체험이 가능한 농장 · 곤충·물고기가 있는 계곡의 냇가, 삼림욕이 가능한 삼림 · 산책로, 자전거도로, 캠프장 · 운동시설(테니스코트…) · 박물관, 향토관, 자료관, 미술관 등 · 홀(음악당, 극장…) · 향토음식점 · 새벽시장, 특산물센터 등 · 주차장 · 숙박시설(호텔, 민박, 여관, 홈스테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을 알리는 인쇄물 -지도, 팸플렛, 정보지 등 · 지역의 정보시스템 -표식, 안내 시설간 연계체제 · 정보의 수발신체제 등 · 바가지요금의 근절체제 · 주민의 서비스정신의 함양 -지역정보에 대한 이해 · 친절한 응대 등

3) 도농교류의 필요성

최근 들어 도농교류가 강조되는 데에는 이것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특성을 지니면서 낙후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농교류가 기본적으로는 농촌의 활성화를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농촌의 생태·문화 자원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아가서 도시와 농촌의 공생과 상생을 도모한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의의는 다음과 같은 도농교류의 목적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도농교류의 목적은 도시와 농촌, 소비자와 농민을 연결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통해 인위적·사회경제적으로 형성된 농민과 도시민, 농업생산자와 소비자들의 의식과 정서적 장벽을 허물어 '동등 차원의 주고받는 관계', '공생관계'를 만드는데 있다. 이에 비인간적인 도시 생활과 산업화에 대응해 자연과 농업, 전통문화에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공유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이처럼 도농교류는 농업·농촌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교류를 통해 농업을 농산물 생산의 1차 산업, 농산물 가공의 2차산업, 농산물 판매 및 음식, 숙박, 관광 등 3차 산업이 더해진 고차산업으로 확대하고 농촌을 고차산업 기지로 활성화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과 의의를 갖는다.

한편, 도농교류가 갖는 의의를 그 태동한 배경 및 사회적 필요성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농교류란 용어는 문자적인 의미로는 사람, 물품, 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제 측면에

서 도시와 농촌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것이 농촌의 지역개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나아가 대안적 문화운동의 한 흐름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둘째, 농촌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유무형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업화 함으로써 주민소득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다양화하여 지역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리더의 지도력을 배양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증대 및 역량 배양이 가능하게 되고, 농촌개발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의사소통을 증가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셋째, 종전의 "보는 관광"에서 농촌을 깊이 이해하고, 느끼고, 배워 가는 "체험하는 관광"으로 전환하여, 농업·생활기술을 학습시켜 실습을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확산, 전통문화, 공동체 의식 등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농외소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효과적 대안사업이다.

넷째, 도농교류는 도시와 농촌간에 양방향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져, 농촌의 특산물이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파는 유형이 아니라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나 자매결연 등을 통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이루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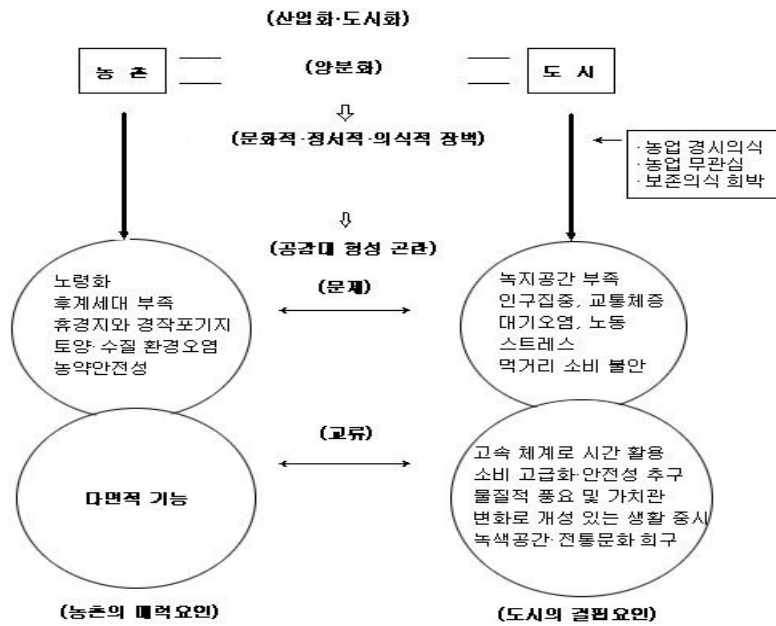
다섯째, 도농교류사업은 대등·호혜 원칙하에 인적·물적·문화적 정보의 "주고받기"가 이루어져, 소비자(도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린라이프, 안전한 농산물, 농촌 전통문화, 농사체험의 대상을 공급자(농촌주민, 농업인)들이 확보하여 정당한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도시의 교류대상(물적, 정서적, 문화적 교류대상)과 교환하여 대등한 교류가 이루어진다.

여섯째,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 재발견과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도농교류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정부,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가 삼위일체가 되어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의 안정화와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구축에 필요한 사업이다.

일곱째, 도시민들이 답답한 도시환경에서 벗어나 단순한 관광이 아닌 농촌의 자연환경, 녹지공간,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선호가 커지고 있어 도시인들의 인간성 회복 및 휴식처 제공 측면에서도 권장할 만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여덟째, 환경으로서의 농촌은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며 특히 농촌지역은 고향에 대한 향수, 휴식, 휴양공간이며, 국토의 유지·보전, 수자원과 녹지자원의 유지·보전, 자연경관의 보전 등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농촌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전을 담당하는 문화 보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농교류의 필요성을 도식화하여 보면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 도농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모식도

자료: 本庄宏行·三橋伸夫·藤本信義(2000), 「都市農村交流の展開と住民意義一新潟縣小國町を事例として一」, 農村計畫論文集 2, pp.277-282.

2.1.2 도농교류의 유형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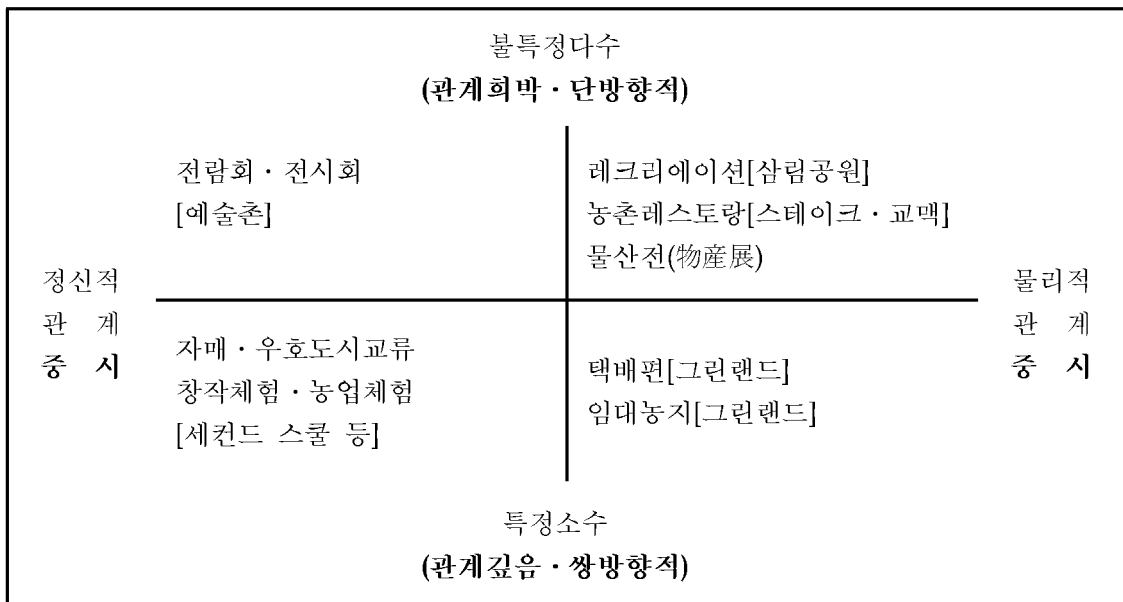
도농교류의 유형은 그 분류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구분이 가능하다. 분류 기준에는 교류대상, 교류 목적, 교류주체의 범위, 교류내용 또는 영역, 교류 방법 등이 있다. 교류대상에 따라서는 사람간의 접촉과 교류에 역점을 두는 인적 교류, 상품이나 물건의 거래 또는 교환을 중심으로 하는 물적 교류, 관광휴양이나 체험 등 서비스의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교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인적 교류도 교류 단위가 개인이나, 단체나, 교류방법이 직접적인 만남을 위주로 하느냐 간접적인 접촉 위주로 하느냐 관광휴양 및 체험 서비스도 이용기간이 단기이냐, 장기이냐, 혹은 당일 이용이냐, 숙박이용이냐, 이용 서비스 내용이 체험 위주이냐, 휴양위주이냐 등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교류 목적에 따라서도 사람들간의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서부터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의 추구, 체험이나 휴양 또는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분류가 가능하다. 이러한 도농교류의 유형을 몇 가지 분류기준에 따라서 제시하여 보면 <표 2-4>와 같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 유형은 2개 이상의 분류 기준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이보다 더 많은 유형 분류도 가능하다.

<표 2-4> 분류기준에 따른 도농교류의 유형화

분류 기준	도농교류의 유형
교류 대상	사람, 상품이나 물건, 관광휴양 등 서비스
교류 목적	유대강화, 경제적 이익, 체험, 휴양
교류 주체의 단위	개인, 단체
교류 방법	직접 접촉 또는 거래, 간접 접촉 또는 거래
교류 기간	단기, 장기
체류 형태	당일, 숙박

本庄宏行 등(2000)은 도농교류의 형태를 (그림 2-4)와 같이 교류주체가 불특정 다수인가, 특정 소수인가, 그리고 정신적 관계를 중시하는가, 물리적 관계를 중시하는가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 해당하는 도농교류의 예를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분류기준이나 학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농교류 현상을 <표 2-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양하게 분류한 바 있다.

또한, 특별한 분류 기준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중심으로 일본 카와바무라에서 도농교류 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을 보면, 사과나무 오너제, 농업체험, 고향택배, 캠프, 이동교실, 산지 직판매, 숙박체험, 자매학교 교류, 주류판매계약, 가공강습, 산촌유학제도, 고령자 게이트볼 교환시합, 고교생 스키, 떡치기 교류, 동경농대 산림관리작업지원, 스키교류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4) 교류의 형태분류([]내는 小國町에서의 사례)

자료: 本庄宏行·三橋伸夫·藤本信義(2000) : 「都市農村交流の展開と住民意義—新潟縣小國町を事例として—」, 農村計畫論文集 2, pp.277-282.

<표 2-5> 여러 가지 도농교류 유형분류의 예

연구자	도·농교류(urban-rural interchange) 유형	비고		
이주희 (1992)	1. 휴양·보양 관광 2. 체험·교육·훈련·연수 3. 생산품 분양 및 직거래 4. 일손 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관광 관점에서 분류 • 사람의 이동을 수반하는 경우와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 		
이상배 (1995)	1. 산업적 교류 2. 교육·문화적 교류 3. 휴양 및 여가선용을 통한 교류 4. 고향방문 및 개발참여 <교류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어린이들의 농촌 이동교실 • 도시 행사에의 농촌 주민의 초청과 참가 • 농촌 행사에의 도시민의 초청과 참가 • 농산물의 직접 판매 • 도시민의 고향방문과 개발 참여 • 도시민의 여가선용 • 문화행사의 상호교류 • 도시 어린이의 생산활동체험 • 부모, 형제, 자식 간의 상호방문 • 농촌 어린이들의 도시생활체험 • 자연환경을 소중하게 가꾸기 • 주주형태의 공동개발(OWNER 제도) 	<참고: 상호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향인사의 애향운동 • 1면 1특산품의 개발 • 농산물의 직관확대 • 관광농업 및 협약 위탁 영농 • 별미·명소의 전승개발 • 농촌의 공업화 • 농촌 후계세대의 육성 • 농촌 이동봉사반의 운영 <일본 국토청의 조사결과> 인용		
김병률 외 (2000)	1. 농업·농촌체험형 2. 학습모험형 3. 체재·휴양형 4. 견학·여행형 5. 직거래·진시판매형 6. 교육·홍보·캠페인형 7. 자매결연형 8. 도농축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목적 및 프로그램 제시 		
최원국 (2000)	도농교류 체험학습을 6가지 영역으로 구분 1. 친·인척집에 기거하면서 인근학교에서의 체험학습 2. 자매학교 결연을 통한 도·농 학교간 교류 체험학습 3. 학부모와 함께 여행이나 가정행사를 통한 체험학습 4. 휴일이나 방학중의 자율체험학습 5. 체험학습장을 활용한 체험학습 6. '웨일리그룹'조직을 통한 체험학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교류 체험학습에 관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의식 문제점 분석 • 도농교류에 대해 체험학습의 관점에서만 다루어짐 		
국토청(1988)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관광이벤트 실시 조식 등 개최 고향택배편 직송 자매결연 체험농원 임대농원 정비 레크리에이션 시설정비 숙박시설정비 국제교류 향토회원제도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체재형리조트시설정비 자연교실 직매점 설치 농업농초체험 폐교공간이용 수학여행 별장촌정비 산촌유학 세컨드 홈 추진 </td> </tr> </table>	관광이벤트 실시 조식 등 개최 고향택배편 직송 자매결연 체험농원 임대농원 정비 레크리에이션 시설정비 숙박시설정비 국제교류 향토회원제도	체재형리조트시설정비 자연교실 직매점 설치 농업농초체험 폐교공간이용 수학여행 별장촌정비 산촌유학 세컨드 홈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류활동 유형화 - 도시사람 초청 이벤트 - 농촌생산품 직관활동 - 농업농촌생활 체험 - 숙박시설정비후 관광객유치 - 도시민과 연계시스템 조성
관광이벤트 실시 조식 등 개최 고향택배편 직송 자매결연 체험농원 임대농원 정비 레크리에이션 시설정비 숙박시설정비 국제교류 향토회원제도	체재형리조트시설정비 자연교실 직매점 설치 농업농초체험 폐교공간이용 수학여행 별장촌정비 산촌유학 세컨드 홈 추진			
도시 농업공 생공간연구 회(2003)	사람의 흐름 1) 단기간의 일시적인 이동 2) 거주지 변경 수반하는 장기적 이동 <참고>도시·농촌공생형태- 도시형·유역형·원격교류형 원격교류형.. 지역적으로 밀접하지 않고 공간 스케일도 일 반적으로 백km이상 원격지간의 네트워크형의 관계 - 농산물등의 물질과 문화, 정보 등을 매개로 한 상호작용 에 의해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농촌교류는 10여년 사이에 중시된 농촌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주요 시책으로 됨 • 정주민구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정세를 배경으로 교류인구를 증대시키고, 또한 지역정보의 수발신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이 큰 전략 목표 		

한편, 농촌관광만 하더라도 그 유형을 법·제도, 입지유형, 이용형태, 개발방식 등에 따라 <표 2-6>과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고, 개발모델 유형도 그 영향인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구분이 가능하다(<표 2-7> 참조).

<표 2-6> 농촌관광 유형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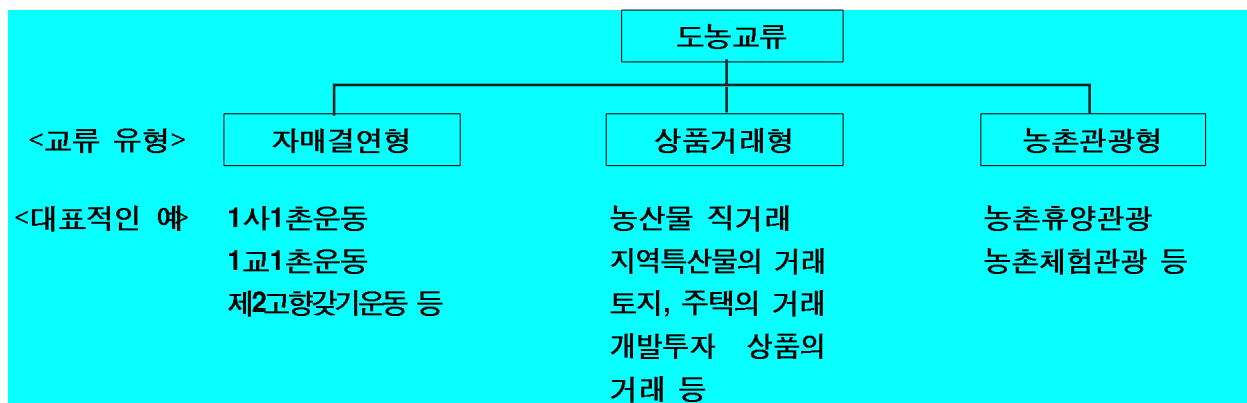
구 분	유 형
법·제도	농어촌 휴양단지
	관광농원
	주말농원
	농어촌 민박마을
입지유형	산촌·촌락형
	농촌마을형
	해안/어촌형
이용형태	생산수단 대여형
	농산물채취형
	이용장소제공형
개발방식	민/관합동개발형
	공공주도개발형
	민간주도개발형

자료 : 한국관광공사(1996), 농어촌관광개발 활성화 방안연구. pp. 263-268.

<표 2-7> 농촌관광 모델의 유형 분류

영향을 주는 인자	고려 할 모델 유형
산업	농촌형, 어촌형, 산촌형, 관광형
입지	근교농촌형, 관광지주변형, 평지농촌형, 중산간형, 산촌형
관광자원 유무	관광중심형, 교류중심형
사업주체	행정주도형, 농협주도형, 취락여농형, 제3섹타형, 농가그룹형, 법인경영형, 농가민박형(개인경영형)
지역의 활력도	질적충실형, 양적확대형
생태·문화자원 충실도	생태문화중심형, 생태자원중심형, 문화자원중심형, 자원부족형
생태문화 자원특성	자연환경활용형, 생산자원활용형, 전통문화자원활용형, 체험자원활용형, 휴양자원활용형, 교류자원활용형
자연환경요소	산림활용형, 수변활용형(호수, 저수지, 하천, 계곡), 평지형
숙박패턴	단시간이용형, 당일이용형, 단기숙박형, 장기체재형
이용패턴	놀이, 감상, 식사, 학습, 휴식

이 연구에서는 도농교류의 유형을 (그림 2-5)와 같이 ① 자매결연형, ② 상품거래형, ③ 농촌관광형으로 나누고자 한다. 자매결연형은 사회적 교류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예로는 1사1촌운동, 1교1촌운동, 제2고향갓기운동 등을 들 수 있다. 상품거래형은 경제적 측면에 중점을 둔 것으로 농산물 직거래, 농지나 주택의 거래를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농촌관광형은 일종의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는 거래 또는 교류로서 농촌관광휴양 서비스에 대한 농촌주민의 공급과 도시민의 향유를 중심 내용으로 한다. 농촌관광형 도농교류의 대표적인 예로는 농촌휴양관광과 농촌체험관광을 들 수 있다.



(그림 2-5) 연구자에 의한 도농교류의 유형 분류

한편, 이 연구에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도농교류를 교류 대상에 따라서 인적 교류와 물적 교류 및 서비스 교류로 크게 나누고, 다시 서비스 교류를 체험 활동과 휴양·여가 활동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총 4가지로 분류하였다(<표 2-8> 참조). 여기에서는 물적 교류를 상품거래와 자본투자의 범주로 보았고, 농촌관광은 소비자의 요구를 상세히 파악할 목적으로 다시 구분하여 교육·문화 체험형과 휴양·여가활동형으로 나누었다. 각 유형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인적 교류형

- 도시민과 농촌주민 또는 농업인, 도시와 농촌의 학생들,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만남과 정보 교환 등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교류를 의미한다.
- 종류: 자매결연, 1사1촌 운동, 연수·강좌 개최, 고향방문 행사, 자원봉사, 일손돕기, 소식지 및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교류, 귀농, 외지인 거주, 제 2고향 갓기 등

② 물적 교류형

- 상품이나 물건, 제품의 거래, 자본투자에 의한 개발 및 산업활동 참여 등이 여기에 속한다.
- 종류: 산지 직거래, 인터넷 농특산물 판매, 농특산물·공예품 판매, 농업위탁경영, 계약재배, 휴양단지, 별장 분양, 농작물·과수·가축 분양, 땅·주택 매매, 외지인 사업경영 및 투자 등

③ 교육·문화 체험형

- 교육 또는 학습효과를 얻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체험 활동이 여기에 속한다.
- 종류: 환경농업 교육, 농산물수확·농장 체험, 농촌자연학습, 체험학교, 바른 식생활캠프, 역사문화탐방, 전통체험, 농촌생활·문화 체험, 농업·지역산업 현장견학, 지역·마을축제, 행사개최,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등

④ 휴양·여가활동형

- 휴양·휴식이나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하여 행해지는 관광휴양 활동을 의미한다.
- 종류: 농촌관광, 관광농원, 주말농원, 실버농장, 농촌지역테마관광, 민박·펜션 운영, 낚시·등산·야영, MTB·ATV 등

<표 2-8> 도시민 설문조사를 위한 도농교류 유형의 분류

① 인적 교류	② 물적 교류	③ 교육·생활·문화체험	④ 휴양·여가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매결연 ○ 1사1촌 운동 ○ 연수, 강좌 개최 ○ 고향방문 행사 ○ 자원봉사, 일손 돕기 ○ 소식지 및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교류 ○ 귀농, 외지인 거주 ○ 제2고향 갖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 직거래 ○ 인터넷 농특산물 판매 ○ 농특산품, 공예품 판입 ○ 농업위탁경영, 계약재배 ○ 휴양단지, 별장 분양 ○ 농작물, 과수, 가축 분양 ○ 땅, 주택 매매 ○ 외지인 사업경영 및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농업 교육 ○ 농사·수확, 농장 체험 ○ 농촌자연학습, 체험학교 ○ 바른 식생활캠프 ○ 역사문화탐방, 전통체험 ○ 농촌생활·문화 체험 ○ 농업/지역산업 현장견학 ○ 지역·마을축제, 행사개최 ○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관광 ○ 관광농원 ○ 주말농원 ○ 실버농장 ○ 농촌지역테마관광 (보양, 여행..) ○ 민박, 펜션 운영 ○ 낚시, 등산, 야영 ○ MTB, ATV

2.2 도농교류에 대한 이론적 시각

도시와 농촌은 서로간에 상당한 연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상호 구분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도시-농촌 이분법설과 연속체설이 서로 맞서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논쟁에 대한 제3의 대안으로서 양자는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면서 존속하는 공생적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시각에 따르면 도시와 농촌은 서로 구분되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도시와 농촌이 서로 구분되면서 상호작용을 하지만, 공생적 관계로 이해하기 보다는 불평등과 착취적 관계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바로 종속론 또는 갈등론적 시각이다. 도농교류적인 시각은 바로 도시와 농촌이 갈등적 관계이기보다는 공생적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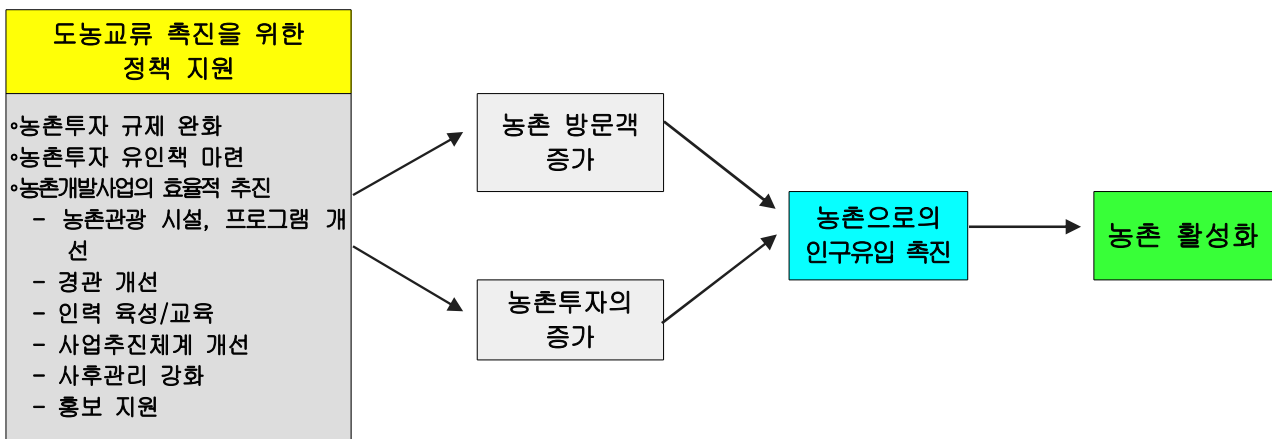
우리 나라에서 도농교류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근대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농촌은 도시민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필요한 인력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도시에서 만든 공산품을 소비하는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관계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농산물 가격지지에 중점을 두면서, 농업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농촌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 투자를 늘려나가는 것을 정책의 기본축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 나라도 WTO 체제에 편입되면서 정부가 농산물 가격을 지지할 수 없게 되면서 도농개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구상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저가의 외국농산물이 국내에 수입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업농과 같은 핵심 경영체가 영농규모를 원활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개선사업을 펼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소하는 농가의 소득을 보조하는 등의 수단으로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경제·사회적으로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사업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도농교류는 바로 도시민과 도시자본이 농촌에 유입됨으로써 농촌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도시민에게는 농산물, 관광·휴양 등의 소비를 통한 효용을 제공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서 각광받기에 이른 것이다.

농촌은 이제 전통적인 기능으로서 국민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것 외에 도시민에게 쾌적하고 조용한 쉼터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농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지라도, 농촌이라는 공간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전승하며 도시민을 포함한 온 국민에게 휴식과 휴양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고 체험, 레포츠, 레크리에이션 등 도시에서 얻기 어려운 다양하고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가치 있는 곳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도시민이 농촌에 와서 이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향유하는 가운데 농촌 주민들에게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를 통한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하여 농촌 소득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잦은 방문 자체가 인구밀도가 낮고 고령화율이 높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는 공익적인 의미도 갖는 것이다. 정부에서 도농교류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낙후되고 침

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에 대한 이론적 시각을 모델화하여 제시하면 (그림 2-6)과 같다. 정책은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세제에서부터 농지전용에 이르기까지 농촌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요인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금융과 공공 인프라 지원 등 투자 유인책을 마련하며, 농촌관광 및 농촌정비 등과 관련된 농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촌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고 농촌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은 높임으로써 농촌에 대한 자본투자의 증가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함께 농촌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아 농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림 2-6)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모델

2.3 도농교류 관련 연구동향

2.3.1 도농교류의 추진현황 :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고찰

도·농교류에 관한 자료는 ‘농촌과 도시의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이상배, 1995)’, ‘산지 직거래의 이론과 실제(권원달, 1991)’ 등이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은 교류의 유형, 직거래 실태 등 이론적인 교류내용과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례위주의 도·농교류를 소개하고는 있으나 실증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은 것으로 도·농 교류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나 농촌의 여건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국내 도·농 교류에 관한 연구는 크게 농촌관광과 자매결연 등의 교류를 대상으로 한 도시 농촌간의 교류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농촌관광 연구로는 농림부의 지원에 의한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 방향 및 방안(2003)’, ‘농촌관광 시설 및 서비스의 표준화와 등급화 방안(2003)’, ‘농촌관광프로그램개발(2003)’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관광의 전개를 위한 도시민의 관광수요와 농촌의 여건을 모두 조사하였으나 관광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되었기 때문에 교류를 지향하고는 있으나 농촌관광에 중점을 두고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과 시설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농촌관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은 파악할 수 있으나 교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양측의 요구와 여건, 구체적인 추진방식과 절차 등을 담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기존 농촌마을에서 관광을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정비 수단과 혼돈되는 마을의 기능과 농촌관광의 기능 등이 어떻게 공존하면서 농의소득을 올리고 교류를 지향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다루어진 측면이 있다.

자매결연 등의 교류에 관련된 연구는 농촌지역사회개발의 단위로서 교류에 관한 것과 초등 학교 체험학습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농촌지역사회개발을 위한 도·농간의 자매결연(장경곤, 1988)’, ‘도·농 지역사회단위 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이창수, 1995)’, ‘도·농교류 체험학습에 관한 학교구성원들의 의식과 문제점 분석(최원국, 2000)’ 등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실증적인 연구로서 몇 개 지역의 사례를 바탕으로 도·농간의 자매결연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방향과 함께 교류 유형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체험학습이 학습과정으로 인정되면서 농촌의 체험학습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 연구들은 실증적 접근이긴 하나 소수의 사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확대 해석하여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2.3.2 도농교류 촉진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김병률 외, 2000)”,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소·정 협력사업 2차년도 평가와 개선방안(김병률 외, 2001)” 연구를 통하여 농·소·정 협력사업의

수행에 대한 평가와 함께 민관협력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과 사업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농·소·정 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전반적인 절차와 내용을 조사하여 평가한 것으로, 특히 그린 투어리즘에 대한 국외의 동향을 소개하여 향후 사업의 방향과 정부의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농·소·정 협력사업이 시작된 이후 사업의 초기 평가를 통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주로 그 대상이 사업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에 제한되었으며, 교류를 위한 참여자로서의 성향이나 의향이 파악되지는 못하였다.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농촌 어메니티 형성방안(송미령, 2003)” 연구의 경우 농촌지역 활성화의 한 방식으로 도농교류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촌 어메니티를 도농교류의 중요한 기초자원으로 인식하여 농촌 어메니티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위한 분석 틀을 구축하고, 지역단위와 마을단위의 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과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그 분석 틀은 농촌 어메니티의 상품화, 농촌 어메니티 형성을 위한 관련 주체 및 그 역할, 규제 및 인센티브, 홍보 등 공공의 각종 지원이며, 이를 바탕으로 보성군과 신대리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주제가 농촌 어메니티 형성방안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도농교류의 필요성이나 개략적인 추진방향 정도만 언급되고, 구체적인 방법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위의 도농교류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면, 도농교류는 도시와 농촌의 현실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이며,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큰 기대효과로는 서로간의 공감대 형성과 상호 만족을 줄 수 있는데 이에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교류방식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농촌관광을 통한 도·농교류의 전개가 주된 접근이며, 교류를 위한 접근방식에 관한 연구 결과는 미약한 편이다. 따라서 유사한 연구들이 있으나 도·농 교류를 위한 사회적인 운동차원에서 양측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포괄적으로 파악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도·농 교류에 대한 양측의 기본적인 수요조사와 도·농교류의 확대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시급한 연구과제는 무엇인지, 도농교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수용체제의 정비, 도·농 교류조직에 관하여 기초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도농교류 관련 정책 및 사업 현황 분석

3.1 국내 도농교류 관련 정책

3.1.1 도농교류의 전개

도농교류가 농촌 관련 전문가와 정책가 및 일반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이유는, 이것이 낙후되고 침체된 농촌 또는 농산어촌에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굳이 도농교류라는 측면을 강조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던 도농교류 형태로는 등산, 낚시, 스키, 하이킹, 캠핑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취미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에서부터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 등과 같이 청소년 조직의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진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도농교류에서 강조하는 농촌관광과 가까운 형태로 이루어진 활동의 연원은 1970년대에 서울YMCA에 의해 이루어진 양곡은행의 밀쌀사업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 후에 1980년대에 들어와서 한살림, 정농회 등의 유기농 생산자 단체가 생겨나면서 소비자를 농촌 마을에 초청하는 도농교류사업, 즉 넓은 의미의 농촌관광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농촌관광과 도농교류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1980년대 중반부터 관광농원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농어촌구조개선정책의 틀 내에서 농촌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관광농원사업⁵⁾, 농어촌휴양단지사업, 농촌민박사업, 주말농원사업 등을 시행하였다.

관광농원사업은 2003년까지 551개소를 지정하여 지원하였으나 운영주체의 경영능력부족, 과도한 시설투자 등에 의한 부실경영, 프로그램이나 마케팅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외환위기와 같은 외부적인 충격과 내부 운영상의 문제가 겹쳐 부침을 겪은 후 현재에는 336개의 농원이 정상영업하고 있다. 민박마을은 1991년부터 시행되어 2002년말 현재 286개 마을을 조성, 2,971농가가 참여하여 연간 576천명이 내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도농교류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농·소·정 협력사업⁶⁾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1999년부터 “농·소·정 협력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는데, 도농교류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량을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며, 우리 농업·농촌, 농산물 홍보, 교육, 보존운동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농민과 소비자간 도농교류 활동을 정부가 재정·행정·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자발적인 도농교류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농교류의 의의와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업·농촌·환경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 것이었다.

5) 관광농원사업은 1984년부터 농림부에 의해 추진되어 왔다.

6) 2004년부터 ‘도·농교류협력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농촌관광을 권역 단위로 접근하여 농촌정비에 농촌관광의 개념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바로 2002년부터 농림부에 의해 도입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⁷⁾이다. 이 때에 도입된 농촌관광(rural tourism)은 유럽과 일본 등에서 사용해 온 용어인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⁸⁾이라는 이름이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이전에도 농촌관광과 관련하여 관광농원사업, 농어촌휴양단지사업, 민박마을사업 등이 있었지만, 이 사업을 도입하면서부터 비로소 마을 단위에서 농촌관광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이 도입될 당시에 행정자치부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에서 농촌관광과 관련된 사업들이 시도되고 있었다. 행정자치부의 아름답마을가꾸기사업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추진된 강원도의 새농어촌건설운동, 농협에 의해 추진된 팜스테이, 농촌진흥청에 의해 추진된 전통테마마을 등이 그 예다. 농림부에서는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통해서 농촌관광을 마을 단위에서 발전시키고 확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농림부에서는 2004년부터 수 개의 마을을 하나의 권역 단위로 하여 공모방식에 의해 상향식으로 추진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농촌관광이 사업내용의 하나로 도입되는 곳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농림부에서는 2004년에 농업기반공사에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여 도농교류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농촌관광에 대한 사항을 안내할 뿐만 아니라 1사1촌 운동과 같은 도시-농촌간의 자매결연을 안내하고, 도시자본의 농촌투자에 대한 안내 및 유치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농교류는 인적 자원의 교류에서부터 친환경농산물이나 지역 특산물과 같은 재화와 농촌 관광·휴양·체험 서비스는 물론 자본의 교류 또는 농촌 유입에 이르기까지 넓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2002년부터 마을단위 지역개발 사업을 농촌체험을 중심으로 한 농촌관광을 주요사업으로 하여 여러 부처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표 3-1 참조). 농촌관광마을과 관광농원의 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3-2>와 같다.

마을단위 농촌관광사업은 강원도 화천군 신대리, 경기도 포천 교동마을, 충남 서천 합전마을, 충남 홍성 문당리, 경기도 이천 울면 석산 2리 등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면서 소위 스타마을을 만들어 내었고 농촌관광,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넓혔으며 농민에게도 농촌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었다.

7)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은 공모에 의해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지역 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데, 이와 유사한 사업이 행정자치부에 의해 2000-2001년 사이에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된 바 있다.

8) 그린투어리즘이라는 용어는 프랑스에서부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바다를 중심으로 한 청색관광(blue tourism), 겨울철 스키를 중심으로 한 백색관광(white tourism)과 구분하여 농촌의 전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관광을 녹색관광(green tourism)으로 부른 데에서 연유하였다. 그린투어리즘 또는 녹색관광이라는 용어가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생겨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의미전달이 모호해질 수 있다고 보아 농림부에서는 “농촌관광”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표 3-1>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단위 농촌개발사업

사업명	주관부처	'03 현재 마을수	사업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림부	44개	2억
전통테마마을	농진청	27개	2억
어촌체험마을	해양수산부	19개	5억
아름마을가꾸기	행정자치부	23개	10억이상*
생태우수마을	환경부	29개	직접지원없음**

* 아름답마을가꾸기는 2002년, 2003년 시행하였고 이후는 시행하지 않음.

** 생태우수마을은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이 없으나 환경보전시설, 생태관광시설 등을 지원하는 혜택이 있음.

<표 3-2> 농촌관광마을 및 관광농원의 도별 현황 (2004년 추진 중인 지구 포함)

구분	계	특별·광역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954	40	82	137	65	112	93	140	129	113	43
소계	192	13	19	29	12	22	21	23	20	21	12
녹색농촌체험마을	76	1	7	15	6	10	10	6	10	7	4
농촌전통테마마을	45	1	5	7	3	7	4	7	5	4	2
아름마을	23	5	2	2	2	2	2	2	2	2	2
어촌체험마을	19	2	2	2	-	1	2	3	2	3	2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복원우수마을	29	4	3	3	1	2	3	5	1	5	2
소계	426	26	46	56	26	50	48	52	69	44	9
팜스테이	124	8	15	12	5	12	13	19	20	18	2
정보화마을	184	18	20	22	10	23	17	20	32	15	7
산촌종합개발	118	-	11	22	11	15	18	13	17	11	-
관광농원	336	1	17	52	27	40	24	65	40	48	22

3.1.2 도농교류에 대한 법적 검토

도농교류가 농촌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도농교류를 통해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물리적 공간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음이 충분히 논의되었으며, 이에 정부에서도 도농교류 촉진 내용을 입법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도농교류와 관련된 법적 내용을 검토한 내용은 <표 3-3>과 같다.

「국토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도시 및 농산어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것을 명시하는 정도이고, 특히 「삶의질특별법」 제1장에서 도농교류 관련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삶의질특별법」 제 1장 5조에서 5년마다 농산어촌지역개발계획 수립시 농산어촌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것을, 제 35조에서는 교류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교류시책으로서 농산어촌 관광개발, 도농간 자매결연, 농산어촌 체험 등을 다루고 있다. 제 36조는 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규제를 완화할 것과 시설 투자비용의 일부 지원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제 37조에서는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여 도농간의 교류확대 및 투자유치 활성화 업무를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농산어촌의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도 도농교류사업 지원이 가능함을 동법 제40조에서 언급하고 있다.

「농지법시행령」 제 2장에서는 1,500㎡미만의 농원부지나 농지에 대해 도농교류 관련 개발시 지원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법적 내용들에서 도농교류를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삶의 질 특별법에서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과 지원내용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시책 내용이 거의 농촌관광에 관련된 것이어서 보다 폭넓게 도농교류의 내용이나 방법을 다루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도농교류센터에 관한 조항에서도 센터의 구체적 업무 내용이나 도농교류 지원내용 및 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3-3> 도농교류 촉진 관련법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중점사항
<p>국 토 기 본 법 제 1장</p>	<p>제3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이 특성에 따라 개성있게 발전하고, 자립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토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하고, 생활여건이 현저히 뒤떨어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간의 화합과 공동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간 교류촉진 및 지원
<p>농 립 어 업 인 의 삶 의 질 향 상 및 농 산 어 촌 지 역 개 발 촉 진 에 관 한 특 별 법 제 1장</p>	<p>제2조 이 법은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산어촌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5조 ①정부는 농림어업인들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7항.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제35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과 농산어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농산어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산어촌 관광자원의 개발 2. 농산어촌 관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농산어촌 관광과 친환경농림어업의 연계 4. 농산어촌 관광마을의 육성 5. 도시지역 주민과 농산어촌 주민간의 자매결연 6. 도시지역 주민의 농림어업·농산어촌 체험 장려 제36조 (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에 투자되는 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교육연수시설·산림휴양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에 대해 도로·용수 및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 (도·농 교류센터의 설치·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및 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농 교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농업소득이 낮은 농산어촌(이하 "조건불리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건불리지역의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경관보전활동, 농산어촌관광,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등 지역활성화를 위해 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증진 ▪ 농산어촌지역개발수립에 도농교류 촉진사항 포함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책 명시 ▪ 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 도농교류센터 설치 운영의 지원 ▪ 조건불리지역의 도농교류사업 지원
<p>농 지 법 시행령 제2장</p>	<p>제5조 ①법 제6조제2항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천 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라 함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 24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호의 데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도·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2.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②개인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 면적의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0㎡미만인 농원부지의 도농교류 관련 개발시 지원

3.1.3 도농교류 관련 정책 및 사업의 특징과 시사점

도농교류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농림부를 비롯하여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이들 부처는 지방자치단체와 일정한 역할 분담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 부처간 조정 기능은 미약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각 부처의 특성을 사업에 반영하므로 내용과 강조점이 약간씩 서로 다르지만, 농촌 주민의 입장에서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서 도농교류와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거나 거의 동일한 사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사업의 내용과 추진방법이 유사한 사업은 공동의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을 수행하여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는 등 부처간 협력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농교류 지원 사업이 시·군이나 읍·면과 같은 지역의 관광 자원과 아직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농촌관광 자원을 조사하여 평가하고,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마을 단위 농촌관광 또는 도농교류 사업을 추진할 때에 시·군 또는 읍·면 단위에서의 마을간 관광 관련 정보를 네트워크화하고 상호 연계하여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관련 사업이 아직 대부분 도입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정부에서는 지원 당시에만 개입할 뿐, 지원 이후에 사업을 사후관리하는 노력이 미흡하다.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3.2 외국의 도농교류 현황 및 특성

3.2.1 농촌관광 등장배경과 주요 내용

어느 나라나 농촌관광이 도시민의 여가 수요를 충족시키고 농촌에 소득 기회 및 고용기회와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 보전에 기여하는 형태로 발전한 특성을 갖고 있지만, 나라에 따라서 발달 시기와 강조점이 다른 특징이 있다(<표 3-4> 참조). 유럽 국가 중에서 프랑스는 2차대전 이후에 그린투어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농촌관광이 시작되어 상당히 일찍 시작된 나라에 속하는데, 일반 도시민이 값이 비싼 바캉스를 대체하여 농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서 출발하였다. 독일은 1960년대 후반에 농촌관광이 시작되었는데, 농외소득 향상과 이농 역제가 주목적이었다. 영국은 1970년대에 본격화되었으며, 농촌의 자연·경관 유지, 보전과 농가의 경영 다각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일본은 1980년대에 본격화되었으며, 전 국민에게 농촌에서 즐기는 여유 있는 휴가를 보급하고 농촌지역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한편, 유럽이나 일본 등 여러 나라의 농촌관광 발전과정을 보면, 대체로 몇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통적인 발전단계는 대개 ① 시장형성 초기 단계와 ② 양적 성장기 및 ③ 질적 성장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에 EU는 1990년대 초반에 이미 질적 성장기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일본은 2000년 초에 양적 성장기에 접어들었으며, 우리나라는 아직 양적 성장기에 들어서지 못하고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표 3-5> 참조).

<표 3-4> 외국의 농촌관광 등장배경과 주요 내용

구분	등장배경과 주요 목적	주요 관련조직	주요 행정지원 및 추진사업
독일	·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으며 농외소득 향상과 이농 방지가 주요 목적	· 정보서비스협회(AID) · 독일농업협회(DLG) · 독일농민연맹·농업신용은행	· ‘농가에서 휴가를’사업 · 농업투자지원프로그램(AFP)
프랑스	· 제2차대전 이후 농촌의 고건축 및 문화를 지키려는 사회적 수요와 국민적 바캉스 수요 대응의 일환	· 레지옹/데파르트망/품문등 · 지트 드 프랑스, 농업회의소 및 농협의 농가로의 확대 네트워크, 농촌민박네트워크 등	· CPER사업(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 관광관련업무의 조직화, 개발, 코디네이터 역할
영국	· 1970년대에 본격화되었으며 농촌의 자연·경관 유지, 보전과 농가 경영다각화에 초점	· 농장휴가협회 · 환경 및 농어업식량부 · 국가여행국	· 농가민박사업 · 농장경영다각화 사업 · 미이용건축보조사업 · 농지임지화사업/농지임지화프리미엄사업 · 농장관광활성화사업
일본	· 1980년대 본격화되었으며 국민 전체에게 농촌에서 즐기는 여유 있는 휴가보급 및 농촌지역 활성화수단으로 인식	· 농림수산성 · 자치단체(현, 시정촌)	· 시설설치지원사업 · 소프트사업 · 제도 및 규제완화 · 농림어업체험민박등록제도

자료 : 농림부(2002),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개발모형 정립과 실용화 방안. p. 19.

<표 3-5> 농촌관광시장의 발전단계별 특징

농촌관광 여건	농촌관광시장의 발전단계		
	시장형성 초기	양적 성장기	질적 발전기
농업·농촌정책	○농업정책(시장접근)의 후퇴 ○지역사회활성화를 위한 고용유지기능 강조	○농업정책에서 농촌개발정책으로의 이동	○농촌개발정책의 강화와 각종정책간 조율(농업, 농촌, 지역, 환경, 관광 정책 등)
수요여건	○여가시간의 부족 ○정보의 부재 ○농촌지역 접근성의 미비	○여가시간의 확대 ○정보통신수단의 발전 ○농촌지역 접근성의 향상	○타 부문 관광과의 경쟁대두 ○농촌관광의 진정성 추구
공급여건	○농촌관광자원의 비조직화(분산성) ○농촌관광상품 개발주체의 미비	○시장참여자 그룹의 확산 ○농촌관광 공급자 조직의 네트워크화	○네트워크화된 공급자 그룹을 중심으로 브랜드화 ○품질관리시스템의 도입과 고품질화
정책적 접근	○농외소득 개발 ○고용유지	○지역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시장의 조직화 ○수요·공급 양측면에서의 시장활성화촉진 및 추진기구마련	○농촌관광의 고부가가치화, 품질화 ○행정적 단위에서 역사, 문화적 단위에서의 농촌관광의 추진
국가별 발전단계	○한국(2000년대 초 양적 성장 진입 전 단계)	○일본(2000년 초 양적 성장 진입단계)	○유럽(90년대 초반 이후)

※ 자료 : 지역아카데미, Agroinfo issue No.1 /www.agroinfo.net.

3.2.2 국가별 사례와 특성

1) 영국

가) 농촌관광의 기원과 전개

농촌관광의 한 형태로서 농가 민박사업은 '60년대 당시 농산물 과잉으로 농가 소득이 줄게 되자 일부 농가에서 경영 다각화의 일환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오늘날과 같은 농촌관광이 시작된 것은 197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도시민들의 여가수요를 흡수함으로써 상당한 성장 산업으로 부각하였으며, 농촌관광은 '83년 정부 지원에 의하여 농가휴가협회(Farm Holiday Bureau)가 설립되면서 자리잡았다.

농촌관광이란 B&B⁹⁾ 형의 숙박요식업, 농특산물을 직판하는 유통업, 농장에 방문하여 승마나 래프팅 등을 체험하는 활동 등을 포함하며,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농가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농촌관광은 별도의 독립된 법률 없이 농업·농촌정책의 범주 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영국 농촌관광 정책은 EU정책의 변화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1) 제1단계

공동농업정책(CAP)이 담당하는 농업부문과 지역정책이 포괄하는 비농업적 지역발전의 두 가지 정책으로 나누어져 있던 단계이다. 공동농업정책이 농업활동의 지원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촌관광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농민 혹은 비농민에 상관없이 지역정책을 통해 이루어졌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2) 제 2단계

구조기금의 개혁을 통해서 EU의 각 지역의 5개의 목표 지역으로 구분되고 각기 특성에 따라서 EU의 세 가지 구조기금(ERDF, ESF and EAGGF Guidance Section)이 통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구조기금 개혁을 통해서 각 회원국가가 농업정책을 통해서 농민의 다각적인 활동(비농업활동 포함)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영국에서도 1988년 농장다각화사업 지원대책(Farm Diversification Grant) 또는 목표 5b정책(Objective 5b policy)에 따른 농촌발전정책의 일환으로 농장다각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농업 부문 예산을 통한 농장관광에 대한 지원이 실시되었다. 2000년까지 시행된 이러한 정책은 농가, 비농가에 대한 지원이 산업 부문별로 분리된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분리된 정책 예산의 지원체계는 통합적인 지역발전의 추진을 지원하는데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Agenda 2000 개혁에서 대폭적인 변화를 갖게 된다.

(3) 제 3단계

공동농업정책이 농촌발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에 시장 전체에 사용되던 EAGGF의 Guarantee Section을 농촌발전정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화된 시기이다.

Agenda 2000 개혁에 의해 각 회원국들은 통합적인 농촌발전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하였고, 영국은 기존의 모든 농촌발전 관련 조치들을 통합해서 지역별로 수행하는 농촌발전 프로그램

9) 숙박 서비스와 아침식사 제공을 주 내용으로 하는 bed and breakfast의 약칭임.

(ERDP)을 수립하였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 기존에 농촌관광 사업에 대해 별도로 지원되던 것이 '농촌기업지원대책 (Rural Enterprises Scheme)'으로 통합되었으며, 이를 보조하기 위한 정책으로 '직업훈련대책(Vocational Training Scheme)'을 실시하고 있다. 농촌기업지원대책은 DEFRA에서 농촌발전 프로그램을 전담하게 되면서 각 지역에서 실시될 개별 사업들을 통칭하는 것에 불과하고 각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의 지방 사무소, 지방 정부, 정부관련 공공단체, 민간 단체 등이 협력해서 다양한 형태의 농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 즉 농장관광업, 농촌관광업, 식품 등 기타제조업, 운송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나) 농촌관광 관련 농촌개발 정책

영국의 농촌개발계획은 유럽연합의 농촌개발규정(EC Regulation 1257 /1999)에 의해 공동농업 정책의 지원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농림업 종사자들이 농업, 농촌에 대한 소비자들의 변화된 요구에 보다 잘 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7년간(2000~2006) 16억 파운드를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ERDP의 각종 대책은 토지이용과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토지이용방식 개선지원 대책(Land-based Schemes)과 농촌지역 내에서의 개별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Project-based schemes)으로 구분된다.

(1) 토지 중심 대책(Land-based schemes)

토지중심 또는 농업환경 대책(Land-based or agri-environment schemes) 이라고도 불리는 이 정책은 농업인이 농지이용 상의 환경적 측면을 개선하는 데 따르는 소득손실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시책들로 구성되어 있다. 농지이용의 환경적, 문화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 대책은 농촌 어메니티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이 자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 향상을 통해 어메니티 자원의 이용을 촉진시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농업환경 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표 3-6> 참조).

(가) 전원관리대책(CSS)

CSS는 농민들과 기타 토지관리자들로 하여금 영국의 경관, 야생동식물, 역사유적을 보호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한편, 일반인들이 이러한 것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이다. CSS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경관보존정책으로서 장려금 지급을 통해 경관의 자연미와 다양성을 향상시키고, 지정된 지역의 경관과 그곳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의 다양성, 역사적 특징 등을 보존·증대시키는 한편, 이들 지역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농민 또는 농지관리자는 10년 계약을 통해 장려금을 지급받는다. 장려금 지급은 경관보존을 위해 필요한 활동의 유형과 활동량에 따른다. 사업대상은 농민이나 농업을 영위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 또는 관리인, 자발적 단체, 또는 지방정부, 지역사회 단체 등이다.

<표 3-6> 농지이용 중심 대책의 종류 및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전원관리대책 (Countryside Stewardship Scheme)	목표로 설정된 경관들을 보호하고 야생종 서식지와 역사유물들을 보전하는 한편 일반인들의 이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에너지작물대책 (Energy Crops Scheme)	난방용이나 전기생산에 쓰이는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관목 등)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환경보전지역대책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특정지역의 경관과 야생종 및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22개 지역에서 적절한 농업관행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농가조림지원대책 (Farm Woodland Premium Scheme)	농가의 조림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산촌농가지원대책 (Hill Farm Allowance Scheme)	중산간 지역의 사회적 망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유기농업대책 (Organic Farming Scheme)	유기농산물의 생산장려를 통해 토질과 토양의 생물학적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조림지원대책 (Woodland Grant Scheme)	농가의 조림사업지원 및 조림지의 부가가치 창출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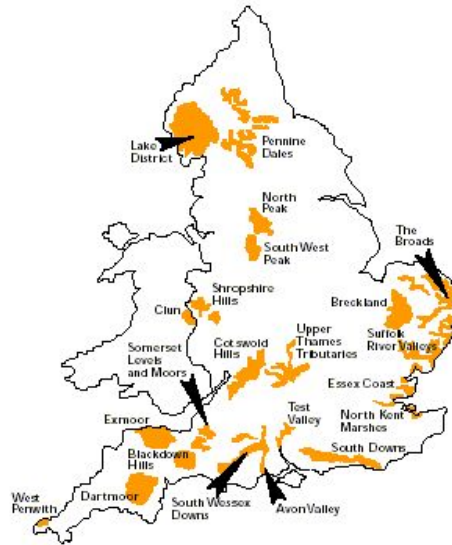
(나) 환경보전지역대책(ESA)

ESA는 1987년에 도입된 정책으로서 농민들이 경관과 야생동식물, 역사적 가치가 특별히 중요한 지역을 보존할 수 있는 농법을 채택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현재 영국(잉글랜드)에는 22개 ESA 지역이 4단계에 걸쳐 지정되어 있으며, 농지면적의 10%가 이에 해당된다(<표 3-7> 참조).

<표 3-7> ESA 현황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ESA 프로그램수	7,384	8,198	9,201	9,950	10,323	10,915
ESA 지정면적(ha)	424,567	433,637	469,121	501,255	523,545	532,000

ESA 계획은 이들 지역의 경관적, 역사적 또는 환경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한편 이들 지역에 대한 도시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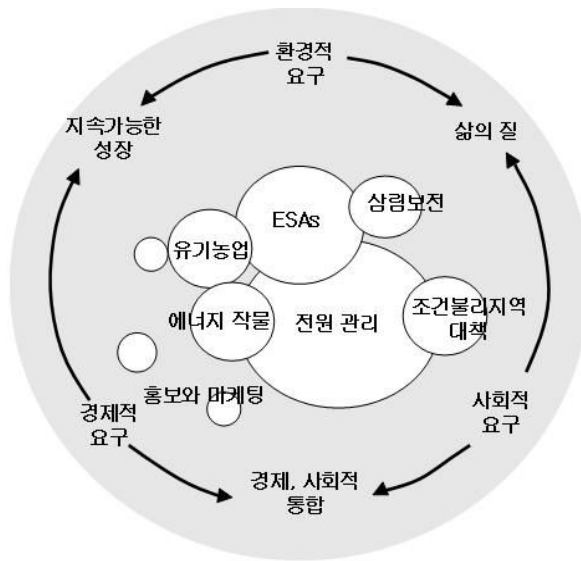


(그림 3-1) 영국 ERDP 상의 ESA Scheme 대상지역

농민들이 관리하는 ESA는 경관적으로 뛰어난 지역(wetland, moor, coastal marsh, river valleys)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지역은 희귀식물(orchids, cornflower)을 보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산지 종(brown hare, otter, water vole)의 회복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지역들이다. 영국 DEFRA(환경식품농촌부)는 이들 지역의 농민들과 10년간의 관리협약을 체결하며, 농민들은 이 계획에 포함된 농지에 대해 ha 당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다. 규정에 따라 ESA에 편입된 농지는 일반인들에 대한 접근권이 새롭게 허용될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정책수혜대상은 22개 ESA에 포함된 농민이나 농지관리자로서 ESA 대책의 의무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자(농민, 농지소유자, 임차농 등)로서 해당농지는 반드시 농업 목적으로 이용되는 땅이어야 하며, 전업 또는 겸업이 가능하다.

(다) 접근성 향상 정책

CSS와 ESA 모두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이 증대될 농촌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고려한 시책을 갖고 있다. 시민접근성(public access)은 CSS의 필요조건은 아니나 CSS를 통해 창출된 환경적 편익을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로 기존에 접근성에 문제가 없는 지역이나 인근에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새로운 접근로를 개설하도록 추진한다.



(그림 3-2) 접근성 향상을 통한 경제, 사회, 환경적 요구의 충족 과정

(2) 프로젝트 중심 대책(Project-based schemes)

Project-based schemes는 토지의 특정한 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농촌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주로 농촌지역에서의 고용창출 활동과 관련이 있다(<표 3-8> 참조).

<표 3-8> 프로젝트 중심 대책의 종류 및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가공 및 유통 지원시책 (Processing and Marketing Grant)	영국 농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프로그램
농촌기업지원시책 (Rural Enterprise Scheme)	농촌지역의 비즈니스 활동 지원 프로그램
직업훈련시책 (Vocational Training Scheme)	농림업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프로그램

이 중에서 농촌기업지원대책(RES: Rural Enterprise Scheme)은 영국의 '농촌개발프로그램(ERDP)'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사업으로서 영국 정부가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종류의 비즈니스들에 대해 RES를 통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 다양화,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RES를 통해 농촌 지역사회를 더욱 더 지속가능하고 다양하게 가꾸기 위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RES가 지원하는 사업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우선적인 목적은 농민들이 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농민들의 수익사업 외에도 농촌 지역사회의 경제, 문화, 환경 등의 측면에서 개발을 도모하는 사업분야에도

지원하고 있다(<표 3-9> 참조).

RES는 구체적인 상업적 이익을 거두기 위해 계획된 사업에서부터 농촌 지역사회에 사회적, 환경적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음. RES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들은 모두 EU가 규정하고 있는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영국 DEFRA는 이처럼 농촌 지역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지원하면서 지나치게 규제적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RES의 지원을 받는 사업들은 농촌지역 내 다양한 단체들의 협동적인 계획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표 3-9> Rural Enterprises Scheme이 지원하는 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농장경영 및 농업경영체에 대한 서비스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 창업 · 농업경영체 노동력 확보 · 농업기계화 · 우유수집 · 농장경영 컨설팅 · 농정회계 서비스
고품질농산물 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품질 향상 계획 · 고품질 농산물 마케팅을 위한 협동조합 등 농민 조직화 사업 · 유기농산물 마케팅 ·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품질보증 · 토속요리 개발 · 파머스마켓 설립 · 농촌지역 농특산물 브랜드화 사업
농촌 주민들에 대한 기초 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내 미니버스 운영 사업 · 아동보육사업 · 정보센터 설립 · 기타 농촌지역의 기초 인프라 확충 사업
농촌마을 리노베이션 및 역사문화유적 보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수공예 산업 육성 · 마을 박물관 건립 · 역사유적지나 문화경관에의 접근성 증대를 위한 도로 정비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건축물의 개보수
농업경영 다각화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품 농산물 생산 및 마케팅 · 농외소득을 위해 농업용 건축물을 개보수하는 계획(예: 농촌관광 시설)
농업용수 개발 및 관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수시설 건설 · 수자원 관리용 장비 확충
관광 및 수공예 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관광 사업 · 농촌관광 상품 마케팅 · 농촌 숙박시설 개선 · 농업관광 시설 투자 · 농촌 수공예품 마케팅
농업개발을 위한 인프라 개선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로 건설 또는 정비 · 지역 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
농림업 관련 환경보호 사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림사업 · 동물보건 개선 사업

다) 농촌관광 추진체계

영국은 기존의 영국관광위원회(ETC: English Tourist Council)의 기능을 2003년에 흡수통합한 영국관광사무국(BTA: British Tourist Authority)이라는 정부산하 기구를 통해 농촌관광을 포함한 전체 관광부문에 대한 공공적 개입을 하고 있다. BTA는 영국 전역에 걸쳐 지역별로 조직되어 있으며, ① 관광 관련 정보수집 및 전파, ② 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 ③ 관광 관련 인적 자원 개발, ④ 해외 수요층에 대한 영국 관광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각 기능별 세부 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관련 정보수집 및 전파를 위해서 ㉠ 주기적인 소비자 수요 패턴 조사를 실시하고, ㉡ 축적된 연구결과나 정보들을 관광 부문 민간단체나 기업들에 전파함으로써 관광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며, ㉢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대중들에게 관광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 영국내각의 유관부처(환경식품농촌부, 문화매체 체육부 등)에 정책자문과 연구 지원을 하고 있다.

둘째, 관광 서비스 품질 향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관광 품질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숙박시설, 관광 매력물, 관광지 등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캠핑장, 호텔, 농촌민박, 유스호스텔 등 22,000여 개에 달하는 영국 내 거의 모든 숙박시설에 대한 품질등급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BTA는 RAC(Royal Automobile Club), AA(Automobile Association)와 같은 민간조직이 자발적으로 수행해 오던 등급화 업무에 개입하여 민간과 공통된 등급화 기준을 마련한 후 공통 기준에 의해 각 기관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셋째, 관광부문 인간자원 개발 분야에서는 자체적으로 'Welcome Host'라는 교육훈련 과정을 개설, 민간부문 조직에 아웃소싱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리고 지금은 'Institute of Tourist Guiding'이라는 국가적인 차원의 표준화된 기준을 토대로 관광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넷째, 해외에 대한 영국 관광 홍보 분야에서는 다양한 민간 부문 기업들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2) 프랑스

가) 농촌관광의 기원

제1차 경제5개년계획에 의하여 2차대전 중에 황폐해진 농촌부의 소규모 호텔의 부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1949년에 「로지-드-프랑스」라는 이름의 전국 네트워크 조직(비영리단체)이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1952년 알프-드-오토프로방스 주 의원의 제창에 의해 임대별장형 민박(지트-류랄)이 탄생했다. 지트(gite)란 “보금자리, 거처”의 의미이고 고급스런 임대별장의 의미는 아니다. 값싼 요금으로 장기휴가를 지낼 수 있는 임대별장형 민박(지트-류랄)의 경영자들이 1955년에 지트-류랄-드-프랑스라는 비영리 네트워크 조직을 설립했다. 이것이 후에 유럽 최대의 민박 네트워크인 지트-드-프랑스 전국연맹이다.

지트-류랄-드-프랑스는 제2차 경제5개년계획에서 농촌부의 주거 수리 복원을 추진, 장려하는 사업을 수행토록 역할이 부여되었다. 농림부는 1955년부터 농가가 민박을 경영하는 것을 장려하여 보조금을 지급했다. 민박 지원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농가에 부수입 기회 제공
- 도시로 인구유출에 의해 빈집이 된 농촌의 가옥이 폐옥이 되는 것을 방지. 즉, 농촌의 향토 자산으로서 민가를 보존함
- 도시주민이 농촌에서 장기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저렴한 숙박시설을 창설

나) 농촌관광정책의 세부내용

(1) 중앙 부처

프랑스는 중앙정부차원에서 농촌관광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농림부가 주로 농업경영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농촌관광과 관련 사업들을 지원하며, 지역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정비청은 국가지역개발 계약 차원에서 각 지역의 관광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하드웨어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관광부는 CPER 계획 차원에서 농촌관광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광관련 민간협회를 통해 농촌지역의 관광자원 조직화와 상품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아름다운 마을 계획’ 등 농촌어메니티 자원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표 3-10> 참조).

<표 3-10> 프랑스 중앙부처의 농촌관광 추진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농림부	-1999년 신 농업기본법하의 경영영토계약(CTE)를 통해 농업경영체의 농촌관광사업을 지원 -EU의 LEADER 프로그램을 비롯한 농촌개발 관련 정책(PNDR)을 주관 -농림부 주관 하에 있는 농업교육분야에서 문화부와 공동으로 농업교육분야에서의 문화 예술영역을 강화하고 있음
국토정비청 (DATAR)	-국가·지역개발계약(CPER)을 통해 각 지역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계획 가운데 지역의 관광잠재력 개발계획 등을 지원(하드웨어 지원) -‘국토의 지속적 개발과 정비를 위한 기본법(1999.6.25)’을 바탕으로 관광분야를 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적 접근을 위한 중요한 분야로 설정하여 농촌지역의 숙박시설개발, 관광관련 소기업 지원, 농촌지역에서의 지속적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음
환경부	-지역자연공원과 녹색공간 또는 아름다운 마을 계획등을 통해 농촌지역에서의 관광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관광부	-CPER 계획차원에서 농촌관광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1994~1999년 지역개발계획의 경우 농촌관광분야에 대한 지원규모가 국가가 17.53백 만유로, 지역이 19.06백만 유로를 지원했음(여기에 숙박시설과 관광상품개발, 자연 및 문화장소의 상품화에 투입된 자금은 제외됨) -이밖에도 프랑스 관광부는 관광관련 민간협회를 통해 농촌지역의 관광자원의 조직 화와 상품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함

(2) 부처간 상설 협의체

(가) CIDAR

1994년 6월에 설립된 농림부, 환경부, 관광부, 국토정비청 등 관련 부처간 협의기구 CIDAR을 통해 농촌관광 개별문제를 범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 기구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개발 관련시책을 조율한다.

(나) 농촌관광상설회의

1998년부터는 농촌관광 관련단체와 농림부, 국토정비청, 관광부, 환경부 등이 주축이 돼 농촌관광 개발을 위한 '농촌관광상설회의'라는 상설 협의체가 조직되어 2001년 5월 이후 활동에 들어가 농촌관광에 대해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범 정부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농촌관광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농촌관련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각 부처의 관련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

프랑스에서는 농촌관광만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중앙정부의 독립된 시책은 없으나 관광진흥과 농업경영 차원에서 농촌관광에 대한 지원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농촌의 개발과 활성화, 국민복지로서의 여가활동 충실,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일, 고용창출의 수단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지원을 하며 이러한 지원이 농촌관광 활성화에도 이어지는 형태이다. 다만 개인이 민박을 경영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는 갖추어져 있다.

프랑스의 농촌관광 개발에 대한 행정 지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국가: 지방분권화 정책에 의해 농촌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토정비 정책을 통해서 농촌관광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국가가 농촌관광 지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주로 기획, 홍보, 연수 및 교육, 호텔 등 숙박시설, 농촌의 문화재 등의 분야이다.

② 지방자치단체: 지방권, 도, 시, 읍, 면은 지방세와 국가교부금을 사용해서 개별 관련 정책별로 농촌관광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③ EU: 구조정책에 따라서나 LEADER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공동체솔선프로그램(PIC)의 틀 안에서 농촌관광을 지원하고 있다.

투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규모는 농촌관광 사업별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큰 부담을 하고 있는 곳은 도이고, 그 다음으로 시·읍·면과 지방권, 마지막으로 정부와 EU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표 3-11> 참조).

<표 3-11> 프랑스의 농촌관광 진흥을 위한 행정지원 역할분담 현황

지원 내용	시·읍·면	도	지방권	국가	EU
관광객의 수용	★★★	★			
행사, 축제 등	★★★	★★	★		
운영	★★	★			
판매	★★	★★★	★		
홍보	★★	★★	★★★	★★★	★
투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	★★★	★★	★	★
연수		★	★★★	★★★	
자문		★	★★	★★	
조사, 연구		★	★★	★★★★	
조정	★	★	★	★★	
기획		★	★★	★★★	★
제도개선	★			★★★	★★

자료: (사)21세기 무라즈쿠리塾, 2000. 3. 프랑스에 있어서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행정지원에 관한 조사 보고서.

한편, 프랑스는 농촌관광 육성을 위해 1988년 농업적응법을 마련해 농가의 관광객 숙박수입을 농업활동과 동일한 형태의 수입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사회보장 납부금 산정시 이를 반영하는 등 관광활동을 수행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농촌관광사업을 하는 농가를 포함한 농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시책을 살펴보면 <표 3-12>와 같다. 지원내용을 보면, 세계상의 혜택과 투자비용에 대한 보조 및 용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계약을 통한 관광 및 지역개발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농촌관광과 관련된 조직

프랑스의 농촌관광은 농장에 기반을 둔 ‘농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bienvenue a la Ferme), 농민적 삶을 관광상품으로 차별화한 농민적 접대(Accueil Paysan), 농촌지역의 일반 숙박시설인 ‘프랑스민박’(Gites de France) 등이 3대 농촌관광 공급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표 3-13> 참조). 이들 대표적인 3대 공급자 조직 외에도 가족휴가촌협회, 농촌소규모 호텔 연합인 롯지 전국동맹, 각종 식당업과 관련되는 공동 상표 조직 등이 있다.

<표 3-12> 농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시책

구분	지원시책
농업적응법 (19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제상의 우대(사회보험료 우대) · 농가의 관광객 숙박수입을 농업활동과 동일한 형태의 수입으로 인정함 · 관광활동과 관련된 수입이 15만 프랑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금부과를 50% 감면 · 관광관련 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농가의 전체 매출액의 30%를 초과하지 않거나 또는 20만 프랑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농업수익에 관광관련 수입을 함께 계상 -청년농업교부금(DJA) -시설개선을 위한 저리융자(PAM) 지원액 금액은 농가당 2인에 한해 1인당 최대 47만 프랑까지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음
국가와 자치단체의 계약 체결(CPER)에 의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숙박시설의 질과 상품화를 개선함 -관광경영의 전략수단을 조직화 하고 실현함 -관광산업을 시장의 변화에 맞춤 -모든 국민이 바캉스를 보낼 수 있도록 함 -지속적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을 수행

<표 3-13> 프랑스의 농촌관광 주요 공급 네트워크

구분	주요내용
농촌민박 (Accueil Paysan)	관광 경영주의 소득보다는 도시민과의 교류, 농촌성(rurality)의 회복 등을 강조하는 농촌민박 네트워크는 63개 데파르트망에 걸쳐 소규모로 운영됨
농가로의 환대 (bienvenue a la Fer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회의소 및 농협 등에서 중심이 되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농가만이 가입할 수 있다. -회원으로 3,000여명의 회원이 확보되어 있음
프랑스민박 (Federation Nationale des Gites de Fr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 최대 농촌공급 공급자 조직 -약 5만 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그중 농가는 약 40%임

농촌진흥관광센터는 상기 관련 조직들과 22개 지역권(레지옹) 관광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하고, 관광부, 농업부, 유럽연합의 보조금으로 조사 및 연구활동, 관련 조직간 정보교환 및 정책제안 활동 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프랑스의 농촌관광은 지방행정체계인 코뮌-도-지역 단위의 관광위원회가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내용과 'Pays'라는 역사문화적 단위에서 관광자원을 조직화하기 위한 추진체계가 혼재되어 있다(<표 3-14> 참조).

<표 3-14> 프랑스 농촌관광 추진체계

지역 단위	추진단위	주요 추진 기구
코뮌	브랜드화된 농촌관광 숙박시설 네트워크	-전국농촌관광숙소협회 -농업회의소 -농민적 휴양시설 협회 -프랑스-클레바캉스 임대 전국협회
	녹색바캉스 장소 및 설촌	-관광객들에 대한接客, 숙박, 급식, 서비스, 이벤트 활동 조직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관광자원의 질이 우수한 농촌코뮌
	관광사무소	-지역정보, 관광상품 상품화, 관광객接客
Pays 단위 행정구역 외	Pays d'Accueil Touristique	-Pays 단위에서의 관광자원조직화 -관광관련 지방부처, 협회, 민간 에이전트에 대해 교육과 협동화 조직 -지역의 자연 및 문화자원 상품화
	지역자연공원	-지역의 자연자원 보고 -환경자원의 개발 -지역의 자연 및 문화자원의 상품화
도	도관광위원회	-도의 관광관련 활동의 조직화 및 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관광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관광시설의 개발
	예약시스템 서비스	-도의 모든 관광상품을 취합 -관광수요에 대한 정보 서비스
	농림부 도 농업국	-CTE 정책 등 농촌관광 관련 사업 추진 -농업회의소 등 농촌관광관련 기구에 대한 지원
지역	지역의회의 관광위원회	-지역단위에서의 관광관련 활동의 조직화와 협력체계 구축
	프랑스 관광부의 지역 사무소	-지역단위에서의 관광정책 추진 -농림부 지역사무소 및 도 농업국과의 농촌관광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관광개발 프로젝트 추진과 분석
	농림부의 지역사무국	-지역차원에서의농업, 농촌관광 관련 기관들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프로젝트의 추진과 분석

참고: Pays 단위에서의 농촌관광 추진(Pays d'Accueil Touristique)

3) 일본

가) 도농교류 정책의 추진과정

일본 농림수산성과 그 밖의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와 관련하여 추진한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농림수산성의 농촌관광정책

- 1992. 4: 농림수산성에 '그린·투어리즘 연구회' 설치
- 1992. 6: 「새로운 식료·농업·농촌정책의 방향」에서 정책용어로서 "그린·투어리즘"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됨.

- 그린·투어리즘은 농촌지역정책, 지역토지이용정책, 지역산업진흥, 도시·농촌교류, 인재육성, 교육 등 다양한 관점에서 효과적인 시책으로 자리매김함
- 1992. 7 : ‘그린·투어리즘 연구회’의 중간보고 발표
 - 그린·투어리즘이란 “녹지가 풍부한 농산어촌지역에서 자연·문화·사람들과의 교류를 즐기는 체재형 여가활동”이며, 다른 말로는 “농촌에서 즐기는 여유있는 휴가”로 정의 함.
 - 그린·투어리즘은 농산어촌의 활성화,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존관계 구축을 위한 중요시책으로서, 장기적으로 대처해 가야 한다고 주장.
- 1993. 5 : 「‘농산어촌에서 여유있는 휴가를..’추진사업」 창설
 - 추진수법에 관한 조사연구 실시: 「(재)21세기마을만들기塾」 등에 위탁하여 사례조사나 효과적인 사업추진 기법 개발 수행.
 - 모델구상 책정: 그린·투어리즘의 보급 거점으로 적합한 시·정·촌(市·町·村)을 선정 (1994년에 25개, 1995년 80개, 96년 75개 지정)하여 모델정비사업을 보조.(아름다운 마을가꾸기 등 농산어촌 환경의 정비 및 보전, 농산어촌 문화의 유지·보전, 추진체제 정비, 도시와의 정보교류체제 정비 등)
- 1994. :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1994. 4 : 상기 법률을 근거로 2가지 사업 시행
 - 농촌체재형 여가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기능의 정비를 촉진시키는 조치
 - 도시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정비
 -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기능 증진: 토지이용 조정, 체재형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정비와 기능을 충실화.
 - 농림어업 체험 민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 1995년 7월 농림어업 체험민박 등록제도 실시
 - 농림수산성에서 지정한 ‘(재)전국농림어업체험협회’를 통해 농림어업체험 민박업자의 등록을 받음(1998년 8월에 609호, 2000년 3월 현재 725호 등록)
 - ※ 농림어업체험 민박이란 농작업·삼림작업·어로작업 체험, 농림수산물 가공, 향토음식 만들기, 향토예능이나 축제,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체재를 즐기는 신형 민박
- 1998. 12 : 「농정개혁 대강」에서 그린·투어리즘 등의 도농교류를 국민운동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양 측면의 정비를 천명.
- 1999. 7 :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도시와 농촌의 교류에 관한 조항 삽입(농업·농촌의 진흥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 2002. 12 : 「구조개혁특별구역법」을 제정하여 「구조개혁 특구제도」를 도입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유휴농지의 활용을 통한 도농교류 및 도시민의 농촌정착 촉진

(2) 기타 성청(省廳)의 그린·투어리즘 관련시책

- 임야청 : ‘산촌에서 휴가를’ 특별대책사업
- 수산청 : ‘신 마리노베이션’ 거점교류 촉진 종합정비계획사업
- 국토청 : 산촌·도시교류환경종합정비 모델사업, ‘과소지에 고향마을을’ 추진 모델사업, 고향 C&C모델사업 등
- 건설성 : ‘도로 휴게소 정비사업’ 등
- 기타 자치성, 운수성, 환경청, 통산성, 문부성에서도 지역진흥 관련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기존의 생활기반정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운용방식에서 그린투어리즘의 다양한 지역진흥의 전략적인 접근으로 운용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나) 최근의 도농교류 관련 정책의 동향

(1)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있어서의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의 위치

그린투어리즘을 비롯한 도시농촌교류는 도시주민에게 여유와 편안함을, 농업인에게 취업기회와 지역활성화를 실현시킴으로써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책분야로 부각되고 있다. 2000년 3월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 있어서도 그린투어리즘 등 도시농촌교류가 농촌진흥의 중요한 정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식료·농업·농촌기본법 (1999년 법률 제106호)

(도시와 농촌의 교류 등)

- 제36조 1 국가는 국민의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임과 동시에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 촉진, 시민농원의 정비 추진,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 2 국가는 도시 및 그 주변 농업에 대해 소비지와 가까운 특성을 살리고 도시주민의 수요에 맞는 농업생산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 식료·농업·농촌기본법 (2000년 3월 24일 각료회의결정)

제3조 식료, 농업 및 농촌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구해야할 시책

3. 농촌의 진흥에 관한 시책

(3) 도시와 농촌의 교류 등

가 도시와 농촌과의 교류 촉진

(가) 농촌에 있어 체재형 여가활동(그린투어리즘)의 추진, 농산물의 산지직판을 계기로 하는 농업체험 등의 촉진, 그밖에 도시와 농촌과의 교류기회 확보나 교류의 장 정비 등에 의해 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을 도모한다.

(2) 정부조직 개편

농림수산성은 2002년 '구조개선국'을 '농촌진흥국'으로 개편, 기능을 강화하였고, 정부와 여당이 협조하여 그린투어리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성 구조개선국 및 대신관방(大臣官房, 기획실)과 국토청의 지방진흥국 기능을 합쳐 국토종합개발과 농산어촌 종합대책 수립기능을 보강하였다.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대류(共生·對流)」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食과 農의 재생계획(2002. 4)』의 3대 과제 중 하나로 도시와 농산어촌을 쌍 방향에서 오고가는 라이프 스타일 실현을 들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① 농산어촌은 매력있는 유인책 확보, 도시는 농촌을 지원하는 등 양쪽이 교류
- ②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과 국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
- ③ 공생·대류의 추진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

이를 위하여 농림수산성을 중심으로 정부 7개 부처(총무성, 국토교통성, 문부과학성, 환경성, 행정노동성, 경제산업성 등)가 협조하여 그린투어리즘 확대보급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신(新)그린투어리즘 종합추진대책」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은 4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전략 1) 공생·대류의 국민운동으로서 그린투어리즘의 새로운 스타일 제안·보급 [요구실현 전략]
- (전략 2) 농산어촌 정보제공의 거점이 되는 그린투어리즘 센터 기능의 확립 [정보화 전략]
- (전략 3) 그린투어리즘 비즈니스 (교류·체험서비스)의 육성 [산업화 전략]
- (전략 4) 농산어촌의 매력향상을 위한 지역의 자발적인 추진지원 [지역단위 전략]

이 대책의 시행 기간은 2003~2005년까지 3년간이고, 사업시행 주체는 도도부현, 시정촌, 농업협동조합, (재)도시농산어촌교류 활성화 기구 등이며, 정부 보조율은 1/2 이내이다.

한편, 2001년 4월에 「(재)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를 설치하여 도농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기구는 (재)농림어업체험협회, (재)고향정보센터, (재)21세기 마을만들기塾를 하나로 통합하여 만들어졌는데, 그린투어리즘을 기획하고, 농촌민박 등록업무, 도시인에 대한 정보제공,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경영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다. 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의 설립 목적, 사업내용 등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글상자 3-1>과 같다.

<글상자 3-1> 일본 (재)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

① 설립목적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도시와 농산어촌이 일체가 된 지역활성화를 위한 국민적인 규모의 운동을 전개하여 농산어촌 활성화를 이룸으로써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 및 자연과의 조화를 취할 수 있는 풍요롭고 윤택한 사회실현 이바지

② 현황

- 2001년 4월, 도시농촌교류활동 추진 3개 민간협회가 통합·설립
 - (재)농림어업체험협회, (재)고향정보센터, (재)21세기마을만들기 속
 - 기본재산·기금 등 4,107백만엔 조성
- 지자체, 농업계(협동조합, 농민단체), 학계, 기업계, 중앙경마회, 민간단체 등 84명의 이사를 둠
- 동 기구내 총8개 부서(총무부, 조사기획부, 홍보부, 체험농업추진부, 도시교류추진부, 정보교류추진부, 지역활성화지원추진부, 고향플라자 등) 운영

③ 사업내용

-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촉진 및 체험농림어업의 보급 추진
- 농산어촌 지역의 활성화 등에 관한 조사·연구
- 농산어촌 지역정보의 수집 및 도시민 등에게 정보제공
- 농산어촌 지역의 활서화를 위한 지도 및 조언
- 체험농원 등 농림어업 체험시설의 운영·관리 및 정비에 관한 지원, 연수
- 농림어업 체험 민박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등록제도의 운용
- 농림어업·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한 인재육성 및 보급선전
- 축산이 입지하는 농산어촌 지역에 있어서의 영농환경의 확보
- 농축산업의 이해증진을 위한 기술개발 등

(3) 집권당 차원에서의 추진 노력

2002년 4월에 일본 자민당에서는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대류 추진조사회」에서 추진요강(要綱)을 작성하는 등 여당이 적극적으로 도농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 자민당의 그린투어리즘 추진전략 >

- 농산어촌 관련 정보를 일원화하고, 손쉽게 접근토록 개선
- 새로운 그린투어리즘 모델을 제안·보급
- 농산어촌의 각종자원(토지·환경·역사·전통·인력)의 최대한 활용 등

(4) 도농교류 관련 정부보조 사업

일본의 도농교류 관련 정부보조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그린투어리즘 종합전략추진사업 (신규)

■ 사업내용

- 새로운 그린투어리즘 추진체제 정비
새로운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어업관계자, 농림어업체험민박경영자, 관광산업관계자, 학교교육관계자로 구성되는 추진체제를 정비하여 도도부현에의 보급대책을 검토
- 새로운 그린투어리즘의 보급·추진활동
그린투어리즘의 새로운 스타일을 보급·추진하기 위하여 이벤트 등의 개최 및 시정촌에 대한 지도·연락조정 등
- 사업시행 기간은 2003~2005년까지 3년간이고, 사업시행 주체는 도도부현이며, 보조율은 1/2 이내임

(나) 그린투어리즘 비즈니스 육성사업(신규)

■ 사업내용

- 그린투어리즘 비즈니스의 창업화(起業化) 및 인재육성
 - 그린투어리즘 비즈니스의 육성
 - 그린투어리즘 코디네이터 등의 육성
- 도도부현(都道府縣)에 의한 체험지도자 등의 육성
- 그린투어리즘 인재뱅크의 정비
- 사업시행 기간은 2003~2005년까지이고, 사업시행 주체는 “도도부현에 의한 체험지도자 등의 육성”은 도도부현이고, “그린투어리즘 비즈니스의 창업화” 및 “인재 육성과 그린투어리즘 인재뱅크의 정비”는 (재)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이며, 보조율은 도도부현 사업의 경우 1/2 이내이고, 나머지는 전액 국비보조임

(다) 지역연계 시스템 정비사업(신규)

■ 사업내용

- 지역연계 시스템 추진체제의 정비
- 워크샵활동을 통한 지역연계 시스템의 구축
- 도도부현 추진활동
지역연계 시스템의 정비에 관련된 시정촌(市町村)활동에 대한 지도·연락조정 등
 - 지역자원의 발굴·재평가
 - 지역내의 농림어업과의 연계·조화
 - 체험교류시설 등의 정비·연계방향
 - 지역내의 요식업, 소매업, 지장산업의 연계·역할분담
 - 지역자원의 특성을 살린 교류산업의 고도화

- 정보발신 기능의 강화
- 교류공간의 정비
- 사업시행 기간은 2003~2005년이고, 사업시행 주체는 시정촌, 도도부현 등이며, 보조율은 1/2이내임

(라) 휴식공간정비사업(신규)

■ 사업내용

- 휴식(평온함) 체재교류 거점형
- 접촉 체험교류공간형
- 사업시행 기간은 2003~2005년이고, 사업시행 주체는 시정촌, 농업협동조합 등이며, 보조율은 1/2이내(오키나와는 2/3이내)임

(마) 아름다운 고향·국가 가꾸기 추진사업(신규)

■ 사업내용

- 국민운동의 추진방법 검토
- 보급·추진활동의 전개
- 우수사례의 표창
- 사업시행 기간은 2003~2007년이고, 사업시행 주체는 (재) 도시농산어촌 교류활성화 기구 등이며, 보조율은 전액 국비보조임.

(바) 어린이들의 농업·농촌 체험학습 추진사업(신규)

■ 사업내용

- 어린이 체험학습 중앙 추진사업
- 어린이 체험학습 도도부현 추진사업
- 어린이 체험학습지구 추진사업
- 어린이 체험학습 종합지원사업
- 사업시행 기간은 2003~2004년이고, 사업시행 주체는 “어린이 체험학습 중앙 추진사업”은 전국단체, “어린이 체험학습 도도부현 추진사업”은 도도부현, “어린이 체험학습지구 추진사업”은 시정촌,토지개량구,농협,특인단체,시정촌 등, “어린이 체험학습 종합지원사업”은 민간단체이며, 보조율은 전국단체와 민간단체 사업은 전액 보조이고, 나머지는 1/2 보조임

(5) 구조개혁 특구제도의 도입

(가) 도입배경

일본의 구조개혁특구제도는 2001년도말 종합규제개혁회의,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제안된 것을 계기로

논의가 이루어져 2002년 7월 양 회의에서 중심이 되어 본격적으로 제도도입에 대한 검토가 추진되어 동년 12월 구조개혁특별구역법이 제정되었다.

제도도입의 배경으로는 다음의 2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신속한 규제개혁 추진이 저해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규제개혁을 실시하여 이것을 전국적인 규제개혁으로 확대하여 일본 전체의 경제활성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이양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각 지역이 스스로의 창의노력에 의해 기업의 입지 환경을 정비하여 지역간 경쟁을 촉진하여 개성있는 지방의 자립적 발전과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구조개혁특구의 도입을 내각에서 결정하고 총리실에 구조개혁특구추진실을 발족시키는 등 구조개혁특구제도의 실현을 위한 체제를 구축했다.

(나) 구조개혁특별구역법의 기본적 구조

① 구조개혁특별구역 기본방침 (각의 결정)

▷ 내용

- 구조개혁특별구역제도 추진의 의의 및 목표
- 실시해야만 하는 시책에 관한 기본적 방침
- 정부가 강구해야만 하는 조치에 대한 계획(프로그램)

▷ 강구하는 것이 가능한 규제의 특례조치(법률, 政令, 省令, 통달 등)에 대한 일관성 확보

② 지방공공단체 - 구조개혁특별구역계획의 작성 및 신청

▷ 관계 기관에 각 규제에 대한 법령의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각 기관은 회답의무)

▷ 민간도, 지방공공단체에 제안 가능(채용되지 않는 경우는 이유 등을 통지)

- 계획내용
 - 구조개혁특별구역의 범위
 - 사업 내용, 적용을 받으려 하는 규제의 특례조치
 - 기대되는 지역활성화 효과 등

③ 총리 - 구조개혁특별구역계획의 인정

- 기본방침 적합성 및 지역활성화 효과 등을 보고 판단
- 규제의 특례조치 적용에 대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동의
 - 규제의 특례조치를 강구할 필요성 및 요건적합성에 대해서는 지방공공단체의 판단을 존중. 요건에 적합한 경우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동의)

④ 규제의 특례조치의 적용

- 계획이 인정된 경우에 이 법률 및 정령·성령으로 정해진 규제의 특례조치가 적용됨

⑤ 구조개혁특별구역추진본부의 설치(내각총리대신이 본부장)

- 구조개혁특별구역제도의 집중적이고 일체적인 추진, 종합조정
- 현재 구성인원
 - 본부장 1, 부분부장 3, 본부원 14

(다) 구조개혁특구 추진 기본방침

① 구조개혁특구의 목적

-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단행
- 민간활력을 최대한 끌어내고, 민간사업을 확대
-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사업자 등의 자발적 입안으로 지역의 특성에 따른 규제특례를 도입하는 특정 구역을 두어, 해당지역에서 지역이 자발성을 갖고 구조개혁을 진행하기 위해 구조개혁특구를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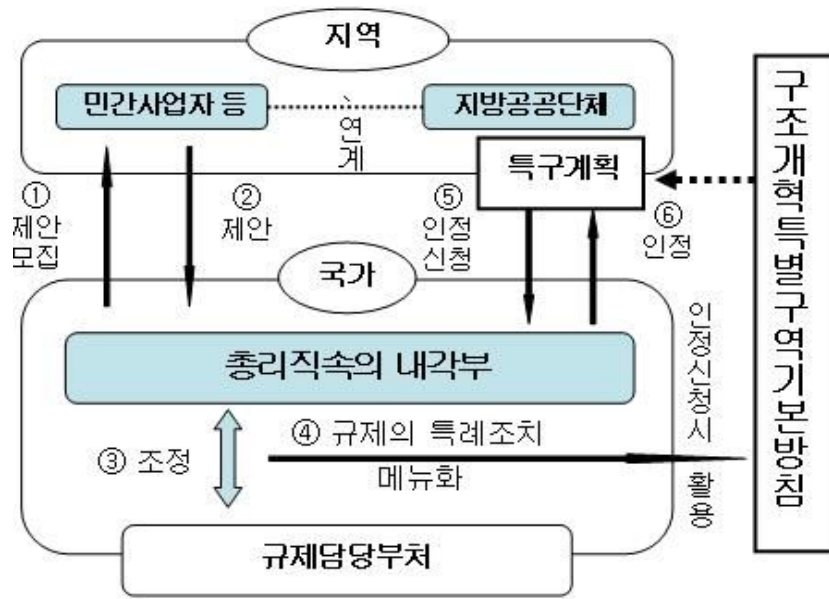
② 구조개혁특구 추진을 위한 방침

- ㉠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의 '지혜와 궁리의 경쟁에 의한 활성화'
- ㉡ '자조와 자립 정신'의 존중
- ㉢ 가능한 한 폭넓은 규제를 대상
- ㉣ 내각에서 절차, 결정과정의 일원화
- ㉤ 특례조치 평가 실시

(라) 구조개혁특구 지정과정과 현황

-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구조개혁특구를 통해 정책입안기회를 얻음
 -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혜를 짜내어 실행하고 모든 책임을 지는 것
- 구조개혁특구 추진본부
 - 총리직속의 내각관방(한국의 청와대)
- 특구추진과정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접수된 제안 → 각 省廳에 송부 → 각 省廳은 규제완화 가능여부 검토 → 제안에 대해 각 省廳은 특구로써 대응, 전국적 수준에서 대응, 특구로써 대응불가능을 구분 후 추진본부로 송부 → 각 省廳의 동의를 얻은 제안을 각 지자체에 하달 → 일부 수정 후 다시 신청하도록 함(인정신청)



(그림 3-3) 구조개혁특구 지정과정

- 특구계획

- 2004년 9월 현재, 모든 都道府縣에 걸쳐 모두 386건의 특구가 인정되어 있음

- 2004년 6월 제5차 제안모집에서 제안된 것에 대해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방향에 대해 각 기관과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이 제안에서 특구로 실현된 것은 12개임

(마) 구조개혁특구의 내용

① 분류

㉠ 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것

- 국제물류관련특구, 산학협동관련특구, 산업활성화관련특구, IT추진관련특구

㉡ 지역수요에 맞는 규제개혁을 다른 지역에 앞서 실시하는 것

- 농업관련특구, 도시농촌교류관련특구, 교육관련특구, 유치원 및 보육원일체화관련특구, 생활복지관련특구

② 농업관련 및 도시농촌교류 관련 특구

- 농업문제의 심각화

- 농촌 고령화 진전으로 유희농지가 2000년 현재 전체 경지면적의 10%로 높고, 일본 식료자 급률 40%로 매우 낮음

- 농업경영에 주식회사와 NPO단체의 경영참여를 허용하여 농업생산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음

-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농업관련특구 - 市島町の 환경보전형 농업 등 추진 특구

- 1975년 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업추진을 위해 市島町유기농업연구회 발족

- 1999년, 구체화를 위해 '市島町마을일으키기 전문원' 2명 선발
- 市島町내 유기농산물 생산자조직 11개 단체가 市島町유기농업추진협의회 발족
- 2001년, 농업활성화를 목적으로 NPO법인 '市島舟波太郎' 설립
 - : 지역에서 재배된 유기농산물 판매를 위한 직판소 '마을일으키기회관'을 운영
 - : 학교급식용 채소 공급
 - : 유기농업학교 개교를 통해 농작업체험, 농산물가공연구 실시
- NPO단체가 직접 농업경영에 참가해 왔는데, 이번에 특구로 지정되면서 농지를 빌려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어 사업에 더욱 탄력이 붙게 됨
- 농업특구에 주식회사가 진입하는 데는 아직 문제점 존재
 - 정부는 소유는 인정하지 않고 유희지와 같은 농지를 市町村이 임대하는 조건으로 허용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입장에서는 지정된 특구에 적당한 토지가 없거나, 농지소유자가 많을 경우 광대한 토지를 언제까지 임대할 수 있을지 의문시됨

(바) 도농교류 관련 특구 사례

① 나가노현 도시농촌교류공간창조특구

㉠ 작성주체

- 長野縣 立科町

㉡ 명칭

- 도시농촌교류공간창조특구

㉢ 구조개혁특별구역 범위

- 長野縣 北佐久郡 立科町 전지역

㉣ 특성

- 나가노현 동부의 佐久평야의 가장 서쪽에 위치하며, 남북으로 좁고 긴 형상을 하고 있는 마을로, 북부의 산록대지와 남부의 고원지대로 되어 있음
- 동경에서 거리 약 180km, 나가노현청사에서 마을행정사무소까지 57.7km 떨어져 있음
- 전체인구 8,609명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5,443명이며, 마을 전체면적 66.82km² 중에서 경지면적은 1,340ha

㉤ 배경

- 농업종사자중 65세 이상이 62.8%에 달하며 고령화의 진행으로 지속적인 농업생산전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임
- 매력있는 농촌진흥을 도모해나갈 후계자 육성과 함께 새로운 신규참가자 확보 및 농업경영의 법인화를 추진하여 고령농가 등의 농지의 수혈로써 법인을 자리매김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법인화는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농업생산법인은 4개 경영체임

㉥ 농업과 관광을 연계한 지역진흥

- 농업담당자 확보 및 농지이용증진을 통한 지역농업 활성화 및 농촌지역의 개성있는 발전 도모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활용한 매력있는 생산환경을 창출해나가는 것이 중요
- 생산과 생활기반인 농촌을 교류기반으로써 만들고, 농지 및 삼림을 시작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도시농촌교류를 촉진하여, 젊은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매력있는 농산촌환경의 형성을 추진함과 동시에 농산촌이 갖는 다면적 기능의 보전과 활용에 의해 지역활성화를 종합적으로 도모하는 것
- 관광지와 농촌부의 중간지점인 陣内地籬의 마을숲에 陣内삼림공원을 설치하고, 숲과 자연, 물에 친숙한 환경을 정비하고, 삼림의 기능 및 용수로의 기능을 평가하는 의식을 높임과 동시에 농업과 관광의 중계지로서 마을내외의 교류촉진을 도모
- 국도 142호선변 유희황폐지대에 그린투어리즘을 주체로 한 도시농촌교류거점 ‘蓼科農人喜村’을 정비를 진행하고 크라인가르텐(휴게용 작은 건물이 있는 시민농원)·농산물직매소, 가공시설을 건설하고, 2003년부터 현(縣)직영사업으로 하여 도시농촌교류촉진센터의 정비가 진행되어 관민일체가 된 그린투어리즘을 위한 도시농촌교류기반을 형성해오고 있음

㉞ 구조개혁특별구역계획의 내용

㉞ 특구의 개요

- 도시와의 공생에 의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연결하기 위해 立科町 농촌활성화구상 및 농산촌 체재형 여가활동기능정비계획에 민관 일체가 되어 그린 투어리즘추진의 마찌즈쿠리로 자리매김하는 것
 - 이러한 대처 및 농업생산업인이 행하는 농업관련사업을 확대하는 특구의 활용에 의해 민간 활력을 도입하고, 지역주민과의 다양한 교류의 장을 통하여, 지역산업의 활성화, 농촌경관 및 지역자원의 보전을 도모하면서 매력있는 농촌공간을 창조
- 적용되는 규제의 특례조치
 - 농업생산법인에 의한 농가민박의 경영 허용

㉞ 목표

- 도시농촌교류를 통해 지역자원을 다시 인식하고, 도시와의 공생에 의한 지역경제활성화에 연계하기 위한 관민일체의 그린투어리즘 추진의 마찌즈쿠리를 위해 ‘농산촌체재형여가활동기능정비계획(2002)’을 수립
- 蓼科農人喜村을 핵으로 교류인구의 증가를 도모하고, 농지 및 관광시설의 이용증진, 농업생산활동의 활성화
- 그린투어리즘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에는 스스로 지역에의 긍지와 자신을 회복시키고, 적절한 농림지관리 및 농촌경관의 보전과 쾌적한 농촌공간이 창조에 대한 의식 고양을 도모함과 함께, 도시주민에는 체재 가능한 체험의 장을 제공하여, 농작업, 임업, 농촌공예실습 등을 통하여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도모
- 생산자의 얼굴을 보면서 교류에 의한 안심 및 안전한 농산물의 제공으로 새로운 판로개척,

생산자의 생산의욕 향상, 농지이용 증진과 함께 지역자원을 활용한 활성화가 도모되는 것

- 이를 위해 구조개혁특별구역법에 기초하는 농업생산법인이 농업관련사업으로써 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확대의 특례조치 적용에 의해, 농촌체재형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설치 및 운영에 해당활동을 행하는 자가 숙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활동에 필요한 기능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고용안정과 새로운 농업담당자가 있는 농업생산법인 경영이 안정하게 되어, 같은 환경에 처해있는 전국에 파급가 농업경영의 법인화 추진에 박차가 가해질 것을 기대됨

㉠ 계획이 미치는 경제사회적 효과

- 교류촉진에 의해 지역주민에 농촌과 그것이 상품으로써의 자각이 싹트고, 교류공간의 창조에 일환이 되는 기운이 조장됨
- 교류에 의한 친근감에서 지역농산물 판매촉진과도 연결되어 농가소득향상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게 됨(<표 3-15> 참조)

<표 3-15> 구조개혁특구에 미치는 효과

항 목	2002년	2008년
특정사업실시농업생산법인	-	3개의 경영체
특정사업실시농업생산법인 체험 등 연간매상	-	23,200천엔
특정사업에 의한 고용촉진	-	5명
특구내 농업체험 등 교류인구	2,700명	9,000명
農人喜村농산물직매소매상	33,000천엔	48,000천엔
관광리프트이용자	53,300명	55,000명

- 고용인구증가내용

- 시민농원이용자 : 1구획(1세대) 2명 × 2회 × 7개월 × 100구획 = 연간 2,800명
- 체험시설 등 이용자 : 500명 × 7개월 = 연간 3,500명

㉠ 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 蓼科農人喜村을 중심으로한 그린투어리즘 추진
 - 지역자원 등의 이벤트, 주민과의 교류 이벤트 실시
- 유희황폐농지복구대책사업보조금
 - 마을단독사업으로써 ‘유희황폐농지복구대책사업보조금’을 두어, 유희황폐농지의 복구사업에 대해 10a당 14만엔을 사업비 상한으로 하여 그 1/2을 보조
- 농업위원, JA, 마을의 연계에 의한 농지은행활동 추진 및 강화

② 農을 중심에 둔 지역자원을 보전·활용하는 지역활성화 특구

㉠ 東頸城 농업특구 (新潟縣 安叢町, 浦川原村, 松代町, 松之山町, 大島村, 牧村)

㉠ 배경

- 과소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구는 1986년의 3/4로 감소하고, 고령화율은 35%에 달하고 있음
- 기간산업인 농업은 농업후계자가 있는 농가는 전농가의 25% 정도로 담당일손이 부족하여 급속하게 쇠퇴하며, 아울러 농지는 1985년의 3/4으로 감소, 매년 100ha의 농지가 유희화하는 등, 경작방기지, 유희농지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음
- 지역의 기간산업의 하나인 공공사업도 감소하고, 경기 저감 및 고용악화 속에 지역산업의 활력이 저하하고 있음
- 근년 지역에서는 초중학교의 종합학습 및 체험형 수학여행을 받아들이는 체험교류형 관광 '越後田舎체험추진사업'에 의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특구의 요점

- 리스 방식에 의한 농업특구를 활용하고, 지역의 건설회사 등의 법인이 농업경영을 개시하여 새로운 담당주체가 되는 것에 의해 농지의 유희화 방지와 국토보전을 도모
- 雪國라는 자연환경 및 천수답에서 생산되는 쌀과 너도밤나무림에서 용수하는 양질의 물을 활용한 '탁주'의 제조, 우렁이 및 매기 등의 담수어와 풍부한 산채자원 등을 활용한 식품산업 등, 지역의 환경과 자원을 활용한 복합형 산업육성
- 시민농원을 활용한 도시교류, 지역의 폐교 및 고민가를 활용한 농가민박이 개업, 새로운 지역의 매력 '탁주'를 활용한 손님유치 등, 종래의 초중고생의 종합학습 및 체험형 수학여행과는 다른 가족 및 성인을 목표로 한 새로운 '체험교류형 고향관광'의 추진에 의해 새로운 그린 투어리즘산업 육성과 확대
- 건설회사의 농업경영에 의한 신규고용 및 '탁주' 제조기술자의 고용 및 시민농원 및 농가민박을 활용한 도시교류의 추진에 의한 신규 취농자와 신규정주자의 확보 등, 새로운 고용확보와 신규정주의 촉진

㉡ 효과

- 농업특구에 대해서는, 2003년에 법인이 참가하여 4.8ha를 경작하고, 2004년에는 8.5ha로 확대
- 또한, 2004년에는 3개 법인이 농업특구에 참여하고, 지역 내에서 특정법인이 5개가 됨

③ 長野縣 青木村

㉢ 구조개혁특별구역 작성주체

- 長野縣 및 長野縣 小縣郡 青木村

㉣ 구조개혁특별구역 명칭

- 青木村 도시농촌교류특구

㉤ 구조개혁특별구역 범위

- 長野縣 小縣郡 青木村 전역

㉥ 특성

- 나가노현 동부, 上田市에서 서쪽 약 12km에 위치, 동서 약 8km, 남북 약 10.4km로 넓게 자

리하며, 면적의 약 8할은 산림으로 농용지는 약 1할에 불과

- 단구경사지가 많고, 평탄지는 적은 복잡한 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표고 500~850m에 12개의 촌락이 산재

㉞ 배경

- 농업종사자 감소와 고령화 진행 속에 1995년~2000년 사이에 유휴농지가 1,359ha 증가하는 등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지역
- 유휴농지 증가는 잡초 및 병충해 발생, 유해조수의 온상이 되어 인접농지에 악영향을 미치며, 농지의 집단적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 게다가 농업종사자의 고령화 및 겸업화 등으로 가일층 유휴농지 증가가 예상되어, 나가노현에서는 '2010년 長野縣 농업장기비전'을 책정하고 유휴농지 재정비, 농업자의 이용집적에 의한 농지의 유효이용을 도모

㉞ 구조개혁특별구역계획의 내용

㉞ 목표

- 구조개혁특별구역법 제23조의 특례조치를 적용한 특정사업 도입으로, 유휴농지 및 경작자가 고령이어서 유휴화의 우려가 있는 농지에 대해서 시민농원 개설 등 다양한 활용을 도모하여, 도시농촌교류에 의한 지역활성화 촉진
- 지역특산물인 메밀재배를 행하고, 메밀수확투어, 메밀국수만들기체험교실 등의 이벤트를 통한 지역주민과 도시주민 등과의 교류 도모
- 시민농원 개설 이외에 도시주민(시민농원이용자 등)과의 협동에 의한 경관작목 및 메밀 등의 재배에 의한 유휴농지 유효활용 도모
- 시민농원에서 농업생산체험을 통하여 농업에 대한 이해 및 농업생산에 대한 의욕을 높여, 유휴농지를 활용한 취미적인 농업자 및 신규 취농자의 확보를 지향
- 시민농원에 의한 도시농촌교류의 실시와 성공에 의해 長野縣 농업개발공사 이외의 새로운 실시주체(NPO법인, 집락 등)의 참여를 지향

㉞ 계획의 경제사회적 효과

▷ 도시주민 등과의 교류촉진

- 시민농원 개설 등에 의해 지역주민과 도시주민 등과의 교류에 의한 지역만들기 도모
- 해당 시민농원개설에 의한 도시농촌교류인구 증가는 연간 1,050명으로 예상됨
- 지역특산농산물로서 메밀 등의 산지화를 진행하고, 도시농촌교류를 통해 메밀국수만들기체험교실 및 마을산업제에 참가도 포함하여, 시민농원을 통한 '靑木村'의 홍보를 도모하면서 지역활성화 예상
- 교류인구증가
 - 1,050명 증가 : 1구획(1세대) 3.5명 × 연간 6회 × 50구획

▷ 신규영농 참여자의 확보

- 시민농원에서 농업생산체험을 통하여 농업에의 이해 및 농업생산에 대한 의욕을 높여, 취미적인 농업자 및 신규영농 참여자 확보 도모
- 5년간 2명의 확보를 도모

▷ 농지의 다면적 기능 유지 등

- 시민농원 개설 등으로 유휴농지 해소를 촉진함으로써, 잡초 및 잡목의 번성과 병충해 발생 억제에 도모함과 동시에, 보수(保水) 등의 농지가 갖는 여러 기능을 확보하여 홍수 및 토사붕괴와 같은 재해발생 억제
- 유휴농지해소면적
 - 지역내의 유휴농지(논, 밭) 35ha 중 2.4ha(5년 후 예상)의 해소 도모
 - ㉠ 특정사업
- 지방공공단체 및 농업협동조합 이외의 자에 의한 특정농지대부사업
 - ㉡ 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사업추진에서 현 및 촌의 역할을 근거로 하면서 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전개를 도모
- 유휴농지종합대책사업 / 농지보유합리화촉진사업 / 시민농원과 공동 개최하는 체험교실을 통한 도시와의 교류 증대

3.2.3 외국사례의 시사점

영국은 농지이용을 농업 외에 환경 및 문화적 측면과 연계하여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의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수요와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지이용을 달리할 수 있는 다양한 구역을 설정하고, 구역설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농촌의 환경을 보전하고 어메니티 자원을 개발하여 농촌관광에 대한 여건과 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 농촌기업 지원사업과 직업훈련사업 등을 통해 다른 사업경영체와 함께 농촌관광 경영자에 대해서도 지원과 육성이 이루어진다. 지역발전청(RDA), 영국관광사무국(BTA), 전원청(Countryside Agency), 지역관광협회(RTB) 등을 통해 농촌 활성화 및 관광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2차 대전 이후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농촌관광의 역사가 깊은데, 1960년대부터 도시민이 장기휴가를 농촌에서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민박을 지원하면서부터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농촌관광의 육성을 위한 사업에는 농림부를 비롯하여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있는데, 부처간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각 부처별 농촌관광 관련 사업 참여 현황을 보면, 농림부는 농가의 농촌 민박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국토정비청은 각 농촌 지역의 관광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관광

부는 관광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환경부는 “아름다운 마을계획” 등 농촌 어메니티 자원 관리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1994년부터 농촌관광과 관련된 정부부처간 상설협의체(CIDAR)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개발 관련 시책을 조율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지트-드-프랑스 등 농촌관광 관련 단체를 통해 농촌지역 관광자원의 조직화와 상품화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1980년대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농원 등을 중심으로 농촌관광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농림수산성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농림수산성에서는 농촌관광을 도농교류의 관점에서 강조하였으며, 조사·연구를 지원하였고, 1994년에 제정된 「농산어촌 체재형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하여 관광시설 개선과 기능 충실화 및 토지이용 조정 등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1995년에는 농림어업 체험민박 등록제도를 실시하였고, 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과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동시에 강조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재)도시농산어촌교류 활성화기구 등을 통하여 농촌관광에 대한 홍보 및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구조개혁 특구제도」를 도입하여 규제완화를 통하여 농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농촌관광이 도농교류 및 농촌 지역사회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중요한 수단이지만, 이것이 단기간에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상과 같이 외국 여러 나라의 경우 도·농 교류는 농촌관광과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처럼 별도의 교류대책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과 경관개선을 위한 토지이용 조정에서부터 관광 기반시설 설치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나 관광 서비스 향상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농촌관광이나 도농교류를 중시하는 나라는 민간조직이든, 정부조직이든 정보관리, 교육, 홍보, 품질관리 등을 통하여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조직이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BTA(British Tourist Authority), 프랑스의 '지트(Gtes)'¹⁰⁾, 일본의 (재)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기구가 이러한 예에 속한다.

영국관광사무국(BTA)은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분석에서부터 공급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할뿐만 아니라 농촌관광 시설과 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RAC(Royal Automobile Club), AA(Automobile Association)와 같은 민간조직이 자발적으로 수행해 오던 등급화 업무를 BTA(구 ETC)가 개입하여 민간과 공동된 등급화 기준을 마련하여 각 기관이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지트 본부에서는 농촌관광을 특화하여 이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광고 활동, 안내서 발행, 민박 예약 시스템 운영, 민박경영자 육성뿐만 아니라 민박의 등급을 매기거나 품질관리

10) 지트는 마을에 있는 농가를 관광객에게 빌려주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민박조직으로, 전국적으로 대가 민박 3만7000채와 기타 민박 약 1만 3600실이 가입되어 있다.

를 담당한다. 일본은 1999년에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서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 촉진(제36조)을 명시하고 2001년에는 도시농산어촌교류활성화 기구를 발족시켰다. 그리고 2001년에 새로 제정된 식료·농업·농촌기본법에서는 도시·농촌 교류를 농촌진흥정책의 주요정책으로 채택하여 그린투어리즘과 도시·농촌교류의 전국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2001년 4월에 기존의 농림어업체험협회(1983년 창립), 고향(후루사토)정보센터(1985년 창립), 21세기 마을 만들기 塾(1990년 창립, 인재육성과 마을 가꾸기)을 통해 도시주민의 자연·고향 지향과 그에 대응한 풍요로운 마을을 가꾸려는 농촌의 뜨거운 열의를 연결시켜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최동주, 2003). 일본에서는 이처럼 도시·농촌 교류라는 용어를 법에 명시하고서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개선에서부터 규제개혁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노력을 벌이고 있다.

이와 같이 농촌관광과 도농교류를 강조하는 국가의 경우 농촌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촌관광을 안내·홍보하며, 시설과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고 향상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존재한다는 점은 농촌관광을 본격적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우리 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영국과 같이 용도지구를 설정하여 그 곳의 환경과 경관을 정비하여 농촌관광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BTA와 같은 기관을 통하여 민간 자원에 의한 등급화 등 품질관리를 조정하며 등급화 및 품질관리와 관광 안내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서부터, 프랑스의 지트와 같이 민간조직으로서 등급화 업무 외에 예약 서비스까지도 담당하는 경우, 그리고 일본처럼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법적 뒷받침을 토대로 토지이용 조정에서부터 시설정비와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지자체 및 민간단체간에 역할을 분담하고 긴밀히 협력하는 경우 등 각 나라가 처한 상황과 강조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우리 나라의 농촌관광 육성 정책을 마련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특정 구역에 대하여 환경보전 및 경관개선 등을 위한 농촌관광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것, 농촌관광 전담기구의 육성, 농촌관광 시설 설치와 경영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농촌관광 정보 관리 및 홍보 지원, 등급화 등을 통한 농촌관광 품질 관리, 규제 완화를 통한 농촌투자 활성화 등은 우리 나라의 농촌관광 정책 개선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본다.

4. 도농교류의 수요-공급 현황 분석 및 고찰

4.1 도시민의 도농교류에 대한 태도 및 수요 분석

4.1.1 도시민의 도농교류 이용형태 및 태도

1)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도농교류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면접에 의한 설문조사를 통해 1,048부의 설문결과를 수집하였다.

조사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1>과 같다. 거주지분포를 살펴보면 서울·경기지역이 전체의 4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부산(19.5%), 대구(14.3%), 대전(9.4%), 광주(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수를 결정한 때문이다. 성별과 연령 분포에 있어서도 비례층화표본추출의 결과로서 균형있게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들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대졸(재학생 포함)이 전체의 41.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고졸(31.6%), 전문대(16.3%), 중졸이하(5.4%), 대학원(4.8%)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여부에 있어서 기혼(65.2%)이 미혼(34.8%)에 비하여 많다. 이것은 설문조사를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기도 하다. 결혼한 응답자들의 자녀 분포는 첫째 자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학생을 둔 경우(31.4%)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직장인(15.3%), 초등학생(14.5%), 고등학생(12.5%), 유치원(10.1%), 유치원이하(7.2%)의 자녀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월평균 가구소득수준을 살펴보면, 200만원~299만원 수준이 전체의 3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300만~499만원(27.7%), 100만~199만원(21.0%)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500만~699만원이 6.7%, 700만원 이상이 4.0%로 나타났으며, 100만원 미만대의 가구가 5.0%로 조사되었다.

또한 응답자들의 직업분포에 있어서는 회사원이 전체의 27.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학생(15.7%), 사업가(15.3%), 주부(15.3%)가 비슷한 비율로 분포되었다. 다음으로 판매서비스업(6.8%), 공무원(6.6%), 기술자(3.4%), 전문직(3.4%), 도소매업(1.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1> 도시민 설문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1048)

구 분		빈도 (%)
거주지	서울	503 (48.0)
	대전	99 (9.4)
	대구	150 (14.3)
	부산	204 (19.5)
	광주	92 (8.8)
성별	남	523 (50.0)
	여	524 (50.0)
연령	20 - 29세	278 (26.5)
	30 - 39세	258 (24.6)
	40 - 49세	236 (22.5)
	50세 이상	276 (26.3)
교육수준	중졸이하	56 (5.4)
	고등학교	326 (31.6)
	전문대	170 (16.5)
	대학교	431 (41.7)
	대학원	50 (4.8)
결혼여부	미혼	362 (34.8)
	기혼	677 (65.2)
자녀	유치원 이하	61 (7.2)
	유치원	66 (7.8)
	초등학생	123 (14.5)
	중학생	86 (10.1)
	고등학생	106 (12.5)
	대학생	266 (31.4)
	직장인	130 (15.3)
	기타	10 (1.2)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50 (5.0)
	100만~199만원	210 (21.0)
	200만~299만원	357 (35.6)
	300만~499만원	278 (27.7)
	500만~699만원	67 (6.7)
	700만원 이상	40 (4.0)
직업	회사원	281 (27.2)
	사업가(자영업)	158 (15.3)
	공무원	68 (6.6)
	농수산업 종사자	3 (.3)
	학생	162 (15.7)
	주부	158 (15.3)
	기술자	35 (3.4)
	전문직(방송인/예술인/교수)	35 (3.4)
	관광사업	6 (.6)
	도소매업	17 (1.6)
	판매/서비스업	70 (6.8)
	기타	39 (3.8)

2) 농촌거주 경험 및 관련정도

농촌에 살았던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 중 51.8%는 경험이 있으며, 나머지 48.2%는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의 절반 정도가 농촌 거주 경험이 있으며, 이들의 농촌 거주기간은 11~20년(48.7%)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5~10년(24.8%), 21~30년(13.3%), 5년 미만(11.8%)의 순이었다.

농촌이 응답자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 '친척이 사는 곳'(32.5%)이라고 응답한 경우와 '태어난 고향'(31.4%)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14.9%), '친구가 사는 곳'(9.3%)이라고 응답했다. 반면에 아무런 연고가 없다고 한 경우는 11.9%이었다.

향우회 활동에 참여하는지의 질문에 대해,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22.2%, 참여하지 않거나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7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도시민의 농촌 거주경험 및 관련정도

구 분		빈도 (%)
농촌 거주경험	있다	541 (51.8)
	없다	504 (48.2)
	계	1045 (100.0)
농촌 거주기간	5년미만	63 (11.8)
	5-10년	132 (24.8)
	11-20년	259 (48.7)
	21년 이상	78 (14.6)
	계	532 (100.0)
농촌과의 연고 (복수응답)	친척이 살고 있다	476 (32.5)
	태어난 고향이다	460 (31.4)
	현재 부모님이 살고 계신다	218 (14.9)
	아무런 연고가 없다	174 (11.9)
	친구가 살고 있다	136 (9.3)
계	1464 (100.0)	
향우회 활동	참여 안함	440 (42.7)
	가입 안함	362 (35.1)
	가끔 참여	173 (16.8)
	적극 참여	56 (5.4)
	계	1031 (100.0)

3) 최근 3년 이내 농촌 경험자의 도농교류 이용행태

(1) 농촌 방문목적 및 체류형태

최근 3년 이내에 농촌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수는 908명으로서 전체응답자(1,048명)의 87% 이었다. 이들의 농촌 방문목적은 부모님이나 친척을 방문하기 위한 경우가 전체의

<표 4-3> 농촌 방문목적 및 체류형태

구 분		빈도 (%)
농촌 방문목적 (복수응답)	부모님 또는 친척 방문	624 (50.6)
	휴가	222 (18.0)
	낚시·등산 등 취미활동	125 (10.1)
	농촌관광	76 (6.2)
	향우회·동호회 모임	66 (5.3)
	농사	34 (2.8)
	업무상	33 (2.7)
	기타	34 (2.8)
	계	1234 (100.0)
농촌 방문횟수	1 - 5회	416 (45.8)
	6 - 10회	245 (27.0)
	11 - 20회	142 (15.6)
	21 - 50회	75 (8.3)
	51회 이상	31 (3.4)
	계	908 (100.0)
체류형태	숙박형태	650 (71.6)
	당일형태	258 (28.4)
	계	908 (100.0)
체류기간	1박	282 (43.7)
	2박	233 (36.1)
	3박	76 (11.8)
	4박	22 (3.4)
	5박 이상	32 (4.9)
	무응답	5 (0.1)
	계	908 (100.0)
숙박시설	부모, 친척집	445 (69.4)
	콘도·호텔·모텔 등	83 (12.9)
	민박	55 (8.6)
	자연휴양림내 시설	21 (3.3)
	별장	8 (1.2)
	체험학교·수련원	7 (1.1)
	관광농원	2 (0.3)
	기타	20 (3.1)
	계	641 (100.0)

50.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휴가(18.0%), 낚시·등산(10.1%), 농촌관광(6.2%), 향우회·동호회 모임(5.3%)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친척방문과 같이 지역연고가 농촌을 방문하게 하는 가장 강한 동기라고 할 수 있다.

농촌 방문의 목적과 관련해 다른 연구를 살펴보면 <표 4-4>와 같이 휴양·휴식(25.7%), 전원 감상(24.4%), 농촌 및 농사체험(12.5%), 가족 및 친지 방문(12.4%)의 순으로 농촌을 여행하는 것으로 나타났고(박윤희 외, 2003), 또 다른 연구에서는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경관감상(41.8%), 친지방문 및 주변관광지(21.1%), 농촌체험(1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임상봉 외, 2002). 또한 농림부(2004)에 의한 인사이트 리서치 조사 결과에서도 농촌관광의 주된 목적으로서 응답자들이 전원감상(22.2), 친목도모(21.2%), 자연탐방(14.2%)을 들었다. 이에 비해 본 연구

에서 농촌 방문 목적에 대한 응답 항목에 농촌의 자연경관 또는 전원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점, 그리고 본 연구의 관점이 농촌관광을 포함하는 도농교류의 다양한 유형을 다룬 것이고 기존의 두 연구는 농촌관광을 집중적으로 다룬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도 농촌 방문시 좋았던 점에 대해 '쾌적한 자연환경'(45.1%, <표 4-20> 참조)을, 그리고 정부가 도농교류 추진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 '농촌환경보전 및 계획적인 개발'이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되었다(<표 4-35> 참조). 따라서 농촌 방문 또는 여행에서 기대하는 요소는 농촌의 자연적 환경 속에서 휴식·휴양을 하거나 고향의 친인척을 방문하는 것, 혹은 이 둘 다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덧붙여 도농교류 또는 농촌관광을 위한 개발에 있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농촌의 자연적 환경을 보존, 농촌다움을 잃지 않는 개발이 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표 4-4> 농촌관광의 목적

(N=769)

구분	빈도 (%)
전원 감상	315 (24.4)
농촌·농사 체험	162 (12.5)
휴양·휴식	334 (25.7)
자녀 교육	80 (6.2)
가족/친지 방문	161 (12.4)
농산물 구입	35 (2.7)
주변 관광지 방문	102 (7.9)
향토·토속 음식	93 (7.2)
목적 없음	13 (1.0)
계	1295 (100)

자료: 박윤호 외(2003), 농촌관광시설 및 서비스의 표준화와 등급화 방안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표 4-5> 도시민의 농촌여행 목적

(N=1718)

구분	빈도	%
자연경관감상	718	41.8
농산물(특산물) 구입	82	4.8
농촌체험기회	273	15.9
문화행사, 취미생활 즐기기	100	5.8
여행비용저렴	23	1.3
친지방문시 유명관광지 있음	363	21.1
지역향토음식음미	114	6.6
농촌봉사활동참여	17	1.0
기타	28	1.6
계	1718	100.0

자료: 임상봉 외(2002), 농촌 소득기반과 연계되는 생태·문화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표 4-6> 도시민의 여행횟수

		(N=1718)	
구분		빈도	%
여행횟수	없음	86	5.0
	1-2회	471	27.4
	3-4회	645	37.5
	5-9회	334	19.4
	10회 이상	182	10.6
	계	1718	100.0

자료: 임상봉 외(2002), 농촌 소득기반과 연계되는 생태·문화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한편 도시민들의 최근 3년간 농촌을 방문한 횟수를 살펴보면, 연간 1~5회로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45.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10회(27.0%), 11~20회(15.6%), 21~50회(8.3%)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봉 외(2002)의 연구에서는 연간 농촌여행횟수가 1~2회 정도가 44.3%, 3~4회 정도가 24.3%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표 4-6 참조), 이것은 2년여 사이에 도시민들의 농촌 여행 빈도가 높아졌거나, 또는 최근 들어 시행된 주 5일 근무제의 영향, 악화된 경제적 여건으로 해외보다는 국내의 여행 횟수가 높아진 것, 제 7차 교육과정의 현장학습 강조로 농촌 및 자연체험여행의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농촌을 방문했을 때의 체류형태는 숙박을 하는 경우가 전체의 71.6%로 당일 방문(28.4%)에 비하여 훨씬 많았다. 숙박을 한 방문의 경우 체류기간은 1박이 전체의 43.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2박(36.1%), 3박(11.8%), 4박(3.4%), 5~9박(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 방문객의 평균 체류기간은 2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방문 시 1박과 2박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결과는 임상봉 외(2002)의 연구와 박윤희 외(2003)의 연구에서도 도시민이 원하는 체류기간으로서 2박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던 점과 일치한다(<표 4-7> 참조). 또한 임상봉 외(2002)의 연구에서 도시민의 농촌여행에서 적절한 지역범위에 대한 의견에서 2~3개 시군(55.6%) 또는 2~3일 코스확보가 가능한 지역(20.3%)을 가장 많이 들었다는(<표 4-8> 참조) 사실과 관련하여, 농촌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도농교류 사업 추진시에는 마을 단위의 사업보다 시군 또는 인근 시군의 자연·문화자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사업개발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숙박방문객이 이용한 숙박시설로는 부모나 친척집에서 기거한 경우가 전체의 69.4%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농촌 방문목적에서 부모나 친척방문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는 콘도·호텔·모텔 등 주변시설(12.9%), 민박(8.6%), 자연휴양림(3.3%), 별장(1.1%), 체험학교(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농촌방문객 10명 중 약 7명은 부모나 친척집에서 숙박하며, 나머지 3명은 상업적인 숙박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촌관광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된 연구(임상봉 외, 2002)에서는, 민박과 마을 주변 여관이나 모텔을 이용하는 경우가 61.6%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표 4-9> 참조).

<표 4-7> 향후 도시민이 원하는 농촌 여행형태

(N=1718)		
구 분	빈도	%
휴일 이용한 1-2박 정도	1429	85.3
여름 휴가 등 이용한 장기체류	87	5.2
당일 관광형태	160	9.5
계	1676	100.0

자료: 임상봉 외(2002), 농촌 소득기반과 연계되는 생태·문화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표 4-8> 농촌여행 시 적정한 지역범위

(N=1718)		
구 분	빈도	%
마을 단위	205	11.9
면,군 단위	209	12.2
2-3개 시군	955	55.6
2-3일 코스확보가 가능한 지역	349	20.3
계	1718	100.0

자료: 임상봉 외(2002), 농촌 소득기반과 연계되는 생태·문화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표 4-9> 농촌여행 시 이용하는 숙박시설

(N=1718)		
구 분	빈도	%
민 박	397	23.1
여관, 모텔	390	22.7
콘도미니엄	272	15.8
친 지	253	14.7
숙박안합	222	12.9
관광농원	76	4.4
야 영	53	3.1
공영숙박시설	37	2.2
기 타	18	1.0
계	1718	100.0

자료: 임상봉 외(2002), 농촌 소득기반과 연계되는 생태·문화자원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2) 농촌방문자의 도농교류 유형

(가) 인적교류 형태

농촌방문 시의 교류유형 중 인적교류에 대해 살펴보면, <표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향 방문 및 돕기가 전체의 62.8%로 가장 높았으며, 자원봉사와 농촌일손돕기(15.8%)가 두 번째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자매결연(7.2%), 정보교류(4.1%), 연수·강좌참석(2.9%), 1사1촌운동(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방문 시 인적교류 형태로는 고향방문과 일손돕기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현재의 인적교류 내용이 주로 농촌과의 연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민이 도농교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고향과의 연계를 활용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4-10> 농촌방문시 인적교류 형태

구 분		빈도 (%)
인적교류 (복수응답)	고향방문 및 돕기	524 (62.8)
	자원봉사, 농촌일손 돕기	132 (15.8)
	자매결연(소비자, 학교, 모임 등)	60 (7.2)
	소식지 및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교류	34 (4.1)
	연수·강좌 참석	24 (2.9)
	1사1촌운동	18 (2.2)
	기타	42 (5.0)
	계	834 (100.0)

(나) 물적교류 형태

농촌방문 시의 물적교류 참여형태를 살펴보면, 산지 직거래(38.4%)와 농특산품·공예품 구입(26.3%)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1 참조). 다음으로는 인터넷 농특산물 구매(10.5%), 농작물·과수·가축분양(10.1%), 땅·주택·별장 임대매매(7.1%), 사업 및 투자(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방문 시 일어나는 물적교류는 산지 직거래와 농특산품·공예품 구입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농촌방문시 물적교류 형태

구 분		빈도 (%)
물적교류 (복수응답)	산지 직거래	242 (38.4)
	농특산품, 공예품 구입	166 (26.3)
	인터넷 통한 농특산물 구매	66 (10.5)
	농작물·과수·가축 분양	64 (10.0)
	대지·주택·별장의 임대·매매	45 (7.1)
	사업경영 및 투자	14 (2.2)
	농업 위탁경영, 계약재배	12 (1.9)
	기타	22 (3.5)
계	631 (100.0)	

(다) 교육·생활·문화체험

농촌방문 시의 교류 유형 중 교육·생활·문화체험형 참여형태를 살펴보면, 지역마을축제 및 행사참여(28.1%)와 농사·수확·농장체험(23.5%)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농촌생활·문화체험(18.8%), 역사문화탐방·전통체험(10.4%), 농촌자연학습·체험학교(6.3%), 농업·지역산업 현장견학(5.7%)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방문 시 교육·생활·문화체험은 축제참가와 농사 및 수확체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4-12> 농촌방문시 교육·생활·문화체험

구 분		빈도 (%)
교육·생활·문화체험 (복수응답)	지역,마을축제,행사참여	197 (28.1)
	농사.수확, 농장체험	165 (23.5)
	농촌생활,문화체험	132 (18.8)
	역사문화탐방, 전통체험	73 (10.4)
	농촌자연학습, 체험학교	44 (6.3)
	농업/지역산업 현장견학	40 (5.7)
	환경농업 교육	22 (3.1)
	바른 식생활 캠프	13 (1.9)
	계	702 (100.0)

(라) 휴양·여가활동

농촌방문 시의 교류 유형 중 휴양·여가활동 참여형태를 살펴보면, 민박이나 펜션에서의 체재·숙박(26.9%)과 낚시·등산·야영(23.9%)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농촌관광(16.0%), 농촌지역 테마관광(12.2%), 관광농원(7.0%), 주말농원운영(7.0%), 실버농장(2.3%)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방문 시 휴양·여가활동은 숙박(민박, 펜션)과 레크레이션활동(낚시·등산·야영)이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3> 농촌방문시 휴양·여가활동

구 분		빈도 (%)
휴양·여가활동 (복수응답)	체재·숙박(민박, 펜션)	249 (26.9)
	낚시·등산·야영	221 (23.9)
	농촌관광	148 (16.0)
	농촌지역테마관광	113 (12.2)
	관광농원 방문	65 (7.0)
	주말농원	65 (7.0)
	실버농장 방문	21 (2.3)
	MTB, ATV	14 (1.5)
	기타	28 (3.0)
계	924 (100.0)	

(3) 농촌방문자의 도농교류 이용행태 및 태도

(가) 도농교류를 시작하게 된 동기

도농교류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생산자·농촌주민과의 친분이나 고향 때문인 경우가 전체의 7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농산물구입(7.8%), 주변의 권유(소비자, 종교단체, 회사, 지지자 등), 자녀교육(3.1%), 종교·가치관(2.1%)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농교류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농촌주민과의 친분이나 자신의 고향이기 때문인 경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도농교류를 시작하게 된 동기

도농교류를 시작하게 된 동기	빈도	%
생산자·농촌주민과의 친분 및 고향이므로	659	72.7
소비자/종교단체/회사/지자체 등 주변의 권유	71	7.8
농산물 구입	71	7.8
자녀교육	28	3.1
종교/가치관	19	2.1
기타	59	6.5
계	907	100.0

(나) 선호하는 도농교류 유형

농촌방문자의 선호하는 교류 유형을 살펴보면, 휴양·여가활동이 전체의 43.3%로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적교류(27.8%), 교육·생활·문화체험(14.1%), 물적교류의 순으로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방문 시 휴양·여가활동과 인적·물적교류가 각각 전체 응답자의 약 41% 정도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5> 참조).

<표 4-15> 선호하는 도농교류 유형

선호하는 도농교류 유형	빈도	%
휴양·여가(농촌관광, 주말농장, 숙박시설 이용 등)	394	43.2
인적 교류(자매결연, 자원봉사, 농촌일손돕기 등)	253	28.2
교육·생활·문화체험(농업농촌체험, 자연학습 등)	128	15.1
물적 교류(농산물구매, 땅·주택 구입, 공장 건립 등)	121	13.5
계	896	100.0

주) 무응답: 152명

(다) 농촌방문시 동반자 형태

농촌방문 시의 동반자 형태를 살펴보면 가족과 함께 방문한 경우가 전체의 67.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친구·친지(18.2%), 단체(6.5%), 혼자(5.0%)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16> 참조). 따라서 가족과 함께 농촌을 방문하는 경우가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박윤호 외(2003)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로서, 가족 동반의 경우가 50.7%, 친구나 친지와 동반인 경우가 33.9%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고 있다(<표 4-17> 참조)

(라) 농촌방문시 1인당 지출경비

1인당 1회 방문시 지출한 경비를 살펴보면, 10만~30만원 미만인 전체의 3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1만~5만원 미만(28.6%), 5만~10만원 미만(26.1%), 30만원 이상(5.5%), 1만원 미만(1.8%)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를 평균해 볼 때 1인당 1회 방문 시 지출경비는 약 9만원으로 산출되었다(<표 4-18> 참조).

<표 4-16> 농촌방문시의 동반자 형태

동반자 형태	빈도	%
가족	622	67.8
친구/친지	167	18.2
단체	60	6.5
혼자	46	5.0
동호회	19	2.1
기타	4	.4
계	918	100.0

<표 4-17> 도시민의 농촌여행시 동반자

(N=769)

구 분		빈도 (%)
여행 동반자	가족 동반	389 (50.7)
	친구나 친지	260 (33.9)
	단체	64 (8.3)
	혼자서	33 (4.3)
	기타	22 (2.9)
	계	768 (100.0)

자료: 박윤호 외(2003), 농촌관광시설 및 서비스의 표준화와 등급화 방안.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농어촌 연구원.

<표 4-18> 농촌방문시 1인당 지출경비

1인당 경비	빈도	%	평균(원)
1만원 미만	16	1.8	90,147
1만-5만원 미만	250	28.6	
5만-10만원 미만	228	26.1	
10만-30만원 미만	332	38.0	
30만원 이상	48	5.5	
계	874	100.0	

(마) 도농교류에 대한 만족도

도농교류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49.2%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43.3%는 그저 그렇다, 9.2%는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방문자 10명 중 약 5명 정도는 도농교류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불만족한 경우는 10명 중 1명 정도로 해석된다. 한편, 도농교류 만족도의 평균값은 5점 척도 중 3.56으로 보통수준을 약간 웃도는 만족도를 보였다(<표 4-19> 참조).

<표 4-19> 도농교류 만족도

도농교류 만족도	빈도	%	평균값 (5점 척도)
매우불만족	14	1.6	3.56
약간불만족	54	6.0	
그저그렇다	389	43.3	
약간만족	295	32.8	
매우만족	147	16.4	
계	899	100.0	

(바) 농촌방문시 좋았던 점과 좋지 않았던 점

농촌방문 시 좋았던 점을 질문한 것에 대해, 쾌적한 자연환경(45.1%)을 가장 높게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고향방문(16.0%), 농촌체험(9.7%), 후한인심(7.3%), 휴양(6.2%), 산지직거래(4.2%), 여가활동(2.4%), 색다른 경험(2.2%)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을 방문하면서 좋지 않았던 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편의시설미비(34.9%)와 교통불편(32.4%)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위생불량(6.7%), 환경파괴(4.8%), 각박한 인심(3.8%), 비싼물가(3.5%)에 대한 응답도 있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로 볼 때, 향후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편의시설을 확대 및 개선하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노력으로서 접근 도로의 정비나 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전체 응답자의 도농교류 경험 및 태도

(1) 도시내에서의 도농교류 경험

현재 살고 있는 도시 내에서 경험한 농촌과의 교류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에서, 농산물직거래가 전체의 49.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텃밭·농원 등 도시 내 또는 근교농업(24.5%)이 두 번째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도시 내 농촌박람회 및 농촌관련 이벤트(11.1%), 농촌주민과의 왕래 및 학생교류(7.8%), 농촌마을과 자매결연(3.7%)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 내에서 경험한 농촌과의 교류는 농산물직거래가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도농교류의 중요성 인식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전체의 42.9%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고 47.5%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응답자 전체의 90.4%가 도농교류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므로, 도시민들이 도농교류가 매우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겠다(<표 4-22> 참조).

<표 4-20> 농촌방문시 좋았던 점과 좋지 않았던 점

구 분		빈도	%
좋았던 점 (복수응답)	쾌적한 자연환경	335	45.1
	고향방문(부모/친지/친구)	119	16.0
	농촌체험농촌현대화	72	9.7
	후한인심	54	7.3
	휴양	46	6.2
	산지 직거래	31	4.2
	여가활동	18	2.4
	새다른 경험	16	2.2
	추억회상	16	2.2
	음식	12	1.6
	봉사활동	8	1.1
	전통문화	2	0.3
	계	742	100.0
좋지 않았던 점 (복수응답)	편의시설 미비	212	35.2
	교통불편	195	32.4
	위생불량	40	6.7
	환경파괴	29	4.8
	각박한 인심	23	3.8
	비싼 물가	21	3.5
	일손부족	19	3.2
	문화시설부재	17	2.8
	환경오염	14	2.3
	도시화	13	2.2
	접근성	6	1.0
	기타	12	2.1
	계	601	100.0

<표 4-21> 도시내에서의 도농교류 경험(복수응답)

도시내 경험	빈도	%
농산물직거래	635	49.8
텃밭·농원 등 도시 내 또는 근교농업	312	24.5
도시 내 농촌박람회, 농촌관련 이벤트	142	11.1
농촌주민과의 왕래 및 학생교류	100	7.8
농촌마을과 자매결연	47	3.7
기타	38	3.0
계	1274	100.0

<표 4-22> 도농교류의 중요성 인식

도농교류 중요성 인식	빈도	%
매우중요	447	42.9
중요	495	47.5
그저 그렇다	89	8.5
중요하지 않음	10	1.0
전혀 중요하지 않음	1	0.1
계	1042	100.0

(3) 도농교류 추진시 중점사항

한편, 도농교류 추진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주민들과의 가치공유 및 공동체 문화유지(29.1%), 정서순화·고향기능·농촌에서의 여가 및 여행(24.1%), 농촌지역 투자를 통한 농촌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12.9%), 안전한 먹거리(12.8%)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농촌지역 투자를 통한 농촌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24.9%), 정서순화·고향기능·농촌에서의 여가 및 여행(16.7%), 전원생활·귀농·은퇴후 거주(16.4%), 주민의 소득향상(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23> 도농교류 추진시 중점사항

중점사항	우선순위 1		우선순위 2	
	빈도	%	빈도	%
주민들과의 가치공유, 공동체 문화 유지	305	29.1	81	8.3
정서순화,고향기능,농촌에서의 여가 및 여행	253	24.1	164	16.7
농촌지역 투자를 통한 농촌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	135	12.9	244	24.9
안전한 먹거리 제공	134	12.8	65	6.6
주민의 소득향상	87	8.3	123	12.5
농업, 농촌 체험 및 자녀교육	86	8.2	138	14.1
전원생활, 귀농, 은퇴후 거주	45	4.3	161	16.4
기타	1	0.1	5	0.5
계	1046	100.0	981	100.0

4.1.2 도농교류 활성화에 대한 도시민의 의견

1)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1) 농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농촌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 1순위는 농촌지도자 등 인력 육성(29.7%)과 농촌환경보전 및 계획적인 개발계획(22.0%)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다. 2순위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통개선(15.2%), 농촌환경보전 및 계획적인 개발계획(14.1%)을 꼽았으며, 3순위는 교육·의료 등 여건마련과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22.2%), 도농교류 편의시설 및 수변 공간정비 등 휴식공간 제공(14.4%)을 꼽았다(<표 4-24> 참조).

<표 4-24> 농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도시민의 의견

농촌 활성화 방안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	빈도	%	빈도	%
농촌의 지도자 등 인력육성	304	29.7	40	3.9	27	2.7
농촌환경보전 및 계획적인 개발계획	226	22.0	144	14.1	73	7.3
농촌관광 마을 육성	95	9.3	86	8.4	35	3.5
도농교류 지원조직의 네트워크 형성	93	9.1	116	11.4	77	7.7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통 개선	72	7.0	155	15.2	120	12.0
인구유입 및 투자여건 형성	59	5.8	120	11.8	104	10.4
도농교류 편의시설, 수변공간정비 등 휴식 공간 제공	57	5.6	112	11.0	144	14.4
도농교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52	5.1	114	11.2	69	6.9
교육, 의료 등 여건마련과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50	4.9	74	7.2	222	22.2
주택과 땅 구입, 사업관련정보제공,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	9	0.9	35	3.4	65	6.5
규제완화 등 제도적 개선	6	0.6	22	2.2	61	6.1
기타	2	0.2	3	0.3	4	0.4
계	1025	100.0	1021	100.0	1001	100.0

(2) 도농교류 활성화 방향

향후 도농교류 활성화 방향에 대한 도시민의 의견을 살펴보면, 인적 교류(자매결연, 자원봉사, 농촌일손돕기 등)가 전체의 33.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휴양·여가(농촌관광, 주말농장, 숙박시설 이용 등) 24.7%, 교육·생활·문화체험(농업농촌체험, 자연학습) 24.2%, 물적 교류(농산물구매, 땅·주택 구입, 공장건립) 16.9%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적·물적 교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 도농교류 유형에 따른 활성화 방향

도농교류 유형	빈도	%
인적 교류 (자매결연, 자원봉사, 농촌일손돕기 등)	353	33.8
휴양·여가 (농촌관광, 주말농장, 숙박시설 이용 등)	258	24.7
교육·생활·문화체험 (농업농촌체험, 자연학습 등)	252	24.2
물적 교류 (농산물구매, 땅·주택 구입, 공장 건립 등)	176	16.9
기타	4	.4
계	1043	100.0

(3) 농촌과의 교류방식에 대한 의견

현 시점에서 농촌과 필요한 교류방식에 대한 의견으로서, 농업·농촌체험/농산물구입/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전체의 50.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지역축제 및 행사참여/주변관광지 방문(27.6%)과 인터넷과 정기간행물을 통한 농촌 정보수집 및 농특산물 구입

(13.5%)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귀농이나 농촌거주(5.4%)와 1사1촌 운동 및 자매결연(3.0%)에 대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농촌과 필요한 교류방식은 농업·농촌체험과 안전한 농산물 구입, 그리고 지역축제·행사 참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26> 농촌과의 교류방식에 대한 의견

교 류 방 식	빈도	%
농업,농촌체험, 농산물 구입, 안전한 먹거리 제공등	522	50.0
지역의 축제나 행사 참여, 주변관광지 방문	288	27.6
인터넷, 정기간행물을 통한 농촌 정보수집 및 농특산물 구입	141	13.5
1사1촌운동, 자매결연	31	3.0
귀농 또는 농촌에 거주	56	5.4
기타	6	.6
계	1044	100.0

(4) 주 5일 근무제의 영향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한 농촌 방문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연간 3~4회를 더 방문할 계획인 경우가 전체의 31.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1~2회(22.8%), 5~10회(18.5%), 10회 이상(17.0%)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제는 향후 농촌방문 횟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표 4-27> 주 5일 근무제의 영향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농촌 방문계획	빈도	%
1-2회/년	238	22.8
3-4회/년	333	31.8
5-10회/년	194	18.5
10회이상	178	17.0
계획없음	103	9.8
계	1046	100.0

(5) 농촌방문시 불편사항

농촌방문 시 불편하거나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2가지 이상 답할 것을 요구한 문항에 대해, 길 찾기와 도로사정 등 접근성(24.4%)과 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24.4%)이 가장 큰 불편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교통수단(14.5%), 숙박시설(12.0%), 휴식 및 여가시설(9.0%), 운영프로그램 및 서비스(4.4%), 현지물가(4.4%)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문제, 숙박시설, 편의시설의 불편함은 임상봉 외(2002)의 연구에서도 도시민이 농촌 여행시의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서 숙박시설(43.5%), 교통여건(24.0%)을 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윤희 외(2003)의 연구에서도 도시민이 농촌관광에서 느낀 불편 사항으로서 길찾기와 교통불편이 약 32%였고, 숙박시설 20.5%, 편의시설 부족이 16.5%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농촌관광을 포함한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의 개선, 숙박시설·편의시설 정비 및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표 4-28> 농촌방문시의 우려되는 불편사항

농촌방문시의 불편사항	빈도 (%)
길 찾기, 도로사정, 거리(소요시간)	485 (24.4)
주차장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	485 (24.4)
교통수단	288 (14.5)
숙박시설	238 (12.0)
휴식 및 여가시설	179 (9.0)
운영프로그램 및 서비스	88 (4.4)
현지물가	88 (4.4)
교육 및 체험장	68 (3.4)
음식	54 (2.7)
기타	12 (0.6)
계	1,985 (100.0)

<표 4-29> 농촌여행시 불편사항

(N=1,718)

구 분	빈도	%
숙박시설	748	43.5
음식수준	125	7.3
교통여건	413	24.0
통신등 인터넷시설	182	10.6
의료시설	212	12.3
기타	38	2.2
계	1,718	100.0

자료: 임상봉 외(2002), 농촌 소득기반과 연계되는 생태·문화자원의 활용방안 연구.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표 4-30> 도시 소비자가 농촌관광에서 느낀 우려 사항

(N=769)

구 분	빈도 (%)
길찾기	197 (14.0)
교통불편	252 (17.9)
여행 정보	112 (8.0)
숙박시설	289 (20.5)
편의시설 부족	233 (16.5)
체험시설 부족	54 (3.8)
운동휴양시설 부족	18 (1.3)
통신, 인터넷 시설	50 (3.5)
음 식	53 (3.8)
현지 물가	57 (4.0)
현지 주민의 불친절	19 (1.3)
체험프로그램 부족	70 (5.0)
기타	6 (0.4)
계	1,410 (100.0)

자료: 박윤희 외(2003), 농촌관광 시설 및 서비스의 표준화와 등급화 방안.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6) 도농교류 효과

도농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도시민의 의견을 살펴보면, 농촌관광 및 체험관광을 통한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 그리고 자녀교육 효과(28.7%)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인간적인 교류를 통한 만족과 고향사랑 효과(24.4%), 농산물 구입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22.0%), 농촌주민에게 소득향상 효과(15.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도시민에게 땅·주택 등 구매정보 및 투자의 효과(5.0%), 교류인구 증가 및 향후 농촌 거주인구 증가효과(4.2%)도 다소 있을 것을 전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31> 도농교류 효과

도농교류 효과	빈도	%
농촌관광 및 체험관광을 통한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 자녀교육	300	28.7
인간적인 교류를 통한 만족, 고향사랑	255	24.4
농산물 구입 등 안전한 먹거리 제공	230	22.0
농촌주민의 소득향상	161	15.4
도시민에게 땅, 주택 등 구매정보 및 투자효과	52	5.0
교류인구 증가 및 향후 농촌 거주인구 증가	44	4.2
기타	4	.4
계	1,046	100.0

2) 도농교류의 조직 및 지원에 대한 의견

(1) 도농교류 전담조직의 필요성 인식

도농교류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체의 84.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9%는 필요하지 않다, 6.5%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즉, 100명 중 약 85명은 도농교류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농교류센터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표 4-32> 도농교류 전담조직의 필요성

도농교류 전담조직	빈도	%
필요 없다	25	2.4
상관없다	69	6.6
잘 모르겠다	68	6.5
필요	655	62.9
매우필요	225	21.6
계	1,042	100.0

(2) 도농교류 단체나 조직에 대한 인지

도농교류를 연결해주는 단체나 조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본 결과, 전체의 53.4%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한, 들어본 적은 있으나 이용해본 적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43.2%를 차지했다. 도농교류 관련 단체나 전담조직을 알고 있으며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단지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농교류 관련 단체나 조직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4-33> 도농교류 단체나 조직에 대한 인지

도농교류 단체 인지	빈도	%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554	53.4
들어본 적이 있으나 이용해 본 적은 없다	448	43.2
잘 알고 있으며 이용해 본 적이 있다	36	3.5
계	1,038	100.0

(3) 단체나 조직의 역할

도농교류를 연결해주는 단체나 조직의 역할에 대한 도시민의 의견을 물어본 결과, 도시와 농촌간 네트워크 형성 및 다양한 맞춤형 정보 제공(52.0%)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도시를 상대로 농촌홍보 및 캠페인(18.6%), 기업과 마을 그리고 도시민과 농촌주민간 자매결연 맺어주기(14.3%), 농촌을 대상으로 한 주민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7.7%), 농촌의 투자 정보 제공 및 알선, 컨설팅, 제도개선(6.7%)의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4> 단체나 조직의 역할

단체 역할	빈도	%
도시-농촌 네트워크 형성, 다양한 맞춤형 정보 제공	542	52.0
도시를 상대로 농촌 홍보 및 캠페인	194	18.6
기업과 마을, 주민과 주민간의 자매결연 맺어주기	149	14.3
농촌을 대상으로 한 주민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80	7.7
농촌의 투자정보 제공 및 알선, 컨설팅, 제도개선	70	6.7
기타	8	0.8
계	1,043	100.0

(4) 도농교류 추진시 농촌의 문제점

도농교류 추진에 있어서 가장 큰 농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첫째로 인력부족(33.0%)을 들고, 두번째로 이용시설 및 서비스 부족(29.5%)의 문제를 들었다. 또한 농촌지역의 특색부족(12.9%), 투자여건미흡(12.7%), 자연환경 보전 및 난개발(11.4%)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였다. 현재 도농교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도농교류를 담당할 농촌의 인력부족과 함께, 도시민이 농촌마을을 방문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의 부족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5> 도농교류 추진시 농촌의 문제점

농촌교류 추진시 농촌 문제점	빈도	%
인력부족	342	33.0
이용시설의 수준과 서비스 부족	306	29.5
농촌지역의 특색 부족	134	12.9
투자여건 미흡	132	12.7
자연환경 보전 및 난개발	118	11.4
기타	5	0.5
계	1,037	100.0

(5) 정부지원 사항에 대한 의견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에서, 1순위는 농촌환경 보전 및 계획적인 개발(22.0%)이 되도록 지원할 것과 농촌지도자 등 인력육성(14.0%)에 대한 지원을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농촌환경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은 여기에서도 농촌의 전통적인 식량생산 기능보다는 국토환경 차원에서의 보전대상지역으로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농촌의 기능이 풍부한 자연환경과 오염되지 않은 공기 등으로 도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이러한 인식은 젊은 층으로 갈수록 크게 나타나(<표 4-37> 참고), 농촌의 기능 및 가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한편, 2순위에는 교육·의료 등 여건마련과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24.4%), 규제완화 등 제도적 개선(11.5%)을 꼽고 있다.

<표 4-36> 정부지원 사항

정부지원 사항	1순위		2순위	
	빈도	%	빈도	%
농촌환경보전 및 계획적인 개발계획	227	22.0	99	9.6
농촌지도자 등 인력육성	144	14.0	32	3.1
인구유입 및 투자여건 형성	113	10.9	100	9.7
교육, 의료 등 여건마련과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86	8.3	251	24.4
도농교류 편의시설, 수변공간정비 등 휴식 공간 제공	82	7.9	96	9.3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통 개선	78	7.6	69	6.7
도농교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66	6.4	73	7.1
규제완화 등 제도적 개선	63	6.1	118	11.5
도농교류 지원조직의 네트워크 형성	60	5.8	60	5.8
주택과 땅 구입, 사업관련 정보제공, 원활한 행정서비스 지원	57	5.5	85	8.3
농촌관광 마을 육성	54	5.2	46	4.5
기타	2	0.2	1	0.1
계	1,032	100.0	1030	100.0

<표 4-37> 연령별 농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응답 결과

농촌의 기능	연령			계
	20대이하	30~40대	50대이상	
풍부한 자연환경과 신선한 공기, 자연스러운 경관 등으로 국민에게 휴식·휴양을 제공하는 기능	116 (20.4%)	442 (22.0%)	38 (20.8%)	596 (21.6%)
전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기능	126 (22.2%)	408 (20.3%)	26 (14.2%)	560 (20.3%)
국토환경차원에서 자연·생태환경유지 기능	104 (18.3%)	373 (18.6%)	32 (17.5%)	509 (18.5%)
농촌주민들의 생활을 유지시킴	74 (13.0%)	332 (16.6%)	36 (19.7%)	442 (16.1%)
전원생활 등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주공간	63 (11.1%)	195 (9.7%)	17 (9.3%)	275 (10.0%)
전 국민의 농업·농촌체험과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기능	52 (9.2%)	182 (9.1%)	26 (14.2%)	260 (9.4%)
농촌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레저공간 제공	32 (5.6%)	72 (3.6%)	7 (3.8%)	111 (4.0%)
기타	1 (0.2%)	2 (0.1%)	1 (0.1%)	4 (0.1%)
계	568 (100%)	2,006 (100%)	183 (100%)	2,757 (100%)

자료: 임상봉 외, 2004.

3) 농촌 투자에 대한 의견

도시민의 농촌에 투자를 할 경우 바람직한 유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전원생활·은퇴자·동호인 등을 위한 마을 조성 후 거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30.8%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과수·가축분양·주말농장 임대 등의 방법이 23.1%, 펜션 등 숙박시설 등의 민박업 참여 방법이 20.5% 수준에서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내용에서, 도시민의 농촌 투자는 농촌의 환경적 잇점에 관심은 있지만 농업 자체에 대한 적극적 의지는 없으며, 농촌에 거주하게 되더라도 도시 출신 거주자가 따로 모여 살 수 있는 형태의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4-38> 참조). 이러한 결과는 도시민의 농촌투자 유도가 대규모보다는 소규모의 형태가 더 바람직함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표 4-38> 농촌 투자유형

농촌투자유형	빈도	%
전원생활, 은퇴자, 동호인 등 마을 조성 후 거주	322	30.8
과수, 가축분양, 주말농장 임대	241	23.1
펜션 등 숙박시설 등을 통한 농촌 민박업 참여	214	20.5
식품판매, 농산물가공 등 소규모 자본 투자	190	18.2
중규모 이상의 숙박단지, 체육시설, 레저단지 조성에 투자	72	6.9
기타	5	.5
계	1044	100.0

4) 도시민의 농촌 관련 정보 입수 방법 및 선호하는 정보

도시민이 농촌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는가에 대해, 1순위에서는 TV·라디오 등 매스컴이 전체의 4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주변이웃이나 친지에 의한 구전(25.4%), 인터넷(19.0%), 신문·잡지(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 주변이웃이나 친지에 의한 구전(34.2%), 신문·잡지(32.0%), TV·라디오 등 매스컴(20.0%)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에 관한 정보제공에 있어 TV·라디오 등의 매스컴을 이용해 홍보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39> 농촌 관련 정보입수 방법

정보입수 방법	1순위		2순위	
	빈도	%	빈도	%
TV·라디오 등 매스컴	461	44.2	160	20.0
주변 이웃이나 친지	265	25.4	274	34.2
인터넷검색	198	19.0	71	8.9
신문/잡지	105	10.1	257	32.0
백화점, 카드사, 모바일회사 등의 홍보	7	0.7	18	2.2
핸드폰을 통한 정보	0	0.0	9	1.1
기타	6	0.6	13	1.6
계	1042	100.0	802	100.0

한편 도시민들이 도농교류에 관해 얻고자 하는 정보의 종류를 살펴보면, 농특산물에 관한 정보(29.8%)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축제정보(20.4%), 투자정보(10.0%), 거주지정보(6.9%)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민들에게 농특산물에 관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표 4-40> 도시민이 원하는 도농교류 정보

정보종류	빈도	%
농특산물	334	32.1
농촌체험 및 관광	310	29.8
축제 등 행사	212	20.4
투자정보	104	10.0
거주지	72	6.9
기타	9	.9
계	1041	100.0

4.1.3 도농교류 유형별 수요분석 및 모형도출

1) 도농교류 유형별 수요분석

(1) 인적교류

향후 도농교류를 원하는 형태 중 인적교류에 대해 살펴보면, 고향방문 및 돕기가 전체의 26.9%로 가장 높았으며, 자원봉사와 농촌일손돕기(24.6%)가 두 번째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은퇴 후 거주(19.7%), 제2고향 갖기(9.0%), 정보교류(8.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수·강좌 참석(2.3%), 1사1촌운동(2.2%)은 다른 인적교류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선호하는 인적교류는 고향방문, 자원봉사, 농촌일손돕기, 은퇴 후 거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1> 인적교류

구 분		빈도 (%)
인적교류 (복수응답)	고향방문 및 돕기	448 (26.9)
	자원봉사, 농촌일손돕기	410 (24.6)
	은퇴 후 거주	328 (19.7)
	제2고향 갖기	150 (9.0)
	소식지 및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교류	142 (8.5)
	자매결연(소비자, 학교, 모임등)	111 (6.7)
	연수, 강좌 참석	38 (2.3)
	1사1촌운동	37 (2.2)
	기타	1 (0.1)
	계	1665 (100.0)

(2) 물적 교류

향후 원하는 도농교류의 유형 중 물적 교류 참여형태를 살펴보면, 산지 직거래(31.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농특산물 구매(17.3%), 휴양단지 및 별장분양(13.4%), 농특산물·공예품 구입(11.7%), 땅·주택·별장 임대매매(9.1%), 농작물·과수·가축분양(7.9%), 농업위탁경영 및 위탁재배(6.3%), 사업경영 및 투자(2.5%)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도시민이 원하는 물적 교류는 농산물 산지직거래와 인터넷 농특산물 구매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산물·특산물 직거래를 위한 농촌마을의 판매장 및 인터넷상의 판매 서비스 구축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교육·생활·문화체험

향후 도시민이 원하는 도농교류 유형 중 교육·생활·문화체험 참여형태를 살펴보면, 농촌 자연학습·체험학교(15.5%), 농사·수확·농장체험(15.1%), 농촌생활·문화체험(14.8%), 지역마을축제 및 행사참여(14.6%), 역사문화탐방·전통체험(13.4%)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바른 식생활캠프(9.3%), 농업·지역산업 현장견학(4.5%), 평생학습 마을만들기(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선호하는 교육·생활·문화체험 참여형태는 농촌자연학습·체험학교와 농사·수확·농장체험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2> 향후 도농교류 형태(물적 교류)

구 분		빈도(%)
물적교류 (복수응답)	산지직거래	516(31.3)
	인터넷 농특산물 구매	285(13.4)
	휴양단지, 별장분양	220(19.7)
	농특산품, 공예품 구입	193(11.7)
	땅, 주택, 별장 임대.매매	150(9.1)
	농작물, 과수, 가축분양	130(7.9)
	농업 위탁경영, 계약재배	104(6.3)
	사업경영 및 투자	41(2.5)
	기타	7(0.4)
계	1646(100.0)	

<표 4-43> 향후 도농교류 형태(교육·생활·문화체험)

구 분		빈도(%)
교육·생활·문화체험 (복수응답)	농촌자연학습, 체험학교	284(15.5)
	농사.수확, 농장체험	276(15.1)
	농촌생활, 문화체험	271(14.8)
	지역 마을축제·행사참여	268(14.6)
	역사문화탐방, 전통체험	245(13.4)
	환경농업 교육	188(10.3)
	바른 식생활 캠프	170(4.5)
	농업/지역산업 현장견학	82(6.3)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44(2.4)
	기타	3(0.2)
계	1831(100.0)	

(4) 휴양·여가활동

향후 원하는 도농교류 유형 중 휴양·여가활동 참여형태를 살펴보면, 주말농원운영(21.9%), 농촌지역 테마관광(17.7%), 낚시·등산·야영(15.9%), 관광농원(12.0%), 체재·숙박(11.4%), 농촌관광(11.0%), 실버농장(8.5%), MTB·ATV(1.4%)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선호하는 휴양·여가활동형태는 주말농원운영과 농촌지역 테마관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44> 참조).

<표 4-44> 향후 도농교류 형태(휴양·여가활동)

구 분		빈도(%)
휴양·여가활동 (복수응답)	주말농원 운영	378(21.9)
	농촌지역테마관광(보양,여행..)	305(17.7)
	낚시,등산,야영	275(15.9)
	관광농원 방문	207(12.0)
	체재,숙박(민박,펜션)	197(11.4)
	농촌관광	190(11.0)
	실버농장 방문	146(8.5)
	MTB,ATV	25(1.4)
	기타	4(0.2)
계	1727(100.0)	

2) 도농교류 유형에 따른 도시민 특성 분석

(1) 도농교류의 유형별 선호분석

도농교류의 유형에 대해 설문조사에서는 인적교류, 물적교류, 교육·생활·문화체험, 휴양·여가의 네가지로 조사하였다. 네 개 유형중 교육·생활·문화체험과 휴양·여가형은 현재 국내 및 국외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그린투어리즘의 개념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고,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 이 두 유형이 다소 불명확하게 인식되는 부분이 드러나, 도시민 수요분석 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분석과정에서는 하나로 합쳐서 교육·생활·문화체험 및 휴양·여가형이라고 하였다. 즉, 도시민 수요분석을 위한 모델 도출 과정에서는 인적교류, 물적교류, 교육·생활·문화체험 및 휴양·여가형이라는 세 개의 유형으로 다루었다.

도시민에게 도농교류의 유형을 크게 인적교류, 물적교류, 그리고 교육·생활·문화체험 및 휴양·여가교류 등 3가지로 유형화하여, 어느 형태의 도농교류를 선호하는지와 선호하는 도농교류 유형에 따른 도시민의 사회·경제적 특성변수와 도농교류 행태변수들의 특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았다. 즉, 방문횟수, 평균경비, 교류만족도와 같은 도시민 도농교류 행태에 관련된 사항과 함께 소득수준, 학력, 성별, 농촌생활 경험유무, 결혼유무와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들을 고려하였다.

<표 4-45>는 도농교류의 유형별 선호에 대한 결과이다. 총 896명의 도시민 가운데 약 58.3%의 도시민이 교육·생활·문화체험 및 휴양·여가형태의 도농교류를 선호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적교류 28.2%, 물적교류 13.5% 순으로 선호하고 있다.

<표 4-45> 도농교류의 유형별 선호 빈도수

도농교류 유형	빈도	%
인적교류	253	28.2
물적교류	121	13.5
교육·생활·문화체험 및 휴양·여가교류	522	58.3
합 계	896	100.0

주) 무응답: 152명

다음은 선호 유형에 있어서 수량화할 수 있는 특성변수들의 평균값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고, Duncan 다중검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4-46>에서와 같이 유형별 평균값의 차이가 나는 변수로는 연령, 학력, 농촌여행경비, 방문횟수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물적교류를 선호하는 도시민의 연령이 가장 높았으며, 인적교류, 교육·생활·문화체험 및 휴양·여가교류 순으로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이 높은 도시민들이 물적교류를 선호한다는 것은 도시민의 농촌 투자 부문에 있어서 농촌 전원주택, 별

장의 분양이나 임대 등의 실수요자가 됨을 시사한다.

학력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생활·문화체험 및 휴양·여가교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여행경비에서는 물질교류를 선호하는 도시민의 여행경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력이 높은 도시민의 경우 농촌체험 등을 통한 교육적 가치 또는 농촌의 자연 환경에서 여행하는 휴양적 가치에 보다 비중을 두는 경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농촌으로의 방문횟수가 많은 도시민들이 인적교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촌은 자주 방문할수록 농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농촌 또는 농촌생활의 가치를 공유하려는 경향으로 판단된다.

<표 4-46> 도농교류 선호유형별 특성변수 평균 차이검정

도시민 특성변수 \ 도농교류 유형	인적교류	물질교류	교육·생활·문화체험 및 휴양·여가교류	F-값
연령	3.61 b	3.93 a	3.35 c	14.577***
학력	2.77 b	2.96 b	3.22 a	15.715***
소득	3.15 a	3.34 a	3.27 a	1.468
농촌여행경비	80,142 b	100,785 a	95,197 ab	2.692*
방문횟수	19.76 a	10.91 b	10.68 b	9.753***
교류만족	3.58 a	3.44 a	3.59 a	1.338

주) ***는 1%, *는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a, b, c는 Duncan-다중검정 Grouping.

※ 연령 : 20세 미만(1), 20~29세(2), 30~39세(3), 40~49세(4), 50세 이상(5)

학력 : 중졸이하(1), 고등학교(2), 전문대(3), 대학교(4), 대학원(5)

소득 : 가계당 월평균소득으로 100만원미만(1), 100만원대(2), 200만원대(3), 300~400만원대(4), 500~600만원대(5), 700만원 이상(6)

경비 : 농촌지역 여행시 1회 1인당 평균경비(원)

방문횟수 : 최근 3년간 농촌방문횟수

교류만족 : 경험했던 교류에 대한 만족도(매우 불만족(1점)~매우 만족(5점))

다음은 선호 유형별로 수량화될 수 없는 도시민들의 범주형 특성변수들이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표 4-47>과 같이 교차분석을 통한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농촌 생활유무와 결혼유무에 따라서 선호하는 도농교류 유형이 차이가 나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설명변수별 선호 차이는 다중로지트모델 분석을 통해 도농교류 유형별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검토된다.

<표 4-47> 도농교류 선호 유형별 특성변수 교차분석

도농교류 유형		인적교류		물적교류		교육·생활·문화체험 및 휴양·여가 교류		Pearson X ²
		N	%	N	%	N	%	
성 별	남	125	49.4	71	58.7	257	49.3	3.640
	여	128	50.6	50	41.3	264	50.7	
농촌생활 경험	있다	173	68.7	76	62.8	240	46.1	38.681***
	없다	79	31.3	45	37.2	281	53.9	
결혼유무	미혼	72	28.9	19	15.7	205	39.4	27.819***
	기혼	177	71.1	102	84.3	315	60.6	

(2) 도농교류의 유형별 활성화 분석

도농교류의 유형별 선호 선택과 달리, 앞으로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도농교류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도시민의 선택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표 4-48>과 같이 총 1,039명의 도시민 가운데 약 49%의 도시민이 교육·생활·문화체험 및 휴양·여가형태를 선택한 반면, 인적교류형태 34%, 물적교류 형태 17%로 많은 도시민들이 교육·생활·문화체험 및 휴양·여가형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4-48> 도농교류의 유형별 활성화 선택 빈도수

도농교류 유형	빈도	%
인적교류	353	34.0
물적교류	176	16.9
교육·생활·문화체험 및 휴양·여가교류	510	49.1
합 계	1,039	100.0

주) 9명의 도시민이 응답하지 않았음.

다음은 도농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도농교류 유형별로 수량화할 수 있는 특성변수들의 평균값이 차이나는 지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4-49>와 같으며, 모든 변수에서 유형별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인적교류와 물적교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도시민의 연령이 교육·생활·문화체험 및 휴양·여가교류를 선택한 도시민에 비하여 연령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에서는 교육·생활·문화체험 및 휴양·여가교류와 물적교류를 선택한 도시민이 인적교류를 선택한 도시민보다도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에서는 물적교류를 선택한 도시민의 소득이 높았으며, 농촌여행경비에서는 물적교류를 선호하는 도시민의 여행경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으로의 방문횟수가 많은 도시민들이 인적교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교류만족도가 높은 도시민들은 인적교류와 교육·생활·문화체험 및 휴양·여가교류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9> 도농교류 활성화 유형별 특성변수 평균 차이검정

도시민 특성변수	도농교류 유형	도농교류 유형			F-값
		인적교류	물적교류	교육·생활·문화체험 및 휴양·여가교류	
연령		3.67 a	3.69 a	3.30 b	13.902***
학력		2.77 b	3.16 a	3.28 a	25.159***
소득		3.14 b	3.41 a	3.23 ab	3.554**
농촌여행경비		81,046 b	112,234 a	91,533 b	5.533***
방문횟수		15.67 a	11.97 ab	11.02 b	3.299**
교류만족		3.64 a	3.41 b	3.57 a	3.292**

주) ***는 1%, *는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a, b, c는 Duncan-다중검정 Grouping.

※ 연령 : 20세 미만(1), 20~29세(2), 30~39세(3), 40~49세(4), 50세 이상(5)

학력 : 중졸이하(1), 고등학교(2), 전문대(3), 대학교(4), 대학원(5)

소득 : 가계당 월평균소득으로 100만원미만(1), 100만원대(2), 200만원대(3), 300~400만원대(4), 500~600만원대(5), 700만원 이상(6)

경비 : 농촌지역 여행시 1회 1인당 평균경비(원)

방문횟수 : 최근 3년간 농촌방문횟수

교류만족 : 경험했던 교류에 대한 만족도(매우 불만족(1점)~매우 만족(5점))

다음은 유형별로 수량화될 수 없는 도시민들의 범주형 특성변수들이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표 4-50>과 같이 교차분석을 통한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성별, 농촌생활유무, 결혼유무에 따라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선택한 도농교류 유형이 차이가 나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표 4-50> 도농교류 활성화 유형별 특성변수 교차분석

도시민 특성변수	도농교류 유형	인적교류		물적교류		교육·생활·문화체험 및 휴양·여가		Pearson X ²
		N	%	N	%	N	%	
		성별	남	161	45.6	101	57.7	
	여	192	54.4	74	42.3	253	49.6	
농촌생활 경험	있다	213	60.7	91	51.7	230	45.2	19.978***
	없다	138	39.3	85	48.3	279	54.8	
결혼유무	미혼	91	26.1	46	26.1	220	43.6	34.686***
	기혼	258	73.9	130	73.9	285	56.4	

3) 도농교류의 유형별 수요분석 모형

(1) 분석모형

도농교류의 유형별 선호 및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도농교류 유형별로 도시민의 선호 및 활성화해야 할 유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다중로짓모형 (multinomial logit model)을 채택하여 도시민들이 어떤 형태의 도농교류를 선호하는지와 어떤 형태의 도농교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요인별로 규명함으로써 현재의 도농교류 정보를 적출하고자 하였다.

일반 도시민들이 도농교류의 선호유형 및 활성화 형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채택된 다중로짓 모형의 유도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도농교류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할 의향이 있는 도시민 i 가 j 유형의 도농교류에 대하여 선호할 때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다음의 식(1)과 같이 확률효용함수 (random utility function)에 의해 나타낼 수 있다.

$$(1) \quad U_{ij} = V_{ij}(X_i) + \varepsilon_{ij}$$

위의 식(1)에서 U_{ij} 는 도시민 i 가 j 유형의 도농교류를 참여 혹은 선호할 때 얻을 수 있는 효용수준으로 관찰이 가능한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인 효용함수 $V_{ij}(X_{ij})$ 와 확률변수 ε_{ij} 의 합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X_i 는 i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들(characteristics)로 이루어진 벡터이다.

도농교류의 유형에 있어 T 개의 유형이 존재한다고 하자. 이 경우 j 유형의 도농교류가 i 도시민에게 가장 높은 효용수준을 제공하면, i 도시민은 j 도농교류에 참여하거나 혹은 선호할 것이고, 이는 다음의 식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에 의하여 나타낼 수 있다.

$$(2) \quad D_{ij} = \left[\frac{1 \text{ if } U_{ij} = \max(U_{i1}, U_{i2}, \dots, U_{iT})}{\text{otherwise}} \right]$$

식 (2)에서 $U_{ij} = \max(U_{i1}, U_{i2}, \dots, U_{iT})$ 이라는 사실은 모든 $t \neq j$ 에 대하여 $V_{ij} + \varepsilon_{ij} > V_{it} + \varepsilon_{it}$ 또는 $\varepsilon_{ij} + V_{ij} - V_{it} > \varepsilon_{it}$ 가 성립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i 도시민이 j 도농교류에 참여하거나 혹은 선호할 확률 $\text{Prob}(D_{ij}=1)$ 은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 (multi-logistic regression model)을 적용하여 도출할 수 있다.

앞의 식(1)의 확률효용함수를 선형함수의 형태인 $U_{ij} = \beta_j X_i + \varepsilon_{ij}$ 로 가정하면, i 도시민이 j 도농교류에 참여하거나 혹은 선호할 확률 $\text{Prob}(P_{ij})$ 은 다음의 식(3)과 같이 다항 로지스틱 모형으로 표시된다.

$$(3) \quad P_{ij} = \frac{e^{\beta'_{j} X_i}}{\sum_{i=1}^T e^{\beta'_{j} X_i}}$$

한편, 위의 식(3)에서 $j=1$ 을 기준으로 표준화 할 경우 식(4)가 도출된다.

$$(4) \quad P_{i1} = \frac{1}{\sum_{i=2}^T e^{\beta'_{j} X_i}}, \quad P_{ij} = \frac{e^{\beta'_{j} X_i}}{\sum_{i=2}^T e^{\beta'_{j} X_i}}, \quad j=2, \dots, T.$$

식 (4)의 확률의 비를 구하고 로그를 취하면 다음의 식 (5)와 같은 다중로짓모형의 추정식이 유도된다. 이 모형의 계수들은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의해 추정되며, 그 추정량은 유효추정량(efficient)이고, 일치추정량(consistent)이며, 점근적 정규분포를 가지게 된다.

$$(5) \quad \ln \frac{P_{ij}}{P_{i1}} = \beta'_{j} X_i$$

(2) 분석자료

다중로짓모형에 투입된 종속변수의 경우 i 도시민의 도농교류 유형별 선호를 나타내는 지시 변수와 향후 활성화되어야 할 도농교류의 유형을 나타내는 지시변수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도시민에게 도농교류의 유형을 크게 인적교류, 물적교류, 그리고 교육·생활·문화체험 및 휴양·여가교류 등 3가지로 유형화하여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교류형태를 알려준 후, 선호하는 유형과 앞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유형을 선택하도록 조사하였다.

따라서 i 도시민이 특정 j 도농교류(인적교류($j=1$), 물적교류($j=2$), 교육·생활·문화체험교류 및 휴양·여가교류($j=3$)) 중 하나를 선호하거나 활성화되어야 할 유형이라고 선택할 경우의 지시 변수(D_{ij})는 1이며, 선택하지 않은 유형에 대하여는 지시변수(D_{ij})를 0으로 지정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i 도시민이 j 도농교류 유형을 선택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별로 규명하기 위하여 도농교류 방문횟수, 농촌방문시 일인당 평균경비, 교류만족도와 같은 도시민 도농교류 행태에 관련된 설명변수와 함께 소득수준, 학력, 성별, 농촌생활 경험유무, 결혼유무와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도 함께 설명변수로 설정하였다.

(3) 분석결과

(가) 도농교류의 유형별 선호분석

다중로짓모형에 도농교류의 유형별 선호를 지시변수로 하고, 도농교류 방문횟수, 평균경비, 교류만족도와 같은 도시민 도농교류 행태에 관련된 사항과 함께 소득수준, 학력, 성별, 농촌생활 경험유무, 결혼유무와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을 함께 설명변수로 투입하여 최우추정법에

의해 파라미터를 추정하였다.

다음 <표 4-51>은 도농교류의 유형별 선호에 대한 추정결과이다. 먼저 두 번째열은 교육·생활·문화 및 휴양·여가교류를 표준화한 인적교류의 선호확률이다. 여기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의 추정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적교류를 선호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는 농촌방문횟수, 여행경비, 학력, 그리고 농촌생활의 유무로 나타났다. 즉, 농촌방문횟수가 많을수록, 여행경비가 적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농촌생활경험이 있을수록, 교육·생활·문화 및 휴양·여가교류보다도 인적교류 형태를 선호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열은 교육·생활·문화 및 휴양·여가교류를 표준화한 물적교류의 선호확률이다. 여기서 물적교류를 선호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는 교류만족도, 농촌생활경험, 성별, 그리고 결혼유무로 나타났다. 즉, 교류만족도가 낮을수록, 농촌생활경험이 있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리고 미혼인 경우가 교육·생활·문화 및 휴양·여가교류보다도 물적교류 형태를 선호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열은 물적교류를 표준화한 인적교류의 선호확률이다. 인적교류를 선호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는 방문횟수, 학력, 결혼유무로 나타났다. 즉, 농촌방문횟수가 많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결혼하지 않은 경우 물적교류 형태보다는 인적교류 형태를 선호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1> 도농교류의 유형별 선호모형 추정 결과

종속변수	교육·생활·문화 및 휴양·여가 교류를 표준화한 인적교류 선호확률 (P ₁ /P ₃)		교육·생활·문화 및 휴양·여가 교류를 표준화한 물적교류 선호확률 ln(P ₂ /P ₃)		물적교류를 표준화한 인적교류 선호확률 ln(P ₁ /P ₂)	
	계수	Wald-값	계수	Wald-값	계수	Wald-값
절편	-.207	.084	-1.867	4.451	1.659	2.847
방문횟수	.0165***	9.131	-4.6E-04	.005	1.1E-02**	3.098
교류만족	-.084	.746	-.242*	3.828	.159	1.388
경비	-1.9E-06*	3.176	-2.7E-07	.057	-1.7E-06	1.498
연령	.0759	.444	.233	2.661	-.157	.981
소득	4.76E-03	.003	9.780E-02	.880	-9.3E-02	.643
학력	-.381***	14.122	-5.9E-02	.243	-.322**	5.613
농촌생활	.781***	16.814	.398*	2.760	.383	2.001
성별	.127	.508	.397*	2.907	-.269	1.117
결혼유무	.222	.651	-.732*	3.609	.953**	4.992

주) ***는 1%, **는 5%, *는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P₁ : 인적교류 선택 확률, P₂ : 물적교류 선택 확률, P₃ : 교육·생활·문화 및 휴양·여가교류

※ 연령 : 20세 미만(1), 20~29세(2), 30~39세(3), 40~49세(4), 50세 이상(5)

학력 : 중졸이하(1), 고등학교(2), 전문대(3), 대학교(4), 대학원(5)

소득 : 가계당 월평균소득으로 100만원미만(1), 100만원대(2), 200만원대(3),

300~400만원대(4), 500~600만원대(5), 700만원 이상(6)

경비 : 농촌지역 여행시 1회 1인당 평균경비(원)

방문횟수 : 최근 3년간 농촌방문횟수

교류만족 : 경험했던 교류에 대한 만족도(매우 불만족(1점)~매우 만족(5점))

농촌생활 : 농촌생활경험 유(1), 무(2)

성별 : 남(1), 여(2)

결혼유무 : 미혼(1), 기혼(2)

(나) 도농교류의 유형별 활성화 분석

다중로짓모형에 도농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유형의 선택을 지시변수로 하고, 도농교류 방문횟수, 평균경비, 교류만족도와 같은 도시민 도농교류 행태에 관련된 사항과 함께 소득수준, 학력, 성별, 농촌생활 경험유무, 결혼유무와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을 함께 설명변수로 투입하여 최우추정법에 의해 파라미터를 추정된 결과는 <표 4-52>와 같다.

두 번째열은 교육·생활·문화 및 휴양·여가교류를 표준화한 인적교류의 선호확률이다. 인적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는 방문횟수, 여행경비, 학력, 농촌생활경험유무로 나타났다. 즉, 농촌방문횟수가 많을수록, 여행경비가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농촌생활 경험이 있을수록 교육·생활·문화 및 휴양·여가교류보다도 인적교류 형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열은 교육·생활·문화 및 휴양·여가교류를 표준화한 물적교류의 선택확률로, 물적교류를 선호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는 교류만족, 소득, 그리고 결혼유무로 나타났다. 즉, 교류만족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서 교육·생활·문화 및 휴양·여가교류보다도 물적교류 형태를 선호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여섯번째 열은 물적교류를 표준화한 인적교류의 선택확률이다. 인적교류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는 교류만족, 여행경비, 소득, 학력으로 나타났다. 즉, 교류만족이 높을수록 여행경비가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물적교류 형태보다는 인적교류 형태를 선호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2> 도농교류의 활성화 유형별 선택 추정 결과

종속변수	교육·생활·문화 및 휴양·여가 교류를 표준화한 인적교류 선택확률 (P ₁ /P ₃)		교육·생활·문화 및 휴양·여가 교류를 표준화한 물적교류 선택확률 ln(P ₂ /P ₃)		물적교류를 표준화한 인적교류 선택확률 ln(P ₁ /P ₂)	
	계수	Wald-값	계수	Wald-값	계수	Wald-값
절편	.673	.965	-.852	1.071	1.525	3.006
방문횟수	6.53E-03*	3.602	2.832E-03	.353	3.705E-03	.682
교류만족	2.29E-02	.060	-.233**	4.079	.256**	4.392
경비	-1.9E-06*	3.315	1.292E-06	1.944	-3.2E-06***	7.343
연령	-2.4E-03	.001	4.050E-02	.092	-4.3E-02	.091
소득	-3.1E-02	.157	.157*	2.749	-.188*	3.304
학력	-.370***	15.064	-.107	.899	-.262**	4.644
농촌생활	.434**	5.941	.179	.671	.254	1.158
성별	-3.8E-02	.050	.283	1.747	-.321	1.999
결혼유무	-.296	1.305	-.622*	3.598	.326	.832

주) ***는 1%, **는 5%, *는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P₁ : 인적교류 선택 확률, P₂ : 물적교류 선택 확률, P₃ : 교육·생활·문화 및 휴양·여가교류

※ 연령 : 20세 미만(1), 20~29세(2), 30~39세(3), 40~49세(4), 50세 이상(5)

학력 : 중졸이하(1), 고등학교(2), 전문대(3), 대학교(4), 대학원(5)

소득 : 가계당 월평균소득으로 100만원미만(1), 100만원대(2), 200만원대(3), 300~400만원대(4), 500~600만원대(5), 700만원 이상(6)

경비 : 농촌지역 여행시 1회 1인당 평균경비(원)

방문횟수 : 최근 3년간 농촌방문횟수

교류만족 : 경험했던 교류에 대한 만족도(매우 불만족(1점)~매우 만족(5점))

농촌생활 : 농촌생활경험 유(1), 무(2)

성별 : 남(1), 여(2)

결혼유무 : 미혼(1), 기혼(2)

(다) 도농교류의 유형별 설명변수 승산비

다음은 도농교류의 유형별로 선호 혹은 활성화 형태의 선택에 관련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된 변수들의 승산비가 어느 정도 차이나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정리하여 보았다.

먼저 도농교류 유형별 선호에서는 교육·생활·문화 및 휴양·여가교류를 표준화한 물적교류의 선호 확률에서는 농촌생활경험이 1.488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생활경험이 있는 도시민이 교육·생활·문화 및 휴양·여가교류 보다는 물적교류를 선호할 확률이 1.488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물적교류를 표준화한 인적교류의 선호에서는 결혼유무가 2.595로 나타나,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 기혼자에 비하여 물적교류 보다는 인적교류를 선호할 확률이 2.595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논리로 교류유형별로 설명변수에 대한 상대적 선택확률을 모두 계량화 할 수 있다.

<표 4-53> 도농교류의 유형별 승산비 추정 결과

종속변수	유형별 선호 형태			유형별 활성화 형태		
	$\ln(P_1/P_3)$	$\ln(P_2/P_3)$	$\ln(P_1/P_2)$	$\ln(P_1/P_3)$	$\ln(P_2/P_3)$	$\ln(P_1/P_2)$
방문횟수	1.011	-	1.011	1.007	-	-
교류만족	-	.785	-	-	.792	1.292
경비	1.000	-	-	1.000	-	1.000
연령	-	-	-	-	1.170	-
소득	1.005	-	-	-	-	.828
학력	-	-	.725	.691	-	.769
농촌생활	-	1.488	-	1.543	-	-
성별	-	1.487	-	-	-	-
결혼유무	-	.481	2.595	-	.537	-

4.1.4 도시민 설문조사 분석결과의 시사점

1. 도시민의 도농교류는 주로 부모나 친인척 연고에 의한 농촌 방문이 대다수이며, 특히 설문조사 응답자의 87% 정도가 최근 3년 이내에 농촌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의 도농교류 이용특성으로서 농촌 방문시 휴일을 이용한 1~2일 이내의 체류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주로 가족이나 친구와의 동반 이용하며 1인당 지출경비는 약 9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민이 농촌을 방문할 때 불편한 점으로 접근성과 마을내 이용시설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즉, 접근성으로서 길찾기, 교통수단, 도로사정 등과 이용시설로서 숙박시설, 주차장이나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 휴식 여가시설 전반에 대해 불편해 하였다. 따라서 농촌마을과의 교통체계 정비 및 일정 거리마다의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도시민 수요를 고려한 마을내 숙박시설, 편의시설, 공원 등의 휴식시설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일 정도의 체재나 여름휴가를 고려한다면 1개 마을 단위뿐 아니라 주변마을이나 주변관광지와 연계하여 2~3일 정도의 코스확보가 가능하도록 프로그램화시켜 도시민들이 농촌을 재방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도농교류 경험자의 만족도는 5점 만점 평가에서 3.56으로서 평균을 약간 웃도는 정도이며, 농촌 방문시에 만족하는 요소로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들었다. 이것은 도농교류를 위한 농촌개발에 있어서 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문화의 보전 노력이 최우선 고려사항임을 뜻한다.

도농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도농교류 추진시 중점사항으로 농촌주민들과의 가치 공유 및 공동체 문화를 유지할 것과, 농촌이 고향 기능을 하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한편, 농촌주민의 소득향상을 꾀할 수 있어야 할 것 등이 요구되었다. 또한 도시민들은 도농교류를 통해 얻는 효과에 대해 농촌관광이나 농촌체험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인식과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고, 인간적 교류를 통한 만족이나 고향사랑의 계기가 되며,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한편 농촌주민은 소득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3. 도시 내에서의 도농교류 경험내용으로서 농산물 직거래와 도시내 농업체험에 의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도시민이 현 시점에서 요구하는 교류방식으로 농업·농촌체험, 농산물 구입, 안전한 먹거리, 지역 축제 행사 참여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도시 내에서의 농산물직거래나 도시농업을 통해 도시민에게 농촌의 가치를 알리는 한편, 이들 수요자가 농촌방문을 하는 잠재적 이용자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도시민의 농촌투자와 관련해서는 농촌 전원마을 조성 후 거주하는 것과, 과수·가축분양·주말농장 임대, 식품판매·농산물 가공 등의 소자본 형태로 투자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도시민이 도농교류 관련 정보를 얻는 통로는 주로 TV나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거나 이웃에게 소개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얻고자 하는 도농교류 관련 정보로는 농특산물, 농촌체험, 지역축제 및 행사, 투자정보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매체와 프로그램을 통해, 도농교류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농교류 관련 단체나 조직에 대한 도시민의 의견으로서, 이러한 단체나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5%로 나타나 매우 인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농교류 관련 단체나 조직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이용한 경우는 단지 3.5%에 불과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 및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농교류 관련 단체나 조직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도시-농촌 네트워크 형성 및 맞춤형 정보제공과 함께 도시를 대상으로 농촌의 홍보 및 캠페인을 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 도시민들은 도농교류 추진시 농촌의 문제점으로 인력부족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농촌의 인력 부족은 도농교류 서비스의 수준과도 직결되므로 관련 인력의 육성 및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도농교류 관련 이용시설이나 서비스의 부족과 함께 농촌지역의 특색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농촌지역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 성공한 마을 사례의 모방이나 획일화를 지양하고 지역 특산물이나 문화자원을 발굴, 테마화하여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6. 농촌 방문 경험자의 도농교류 유형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인적 교류의 내용에서는 고향 방문과 돕기, 자원봉사 및 농촌 일손돕기가 약 80%인 것으로 나타나 연고에 의한 농촌 방문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농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서 도시민의 고향찾기 또는 제2 고향 만들기 등을 프로그램화하거나 도농교류 DB 구축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농촌 거주 경험이 있는 세대에게는 향수적 역할을 하고, 도시에서 자라나는 대다수의 차세대에게는 정서적으로 더욱 필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 방문을 통해 이루어진 물적 교류 내용으로는 산지 직거래와 농특산품·공예품 구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생활·문화 체험형으로는 지역 축제 행사 참여, 농사·농장체험, 농촌생활 문화체험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산물, 특산물 등의 산지직거래 관련 시설이나 농사·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만들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휴양·여가활동형 도농교류의 내용으로는 체재 및 휴양활동, 낚시·등산·야영, 농촌관광 등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7. 도시민이 참여하고자 하는 도농교류의 수요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적교류의 내용 중 고향방문 및 돕기와 은퇴후 거주를 주로 원하고 있다. 물적교류의 내용으로는 산지직거래와 농특산품·공예품 구입 그리고 휴양단지·별장분양 등을 원하고 있어 농산물 거래뿐 아니라 주 5일 근무제와 함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5도2촌형 농촌 개발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생활문화체험에 참여하려는 내용으로서 농촌자연학습, 체험학교, 농사·수확, 농장 체험, 농촌문화체험, 지역 마을축제 행사참여, 역사문화탐방, 전통체험 등의 다양한 내용에 고루 분포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이 유형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휴양·여가형의 교류내용에 있어서도 주말농원 운영, 농촌관광, 낚시·등산·관광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한 참여의사를 나타내었다.

8. 도농교류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분석 모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교류 유형을 세가지로 재분류하였다. 즉 교육·생활·문화체험형과 휴양·여가형을 하나로 묶어 교육·생활·문화체험 및 휴양·여가형으로 명명하였는데, 이것은 설문결과의 분석과정에서 이 두 유형이 유사한 점이 많았고 모델추출을 위한 다중로지모형 분석시의 편의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먼저 도농교류 유형별 선호에 미치는 변수를 검토한 결과, 도시민의 연령, 학력, 방문빈도, 소득, 교류 만족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물적교류를 선호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생활·문화체험 및 휴양·여가형을 선호하며, 농촌 방문빈도가 높을수록 인적교류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물적교류를 선호하며 교류만족도가 높을수록 인적교류와 교육·생활·문화체험 및 휴양·여가형의 교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즉, 연령층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물적교류를 선호한다는 것은 경제적 안정기의 도시민들로서 농촌투자에 그만큼 관심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물적교류를 선호하는 수요층을 위해 다양한 농촌투자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농촌의 교육적 가치와 자연환경의 가치에 더 비중을 두어 농촌체험 및 농촌관광을 선호하는 층이며, 방문빈도가 높을수록 인적교류를 선호한다는 것은 농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농촌 및 농촌생활의 가치를 공유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연령층이 낮을수록 교육·생활·문화체험 및 휴양·여가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특성별로 선호하는 도농교류 유형을 다중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 추정한 결과, 교류유형별로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적교류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는 농촌방문빈도, 여행경비, 학력, 농촌거주경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방문횟수가 높을수록, 여행경비가 적게 들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농촌생활경험이 있는 도시민일수록 인적교류를 선호하였다. 또한 농촌방문 횟수가 많고 미혼인 경우는 물적교류보다 인적교류를 선호하였다.

교육·생활·문화체험 및 휴양·여가형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는 농촌거주경험, 성별, 결혼유무, 등인데, 농촌거주경험이 있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기혼자보다는 미혼인 경우 선호하는 유형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도농교류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활용 가능하며, 도농교류 관련 DB를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때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2 농촌주민 설문조사 결과 및 도농교류 공급현황 분석

4.2.1 농촌주민에 대한 도농교류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응답자 특성

도농교류의 공급 측면에서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농가·농원 단위, 마을 단위, 지자체 단위, 단체 단위로 조사되었다. 농가·농원 단위의 응답자가 12명, 마을 단위 응답자가 30명, 지자체 단위 응답자가 4명, 생산자 단체 단위 응답자가 3명으로 모두 51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농촌주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54>와 같다. 남자 응답자가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 및 50대가 많았다. 응답자 대부분이 농업종사자였고, 응답자들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1천만원~3천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표 4-54> 농촌주민 응답자의 특성

(N=51)

구 분		빈도 (%)
성별	남	39 (76.5)
	여	11 (21.6)
연령	20 - 29세	1 (2.0)
	30 - 39세	5 (9.8)
	40 - 49세	21 (41.2)
	50 - 59세	16 (31.4)
	60세 이상	7 (13.8)
교육수준	중졸이하	11 (21.6)
	고등학교	21 (41.2)
	전문대	4 (7.9)
	대학교	12 (23.5)
결혼여부	대학원	3 (5.9)
	미혼	7 (13.8)
직업	기혼	44 (86.3)
	농업·축산업	43 (82.4)
	공무원·회사원	7 (13.8)
연평균 가구소득	학생	1 (2.0)
	7천만원 이상	3 (5.9)
	5천만원 - 7천만원 미만	5 (9.8)
	3천만원 - 5천만원 미만	5 (9.8)
	2천만원 - 3천만원 미만	11 (21.6)
	1천만원 - 2천만원 미만	13 (25.5)
	1천만원 미만	3 (5.9)
	무응답	11 (21.6)

2) 도농교류를 시작하게 된 동기

(1) 도농교류를 시작한 시기

도농교류를 시작한 시기에 대해 최근 5년 이내에 시작한 경우가 53%로 가장 많았으나, 10년 전에 이미 시작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21.6%로 나타났다. 이것은 관광농원 등의 사업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민들이 기존 사업에 대해 도농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55> 도농교류를 시작한 시기

도농교류를 시작한 시기	빈도	%
10년 전	11	21.6
6-10년 전	6	11.8
3-5년	14	27.5
1-2	13	25.5
무응답	7	13.7
계	51	100.0

(2) 도농교류에 관한 정보 입수방법

도농교류 관련 사업에 대한 정보는 주로 정부나 지자체의 민박, 관광농원, 농촌관광 등의 사업 홍보나 교육을 통해 얻고 시작했다고 응답하였다.

<표 4-56> 도농교류에 관한 정보의 입수방법

도농교류에 관한 정보 입수	빈도	%
정부 지자체의 사업 홍보로	14	27.5
교육을 통해서	12	23.5
농업기반공사, 농협 등의 권유로	7	13.7
자발적으로	5	9.8
주변에서의 권유로	5	9.8
무응답	8	15.7
계	51	100.0

(3) 도농교류를 시작한 동기

도농교류를 시작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주로 농산물 홍보나 판로 확보를 위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45.1%, 민박·음식판매 등을 통해 농외소득을 올리기 위해 시작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21.6%로 나타났다. 이것은 농촌에서 도농교류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주로 경제적 도움을 얻

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업이나 농촌의 가치를 알리고자 하는 교육적 차원에서 시작했다는 응답도 15.6%로 나타났다.

<표 4-57> 도농교류를 시작하게 된 동기

도농교류를 시작한 동기	빈도	%
농산물 홍보나 판로 확보를 위해서	23	45.1
민박·음식판매 등 농외소득을 올리려고	11	21.6
농업·농촌 가치를 알리는 교육차원에서	8	15.6
내 농산물 소비자를 알고 싶어서	2	4.0
무응답	7	13.7
계	51	100.0

3) 도농교류 관련사업을 위한 투자비용 및 투자효과

(1) 도농교류 관련사업을 위한 투자비용

도농교류 관련 사업을 위해 투자한 비용이 얼마인가에 대해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경우가 가장 많아 31.4%이고, 1억원~5억원 정도를 투자한 경우가 17%, 5천만원~1억원 정도 투자한 경우가 11.8%, 5천만원 미만의 금액을 투자한 경우가 11.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투자비용을 마련한 방법으로서 정부지원에 의한 것이 35.3%, 마을기금을 통해 마련한 경우가 5.9%, 개인투자에 의한 경우가 4%, 전액 주민 자신이 부담한 경우가 11.8%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비용 전액을 정부지원 또는 마을기금을 이용한 경우 외에, 정부지원과 마을기금 또는 주민 자신의 부담금을 함께 활용한 경우도 14% 이었다.

<표 4-58> 도농교류 관련 투자비용

도농교류 관련 투자비용	빈도	%
10억 이상	16	31.4
5억 이상 - 10억 미만	6	11.8
2억 이상 - 5억 미만	5	9.8
1억 이상 - 2억 미만	6	11.8
5천만원 이상 - 1억 미만	6	11.8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1	2.0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2	3.9
1천만원 미만	3	5.9
무응답	6	11.8
계	51	100.0

<표 4-59> 투자비용 마련 방법

투자비용 마련 방법	빈도	%
정부지원	18	35.3
마을기금	3	5.9
개인투자	4	7.8
자부담	6	11.8
정부지원+마을기금	4	7.8
정부지원+자부담	6	11.8
정부지원+마을기금+자부담	4	7.8
무응답	6	11.8
계	51	100.0

(2) 도농교류 관련사업 투자효과

한편, 도농교류에 투자한 비용을 통해 얻게된 소득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투자대비 30% 이상의 소득효과를 보는 경우는 15.7%이고, 5%~10% 정도의 소득효과를 본다고 응답한 경우가 35.3%로 가장 많았으며, 10%~30% 정도의 소득효과를 얻는 경우가 17.6%로 나타났다. 도농교류와 관련해 투자하는 농가가 실질적 소득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이고 도농교류 관련 교육 또는 도시민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60> 투자비용에 대한 소득효과

투자비용에 대한 소득효과	빈도	%
50% 이상	2	3.9
30%이상 - 50% 미만	6	11.8
10%이상 - 30% 미만	9	17.6
5% 이상 - 10% 미만	18	35.3
1% 이상 - 5% 미만	3	5.9
1% 미만	7	13.7
무응답	6	11.8
계	51	100.0

(3) 도농교류 사업으로 얻는 효과

도농교류 사업으로 얻는 효과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복수응답 하게 한 결과, <표 4-61>과 같이 농산물 홍보 및 판매와 안정적인 판로확보의 효과가 있다는 항목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농업·농촌의 가치홍보나 소비자 교육 효과가 있다는 항목과 인간적 교류를 통한 만족과 고향사랑의 효과가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농촌주민들이 도시와의 교류를 통해 농산물 판매나 판로확보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도시민들에게 농촌의 가치를 알게 하고 인간적 교류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심리적 효과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61> 도농교류 사업의 효과

도농교류의 사업효과(복수응답)	빈도	%
농산물 홍보 및 판매, 판로확보	36	26.5
농업·농촌의 가치홍보, 소비자교육	30	22.1
인간적 교류 통한 만족, 고향사랑	27	19.9
숙박, 음식판매를 통한 소득증가	25	18.4
교류증가, 지역의 향후 거주인구 증가	10	7.4
도시의 자본 유치	2	1.5
기타	6	4.4
계	136	100.0

4) 도시자본 유치에 대한 농촌주민의 의견

(1) 도시자본 유치의 필요성

도시자본의 유치에 대해서는 농촌에 꼭 필요하므로 유치하겠다는 응답이 25.5%, 목적이나 동기를 살펴서 유치하겠다는 응답이 62.7%로 나타났다. 이것은 농촌으로 도시 자본이 들어오기를 대다수 농촌주민이 원하되, 농촌지역 활성화에 직접 도움이 되는 방향이기를 원하는 것이라 하겠다.

<표 4-62> 도시자본 유치의 필요성

도시자본 유치의 필요성	빈도	%
농촌에 꼭 필요하므로 유치하겠다.	13	25.5
목적이나 동기를 살펴서 유치하겠다.	32	62.7
생각해 본적 없다.	4	7.8
유치하지 않겠다.	1	2.0
무응답	1	2.0
계	51	100.0

(2) 도시민의 투자유형에 대한 농촌주민의 의견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투자나 이주 유형에 대한 농촌주민의 의견을 물었을 때, 가장 많이 선택된 항목은 귀농 및 농업과 관련된 직업인과의 교류였다(29.4%). 소자본 투자에 의한 식품판매 및 농산물 가공업의 활성화가 25.5%, 도시인 이주를 위한 전원마을 조성이 23.5%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보아 농업과 관련된 직업인과의 교류를 통해 농업·농촌이 활성화되기를 원하고 있고, 도시민의 농촌투자는 외부에서의 대규모 투자보다는 소규모 자본을 통한 농산물 가공업 활성화와 전원마을 조성을 통한 도시민의 직접 이주를 원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63> 도시민의 농촌투자 유형

도시민의 농촌투자 유형	빈도	%
귀농·농업관련 직업인과의 교류	16	29.4
식품판매·농산물가공등 소자본투자	13	25.5
농촌진원마을 조성후 거주	12	23.5
과수 분양·가축분양·주말농장임대	6	9.8
숙박단지·체육시설·레저단지 조성	3	5.9
무응답	1	2.0
계	51	100.0

5) 도농교류 전담조직에 대한 농촌주민의 의견

(1) 도농교류 전담조직의 필요성

도농교류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한가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56.9%, 필요하다는 의견이 37.2%로서 응답자의 94.1%가 전담할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4> 도농교류 전담조직의 필요성

도농교류 전담조직의 필요성	빈도	%
매우 필요	29	56.9
필요	19	37.2
잘 모르겠다	2	3.9
필요 없다	1	2.0
계	51	100.0

(2) 도농교류 관련 단체에 대한 인지

도농교류를 연결해 주는 단체나 조직이 있는지를 아는가에 대해 들어 본적은 있으나 이용해 본적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41.2%, 잘 알고 있고 이용해 본적이 있다는 응답이 35.3%, 전혀 들어 본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9.6%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65> 참조). 도농교류 관련 단체를 실제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그러한 단체가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알아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이들 단체의 홍보나 농촌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보다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촌 주민들이 알고있는 도농교류 관련 단체에 대해 복수응답하게 한 결과는 <표 4-66> 과 같다. 농협, (주)이장, 도농교류센터, 농업기반공사, 농업기술자협회 등이 농촌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도농교류관련 단체나 조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5> 도농교류 관련단체의 인지

도농교류 관련단체의 인지	빈도	%
들어 본적 있으나 이용해 본적 없다.	21	41.2
잘 알고 있고 이용해 본적 있다.	18	35.3
전혀 들어 본적 없다.	10	19.6
무응답	2	3.9
계	51	100.0

<표 4-66> 농촌주민들이 알고 있는 도농교류 관련 단체

알고 있는 도농교류 관련단체	빈도	알고 있는 도농교류 관련단체	빈도
농협	13	한살림	1
(주)이장	9	생협	1
도농교류센터	8	관광농원협회	1
농업기반공사	6	가톨릭농민회	1
농업기술자협회	5	생명의숲가꾸기운동본부	1
농림부	2	또랑	1
농촌지도소	1	정보화마을	1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1	흙살림	1
계		계	53

(3) 도농교류 관련단체의 역할에 대한 의견

도농교류 관련 단체의 역할에 대한 의견으로는 도시-농촌간 네트워크 형성과 맞춤형 정보제공을 원하는 경우가 39.2%, 농촌주민의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이 23.5%, 도시를 상대로 한 농촌 홍보 및 캠페인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17.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표 4-34> 참조), 도시민들도 도시-농촌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52.0%) 단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였다.

<표 4-67> 도농교류 관련단체의 역할

도농교류 관련단체의 역할	빈도	%
도시-농촌 네트워크 형성과 맞춤형 정보제공	20	39.2
농촌주민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12	23.5
도시를 상대로 농촌 홍보 및 캠페인	9	17.6
기업과 마을, 주민과 주민간의 자매결연 맺어주기	5	9.8
농촌 투자정보제공 및 컨설팅, 제도개선	3	5.9
무응답	2	3.9
계	51	100.0

6) 도농교류 추진에 대한 농촌주민의 의견

(1) 농촌주민의 도농교류 중요성 인식정도

도농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농촌주민의 96.1%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민의 응답에서도 90.4%(<표 4-22> 참조)가 도농교류가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도시민-농촌주민 모두 도농교류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결과라 하겠다.

<표 4-68> 농촌주민의 도농교류 중요성 인식정도

도농교류 중요성 인식	빈도	%
매우중요	37	72.5
중요	12	23.6
그저 그렇다	2	3.9
중요하지 않음	-	-
전혀 중요하지 않음	-	-
계	51	100.0

(2) 도농교류의 방식에 대한 의견

현 시점에서의 도시와 필요한 교류방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농업·농촌체험, 농산물 구입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가장 큰 관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도농교류를 시작한 동기에 대한 응답과 관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농산물 판매나 민박 등을 통한 농외소득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도시민의 농업·농촌체험 또는 농산물·안전한 먹거리 구입이 연결될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표 4-26> 참조), 농업·농촌체험 및 농산물 구입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대해 50.0%가 동의하였고, 다음으로 지역 축제나 행사 참여 또는 주변관광지 방문에 대해 27.6%의 비율로 응답한 바 있다. 따라서 농촌과 도시 양쪽 모두 현 시점에서의 필요한 도농교류 방식으로서 농업·농촌체험과 더불어 안전한 농산물 판매와 구입을 원하는 것으로 판명된다.

<표 4-69> 현재 필요한 도농교류 방식

현재 필요한 도농교류 방식	빈도	%
농업·농촌체험, 농산물 구입,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33	64.7
1사1촌운동, 자매결연	4	7.8
지역축제나 행사참여, 주변관광지 방문	3	5.9
인터넷·간행물 통한 정보수집 등	2	3.9
귀농 또는 농촌 거주	2	3.9
무응답	6	11.8
계	51	100.0

앞으로 도농교류의 어떤 유형이 활성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교육·생활·문화체험과 관련된 도농교류에 대해 가장 많이 선택해 41.2%의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휴양·여가활동 유형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경우로서 31.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도시민의 의견은 다소 다르게 나타난 바(<표 4-25> 참조) 인적교류에 대해 33.8%, 휴양·여가에 대해 24.7%, 교육·생활·문화체험에 대해 24.2%, 물적교류에 대해 16.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도농교류에 대해 도시민은 자매결연이나 자원봉사, 일손돕기 등의 인적교류가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을 기대하는 반면에, 농촌주민들은 교육·생활·문화체험 형의 도농교류가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을 원하고 있다.

<표 4-70> 활성화되어야 할 도농교류 유형

도농교류 활성화 유형	빈도	%
교육·생활·문화체험	21	41.2
휴양·여가활동	16	31.4
인적교류	6	11.8
물적교류	6	11.8
무응답	2	3.9
계	51	100.0

(3) 도농교류 추진시의 문제점 및 중점사항

도농교류 추진에 있어서 농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인력 부족에 대해 39.2%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이용시설의 수준과 서비스 부족의 문제가 27.5%, 농촌의 지역 특색이 부족하다는 문제에 대해 17.6%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것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일치하는 결과인데(<표 4-35> 참조), 도시민들도 농촌의 문제점을 인력부족(33.0%), 이용시설의 수준과 서비스 부족(29.5%), 농촌지역의 특색 부족(12.9)의 순으로 지적하였다.

<표 4-71> 도농교류 추진시 농촌의 문제점

도농교류 추진시 농촌의 문제점	빈도	%
인력부족	20	39.2
이용시설의 수준과 서비스 부족	14	27.5
농촌의 지역 특색 부족	9	17.6
자연환경보전 및 난개발 문제	6	9.8
투자여건 미흡	2	17.6
계	51	100.0

한편 도농교류 추진시에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서는 농촌주민들 사이의 가치공유 또는 공동체 문화 유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도농교류 또는 농촌관광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의 사례에서도 논의되었던 바, 도농교류 관련 기존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농촌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기도 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로 보여진다. 이것은 도시민의 응답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결과(<표 4-23>)와 일치한다. 또 하나 특기할 것은 농촌주민의 경우 도농교류 사업의 추진에서 두 번째 우선순위 사항으로 주민의 소득향상을 들고 있어 실질적 이익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72> 도농교류 추진시의 중점사항

중점사항	우선순위 1		우선순위 2	
	빈도	%	빈도	%
주민들과의 가치공유, 공동체 문화 유지	20	39.2	2	3.9
안전한 먹거리 제공	14	27.5	7	13.7
주민의 소득향상	9	17.7	17	32.5
정서순화, 고향기능, 농촌에서의 여가 및 여행	5	9.8	7	13.7
농업, 농촌 체험 및 자녀교육	3	5.9	8	15.7
농촌지역 투자를 통한 농촌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10	19.6
계	51	100.0	51	100.0

4) 도농교류를 위한 농촌마을의 개선사항

현재의 농촌마을에 도시민이 방문했을 때 불편하게 느껴 개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해 숙박시설·휴식 및 여가시설·편의시설이 각각 17.6%이고, 교육 및 체험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5.7%인데, 이들 네 가지 사항이 전체의 68.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마을을 찾아오는 길 찾거나 교통수단, 도로사정이 불편할 것이라는 응답도 15.6%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도농교류를 위한 농촌의 기초시설로서 숙박시설·휴식시설·편의시설·교육체험시설·교통체계 및 안내 등 기초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의 요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표 4-28> 참조), 도시민들이 편의시설(24.4%)·숙박시설(12.0%)·휴식 및 여가시설(9.0%)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45.4%였고, 길 찾기 및 도로사정(24.4%)·교통수단(14.5%) 등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38.9%로 나타난 것과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도농교류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농촌마을 내부와 외부적 조건이 모두 개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도농교류를 위한 농촌마을의 내부적 기초시설로서 숙박시설이 개선되어야 하고, 휴식 및 여가시설로서 농촌 공원이나 레크리에이션 장소를 조성해야 하며, 편의시설로서 화장실이나 주차장 등이 새로 조성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농촌마을 외부적인 기초시설로서 도로체계나 교통수단, 길 안내 등이 정비·확충되어 도시민이 찾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표 4-73> 도농교류를 위한 농촌마을의 개선사항

도농교류를 위한 개선사항	빈도	%
숙박시설	9	17.6
휴식 및 여가시설	9	17.6
편의시설	9	17.6
교육 및 체험장	8	15.6
길찾기, 교통수단, 도로사정	6	11.8
운영프로그램 및 서비스	3	5.9
음식	2	3.9
무응답	5	9.8
계	51	100.0

4.2.2 농촌주민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

전반적인 설문결과는 각 형태(농가, 농원, 마을, 단체, 지자체 단위)별로 크게 다르지 않고 몇 가지 주요 항목에 답변이 집중되어 있다. 아직은 도농교류 사업들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몇 가지 성공적인 방식의 모방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다양한 도농교류의 형태가 보이지 않고 있으나,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도농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로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 도농교류 참여현황

현재 주로 진행되고 있는 도농교류의 유형은 주로 농산물 직거래, 인터넷판매, 농사체험, 민박 등이고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교류, 주말농원, 자매결연 등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유형은 1사1촌 같은 자매결연(마을), 체험프로그램, 숙박, 음식판매, 산지직거래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로 농촌관광과 관련된 도농교류의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농교류의 시작시기는 주로 5년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나 10년 이상이라는 응답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아,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선도적인 도농교류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선도자들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시작하였다. 도농교류의 정보는 마을의 경우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를 통하여 얻거나 권유를 받았고 농가·농원의 경우는 교육을 통해 얻거나 자발적으로 실행한 경우도 많았다.

도농교류의 시작동기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농산물 판로 확보나 농외소득창출 등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리고 농업·농촌의 공익적이고 교육적인 가치를 알리고자 시작했다는 답변

이 주를 이루고 있다. 현시점에서 도시와 필요한 교류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모두 농촌체험, 농산물 구입,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기본적인 도농교류의 방식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현재 도시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웰빙, 체험 등과 연관된 도농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도시민의 불편 사항에 대한 답변은 대부분 숙박시설이나 여가시설, 체험장, 주차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등 시설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어 하드웨어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운영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불편사항에 대한 답변이 적은 것은 공급자의 입장에서 수요자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시설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프로그램 및 서비스도 중요하다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도시민의 요구에서는 접근성 문제, 즉 길찾기, 교통수단, 도로사정 등의 개선을 들었지만 이에 대해 농촌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점으로 드는 것은 마을환경의 광범위한 내용보다는 마을내부적 환경문제를 주로 생각한 것으로 보였다.

도농교류를 위해 새롭게 투자된 시설에는 주로 체험장, 숙박시설, 식당, 주차장 등 가장 기초적인 기반시설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에는 박물관, 찜질방, 소공원 등 휴식을 위한 공간에 대한 답변이 많이 나왔다. 투자비용은 마을단위에서는 거의 5억 이상으로 10억 이상도 상당수 있었으며 주로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졌다. 농가, 농원단위에서는 2억에서 5억, 6억에서 10억 정도 투자된 곳이 비슷하게 있었으며 마을과 달리 개인의 자부담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투자대비 연소득 창출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난색을 표명하였는데 이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 파악된다.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단계라 볼 수 있고 농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정확하게 투자대비 수익률을 계산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대부분이 정량적인 답변이라기 보다는 정성적으로 유추하여 답변하였으므로 정확한 답변으로 보기 어려우나 5~10%의 투자효과가 있었다는 경우가 35%, 10~30%라는 경우가 약 18% 정도였다.

도농교류를 통하여 얻는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가장 많이 들었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홍보, 소비자 교육이나 인간적인 교류를 통한 만족 및 고향사랑이 주를 이루고 있어 명분과 실리가 적절히 나뉘어 있다. 도농교류를 통해 얻는 소득분야는 마을의 경우 농산물판매, 직거래, 체험비, 숙박비 등이 대부분이었으며 그중 농산물판매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농촌관광이 직거래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농가나 농원의 경우에는 주말농장을 통한 분양수익이나 숙박, 음식판매 수익 등이 가장 주요 소득원이었으며 농산물판매는 저조하였다.

2) 향후 도농교류의 방향에 관한 의견

도농교류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에 대한 질문은 마을 및 지자체의 경우 공동체 문화 유지, 안전한 먹거리 제공,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대한 답변이 많았고 여가, 자녀교육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농가 및 농원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답변이 나왔으나 농촌지역 투자를 통한 농촌사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답변이 많이 나와 개인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길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체의 경우에는 주민들과의 가치 공유, 공동체 문화 유지에 대한 응답이 주를 이루고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대한 답변은 극히 적게 나와 실리보다는 명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는 것에 대하여는 거의 모두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향후 원하는 교류형태로는 응답자 전체로는 교육·생활·문화체험과 휴양·여가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의 경우에는 자매결연, 직거래, 환경농업교육 등을 원하고 있고 특히 주말농장에 관심을 두고 있다. 농가나 농원의 경우에는 이미 주말농장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주로 직거래나 체험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교류 등을 원하고 있다. 지자체나 단체의 경우 자매결연, 직거래, 교육 등에 많은 응답을 하였다. 도농교류 활성화의 방향은 마을이나 농가, 농원의 경우 주로 체험이나 휴양, 여가의 기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지자체는 물적교류, 단체는 인적교류 기능이 활성화되길 바라고 있다.

도시자본 유치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목적이나 동기를 살펴서 유치하길 원하고 있다. 즉, 유치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그동안의 폐해를 잘 봐왔기 때문에 신중히 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도시자본 투자의 유형에 대해서는 마을의 경우 인적교류를 하거나 소규모 가공시설 투자를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규모 투자는 마을에 오히려 해가 될 것을 염려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적교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자체의 경우에는 주거단지에 대한 필요성에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줄어가는 농촌마을에 인구유입이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도농교류 전담조직의 필요성은 거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러한 단체나 조직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 없다는 응답도 상당수 있었다. 그러나 도농교류센터나 농협같은 조직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도농교류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이 나온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전담기관의 위상 강화와 함께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관련 단체를 이용해 본 경험은 마을이 가장 높고 농가나 농원은 반반정도이다.

도농교류를 연결해주는 단체나 조직의 역할은 골고루 응답을 하였는데 지자체나 농원의 경우에 정보 제공 및 도시-농촌 네트워크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농촌의 투자정보 제공 및 알선, 컨설팅,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극히 적은 수의 응답자만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교류 추진에서 농촌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는 많은 응답자가 인력부족을 꼽았으며 이용시설 및 서비스 부족에 대한 답변도 많이 나왔다. 인력부족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맞물려, 젊은 인력의 도시유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도농교류 참여자 또는 참여 희망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함을 보여준다.

도농교류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은 주로 시설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주민들의 참여부족, 노령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부족, 도시소비자들의 의식부족 등을 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 바라는 내용도 시설확충이 가장 많이 나왔고, 인력양성, 도시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주민복지시설, 도시자본 유치, 규제완화, 농촌정착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4.2.3 농촌의 도농교류 공급사례의 성공·실패 사례 분석

1) 농촌에서의 도농교류의 주요 문제점과 성공·실패 사례 분석

앞에서 도농교류에 대한 도시민의 태도나 요구 그리고 농촌주민의 도농교류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데 이어서,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농촌마을의 사례를 통해 도농교류 공급 현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농촌마을의 내생적 요인으로서 도농교류 사업이 잘되고 있는 마을과 잘되지 않고 있는 마을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과 성공요인을 분석하였다.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사업 유치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성공 및 실패 요인에 대해 어메니티 보전, 소득창출, 마을공동사업 경영, 사업효과 등의 소주제로 나누어 마을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농촌으로의 도시자본과 도시민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어메니티 보전, 투자 및 이주여건의 관점에서 성공·실패요인을 분석하였다.

가) 어메니티 보전의 문제

어메니티는 어떤 사물이나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감흥으로서 쾌적성을 의미하는데 농촌 어메니티는 단순히 쾌적한 환경이라기보다 농촌지역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자원으로 보고 있다. 즉 농촌주민에게는 일상적인 생활환경이면서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자원이고 도시인에게는 관광이나 상품구매와 같은 소비욕구의 대상이 된다.

영국은 농촌 어메니티 보전을 위해 ESA(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와 CSS(Country Stewardship Scheme)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은 국토청과 (재) 농촌개발기획위원회에서 “농촌쾌적성대회”를 여는 등 어메니티 보전을 위해 활발하게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함평군이 “나비축제”를 통해, 평창군이 “Happy 700” 브랜드를 통해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하여 지역을 마케팅하고 있으며 서천군은 “어메니티 서천”이라 하여 군정의 방향을 어메니티

보전과 진흥으로 채택한 사례도 있다.¹¹⁾

농촌관광사업을 시설물이나 관광 서비스 위주로 도시인의 눈높이를 맞추는 경우 어메니티 훼손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많아질 수 있다. 따라서 농촌관광에 있어 단기적인 관광소득에 중심을 두어 어메니티를 훼손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 아니라 농촌의 멋과 맛을 도시인에게 느끼게 해주어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도시인에게 홍보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농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1) 성공·실패 사례

(가) 어메니티를 잘 보전한 사례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주포리

노인시설을 운영하는 마을의 한 목사가 시작한 마을가꾸기를 시작으로 마을의 농촌다움과 쾌적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마을을 잘 가꾸어나가고 있다. 우선 농가마다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농기계, 농기구 등을 정리하였으며 보기 흉한 폐가를 정비하였다. 마을의 입구에는 옛 전통을 살려 솟대를 만들고 여기 저기 쓰지 않는 항아리를 모아 항아리 공원을 만들었으며 자투리 공간에는 마을 어린이들이 나무막대에 만국기를 그려 만국기 공원도 만들었다. 또한 마을을 통과하는 등산로 입구의 보기 흉한 축대에는 ‘사색의 벽’을 만들어 등산객이 지나가면서 한번씩 읽어볼 수 있는 좋은 글귀를 나무판에 새겨 걸어놓기도 하였다. 작고 불편하여 쓰지 않는 옛날 마을회관에는 마을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농산물의 종자와 마을주민들이 만든 각종 공예품, 천연염색작품을 전시하는 전시공간으로 꾸미기도 하였다.

마을에 살고 있는 화가와 서울에서 건설업 관련 사업을 하다가 노후생활을 위해 정착한 외부인이 마을가꾸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마을주민들을 자극하여 주민참여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마을가꾸기 사업의 추진은 노령화된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정보화 사업에도 열의를 보여 마을 주민 중 60, 70대 연령층의 70%이상이 개인컴퓨터 교육을 받고 도시에 사는 손자, 손녀에게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마을주민들의 스스로의 노력에 감동받은 마을 출향주민들이 출향인 모임을 만들어 고향마을발전에 노력하고 있는데 한 출향인은 마을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심성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자진해서 운영하는 등 고향마을에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주포리는 2003년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2004년 전통 테마마을, 정보화시범마을로 선정되어 농촌관광, 마을진흥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11) 농촌의 어메니티 보전과 활용을 위해서 어메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농촌정책으로의 전환, 토목사업 위주의 하드웨어 개발에서의 탈피, 농촌자원에 대한 재평가와 정책지표의 개선,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정책지원 수단의 다변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전영옥, 2003,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한 농촌어메니티 정책의 방향”, 『DDA 대응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촌어메니티 자원 개발』



마을에는 돌담, 황토길 등의 어메니티 자원이 남아있다.



마을의 향아리를 모아 향아리 공원을 만들었다.



마을에 장승과 솃대를 세워 농촌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마을노인회에서는 전통공예를 젊은이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나) 어메니티를 잘 보전하지 못한 사례 : 경남 OO군 OO마을

이 마을은 산촌마을로 마을입구의 고즈넉한 저수지, 마을 인근의 수려한 계곡, 지리산 정상을 볼 수 있는 경관자원,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민박가구가 다수 있어 농촌관광의 잠재력을 지닌 마을이었다. 2003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받아 마을개발 전문컨설팅 회사에 마을발전계획을 의뢰하는 등 의욕적인 출발을 하였다. 컨설팅 회사의 기본계획이후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무분별하게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지자체는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마을로 들어가는 2차선 도로를 계곡을 따라 확장하면서 마을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중요한 경관자원인 계곡을 훼손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배제한 일부 주민들의 자의적인 마을 일 처리로 주민들과의 갈등, 행정기관과의 마찰 등으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2) 사례 분석 결과

농촌 어메니티 보전에 성공한 마을은 마을지도자가 어메니티 보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단기적인 관광수익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마을의 수익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하였고 이러한 과정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농촌 어메니티 보전에 실패한 마을의 경우 농촌관광을 단순한 음식판매나 숙박 서비스 제공으로 인식하고 기존의 관광지와 유사한 형태로 개발

하는 과정에서 농촌 어메니티를 훼손하였다.

나) 소득창출

농촌관광, 그린투어리즘의 목적을 농외소득 증가에 두고 있으나 고령화, 기초적인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농촌에서 관광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을 만족시켜 소득을 얻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소비자들의 농촌관광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실제 참여자의 만족도는 낮고 숙박, 화장실, 샤워실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²⁾

농촌관광 서비스의 눈높이를 농민과 소비자 중에 어디에 중심으로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농촌관광의 목적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마을단위 그린투어리즘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마을의 경우 관광 서비스보다는 마을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일반 유통경로에 비해 제 값을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¹³⁾

따라서 농촌관광의 목적을 관광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농외소득 증가뿐만이 아니라 농촌의 중요성에 대해 도시인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농촌개발에 대한 동의를 얻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며 도시자본을 농촌에 유치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성공·실패 사례

(가) 소득문제를 잘 극복한 사례 : 전북 진안 능길마을

1994년 귀농하여 환경농업을 시작한 마을지도자가 환경농업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를 위해서는 도농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2001년 팜스테이 마을로, 2002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받아 마을환경을 정비하고 다양한 농사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지도자는 친환경 농산물을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서 농촌관광을 활용하면서 농촌관광과 연계된 다각적인 소득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마을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오리쌀을 브랜드화 하고 소포장으로 만들어 마을에 찾아오는 도시인들에게 쉽게 살 수 있도록 하였다. 마을주민들이 주로 생산하고 있는 배, 호박과 주변 산림을 활용한 썩, 오가피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을의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하고 친환경 호박배즙, 인진썩즙, 오가피즙 등을

12) 도시인들이 농촌관광 서비스로서 바라는 것이 농촌의 안락한 시골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불편한 사항으로는 안내판, 화장실, 교통편, 여행정보, 숙박시설의 낙후 등을 꼽았다. 박시현, 2003,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형 농촌관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

13) 지난 2003년 11월 12일, 사단법인 전국농업기술자협회에서 주관한 ‘농촌활성화를 위한 도농녹색교류’ 국제심포지엄에서도 이러한 논란이 있었는데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사례 발표에서 그린투어리즘이 활성화된 나라켄 타이미초 특산가공조합의 ‘타이마노 이에’의 경우에도 농산물 판매 수익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하고 이 가공품을 농촌관광을 통해 마을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마을주민들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찾아오는 도시인을 위해 마을 인근 산에 등산로를 개설하고 마을의 폐교를 구입하여 교육장, 숙박시설, 식당, 찜질방을 만들었으며 전주의 도시소비자 생협과 연계하여 농촌체험행사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도시 소비자들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농촌체험과 가공공장 견학을 통해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믿음을 가지게 되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구매 관계가 맺어져서 이를 통해 마을은 2002년 한 해 동안 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마을 지도자는 마을의 환경농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마을을 지켜내기 위해 마을인근의 부지를 구입하여 귀농인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폐교를 활용하여 도농교류, 농촌관광을 하고 있다.



생협, 직거래단체를 중심으로 마을에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마을에서 폐교를 활용하여 가공 사업을 하고 있다.



마을의 대표적인 가공품인 인진썩즙

(나) 관광사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한 사례 : 충북 OO시 OO리

OO시는 50년대 농촌생활상을 재현하는 민속마을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마을의 소득을 증진하며 청정, 호반, 한방약초로 유명한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류지역의 상수원 물 부담금으로 조성된 사업비 10억여 원을 활용하여 친환경 민속마을을 조성하였다. 시행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원하는 방향이 고려되지 않았고, 마을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연계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숯가마(숯생산 및 찜질), 식당, 민박단지 조성과 마을경관조성이 이루어졌다. 계획과 공사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자,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마을주민들은 관심이 없었다. 결국 마을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시설 운영과 관리에 참여하지 않아 시설을 외부에 위탁하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농촌관광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 임대료의 일부만 마을발전 기금으로 쓰여지는 형태로 변질되었고 소득증대 효과도 크지 않게 되었다.

(2) 사례 분석 결과

마을의 소득창출에 성공한 마을은 외부의 자원보다는 마을 내부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원을 잘 파악하고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발전시켰고 단순한 관광서비스가 아니라 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을 연계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마을의 소득창출에 실패한 마을은 농촌관광 사업을 단순한 식사, 숙박제공, 체험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생각하여 시설위주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주민들의 참여를 배려하지 않아 농산물 판매와 농촌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다) 공동사업 경영의 문제

현재 마을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관광 사업은 마을 공동운영과 공동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어 마을의 의견을 모아 추진하기도 어렵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를 표출하고 있다. 노령화되어 있고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어 있는 마을의 경우 농민들에게 생소한 관광 서비스를 해야 하는 사업에 쉽게 동의를 구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사업비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수익이 생겼을 경우 분배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달라 마을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마을은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다.

또한 농촌관광에 참여하고 싶은 개인농가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요식행위로 여기고 사업을 추진하거나 마을주민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추진과정에서 마을주민의 갈등으로 한 개인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 관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편, 마을지도자에게 마을 주민의 갈등 조정, 도시인에 대한 홍보, 프로그램 운영관리, 다양한 행정문서의 처리 등 과중한 업무가 집중되어 마을지도자의 희생과 봉사 없이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¹⁴⁾

(1) 성공·실패 사례

(가) 경영의 문제를 잘 극복한 마을 : 충남 홍성 동곡마을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출신인 마을지도자가 1993년 오리농법을 도입하면서 마을단위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마을진흥사업을 시작하였다. 95년, 19농가 31,900평이었던 오리쌀 생산단지인 홍성 일대 481농가, 135만평으로 넓혀져 65,000가마의 쌀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오리농법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유기농산물의 경우 소비자의 신뢰가 없으면 팔 수 없다고 생각하고 1995년부터 소비자가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오리 값을 먼저 내주는 오riba내주기 운동을 시작하고 국내 시장에 없었던 흑미를 재배하여 상품성을 높였으며 농협의 자금과 시설 활용, 유통업체와의 계약재배 등 오리쌀 판로와 유통에 각별한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을지도자는 농산물을 좋은 가격에 팔아 소득을 올리는 것만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을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마을발전에 노력하였다. 1997년부터 쌀 판매가의 일부를 마을환경기금으로 적립하여 마을발전의 기반을 만들고 정부의 환경농업교육관 사업을 지원받아 2000년 준공하였다. 또한 마을 100년 계획을 만들어 넉넉한 마을만들기, 오손도손한 마을만들기, 자연이 건강한 마을만들기, 자연과 조화되는 마을만들기를 목표로 마을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의해 현재 마을 숙박시설, 농촌생활유물관, 찜질방 등이 들어섰다.

환경농업교육관에는 연간 만 여 명이 방문하여 교육을 받거나 농촌체험을 하고 있으며 기업과도 연수계약을 체결하고 방문하고 있다. 마을지도자는 마을발전과 홍성 일대 오리쌀에 대한 판로개척, 환경농업교육관 운영 등의 업무가 많아지자 환경농업교육관에 사무국장을 두어 행정처리, 방문자 관리 등의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지도자의 역량을 마을발전과 주민화합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였다.

14) 소규모 마을단위의 농촌관광 사업은 선진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나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도시인들이 마을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고 친환경농업 확대, 브랜드 확립, 유역별 환경계획의 용이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확실한 마을의 지도력이 있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임경수, 2003,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2003년 농촌관광 현장 전문가 교육자료집』, (사)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인근에 특별한 것이 거의 없는 전형적인 마을이다.



소비자와 함께 오리농업으로 쌀을 생산한다.



황토찜질방 조성현장 . 교육관 , 농촌유물박물관 등 필요한 시설이 계획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마을에 찾아온 도시의 어린이들이 황토팩을 하고 있다.

(나) 경영의 문제를 잘 극복하지 못한 마을 : 강원 OO군 OO리

마을 인근에 수려한 하천과 저수지 등 다양한 자원이 있고 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도농교류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던 농촌마을로 2002년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어 마을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선정과정에 열심히 노력한 이장은 체험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이장직을 그만두었고 새로운 이장이 마을일을 맡게 되었으나 전임 이장과 신임 이장과의 의견 충돌이 잦고 마을의 공동시설 이용에 대해서 마을 주민 간에 의견이 분분하여 결국 마을이 구심력을 잃게 되어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마을 공동사업으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으로 진행하던 마을발전 컨설팅도 중간에 그만두었고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려던 한우생산을 위한 단지조성이 적합한 부지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농촌관광과 연계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전임 이장, 신임 이장, 총무 등 마을지도자간에 의사소통이 어려워 마을 일이 따로 따로 추진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사례 분석 결과

마을 공동 경영에 성공한 마을은 지도자가 공동체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고 마을 내에서 급전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공동사업과 개인 수익사업을 조화롭게 이끌고 있

으며 마을 지도자의 잡다한 업무를 줄여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마을 공동경영에 실패한 마을은 지도자의 리더십이 부족하여 주민들과 잦은 마찰이 생기고 장기적인 공동사업의 이익보다는 단기적인 개인 수익을 중요하게 여겨 지도자가 마을사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다.

라) 사업의 효과 문제

마을단위로 그린투어리즘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비로 조성된 시설을 활용하는 공간과 범위가 마을로 한정되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같은 시군 내에서 마을간의 지나친 경쟁과 견제가 발생하여 마을간에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을 중심으로 그린투어리즘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관광농원, 민박마을은 소외되었다고 느끼고 있고 지역의 개인농가, 농장은 참여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부처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추진하는 부서가 달라 인근 마을에서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해 유사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내에서 이러한 사업이 공간적인 안배가 일어나지 않아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마을이 그린투어리즘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마을이 발전하는 데도 한계가 있으므로 시군 지역단위의 농촌관광 혹은 지역개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1) 성공·실패 사례

(가) 사업의 효과 문제를 잘 극복하고 있는 사례 : 강원도 화천군

강원도 화천군은 상서면 신대리의 성공으로 화천군의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과 농촌관광을 접목해야한다고 판단하고, 군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원도에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통해 마을단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새농어촌건설운동에서 우수마을에 선정된 마을, 보유자원의 잠재력이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지역단위의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추진을 하고 있다.

화천군은 “화천군 그린투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관내 67개 전 마을의 잠재력을 8개 항목 18개 인자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지역의 균형발전, 연계 프로그램 개발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읍면 단위를 중심으로 5개 거점마을을 선정하였으며 이 마을을 중심으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이 마을의 선도적인 역할이 인근 마을, 인근 농가에 파급될 수 있도록 지역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지역계획에 의거하여 중앙정부의 마을단위 지원사업을 거점마을 중심으로 유치하면서 농촌관광을 통해 마을 뿐 만이 아니라 관광농원, 소규모 농장들을 네트워크 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나) 마을 사업을 지역적으로 잘 활용하지 못한 사례 : 충북 OO시

충북 OO시는 시 자체의 예산으로 농촌관광과 연계된 마을진흥사업을 시작하였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행자부 아름마을사업, 농진청 전통테마마을 사업을 추진하였다. OO시가 호반을 끼고 있기 때문에 천혜의 경관자원을 가지고 있어 좋기는 하지만 선정된 마을이 호반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으로 선정되어 마을중심의 농촌관광사업의 효과가 지역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마을사업을 지원하는 중앙부처에 따라 도시계획과, 건설과, 기술센터로 나누어져 실무담당자는 인근 마을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를 알지 못해 서로 유사한 시설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인근 지역 내에서 마을 상호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2) 사례 분석 결과

마을사업 효과를 지역활성화에 잘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지자체와 실무공무원이 농촌관광, 농촌개발에 대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고 있고 농촌의 자원을 파악하고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농촌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다. 마을사업의 효과를 지역활성화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는 지자체, 공무원, 농민들이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이 적고 체계적인 계획이 없어 중앙부처의 마을단위 지원사업을 단순히 진행하고 있다.

마)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창출

농촌관광의 공급처인 농촌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요자인 도시 소비자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이 미흡하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관리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국내관광 시장에서 농촌관광이 차지하는 비율을 2001년 9.4%로 추정하고 2011년 15.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2001년 연인원 30,930천명에서 2011년 연인원 92,107천명이 농촌관광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농촌관광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⁵⁾

단순히 양적인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시 소비자가 농업이나 농촌을 바르게 인식하게 하는 한편, 농촌에서 단순한 관광 서비스를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농산물의 구매자로서 또는 잠재적인 농촌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연구에 의하면 농촌관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농촌관광을 통해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으나 그 만족도와 신뢰

15) 농촌관광에 대한 통계조사가 충분치 않아 전국관광수요에 농촌관광 점유율을 추정하여 계산한 것이며 농촌관광에 대한 인지도는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했는데 농촌관광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자가 50%에 가깝고 무경험자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시현, 2003,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형 농촌관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대안 모색』

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¹⁶⁾

이미 친환경농업의 직거래 단체를 중심으로 의식 있는 소비자들이 조직화되어 있고 농촌관광에 대한 경험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단체를 중심으로 농촌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인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촌관광 사업에 대해 바르게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마케팅도 필요하다.

한편, 청소년에게 농업과 농촌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농촌체험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인 인성교육, 생태교육인 동시에 성인이 되어 지속적으로 농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고 농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방법이므로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1) 성공·실패 사례

(가) 홍보를 농촌관광과 잘 연결하고 있는 사례: 서울YMCA의 양곡은행

서울 YMCA 양곡은행은 폐폐된 농촌을 살리기 위해 1974년 사회모금방식으로 650가마의 쌀을 모아 13개 부락에 밀쌀을 저리로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하였고, 저리의 수익이 모아져 현재, 57개 부락에 17억여 원의 자금을 가지게 되었다. 농촌지역에 고리대가 없어지고 농협 등에서 좋은 조건에서 농민들에게 용자를 시작하면서 이 사업은 중단되었고 이 자금을 양곡은행이 관리하고 있다.

YMCA는 이 자금을 다시 농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2002년부터 도시인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민들에게는 경제적 향상과 농촌환경개선을 위한 도농 직거래 사업에 사용하였고, 2003년부터는 적극적인 도농교류사업을 위해 양곡은행 마을을 녹색농촌마을로 만들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였다. 양곡은행 산하 마을지도자, 주민들에 대한 교육사업과, 가장 적극적으로었던 철원의 도창리에 대해 마을시설을 보수하고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며, 수확시기에 맞추어 마을브랜드를 만들어 쌀 포장지를 제작하였다. 또한 2003년 11월 17일 철원YMCA 양곡은행과 서울, 경기 24개 유아원, 유치원이 소속되어 있는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간의 친환경농산물 급식 협약식을 맺어, 양곡위원회의 마을에서 생산하는 친환경농업쌀 1,000여 가마를 계약공급하고 유치원, 유아원과 마을간에 다양한 교류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는 사람과 자연이 한생명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아이살림, 농촌살림, 생명살림을 지향하며 학부모, 교사, 유아원 원장, 생산자들이 모여 자치적으로 아이들을 생태적으로 교육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자 하는 농림부 산하 사단법인이며 향후 이러한 도농교류사업을 YMCA와 함께 적극적으로 펴나가기로 하였다.

16) 윗글에서 인용한 박시현의 연구에 의하면 농촌관광 참여자가 관광활동 중에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71.3%였으나 지역특성을 살리는 브랜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시현, 2003, 위의 글



1970년대 시작한 양곡은행 밀쌀사업



철원YMCA 양곡위원회와 생태유아공동체와의 협약식



어린이들의 양곡은행 마을에서의 체험행사



철원 양곡위원회 소속 마을인 철원 김화읍 도창리의 친환경 농업 민들

(나) 농촌에 대한 향수를 부각하여 홍보하고 있는 사례: MBC 라디오 프로그램인 전유성, 최유라의 라디오 시대

전유성, 최유라의 라디오 시대는 애청자의 사연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MBC 라디오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에 고향일기라는 코너에서 농촌마을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도시인들이 고향에 대한 사연을 보내면 고향의 친지, 친구가 전화로 연결되어 고향소식, 농촌소식을 전하고, 마을 이장님도 마을에 대한 소개와 마을농산물 등을 홍보하고 소개된 마을에는 경운기를 보내주고 있다. 단순한 농촌에 대한 향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의 마을모습, 예전의 농촌에서 생활하던 모습에 대한 대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2) 사례 분석 결과

농촌관광과 관련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홍보에 성공하고 있는 경우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보다는 의식있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홍보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의식있는 소비자들은 농산물 직거래와 연계될 수 있고 농촌에서 세련된 관광 서비스보다는 오히려 인심이 살아 있는 농촌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있다.

한편, 농업 및 농촌에 대한 홍보 프로그램을 대중매체 등에서 다루고 있으나 단편적이고 도시인들의 향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도시인들이 적극적으로 도농교류를 하거나 농촌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2) 도시자본과 도시인 유치 활성화 사례 및 시사점

가) 현황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농촌은 도시에 비해 낙후되었고 소득정체, 인구감소, 노령화 등으로 침체되어 농촌의 내부자본이나 정부보조만으로 농촌이 스스로 발전할 수 없는 저생산, 저발전의 악순환 상태이다.

반면에 주 5일 근무제 실시, 노령연금 지급, 교통망의 확충 등으로 농어촌 관광수요와 전원주택·펜션 등 농촌형 여가 수요가 늘어나면서 농어촌의 유희자원 개발에 대한 도시인들의 관심이 증대하여 개인적으로 농지나 전원주택을 구입하거나 퇴직 후에 귀농하여 농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 동안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등의 규제에 제한을 받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¹⁷⁾

농촌에 자본을 유치하고 농민의 농외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1984년부터 농공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고용효과를 창출하였으나, 노임 이외의 농촌경제 파급효과가 낮았고 도시자본을 농촌에 유치,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촌을 자연환경·전통문화가 잘 보전된 여가·휴양공간으로 유치·발전시키기 위해 2002년 8월 「농촌투자유치대책」을 마련하였다.

「농촌투자유치대책」의 현실화를 위해 2002년 7월 농림부내에 농촌투자유치센터를 개소하여 2003년 농업기반공사로 이관하고 투자자원의 정보제공, 상담 및 소개,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농촌관광 활성화, 지역기관과의 연계 구축 등의 역할을 하고 있고 도시민의 주말농장용 소규모농지 소유 및 임대 허용, 농지취득 시 농지관리위원 확인절차 폐지, 농업인 위주의 농촌관광단지 개발주체를 일반인에게 개방, 민속주류 설치기준 완화, 투자유치센터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등을 추진하였다.

나) 주요 문제점과 성공·실패 사례 분석

(1) 어메니티 보전의 문제

어메니티 자원은 농촌주민과 도시인이 공유한 자원인 동시에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유한 자원이나 농촌주민들은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몰라서, 도시자본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농촌 어메니티를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농촌 어메니티 자원 보전과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 지침이 필요할 실정이다.

펜션,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등 소규모 투자유치는 자본의 영세성, 이익 추구지향성 등으로 농촌 어메니티를 훼손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도시자본이 어메니티 보전을 하는 것이 농

17) 농업인이 아닌 경우 주말농장, 농촌주택, 한계농지개발, 농업법인 출자 등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다. 농촌투자유치센터에서는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고자 관련 법규와 규정을 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농촌투자유치센터, 2002, 『농촌투자유치대책 설명회 자료』

촌에 투자하는 것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농민들이나 자본 투자자들이 농촌 어메니티를 보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기술에 대해 접근하기 어려워 곤란을 겪고 있다.¹⁸⁾

(가) 성공·실패 사례

① 농촌 어메니티를 잘 보전한 사례 : 제주 녹차박물관 오'설록

태평양에서 설록차를 홍보하기 위해 제주도 서광다원 입구의 2,450평의 대지에 465평의 건물로 녹차박물관을 조성하였다. 건물외관은 시원스러운 점토 등의 자연소재를 사용하여 주변 서광다원의 시원스런 풍광과 어울리게 하여 어메니티를 높이고 제주의 돌담, 방사탑, 데크형 통로 등의 토속적인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제주도의 풍미를 한껏 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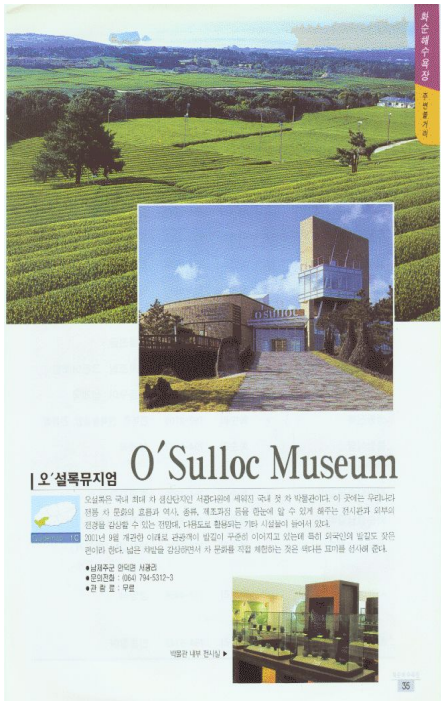
이 박물관에서 녹차와 관련한 다기와 팬시제품, 녹차생산물, 녹차 아이스트림 등의 가공품을 구입할 수 있고 전시품의 관람, 관련 체험을 할 수 있다. 차를 중심으로 한 제주도의 농업자원과 제주도의 문화자원을 어메니티로 연결하면서 농촌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내려는 도시자본 유치의 좋은 사례이다.

② 농촌 어메니티를 잘 보전하지 못한 사례 : 강원도 OO군 펜션단지

다음은 난개발과 관련된 기사내용의 일부이다.

「강원도의 대표적 청정 지역인 OO군 일대에 최근 펜션이 잇따라 들어서 난(亂)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사전환경성 검토와 지구단위 계획 등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등 편법이 동원되는가 하면, 건축 면적을 속이거나 펜션 개발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거액을 가로채는 불법 행위까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8) 농촌 어메니티가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메니티를 보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으나 관련 연구는 2000년대에 시작되었고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소프트웨어형 개발방식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편이다. 전영옥, 2003,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한 농촌어메니티 정책의 방향”, 『DDA 대응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촌어메니티 자원 개발』



녹차박물관 오설록의 소개 팸플렛



녹차박물관 오설록의 야외전경, 제주도의 풍치를 살렸다.



녹차박물관 오설록의 전경, 점토 벽돌의 건물이 아름답다.



정자, 탑, 목재 데크형 통로 등이 잘 어우러져 있다.



인근 녹차밭에서의 체험

난개발 실상 = OO군 OO면 OO리 OO계곡 4km 남짓 구간에는 2백여 채의 펜션이 건립됐거나 건립 공사 중이다. 산을 등진 곳이나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곳에는 어김없이 펜션이 들어서 있다.

주민 강모(가명.77)씨는 "불과 3~4년 전만 해도 40가구가 살면서 소규모 민박을 운영해 왔으나 외지인이 지은 펜션이 계속 들어서면서 이제는 10여 가구밖에 안 남았다"며 "무엇보다 청정한 계곡물을 찾아볼 수 없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OO군에 펜션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2000년부터. 처음에는 단독형 펜션이 한두 채 들어섰으나 OO군이 OO사업 유치에 나서면서 개발 붐이 불어 OO면을 비롯해 여기저기에 분양이나 숙박업을 위한 단지형 펜션이 우후죽순 들어선 것이다.

OO군은 2000년 10여개에 불과하던 펜션이 2001년 1백여개, 2002년에는 5백여개로 급증했으며 2003년말에는 1천개가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략)」

(나) 사례 분석 결과

어메니티 보전을 잘 한 도시자본 유치는 개발주체, 투자의 주체가 어메니티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어메니티 보전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 어메니티 보전을 잘 하지 못한 경우 어메니티 보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투자자금 등의 여력이 없어 어메니티 보전보다는 단기적인 수익 창출에 중심을 두고 있다.

(2) 농촌경제 활성화

이제까지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는 대규모 자본에 의한 대규모 개발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실질적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크지 않았고 환경과 생태계 훼손, 지역전통문화 파괴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최근 들어 전원주택, 펜션개발의 붐을 타고 소규모 도시자본이 농촌지역에 유입되고 있으나 대규모 자본보다 고용효과가 적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농촌주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만 안겨주는 등 농촌지역사회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도시자본 투자는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투기가 아니라 농촌의 어메니티와 농촌의 전통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모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사업의 수익도 농민과 도시자본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민들이 스스로 도시자본 유치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나 농민이 주체가 되지 않더라도 도시자본 유치 사업을 통해 농산물이나 가공품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⁹⁾

(가) 성공·실패 사례

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례 : 경기도 팔당살림연대

95년부터 97년까지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상수원인 팔당지역에 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의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가당 4,000만원을 연리 5% 거치 5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318억원을 융자 지원하였는데, 서울시는 융자액의 이자를 보전해주고 서울시 구청 내에 환경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자생적인 환경농업 생산자 단체였던 팔당상수원유기농업운동본부가 활성화되었고, 2001년 3월 유기농산물을 구입하던 소비자들이 모여 팔당상수원소비자생협을 구성하였으며 두 단체가 통합하여 2001년 3월 팔당생명살림연대로 발전하였다. 현재 팔당생명살림연대는 팔당지역에 교육장을 조성하여 팔당지역과 다른 지역의 환경농업인과 소비자를 교육하고 생산자 조직을 통해 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잼, 우리밀 과자 등의 가공사업을 연

19)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농산물 생산, 관광 및 휴양, 환경보전 등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여 1·2·3차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산업공간으로 농촌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도시자본 투자가 이러한 복합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촌자원과 도시자본을 연결하는 공동개발방식이 필요하다. 농촌투자유치센터, 2003, 『농촌투자유치대책 설명회 자료』

계하고 농협 하나로 마트의 환경농업 직판장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 상수원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농촌지역에 투자한 도시자본이 친환경농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주도로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사업을 계열화하면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경제에 기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팔당생명살림연대 생산자



팔당생명살림연대 여성회원들의 교육 (아산한살림 견학)



팔당생명살림연대의 도시인의 도농 교류 체험활동

②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례 : 충북 OO시 OO리조트

OO 리조트는 충북 OO시 OO호반에 만들어진 회원전용 고급빌라형 콘도로 1997년 8월 1차분을 분양하고 이후 2차, 3차분을 조성하고 분양하였는데 단독 별장형 콘도, 완공후 분양, 환경친화적인 건축 및 조경 등으로 기존의 콘도와 차별화, 고급화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콘도 내부나 인근 지역 농산물을 파는 매장이 변변치 않고 인근 농민들에게 소득을 줄 수 있는 사업과 연계되지 않아 농촌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 리조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자동차로 방문하기 때문에 휴일동안 필요한 농산물을 도시 대형마트에서 구입하여 방문하고 리조트 내부의 식당을 이용한다.

OO시는 리조트 인근지역에 친환경 민속마을, 행자부 아름마을, 농진청 전통테마마을을 선정하여 농촌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부유층인 리조트 회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마을에 만들지 못해 리조트와 연계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나) 사례 분석 결과

도시자본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우는 도시자본의 유치 주체가 농민이기 때문에 농가소득, 농촌경제 활성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도시자본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는 도시자본이 부동산을 매개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단순한 관광 서비스로 수익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농가소득이나 농촌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고 있다.

(3) 농촌의 투자 및 정주환경

농촌에서는 도시인들의 생활을 이해하지 못해 도시인들이 자본투자를 하거나 농촌에서 거주하는데 대해 거부감이나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하고자 시세보다 부동산을 비싸게 도시인에게 팔거나 소개비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귀농 혹은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귀농인에게는 다양한 생계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전원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은 기초적인 생활편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농촌지역에 도시자본이 유치되고 도시인의 거주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에 다양한 사업이 활성화되고 부족한 복지, 문화 기반의 확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정부 주도로 복지, 문화 기반의 확충을 하고 있지만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스스로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다는 참여정부의 “참여복지정책”에 맞추어 농민들이 스스로 농촌의 문화,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촌 인구가 늘고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지고 기본적인 편의 서비스와 문화, 복지 서비스가 활성화되어야 도시자본의 유치와 도시인의 농촌거주도 활성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농촌이 활성화되어 농민들에게도 혜택이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가) 성공·실패 사례

① 농촌의 투자 및 정주환경 문제를 잘 해결한 사례: 남원 산내면 사단법인 한생명

인드라망 생명공동체와 지리산 실상사가 귀농전문학교를 실상사에서 운영하였고 이 학교에서 귀농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실상사 인근에 정착하면서 안정적인 귀농생활을 돕고 지역의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사업을 하기 위해 2001년 사단법인 한생명을 창립하였다. 실상사 귀농전문학교와 귀농인들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하고 있던 귀농학교, 작은학교(중학교 과정의 대안학교), 농촌생활교육(옷짓기, 자연건강 등) 등을 포함하면서 현재는 여성농업인센터, 사회문화교육원, 주민건강사랑방 등의 사업으로 확대하였다.



2001년 사단법인 한생명 창립총회



귀농인들을 교육한 실상사 귀농전문학교



중학교 과정의 대안학교인 실상사 작은학교



농촌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주민 건강 사랑방

이러한 노력으로 남원시 산내면 관내에 귀농인이 30가구 70-80여명 이주하였고 작은 학교의 교육여건 때문에 이주한 가구도 4가구가 되었다. 건강사랑방은 하루에 농번기의 경우 7-8명, 농한기의 경우 20-30명이 이용할 정도로 지역주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 사회문화교육원에서는 환경농업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자연치료, 청소년 체험교실, 계절학교를 운영하여 도농교류사업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또한 매년 10월 지리산생명평화축제를 열어 지역 활성화에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2004년부터 지역현황에 맞는,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귀농, 지역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농촌관광, 생태관광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② 농촌의 투자 및 정주환경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 사례: 전북 OO군

전북 OO군은 인구 늘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인을 OO으로 모셔오는 사업을 군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계절형, 전원형, 농원형, 생태형, 휴양형으로 테마를 분류하고 25개 부지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도시인에게 알선하고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였다. 지정한 부지의 규모가 작거나 기존의 마을내부에 속해 있어서 농촌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도시인에게 부적당하고, 단지화 할 수 있더라도 인근 지역에 기초적인 의료, 교육, 문화 서비스가 부족하여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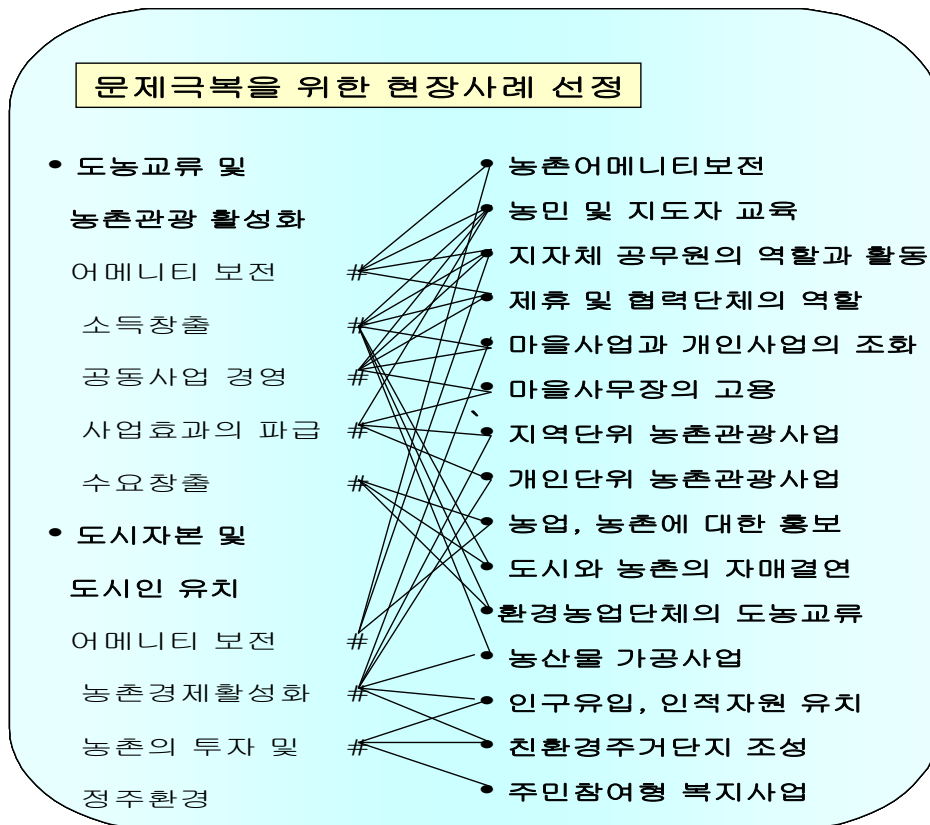
(나) 사례 분석 결과

농촌의 투자 및 정주 환경 문제를 잘 해결한 경우는 농촌지역에 알맞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고 질이 높지 않더라도 농촌생활에 적합한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농촌의 투자 및 정주 환경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 경우는 도시자본이나 도시인을 유입하고자 하는 의욕적인 정책은 있었지만 기초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생활편의, 문화 및 복지 서비스를 확충하지 못했다.

4.2.4 농촌 도농교류의 문제극복을 위한 현장사례의 분석 결과

1) 문제극복을 위한 현장사례의 선정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와 도시자본 및 도시인 유치의 주요한 문제점은 하나의 대안으로서 해결할 수 없었고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그림 4-2>와 같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주요한 문제점을 직접 해결하고 있거나 해결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4-2) 문제극복을 위한 현장사례의 선정

2) 문제극복을 위한 현장사례 분석

가) 농촌 어메니티 보전

광역적인 어메니티 보전은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 자율적 규제로, 공간적인 범위가 작은 지역에서의 어메니티 보전은 주민운동을 통해 농촌의 어메니티를 보전할 수 있다. 어메니티 보전에 대한 규제를 만든 제천시와 용인시 학일리 마을자치규약, 도시의 사례이지만 어메니티 보전운동을 주민운동으로 승화시킨 대구시의 담장허물기 사례를 조사하였다.

(1) 제천시 경관형성 조례

(가) 특징

제천시는 경관형성조례를 제정하여 자연경관의 특성을 살리고 효율적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2002년 1월에 시행하였다. 이 조례는 제천시 지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사업 및 시장의 허가·인가·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민간개발사업에 적용되며, 시장·주민·사업자 모두 제천시의 자연경관을 보전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보전가치가 있거나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축물을 설치할 때에도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유도하여 자연친화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장은 자연경관의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 기본계획은 산림, 하천, 호수, 도로, 역사·문화유적지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맞는 자연경관 보전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이 밖에도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경관형성 활동 및 단체, 경관형성심의위원회, 경관형성을 위한 권고·조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 조례를 시행할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고 지자체 실무자와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가시적인 성과가 크지는 않다.

(나) 시사점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어메니티를 보전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 사례이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농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2) 용인시 학일리 마을자치규약

(가) 특징

농촌관광마을을 비롯한 마을가꾸기 사업의 경우 마을 내부의 갈등요소가 상존하고, 마을지도자가 너무 많은 책임을 맡고 있으며, 농촌주민들의 단기적이고 경제적인 욕심으로 마을 어메니티가 훼손될 가능성이 많다. 경기 용인시 학일리(행자부 아름마을)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마을자치규약을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만들었다.

마을자치규약은 마을주민의 조건·권리·의무 등을 규정하고 공유부분에 대한 범위와 사용방법·관리책임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한 내용도 담고 있고, 주민총회·회계관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규약에서는 마을 어메니티 보전을 위해서 주민대표회의의 심의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명시하여, 개별적인 건축행위나 공공장소에 폐기물을 적재하는 행위, 경관을 해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농촌다운 경관을 보전할 수 있는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나) 시사점

전문가의 노력으로 마을 어메니티를 보전하려고 노력한 사례이지만 이 마을규약도 어메니티 보전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명문화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

(3) 대구시 담장허물기

(가) 특징

1995년 대구광역시 서구청과 1996년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시작된 담장허물기에 자극받은 한 시민단체의 시민운동가가 자신의 개인 집 담을 허물면서 시민운동으로 불붙기 시작하였다. 대구 YMCA의 김경민 씨는 대구시 중구 삼덕동에 있는 자신의 집 담을 허물어 마당을 개방하였고, 대구사랑운동 실무위원회에서는 대구사랑운동의 1999년 선도과제로 담장허물기 운동을 선정하여 개인들에게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삼덕동은 웅기종기한 도심골목길을 가진 마을이다.



너무 높거나 흉한 담장을 주민 스스로 헐었다.



담장이 서있던 공간은 온전히 주민들의 공간이 되었다.



담장허물기로 시작한 주민운동은 마을가꾸기, 마을축제로 발전했다.

담장허물기는 적은 예산으로 도심 내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주거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한편 자연공원에 비해 관리비용이 적은 장점을 가진다. 그런데 도심 공간에 작은 어메니티를 확보하는 주민운동은 이 운동이 시작되었던 삼덕

동 주민들 사이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이어졌다. 개인주택과 동사무소가 담을 헐고 담장을 예쁘게 꾸몄다. 또, 구청이 일부 주택을 매입하여 마을미술관, 국악원, 마을 커뮤니티 센터 등을 만들어 한 차원 높은 주민운동으로 승화되었다.

(나) 시사점

비록 도심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어메니티 보전을 위해서 규제보다는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주민운동으로 승화될 때 바람직하고 창의적인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나) 농민 및 지도자 교육

농민 및 지도자 교육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① 농촌 어메니티 보전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농민과 농촌지도자들이 어메니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농민 스스로 농촌 어메니티를 보전하고 진흥하는 계기가 된다.

② 공동사업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농촌지도자들에게 공동체, 공동사업의 방법, 경영마인드 등을 교육하여 사업 경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③ 소득을 창출하고 마을단위 사업을 지역으로 파급할 수 있는 방법

농민과 농촌지도자들이 농촌관광을 통해 어떻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와 어떻게 농촌관광을 지역으로 확대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교육하여 사업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

④ 농촌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

단기적으로 농민과 지도자를 교육하여 농촌의 일꾼으로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젊은 농촌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다.

농민, 농민지도자에 대한 교육사례로 전문대학 수준의 교육을 하고 있는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전공부, 연암축산원예대학, 한국농업전문학교, 외국사례인 호주의 SEED 프로그램, 전문농업인교육 프로그램인 농업벤처대학, 농촌관광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를 조사하였다.

(1) 충남 홍성의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전공부

(가) 특징

1958년 주옥로, 이찬갑 선생은 농촌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더불어 사는 평민을 만든다는 목

표 아래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를 개교하였다. 농촌과 함께 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일반 고등학교가 아닌 농업학교를 설립하였고, 작은 학교를 지향하기 위해 고등기술학교 학제를 선택하였다.

설립 초기에 학생 수가 적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1970년대 유기농업을 도입하여 증산 위주의 정부 시책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탄압도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농촌지도자와 농촌지역 일꾼을 양성하였다.

많은 풀무학교 졸업생들이 지역에 남아 농촌의 인적자원, 지역 잠재력이 되어서 홍성군의 흥동면은 다른 지역에서 보기 드물게 신협, 생협, 주민주도형 어린이집, 여성농업인 센터 등 다양한 풀뿌리식 농촌 자치조직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주형로라는 탁월한 농촌지도자를 배출하여 마을가꾸기 사업의 모범적인 사례인 동곡마을을 만들어 내었다.

2001년에는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전공부(전문대학과정)를 신설하고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교육생을 선발하여 2년제 전문적 농업교육을 시작하였으며 교과과정에 농장설계, 마을가꾸기, 지역공동체만들기, 협동조합 등 농촌개발과 관련한 다수의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나) 시사점

농촌의 중요성을 농민 스스로 깨닫고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민이 노력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농촌현장과 밀착된 교육을 통해 젊은 농촌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2) 천안연암대학(연암축산원에대학)

(가) 특징

LG그룹의 창업자인 연암 구인회 회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회문화 공익사업과 인재육성의 교육사업에 투자하는 연암문화재단 설립하였고, 공업화에 밀려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을 근대화시키고자 1974년에 설립한 학교이다.

영농기술의 개발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공분야별 최고전문가(MASTER)를 양성하여 환경친화적 생명산업인 농업을 통해 국토를 보존하고 생산·창조·봉사의 자리를 바르게 맡는 전문직업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 학교의 목적이다.

철저한 실험실습 위주의 실기교육을 통해 핵심기술의 개발 및 습득과 농업경영 능력을 갖춘 전공분야별 최고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 내부에 첨단농업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년 10회 이상 농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의 첨단시설을 교육장으로 개방하여 농업고등학교·영농후계자·농업관련 단체들이 년 1만 명 이상 견학하고 있고, 산학협동 연구·기술자문·졸업생 추후 지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시사점

기업가도 농촌에 젊은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시하고 이를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한 사례이며, 농업기술에 대한 교육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촌관광·농촌개발에 대한 교과과정은 없다.

(3) 한국농업전문학교

(가) 특징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모 확대와 기계화·자동화 등 첨단 기술을 수용하고 경영능력을 갖춘 농촌 후계인력의 체계적 육성이 필요함에 따라, 1994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의 건의로 1997년에 설립되었다.

입학금·수업료·기숙사비·교재비·실험실습비 등 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단기 해외연수를, 우수 학생들에게는 1년간의 장기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졸업생에 대해서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고 병역특례를 위한 산업기능요원 추천과 졸업 후 영농정착에 필요한 각종 농업정책자금 지원하고 있다.

실기·실습 위주의 교육, 교수·학생 및 졸업생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개인별 정밀지도, 특정분야 전문가 양성 교육(독일의 마이스타 도제교육방식)을 통해 농업 전문가를 양성한다. 2003년 2월까지 4회 졸업생 1,000여 명을 배출하였고 대부분 졸업생들은 후계농업인으로 창업하거나 농업관련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나) 시사점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젊은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가 적지 않은 투자를 통해 장기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키워 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례이나, 개별적인 농업기술에 대한 교육 위주여서 개인적인 창업에는 도움이 되지만 농촌관광·농촌개발에 대한 교과과정이 없어 농촌개발 인력 양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

(4) 호주 SEED(Sustainability Education & Ecological Design)의 교육 프로그램

(가) 특징

SEED는 호주의 생태마을 크리스탈 워터즈 내에 있는 민간단체로, 유기농업·마을가꾸기·지역개발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의 크리스탈 워터즈 생태마을은 유기농업에 기반한 생태적인 농장과 마을로 설계하고 마을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1996년 유엔 환경계획으로부터 가장 모범적인 주거형태라고 하는 World Habitate Award를 받았다.

SEED의 교육프로그램은 이러한 생태마을 내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서로 토론하며 실습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SEED의 프로그램 중에서 퍼머컬처 디자인 코스는 가장 잘 짜여진 교육프로그램으로 한국에도 2001년부터 3년간 운영된 바 있다. 퍼머컬처 디자인 코

스의 전체 프로그램은 강의 25%, 토론 25%, 간단한 실습 및 견학 25%, 교육 참가자가 스스로 농장과 마을을 설계하고 발표하는 과정 25%로 균형있게 배분되어 있다. 한국 퍼머컬처 디자인 코스 운영시에 참가자들의 평가는 매우 좋았으며 참가자들 중에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농업과 농촌분야로 전공을 바꾸고 일반인의 경우 귀농하는 사례가 나타났기도 했다.

(나) 시사점

전문가·선진 영농인들이 다양한 주제로 몇 가지 주제를 나누어 나열식으로 강의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실천적·체험적 교육이 농촌현장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지식을 전달해 주고 교육 후에 바로 실천적인 대안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5) 한국벤처농업대학

(가) 특징

농업분야에 고객만족이라는 개념을 인식시키고 디지털 경제에 걸맞는 경영과 마케팅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2000년 조직된 한국벤처농업포럼을 모태로 2001년 5월에 설립되었다. 창의력과 벤처정신을 조화시켜 개성 있는 농업비즈니스 창출하고 개개인의 창의력이 중요시되는 농업으로 발전시키며, 한국 농업의 새로운 토대를 정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1년 과정으로 운영되는데 월 1회 정기적인 강좌가 매월 넷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 1박 2일에 걸쳐 이루어진다. 1기생 27명, 2기생 28명을 배출하였고 현재 3기생 90여 명이 학습하고 있다.

(나) 시사점

농민들에게 시대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는 경영마인드를 갖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례이다.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이 좋으면 농민들이 자비를 들여서라도 교육을 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6)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가) 특징

1963년 창립한 사단법인 전국농업기술자 협회는 현재 9개 시도연합회와 156개 시군 지회가 있으며 7만2천 명의 농민회원이 활동하는 단체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중앙 농민대학 및 지방 농민대학을 중심으로 한 농민 교육사업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다.

부문별 기술교육·친환경농업 기술·벤처 농업 등의 기술·경영교육 외에 2002년부터 도농교류 최고 지도자 과정과 농림부의 위탁을 받은 농촌관광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며, 도시인을 위한 도농교류 희망자 교육·농촌 정착 희망자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나) 시사점

생산자 단체에서 도농교류·농촌관광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었고, 성공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이다.

(7)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

(가) 특징

농업의 지식산업·정보화를 선도하는 창조적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농업분야 공무원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99년 1월, 정부산하기관 교육기관이 통합되면서 설립되었다. WTO·FTA 등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 농업의 경영능력 향상과 지식산업화 지원, 비농업분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도 제고 확대, 수요자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여건 조성 및 교육기관 간 교류증진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농촌관광과 관련해서는 농민을 대상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지도자반”을 운영하여 농촌관광 교육을 하고 있으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농정시책반”과 “벤처농업반”에서는 농촌관광을 교과과목으로 편성하였다.

(나) 시사점

국가기관에서 농촌관광과 농촌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무원과 농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한 사례이지만 아직 농촌관광과 농촌개발에 대한 비중이 크지는 않다.

다)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과 활동

지자체의 공무원이 농촌관광이나 농촌개발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① 어메니티 보전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

농민들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어메니티 보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어메니티 훼손이 가능한 사업은 자제할 수 있다.

②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행정기관의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하여 공동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주민들을 독려하고 마을지도자를 보좌할 수 있다.

③ 농가 소득을 높이고 사업의 효과를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

지역의 현황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중앙의 정보도 비교적 빠르게 전달받고 있기 때문에 농촌관광·농촌개발 사업을 시군 지역단위로 확산시키고, 그 효과를 농가소득, 농촌 활성화로 접목시킬 수 있다.

④ 지역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

장기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운영하거나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초기에 사업을 관리하면서 농민들이 주체적인 역량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관광 분야에서 시군단위에서 열심히 일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강원도 화천의 최○○, 전북 진안의 유○○, 광○○, 충남 서천의 정○○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1) 강원도 화천군 최○○

(가) 특징

2000년 화천군 간동면 사무소 산업계에서 근무할 당시, 관내 용호리를 강원도 새농어촌건설 운동에 참여시키면서 마을가꾸기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서 용호리를 2000년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최우수 마을로 만들었고, 2001년 상서면 신대리를 우수마을로 만들었다. 2002년, 신대리에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유치하여 신대리를 농촌관광의 최고 브랜드 마을로 만들었으며 같은 해 마을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신대리가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신대리는 연간 만 명이 방문하는 농촌관광 사업을 통해 1,200가마의 오리쌀을 직거래로 판매하고 인근 마을에서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까지 직거래 하는 등 농촌관광 사업을 통해 농촌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화천군은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촌관광계를 신설하고, 최○○씨를 실무담당자로 발령하였고 다양한 농촌관광·농촌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시사점

시군의 한 공무원의 노력이 시군 단위 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2) 전북 진안군 유○○, 광○○

(가) 특징

진안군은 주민참여를 통해 농업과 농촌개발을 위해서 지역주민·공무원이 참여하는 2001년 군정기획평가단을 조직하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군정에 대한 기획·평가·자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외부에서 전문가를 영입하였다.

기획단장으로 농어촌사회연구소에서 진안군 농업계획을 수립하였던 유○○씨를 전임 계약직으로 임명하고, 지역 현실을 직시하면서 중앙정부에 대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농촌개발 사업을 진행하였다. 농촌관광과 관련하여 동향면 능길마을(2002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었으며 농촌개발을 위해 진안군 “으뜸마을가꾸기사업”을 기획하여

운영하였다.

농정기획평가단에 근무하는 박○○씨는 기계 기술직이나 평가단에서 근무하면서 농촌관광·농촌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새로 뽑힌 직원들을 대상으로 농촌관광·농촌개발·지역현안 등에 대해 교육하는 신입직원 오리엔테이션을 기획하여 운영하였다.

(나) 시사점

전문역량을 가진 외부 인력과 의식 있는 실무인력이 농촌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적 역량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례이다.

(3) 충남 서천군 정○○

(가) 특징

건축직으로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2002년 서천군 마서면 합전마을의 아름답마을가꾸기 사업을 맡게 되면서 농촌관광·농촌개발에 참여하게 되었다. 아름답마을 사업을 주민들과 함께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번듯한 관광지나 공업단지가 없는 서천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농촌관광을 비롯한 농촌개발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쏟았다.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외부 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자신의 생각을 다른 실무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군청 직원들과 스터디 그룹을 조직하여 함께 지역개발을 고민하고 있다.

(나) 시사점

여타의 교육 프로그램보다 한 번의 실무적인 일로 인해 실무자들이 생각을 바꾸고 농촌관광과 농촌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게 된 사례라 할 수 있다.

라) 제휴 및 협력단체의 활동

제휴 및 협력단체가 농민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① 어메니티 보전 문제의 해결방법

농민들이 간과하기 쉬운 어메니티 보전문제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보완할 수 있다.

② 경영의 어려움 문제의 해결방법

농민·지도자와 함께 사업계획 수립하고 자문이나 공동사업 진행을 통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③ 농촌관광의 소득창출 문제의 해결방법

농촌에서 소득이 될 수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개발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되도록 계획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농민들과 함께 농촌관광, 농촌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일 할 수 있는 단체는 농촌마을가꾸기 컨설팅 회사와 지역운동을 하고 있는 지역의제21, 농촌복지를 위해 일하는 민간단체를 사례로 조사하였다.

(1) 농촌마을가꾸기 컨설팅 기업

(가) 특징

농촌관광, 친환경농업을 통해 마을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마을 개발 컨설팅을 통해 이를 비즈니스화하는 업체로 국내에는 (주)이장, 명소마케팅, Cu&O, 이지텍 등이 전문업체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업체는 4개 업체 정도로, 컨설팅이 필요한 마을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농촌계획·조경·건축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계획하거나 자문하기 때문에 농촌 어메니티에 대한 고려를 하게 되며, 유통·관광 등 관련 업체와 네트워크하여 마을개발에서 사업적인 접근을 시도하므로 구체적이고 실행될 수 있는 계획들이 세워지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전문 컨설팅 업체는 마을계획 뿐만이 아니라 농촌지역 활성화계획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마을단위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마을단위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농촌실정에 알맞은 계획을 수립하면서 농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나) 시사점

농업 분야에서 컨설팅은 생산기술·경영분야에 국한하였으나 농촌개발사업에도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농민들의 부족한 사업능력·경영능력을 배양하며 생산하는 상품의 질을 높일 수 있다.

(2) 지방의제21

(가) 특징

지방의제21은 1992년에 ‘지속가능한 발전(ESSD)’의 합의를 담은 ‘리우선언’에서 채택된 실천 지침인 ‘의제21’ 중에 지방정부의 행동계획을 일컫는 것이다. 지방의제21에서 논의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원래 환경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최근에는 환경보전과 지역경제는 물론 문화와 복지문제 등 모든 부분을 고르게 발전시켜 자기 지역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가꾸기 위하여 마련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제21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지역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다양한 의견의 제시, 그리고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계획을 추구하고 있다.

2003년 6월 현재,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 73%인 181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을 수립하였으며, 21%인 51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중에 있어 94%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을 추

진하고 있다.

(나) 시사점

아직까지는 성과가 뚜렷하지 않으나 지역개발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3) 농촌복지 관련 민간단체

(가) 의료생협연대

① 특징

의료생협연대는 의료생협의 전국연합체로서 비영리단체이며 지역생협의 활성화 방안이나 새로운 생협 결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6개 지역에서 의료생협이 운영 중이며 3개 지역에서 준비 중이다.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의료생협의 결성을 위한 준비 및 추진 주체를 지원한다.

② 시사점

농촌지역에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농민 주도로 만드는 농민의료생협(농민병원)을 설립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이다.

(나) 자활후견기관

① 특징

자활후견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복지와 노동의 결합을 통한 자립을 모색을 지향하는 사업이다. 농촌지역 자활후견기관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농촌지역에서의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방법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자활사업이 단순한 빈곤정책이 아닌 지역사회의 높은 복지 욕구까지 수용할 수 있는 특화된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자활후견기관도 파트너십을 형성하면 지역 내에서 자활사업을 통하여 빈곤농촌주민들의 생계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데에 한몫을 담당할 수 있다.

② 시사점

농촌지역의 부족한 복지 서비스를 주민주도로 해결하고자 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이다.

마) 마을사업과 개인사업의 조화

마을단위사업에서 공동사업과 개인사업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① 공동사업의 경영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

마을단위 공동사업과 농가단위의 개인사업을 조화롭게 하여 공동사업의 갈등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

② 소득창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특산물 재배, 2차 가공, 민박 등 다양한 농가단위 사업을 농촌관광과 연계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③ 농촌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농촌에 다양한 사업을 농촌관광과 연계하여 만들어냄으로서 농촌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마을단위로 농촌관광 사업을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 공동사업과 개인사업의 조화를 꾀하고 있는 충남 서천군 합전마을과 강원 화천군 신대리를 사례로 조사하였다.

(1) 충남 서천군 합전마을

(가) 특징

충남 서천군 마서면에 자리한 합전마을은 87가구 243명이 살고 있으며, 신지식인·농업인 등 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팜스테이·도농교류축제 등을 통해 소득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농촌마을이다. 주변 볼거리로 금강하구둑, 문헌서원, 희리산 휴양림, 마량 동백숲과 해돋이 등이 있어 비교적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지역특산품인 죽염·죽염된장·한산모시 가공공장의 견학코스과 농사체험·갯벌체험·자연염색하기·떡메치기·두부만들기 등의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 내 민박은 4가구 14실이 있으며 총 30~40명 정도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시 마을의 공동시설에 숙박하기보다는 민박을 하도록 지도자가 배려하여 마을 공동사업으로 농촌관광을 하면서 민박을 통해 개인적인 소득을 얻도록 하고 있다.

(나) 시사점

관광자원과 체험프로그램을 묶어 농촌관광사업을 활성화하면서 마을민박을 통해 개별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강원 화천군 신대리

(가) 특징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에 있는 88가구 296명이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농협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오리농업을 통해 친환경농업을 시작하여 2001년 강원

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2002년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었고 2002년 마을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농촌관광의 선두마을이다. 전형적인 농촌으로 마을 내부는 물론, 주변에도 변변한 관광자원이 없었으나 오리농업을 중심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잠재적인 직거래 소비자를 확보하면서 환경농업으로 소득을 증대하였다.

농촌관광을 통해 마을로 유입되는 돈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마을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고 마을이 활성화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일에 마을주민들이 참여하여 소득을 창출하였다. 그리하여 마을에는 다양한 새로운 직업이 생겼는데 토고미 자연학교 사무국장(폐교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두부공장 공장장(식사를 만들 때 두부를 만드는 일), 마을정미소장(환경농업 오리쌀 정미 및 포장), 마을펜션 매니저(펜션시설관리 및 운영) 등이 그 예이다.

(나) 시사점

단순 1차 농산물이 주소득원이었던 농촌 마을이 3차 산업인 도농교류·농촌관광을 통해 다양한 사업과 소득원을 개발하고 지속적·안정적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바) 마을 사무장의 고용

농촌에 부족한 젊은 인적자원을 보완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① 농촌지도자의 경영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법

농촌에서 살거나 귀농하려는 젊은 인력을 확보하여 지도자의 역량을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② 사업의 효과문제에 대한 방법

농촌에 들어온 젊은 인력이 농촌에 적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관광을 지역 단위로 확산시킬 수 있다.

③ 농촌의 잠재력 함양의 방법

인적자원, 특히 젊은층이 부족한 농촌에 발전동력이 되는 젊은 인적자원을 유치할 수 있다.

마을단위 농촌관광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에서 젊은 인력을 고용하여 마을지도자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충남 홍성군 동곡마을(문당리)와 전북 진안군 능길마을을 사례로 조사했으며 행정부 아름답마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인력의 유치를 계획 속에 포함시킨 경북 영천시 정각리 사례, 외부의 젊은 인력을 유치하려 했으나 실패한 강원도 한 마을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1) 충남 홍성 동곡마을(문당리)

(가) 특징

문당리의 경우, 마을가꾸기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마을 내에서 처리할 업무가 늘어나고, 마을 지도자의 역할 증대로 실무 전담 인력의 필요성도 늘어나게 되어 사무장을 채용하였다. 현재 사무장의 역할은 주로 마을의 내부 살림을 담당하는 총무이며, 마을지도자의 생각이나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옆에서 도와주는 비서역도 수행하고 있다. 사무장의 보수는 년 1000만원 정도로 마을에서 형성하고 있는 마을기금에서 지급한다.

(나) 시사점

마을에서 스스로 인력이 필요하여 마을업무를 전담할 인적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2) 전북 진안 능길마을

(가) 특징

능길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된 후에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고 이벤트 기획 등을 통해 도농교류를 활성화할 인력이 필요하였다. 장기적으로는 농촌의 수익증대를 위한 농산물 생산·가공 및 유통을 마을 단위로 이끌 수 있는 교육과 인력이 필요하였다.

능길마을에서는 이러한 일에 전문가 그룹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마을컨설팅을 받은 업체의 직원을 인건비를 일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파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마을컨설팅 업체가 이를 받아들여 직원을 능길마을에 직원을 파견하여 각종 행정사무와 홈페이지 관리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하는 사무장 역할을 하고 있다.

(나) 시사점

컨설팅 업체에서 농촌관광마을로 인력을 파견하여 마을의 업무를 담당하고 농촌지역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는 사례이다.

(3) 경북 영천 정각리 아름마을가꾸기 계획

(가) 특징

행정자치부는 농촌의 지역진흥을 위해 하드웨어 중심의 정주환경 개선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농촌마을 개발사업을 “아름마을가꾸기”라는 이름으로 2002년부터 시작하였다. 기존의 지역진흥 사업과 달리, 마을의 테마를 중심으로 농촌관광을 포함하는 다양한 소득사업(소프트웨어)과 이를 뒷받침하는 공간계획, 시설계획(하드웨어)을 통해 마을의 장기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아름마을사업은 마을컨설팅, 기본계획, 실시설계, 공사의 과정을 거치는데 기본계획에 준하지 않고 주민들과 담당 공무원의 자의대로 실시설계, 공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마을 지도자

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영천 정각리의 경우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외부의 인력이 마을사업에 참여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마을사업에 노력하는 마을지도자를 보완 수 있도록 마을계획을 수립하였다. 마을 컨설팅 업체에 의해 사업비 중의 일부를 시설조성비가 아닌 사업운영비를 책정하고 담당 공무원과 마을주민들을 설득하여 확보하였다. 하지만 예산 확보 및 명문화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과 지자체에서 이러한 인력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시행되지 않았다.

(나) 시사점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젊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면 실제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4) 강원도 OO군 OO마을

(가) 특징

OO마을은 2002년 새농어촌건설운동 사업의 상사업비로 폐교를 체험학교로 만들면서 마을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아 사무장 제도를 만들어 예산을 확보하고 마을컨설팅 회사와 전국귀농운동본부를 통해 사무장을 고용하였다.

처음에 일하게 된 사무장은 영국 유학생 출신으로 유기농업에 관심이 있어 일하게 되었으나 사무장에 걸맞는 업무가 주어지지 않고 마을에서 쓸 데 없는 곳에 돈을 쓴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만두었고 두 번째 일하게 된 사무장은 중간에 그만두면 그동안 받은 인건비를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는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강요받았지만 농촌에 대한 애정으로 일하다가 지도자, 이장, 사무장, 마을주민간의 역할관계가 모호해져서 결국 그만두게 되었다.

(나) 시사점

젊은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고용된 인력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적절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사)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지역단위로 농촌관광사업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① 마을단위 농촌관광의 효과를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법

마을단위 농촌관광 사업의 효과가 마을에만 국한되는 문제를 극복하여 인근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② 농촌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농촌의 잠재력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적은 투자비용으로 소득을 올리고 농촌을 활성화

할 수 있다.

③ 농촌의 투자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한 사업을 농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소득 창출의 기회를 주고 투자하려는 사람에게 수익창출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지역단위로 농촌관광사업을 일찍 시작한 전북의 한 지자체의 사례와 마을을 중심으로 지역 단위 사업을 하고 있는 전북 진안군, 지자체에서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충남 논산시, 농민이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구례의 사례, 핵심시설을 조성하여 지역단위 농촌관광을 활성화 하고 있는 일본사례를 조사하였다.

(1) 전북 OO군의 그린투어리즘 사업

(가) 특징

OO군은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내의 자연환경·향토문화·먹거리 등의 자원을 활용한 그린투어리즘을 도입하였다. 기본방침으로는 다양한 이벤트 개발, 주민참여에 의한 적극적 실천체계 마련, 다시 찾고 싶은 녹색공간 조성 등을 마련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시범사업, 그린투어리즘 실천 농가 지원, 도농교류 여건 조성 및 이벤트 개발 등을 추진하였다.

군 전체의 지역차원에서, 군정의 핵심사업으로 활발하게 진행하였으나 지자체 장이 교체되면서 기획실에서 맡고 있던 농촌관광 사업은 농정과로 이관되었고 군정의 핵심사업으로서 농촌관광 사업은 축소되었다.

(나) 시사점

지역단위 프로그램이 지자체 장의 의지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지자체에만 기대할 수 없으며 많은 부분들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진안군 으뜸마을 사업

(가) 특징

진안군은 2001년부터 시행하던 읍면지역개발 사업을 2003년 1월 “으뜸마을가꾸기”로 명칭을 변경하고, 추진계획 수립, 사업홍보·군민교육·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여건을 조성하였다. 읍면별로 중점 개발 대상인 마을 1개소를 으뜸마을로 선정, 주민대표자 모임을 구성하고 으뜸마을 중심으로 읍면 지역이 자연스럽게 농촌활성화가 되도록 지원하였다.

2003년 7월에는 “진안군 으뜸마을가꾸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중장기 계획과 경관·소득·기반시설·주민교육·도농교류 등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행동지침을 만들어, 선거 등 주

변여건의 변화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하였다. 으뜸마을에 대해 진안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우선권이 부여되며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하여 2003년 10월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4년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나) 시사점

시군단위에서 마을가꾸기를 중심으로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과 연계하는 체계적인 사업을 지원하여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이다.

(3) 논산그린투어

(가) 특징

농촌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다양한 농특산물과 문화유산 등 관광자원을 결합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인 '논산그린투어'를 운영하여 도시관광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논산시청 농정과의 공성운 계장이 추진하기 시작한 '논산그린투어'는 주변의 여러 농가가 협력하여 논산 지역의 관광자원과 체험 프로그램을 묶어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시너지를 내고 있다. 공성운 계장은 이 사업을 계기로 2003년 12월 10일,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숨은 일꾼에 대해 시상하는 '아름다운 관광한국을 만드는 사람들'의 수상자가 되었다.

논산그린투어 운영성과를 보면 2003년 한 해 동안 1만3천명의 도시관광객 유치와 2억1천만원의 관광수입을 올려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국내 테마여행업계에 농촌체험 테마를 본격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체험 프로그램은 친환경품질인증 농가를 중심으로 한 농사짓기 체험, 곳감만들기, 전통된장·집장담그기 등의 전통식품가공체험, 농식·농박을 비롯하여 승마·국궁(전통활쏘기) 등의 레포츠 강습과 체험 등으로 구성하였다. 2004년부터는 매년 3만명 이상의 도시관광객을 유치하여 농촌관광을 통한 관광수입도 올리고 다양한 도농교류를 실현하여 지역개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 시사점

도농교류·농촌관광 사업에 큰 투자 없이 자원을 단순히 네트워크하더라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결국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를 뒷받침하는 사람과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4) 지리산 바이오랜드

(가) 특징

2001년 현 최근범 대표가 선진 영농지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프랑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의 선진영농을 눈으로 확인하면서부터 준비하였다. 구례군에 있는 17개 업체와 30여 개의 농가가 네트워크 되어 프로그램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을 해 나가고 있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농촌체험테마관광은 농촌의 어메니티를 살린 농업·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촌주민들에게는 농가민박·농산물 직판 등으로 농촌소득을 높여 주고, 도시민에게는 전통문화체험과 편안한 휴가장소 등을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림 4-3) 지리산 바이오랜드 홈페이지

농촌체험테마관광의 주 내용은 문화유적탐방·업체체험탐방·주말농장·레저스포츠 등으로 주변의 자원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볼거리·할거리·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구례군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농·특산품 등을 생산하는 농장이나 업체를 시기별로 선정, 생산과정이나 영농체험 등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직접 만들어 보는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된장만들기, 천연염색수제비누 만들기, 천연염색체험, 도자기체험 등.) 또한 구례의 특산물인 오이를 비롯, 된장이나 우리밀, 감, 밤, 산수유 등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직거래하는 농산물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다.

(나) 시사점

지역단위 도농교류·농촌관광 프로그램이 지역 비즈니스 영역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5) 일본의 우끼하 미찌노에끼(길에 설 수 있는 역을 만드는 사업)

(가) 특징

우끼하는 1만7천 명 정도가 거주하는 작은 중산간 마을로, 1995년 농림수산성에서 '그린투어리즘 육성모델지구'로 선정되어 지역활성화 사업을 시작하였다. 5년 뒤에 우끼하를 방문한 관광객은 55만명을 넘어서고 관광소비액은 110억원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2000년, 건설성과 우끼하정이 공동으로 70억원을 투자하여 우끼하 미찌노에끼(道の驛)를 건설하였다. 미찌노에끼는 국도상에 일정 수준 이상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지역의 도농교류 정보를 도시인에게 제공하며 지역특산물도 판매하는 복합기능을 가진 지역거점을 의미한다.

우끼하 미찌노에끼는 행정기관·농협·삼립조합·상공회·관광협회가 5억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우끼하노사토 주식회사'가 운영한다. 2000년 4월 개관 이후, 연말까지 방문객이 37만명에 이르고, 우끼하 브랜드 확립, 교류인구 증대, 부가가치 상승, 농촌활성화, 후계자 육성, 여성노동력 활용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나) 시사점

거점시설의 설치가 지역의 자원을 네트워킹하여 시너지를 내고 농촌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여 준다.

아) 개인단위 농촌관광사업

개인농장단위 사업주체를 만들어내고 사업을 활성화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① 마을중심의 농촌관광 경영의 어려움에 대한 방법

마을중심의 농촌관광 사업이 경영의 어려움으로 추진이 쉽지 않으므로 개인농장 단위로 농촌관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② 마을사업의 효과를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

개인농장 단위의 농촌관광 사업이 지역적으로 묶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생산물을 가지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③ 소득배분을 통해 소득창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마을단위 농촌관광 사업 테두리에서도 개인이 참여하여 마을의 공동사업과 개인사업을 조화시킬 수 있다.

다양한 형태로 개인농장 차원에서 농촌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였다.

(1) 인천 무의도 실미원농장

(가) 특징

1988년 농민 후계자로 선발된 농장주가 친환경농법을 도입하여 무공해 쌀과 수경재배한 무공해 청정포도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 포도밭에서 직접 포도를 따먹거나 메주를 이용한 장담그기, 포도즙 가공, 포도주담기, 해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전통식품 만들기 등 계절별·시기별 체험 여행을 준비해 놓고 있다. 2002년에는 제2건국위원회선정 의식생활개혁운동의 선도자로 활동한 28명의 신지식인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나) 시사점

개인농장이라도 농민의 의지에 따라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다양한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 준다.

(2) 전북 정읍 백학관광농원

(가) 특징

30여 년 동안 유기농법에 의한 벼농사를 해오던 농촌 지도자가 세운 민박전문 농원으로, 환경농업·역사·문화체험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 교육을 위한 학교를 통해 우리의 바른 역사와 문화를 연중 4회(여름·겨울방학, 휴가철)에 걸쳐 개최하여 개인 및 단체 구성원의 정신·문화 체험교육장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청소년들 대상으로는 창조적 문화생활을 해나가도록 방학을 이용해 문화교실(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년 2회 개최하고 있다. 이 교육과정에 연간 4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 수료생들이 학교와 농원의 후원자가 되어주고 있다. 농원의 위치가 주변 입암산 등산로에 인접해 있어 등반객들에게 산행 전후 민박지 역할도 하고 있어 주말이면 50-60여명이 방문하고 있다.

(나) 시사점

개인농장의 경우 테마, 즉 프로그램이 하드웨어와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다른 관광농원이 비슷비슷한 시설과 유명무실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경영했던 것과 대비할 수 있다.

(3) 제주 서귀포 굴림성관광농원

(가) 특징

1997년 10월에 농장주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림부 지정 관광농원으로 '서귀포 굴림성'을 개원하여 농작물 판매장, 콘도형 펜션하우스, 아열대 식물원을 건설하였다. 콘도나 호텔 못지않게 숙박시설을 고급화하고, 굴 농장에서 직접 굴따먹기 체험·야외식사·석부작 테마공원 관람·전통 초가집 구경 등 농장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혼부부를 비롯하여 연간 5,000명 이상의 숙박객과 4만명의 당일 관광객

이 방문하고 있으며 3개월 이상 예약이 밀려 있는 상태이다.

(나) 시사점

개인 농장의 경우, 소박한 농심을 보여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급화하여 전략을 차별화해야 함을 보여 준다. 기존의 관광농원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시설과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4) 전남 보성 우리원농장

- 보성 벌교의 정농회 회원인 농장주가 자신의 농장을 중심으로 휴양이 가능한 농장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이다. 이 농장은 유기농업을 중심으로 농사 체험이 가능하고 농장주가 건강에 대한 조예가 깊기 때문에 주변의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휴식을 하면서 음식으로 질병을 치유하거나 몸의 건강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농장 단위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농민들은 다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시사점 : 소규모 농장이 도농교류·도시자본 유치의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자원을 개발할 의지를 농민들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자) 농업·농촌에 대한 홍보

수요자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① 어메니티 보전에 대한 방법

농촌 어메니티의 중요성과 경제적인 가치에 대해 교육, 홍보함으로써 어메니티 보전에 대해 도시인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② 소득창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농촌관광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이를 농산물과 연계된 방법으로 농민들의 소득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이다.

③ 도농교류와 자본 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

도시인에게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시키고 농촌 관광, 도시자본 투자의 수요를 확대할 수 있다.

농업·농촌을 홍보하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는 공익광고와 농촌관광에 대해 홍보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홈페이지에 대해 조사하였고 도심에서 농업과 농촌을 느낄 수 있는 도시농업의 외국 사례를 조사하였다.

(1) 공익광고

(가) 특징

우리나라의 공익광고는 1981년 설립된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1987년 설립된 “공익광고협의회”의 계획에 따라 제작, 방영하고 있다. “공익광고협의회”는 공익광고 캠페인의 주제와 기본 방침을 정하고 제작 후 평가한다. “공익광고협의회”는 학계·광고계·방송계·시민단체의 저명한 인사 15명을 위촉하여, 월 1회 본회의와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사안을 결정한다.

공익방송광고의 경우, 경제살리기·노사문제·환경문제 등 공익적 내용을 담고 있고 광고로서의 완성도도 높아, 매년 각종 광고대상에서 많은 상을 받고 있으며 시청자·청취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가까운 예로, 넉넉치 않아 보이는 중년의 우유배달 아줌마가 손자를 키우고 있는 어려운 할머니 집에 공짜로 우유를 놓고 가는 모습을 담은 “나눔의 문화”는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있으며 광고포털방송이 조사한 우수광고 1위를 차지하였다.

1991년부터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제작한 인쇄물 및 방송물 공익광고 가운데 농업과 농촌을 다룬 것은 1994년에 농촌사랑을 주제로 단 1편 방영되었다. 농림부는 러브미와 우리농 캠페인을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공익광고와 별도로 제작하여 방영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나) 시사점

공익광고로서 공익성이 있는 콘텐츠의 경우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농업과 농촌에 관한 공익광고 제작을 통해 대국민 홍보 사업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2) 농촌관광 관련 포털 사이트

(가) 특징

① 농촌관광포털사이트 (www.greentour.or.kr)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을 비롯한 농촌관광마을과 관광농원, 자연휴양림을 소개하고 특산물 장터도 운영하며 농촌관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초기에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 농협의 농협교류센터에서 운영하다가 2004년 6월부터는 도농교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농촌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촌관광마을, 관광농원, 자연휴양림, 특산물 장터 등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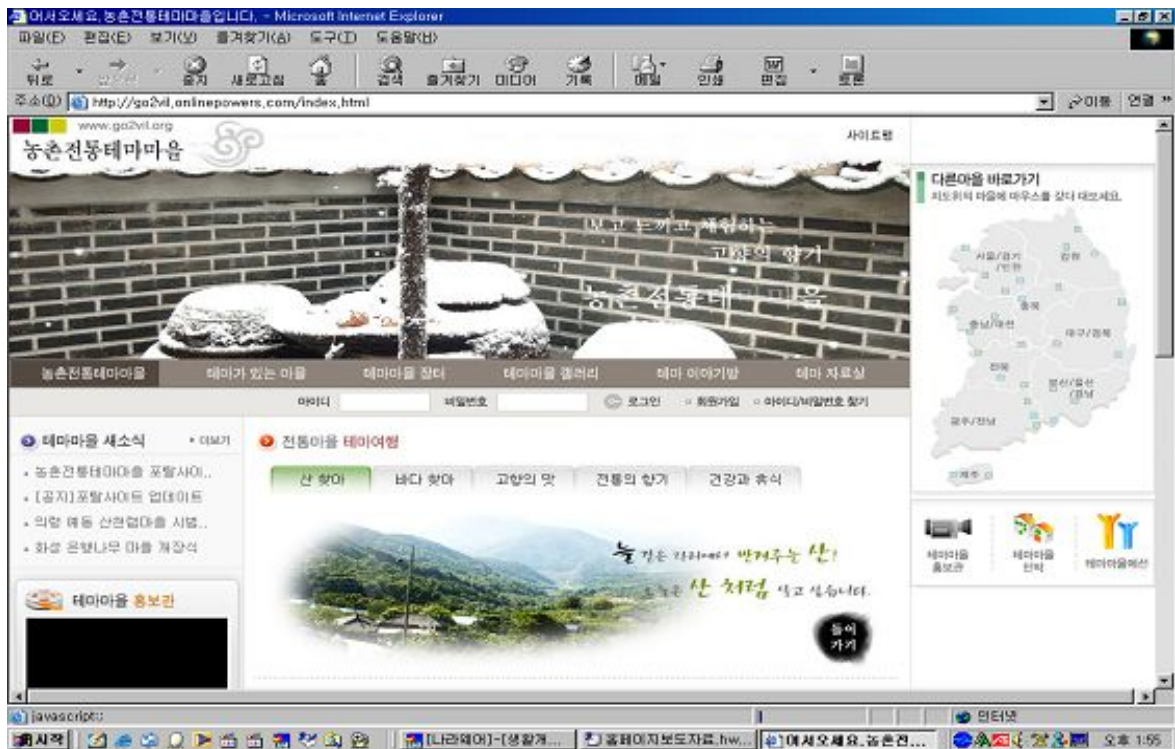
② 인빌 (www.invil.org)

행자부의 정보화시범마을 사업으로, 농촌마을 단위로 구축된 마을홈페이지를 묶어서 마을을 소개하고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홈페이지이다. 삼성 SDS가 주관하여 구축하였으나

오프라인상의 운영주체가 없어 실제로 마을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나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아릅마을 등에 선정되어 소기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마을은 구축된 홈페이지를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오프라인상의 운영을 위해 행자부는 2003년 농림수산정보센터 아피스에 운영관리를 위탁 계약하였다.

③ 농촌전통테마마을 포탈 홈페이지 (www.go2vil.org)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로, 농촌전통테마마을 28개 마을을 소개하고 장터·갤러리 등을 운영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지만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제작·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전통테마마을을 중심으로 농촌마을을 홍보하고 있다.



(그림 4-4) 농촌전통테마마을(www.go2vil.org)의 메인 페이지

(나) 시사점

홈페이지가 도시인에게 농촌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는 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최신의 것으로 신속하게 업데이트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농민들의 정보화 능력이 향상되어 개별 주체가 좋은 정보를 생산해 주어야 하며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의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3) 도시농업

(가) 특징

여러 나라에서 도시농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의 산호세, 태국의 방콕, 스페인의 마드리드는 대도시 지역의 토지의 30%가 농업에 쓰여지고 있으며 모스크바는 도시인의 65%가 도시농업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쿠바는 정부 토지의 26,600개의 필지가 도시농업에 활용된다. 중국의 경우 큰 도시에서 소비하고 있는 채소류의 85%이상이 도시농업으로 충족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의 민간단체인 Educational Concern for Hunger Organization은 얇은 나무 상자, 가마니와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도시내 건물의 지붕과 옥상에서 도시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²⁰⁾

도심에서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여 도시인(특히 저소득층)들이 함께 농사를 짓는 도시공동체 텃밭(Community Garden)사업을 추진하고 미국의 The America Community Gardening Association은 전국적인 지부를 네트워킹 하여 도시농업, 공동체 텃밭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지도, 교육 등을 하고 있다. 도시농업은 도시인들에게 농업과 농촌을 가깝게 느낄 수 있게 하기도 하지만 도심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폐기물을 순환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며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주고 안전한 농산물을 신선하게 도심에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을 한다.²¹⁾

(나) 시사점

단순한 홍보에서 벗어나 도시 환경 내에서 농업을 가깝게 접근하게 하여 지속적이고 경험적으로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사례이다.



교육기관에서 공동체 텃밭을 만드는 교육을 받는 모습



경작이 가능한 곳에는 어디나 도시농업이 가능하다.

차) 자매결연

농촌과 도시소비자와의 자매결연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0) Scott G. Chaplowe, 1997, "Sustainable Prospects in Urban Agriculture", 『For All Generations ; Making World agriculture More Sustainable』

21) www.communitygarden.com 참조

① 소득창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농촌관광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이를 농산물과 연계된 방법으로 농민들의 소득화 할 수 있는 방안이다.

②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

의식있는 소비자, 단체로 움직일 수 있는 소비자와 자매결연을 할 경우 지속적인 농촌 관광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매결연 관계는 단순한 관광으로 그치지 않고 건전한 도시자본의 농촌유입 통로로 발전할 수 있다.

자매결연 사업의 사례로 농촌과 도시마을과의 자매결연, 농촌과 기업과의 자매결연을 조사하였으며 외국사례로 산림을 활용한 일본의 분수욕림 제도를 조사하였다.

(1) 도시와 농촌 마을간 자매결연

(가) 특징

① 전북 임실 금성리

2002년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선정된 마을로, 오래 전부터 임실중앙교회 심상봉 목사에 의해 농촌계몽운동이 펼쳐졌으며, 70년대부터 유기농업을 시작하여 유기질 비료 생산 공장·숯골 요구르트 공장 등으로 다양한 농촌개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시 서초구의 한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다양한 체험활동과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② 경기 용인 학일리

2002년 원삼농협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행자부의 아름마을사업에 선정되었다. 오리농업 유기농쌀을 중심으로 마을의 사찰, 호수 등의 자연환경과 사진작가 등의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촌관광 사업을 시작하였다. 도시화가 진행된 용인시라는 점을 활용하여 학일리 부녀회와 용인시 내의 LG 아파트 단지의 부녀회가 자매결연을 맺어 다양한 도농교류, 농촌체험 행사를 하면서 직거래를 시작하였다.

③ 경남 함양군

함양군은 군차원에서 관내 마을과 도시마을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지속적인 도농교류를 활성화해야겠다고 판단하여 2003년에 마을단위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였다. 시군·향우회·출향인사·관련 인맥을 동원하여 함양관내 11개 읍면 200여개 마을과 도시의 마을·아파트 단지가 자매결연을 맺었고, 다양한 도농교류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이다.

(나) 시사점

마을단위, 시군 단위에서 다양하게 도시의 마을 간 자매결연을 시도하고 있는 사례이지만 아직 다양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2) 기업과 농촌마을간 자매결연

(가) 특징

① 강원도 화천군 신대리

강원도 화천군 신대리는 2002년 10월 삼성전기 직원들의 방문을 계기로 자매결연을 맺었다. 그리하여 삼성전기의 부서 워크샵을 마을로 유치하거나 마을에서 회사를 방문하여 농촌체험행사를 하면서 직거래 장터를 열고 공동헌혈캠페인, 생명사랑운동 등을 펼쳐 왔다.

② 충남 서천군 합전마을

충남 서천군 합전마을은 LG정유와 제휴를 맺고 LG정유의 고객사은 상품권으로 합전마을 체험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03년 300여명이 합전마을을 방문하였다.

(나) 시사점

농촌관광의 수요자이면서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기업과의 적극적인 자매결연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투자유치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3) 일본의 효고현의 분수육림(Green Owner) 제도

(가) 특징

분수육림제도는 벌채하기 전의 중간영급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대상자와 일반시민과의 계약을 통해 산림투자비용의 일정부분을 일반시민이 투자하여 성림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수확단계의 분수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일본은 1984년 공유림으로 분수육림제도를 확대하여 계약시 입목 평가액, 계약 후의 보육, 관리비의 50%를 내고 수확 후 입목 판매대금의 50%를 나누어 배분하는 형태로 계약 기간은 20~30년이고 1구좌에 50만엔 정도이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분수육림제도에 참가한 이유가 수익정보다는 산림의 중요성이나 산촌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효고현 하가읍은 소유하고 있는 삼나무, 편백림 10ha를 자매교류도시인 다카사고시의 일반시민과 68구좌 2,040만엔에 계약, 이후 하가읍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다카사고시 육상경기장 앞에 하가숲을 조성하고, 다카사고시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하가읍에 자매결연 도농교류를 위한 숙박시설을 기증하였다. 이후 하가읍은 다카사고시는 다양한 도농교류사업을 시작하여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 주말학교 운영,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다카사고시 시민들에 대한 하가읍 시설 이용료 할인, 초등학생이 서로 교환하여 학교를 다니는 산촌유학제도 등을 시행하였다.

(나) 시사점

건전한 도시자본의 유치 사업이 지속적인 도농교류 사업을 이끌어내어 농촌활성화에 기여한 사례이다.

카) 환경농업단체의 도농교류

환경농업단체는 이미 친환경농업을 생산하고 있고 소비자와 연대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관광·농촌개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① 농촌 어메니티 보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환경농업단체의 생산자와 소비자는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고 어메니티 보전에 대해 공감대를 이미 형성하였다.

② 농촌관광으로 다양한 농민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안

환경농업단체의 경우, 환경농산물을 기반으로 도농교류·농촌관광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③ 농촌관광·농촌개발에 안정적인 수요창출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미 의식 있는 소비자와 연대하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농촌관광사업을 할 수 있으면 건전한 도시자본 형성도 가능하다.

환경농업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뿐만 아니라 농촌관광, 농촌휴양사업을 시도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였다.

(1) 전남 장성군 학사농장

(가) 특징

1992년 전남대 농대 출신이 시작한 농장에 95년 같은 대학 선후배가 참여하면서 협업농장으로 시작한 것이 OO농장이다. 전 작물을 독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재배하여, 생산물은 지정매장을 통해 직접 소비자에게 유통시키고, 전남대·서남대 등 대학 연구기관과 연계한 첨단영농기술도 실현하고 있다.

현재 2,30대 젊은 농부 10명이 전남 장성군에 농장을 운영하면서 전국 10여 개 유기농업작목반 1만여 명을 회원으로 구성하고 있고, 모든 농산물을 농약과 화학비료 없이 생산·공급하고 있다. 또한 모든 농장은 청소년 체험시설·농촌체험활동 공간으로 연중 개방하여 소비자들에게 환경농업에 대해 교육하고,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있으며, 환경농업에 기반을 둔 레저농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농장의 목표이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매년 6월 2일 62day(유기농의 날)를 선정하여 농장에서 축제를 하고 있고, 김장축제를 비롯하여 지속적인 도농교류·농촌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 시사점

환경농산물을 매개로 의식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 도농교류를 통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자본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 서울시 새농유통

(가) 특징

OO 유통은 지난 95년, 서울시의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 유기농업 육성 지원 등으로 팔당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팔당상수원유기농업운동본부 80여 농가와 정농회 20여 농가, 기타 전국의 50여 유기농 농가로부터 계약재배로 공급 받은 물품을 가락동 소재 물류센터를 통해 농협 하나로클럽·백화점·새농마트에 공급하고, 자회사인 인터넷 쇼핑몰에도 공급하고 있다.

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는 소비자와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2001년부터 팜투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소비자들을 유기농업 농장에 초청하는 행사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최근 팔당으로부터 안정적인 환경농산물 공급이 어려워지고 생산품목간의 공급량과 질이 고르지 못해 자체 생산기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 생산기지가 단순히 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체험하고 휴양할 수 있는 환경농업휴양단지로 조성할 계획을 수립 중이다.

(나) 시사점

소비자와의 연대가 강한 환경농업단체를 통해 농촌관광·도시자본 투자를 유도하게 되면 안정적인 수요를 만들고 건전한 농촌개발이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타) 농산물 가공사업

농업과 관련된 지역 비즈니스는 다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① 마을중심 농촌관광의 사업의 효과를 확대하는 방법

다양한 농촌지역의 비즈니스를 활성화하여 농산물 생산, 2차 가공, 농촌관광이 어우러지도록 할 수 있다.

② 농촌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법

다양한 사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이러한 사업을 기반으로 농촌에 인구가 유입되어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다.

단순히 농산물 가공사업에서 벗어나 지역특색을 가진 농산물의 부가가치와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였다.

(1) 전북 임실군 OO가공공장

(가) 특징

순천대학교 농대를 출신 농민이 유기농 수도작을 하다가 한국의 토종 치즈인 임실 치즈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낙농업을 하기로 결심하고, 지역교회의 후원으로 1994년 스위스에 가서 유가공 및 낙농연수를 받고 돌아와 낙농을 하면서 원유를 가공업체에 납품하였다. 그러나 가공업체 납품방식에서 벗어나 마을규모의 소규모 가공공장이 농민이 스스로 운영하여야 낙농가 스스로 품질을 관리할 수 있고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며 농민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96년 재차 스위스에 가서 소규모 유가공 공장에서 3개월간 연수를 받고 돌아와 가공공장을 설립하였다.

1998년 유가공 요구르트와 치즈 시제품을 생산하고 스스로 공장을 설계하고 만들어 2002년 2월 가공허가를 내고 인근 농가와 협업 형태로 유기축산을 전제로 농가형 유가공 공장을 설립하였다. 현재 하루 1.3톤의 원유를 공급받아 발효유(요구르트)와 치즈를 생산하여 환경농업단체, 환경농업 쇼핑몰, 생협 등에 공급하고 있다.

(나) 시사점

농민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나서야 가공산업도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소규모 형태의 가공산업이 농민들에게 적합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강원 고성 OO영농조합법인

(가) 특징

고성군에서 1차 농업 생산물을 가공·상품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그 대상품목이 고성군 일반농가의 농업생산물이 아니므로 농업경제에 긍정적 영향은 적었다. 고성군의 OO농장은 고성출신 5인이 설립한 중소창업 기업으로 고성군 토성면에 식품공장을 신축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해조류를 활용하여 다시마엑기스, 농축다시마과립, 다시마환 등의 건강보조식품을 동결건조방식으로 제조하고 상품화할 계획이다. 해오름 농장의 역할은 고성군 청정 농산물의 유통·가공·상품화의 기능을 담당하고 농촌관광의 허브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을 교육·연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가공 농산물을 생산하는 마을과 긴밀히 연계한 투자 및 기술지원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가공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촌마을과 도시마을의 교류를 지원하여 도시 방문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마을과 연계한 이벤트 개최나 2차 방문에 필요한 황토방 조성, 상품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나) 시사점

지역에서 산출하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상품을 만들어 농업과 연관관계를 가지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사례이다. 지역에서 이러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사업주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다.

(3) 충남 청양 OO랜드

(가) 특징

청양군은 청양을 대표하는 고추장 마을을 조성하고 재래식 고추장을 생산, 판매하며 도시민에게 휴양지 같은 공간을 조성하고자 법인 초기 자본금은 12억원(국비 5억원, 군비2억원, 출자금 5억원)으로 하는 1만여 평 규모의 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하였다.

군내 고추 계약재배 및 우수 고추 전량수매, 찹쌀·콩 등 농산물 무농약 계약재배 및 수매를 계획하고 있으며 매년 가을과 봄에 도시민 고추장담그기 체험행사 개최, 자매결연지·방문자에 대한 판매, 식품업체, 인터넷 판매, 고추축제 개최 등 다양한 판매 방식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군내 농민들이 컨소시엄으로 7개 조합이 참여하여 경합을 벌였고 사업자가 선정되어 'OO랜드' 사업명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 시사점

향토적 지역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책정하였고 관 주도 가 아닌 민간주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파) 인구유입, 인적자원의 유치

농촌에 다양한 인적자원을 유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① 농촌의 잠재력을 함양하는 방법

농촌에서 거주하거나 농촌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유입하여 다양한 농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농촌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

인구를 늘려 내수기반을 확대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③ 농촌의 투자 및 정주 환경을 보완하는 방법

문화가 다른 농민과 도시인을 직접 개별로 대면시키기보다 단체로 유입하여 적절한 투자를 유도하거나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지자체에서 농업자원을 지역개발과 연관시키면서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장수군과 상주시의 사례와 마을단위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1) 장수군 '지역순환농업 시범사업'

(가) 특징

장수군 지역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려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순환농업 시범단지'를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단지 내에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뿐 아니라 귀농인력을

유치하고 순환농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택지는 개인이 매입하여 주택을 짓고 농지는 군에서 임대 형식으로 빌려주고 있다. 농업관련시설이나 기반시설은 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15가구 내외로 시범단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는 9가구가 입주를 신청했으며, 농사뿐 아니라 문화·교육 부분을 포함하는 생태마을 조성까지 고려하고 있다.

(나) 시사점

인구증가, 친환경농업 육성, 도시자본 유치,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복합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농촌 활성화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2) 상주시 '한방자원 산업화 단지'

(가) 특징

약초 산지 등 풍부한 한방자원을 가진 상주시의 강점을 살려 종합 한방자원산업화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 중이다. 초기 사업으로 한방 자원센터 건립 및 시범재배마을 조성할 예정이다. 마을 조성시 지역주민과 귀농인 등 외부 인력을 같이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한 선발기준은 없으나 유기농 경험이 있거나 가족 전체가 이주할 의향이 있는 사람, 되도록이면 젊은 인력들을 유치할 계획이다.

(나) 시사점

농산물·가공·휴양이 클러스터로 만들어지는 단지 내에 인구를 유입하고 도시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사례이다.

(3) 강원도 홍천군 서면 두미리

(가) 특징

면소재지 인근의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한살림 소속의 유기농 생산자를 중심으로 오리농업·땅콩·저농약 과일 등의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마을이다. 환경농업지구 사업이 추진되어 농기계 창고·농산물 창고·정미시설·퇴비화 시설이 설치되었으나, 이농과 고령화로 마을 내부에 경작하지 않는 논밭이 많아지면서 이들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하였다.

마을 지도자는 귀농할 수 있는 사람의 이주를 유도하여 마을의 경작지와 환경농업관련 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두미리 생태마을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추진할 계획인데 이 계획에 의하면 마을지도자의 땅 4천 평을 주거단지 조성용으로 제공하고 귀농가구 4~5가구, 예술가 등의 전문인 4~5가구, 퇴직 후 전원생활자 4~5가구, 별장용 4~5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단지를 만들 예정이다. 단순히 토지를 분할하고 토목공사를 통해 택지를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들이 주택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들의 토론과 합의를 거쳐 입주

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주거단지 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마을의 경관계획을 통해 어메니티를 보전하고 귀농인을 포함하는 입주자가 경제적인 수익을 얻고 더불어 두미리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 시사점

도시인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을 통해 젊은 인력의 유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농민들이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주도가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추진도 가능하고 농촌마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는 사례이다.

하) 친환경적 주거단지 조성

친환경적 주거단지 조성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① 인적자원 유치의 한 방법

거주환경을 정비함으로써 도시인들이 입주하고 입주자들이 농촌개발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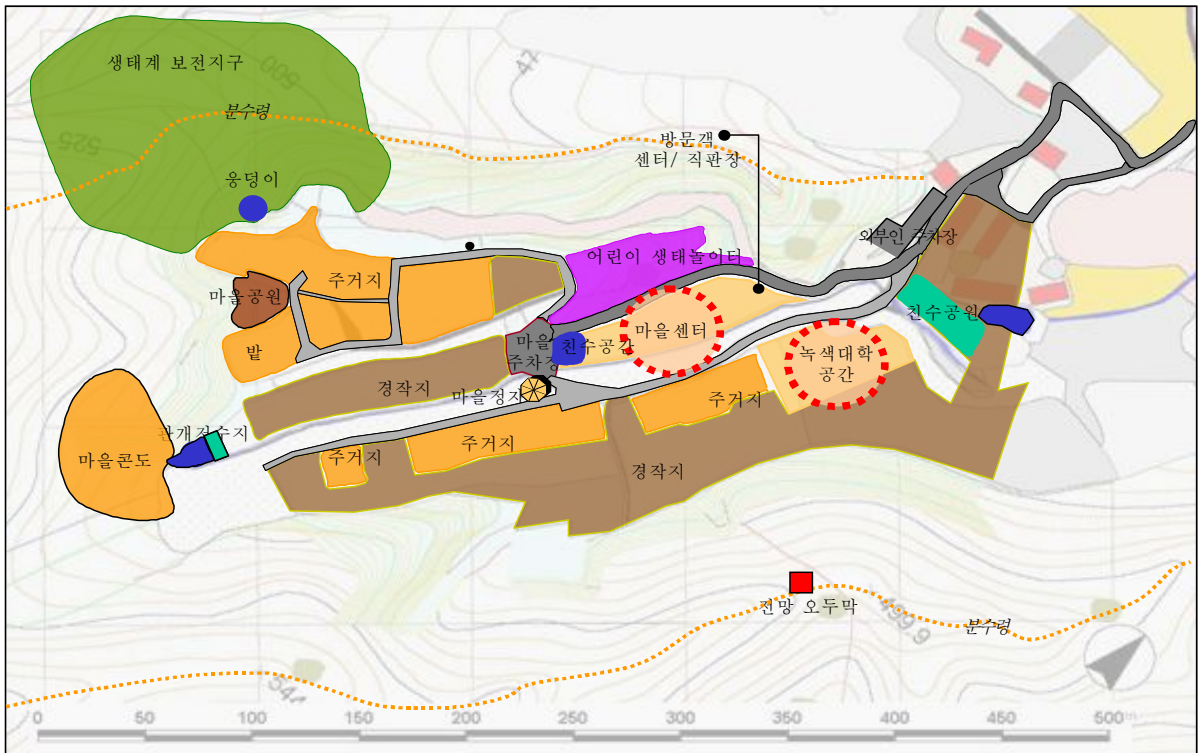
② 농촌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

인구유입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대하고 이주한 도시인이 다양한 농촌관련 사업을 통해 농촌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③ 농촌의 투자 및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

도시인이 이주하기에 불편한 농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도시인의 거주를 유도함으로써 도시인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민간주도로 친환경적 주거단지를 만든 함양군 청미래 마을과 산청군 안솔기 마을을 조사하였다.



(그림 4-5) 청미래마을 토지이용계획도

※ 입주자의 요구에 맞추어 독립필지, 집촌형 필지가 구분되어 계획되어 있음

(1) 경남 함양군 백전면 청미래마을

(가) 특징

그린네트워크는 생태적인 삶을 지향하는 활동가,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 경남 함양 백전면의 폐교된 백전중학교 교사를 빌려 녹색대학이라는 대안대학을 2003년 3월에 개교하였다. 녹색대학의 교직원과 생태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생태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백전중학교 인근의 오매실 관광농원 부지를 활용하여 청미래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청미래 마을의 종합계획 수립은 계획가가 입주자들과 함께 계획하고 설계하는 Community Based Design 방법을 사용하였다. 기존의 지형을 변화시키지 않고 입주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전제 대지를 독립가옥형, 집촌형으로 분할하여 계획하였다. 현재 입주자들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집을 설계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일부 입주자는 입주한 상태이다.

(나) 시사점

생태적인 주거단지에 대한 도시인들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마을이 농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 경남 산청 신안면 안솔기마을

(가) 특징

간디학교 배후마을로, 교사·학부모들을 위한 정착촌으로 구성되었다. 총 가구수는 18가구이며 세대주는 주로 40대 전후반의 전문직(한의사, 건축가, 약사, 교사 등) 종사자들이다. 자연과 조화된 삶의 양식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모형을 창조하고 생태적인 삶을 통해 좋은 사회를 이루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계획단계부터 ‘친환경적 주거양식’에 중점을 두고 마을조성 전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였다.

(나) 시사점

도시인들이 농촌생활에서 원하는 농촌 어메니티가 살아있는 주거단지 계획을 통해 도시자본과 도시인을 유치하고 농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거) 주민참여형 복지사업

주민참여형 복지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

① 농촌 경제 활성화의 방법

농촌에서 가능한 다양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복지와 관련한 인프라를 제공하여 인구를 유입할 수 있다.

② 농촌의 투자 및 정주 환경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도시인이 농촌에 거주하거나 투자하기 위한 기초적인 편의나 복지 혜택을 농촌에 갖추어 놓을 수 있다.

농촌의 의료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안성의료생협,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마리교육생협에 대해 조사하였다.

(1) 안성의료생협

(가) 특징

연대 의대생들의 농촌지역 의료봉사 활동이 계기가 되어 오랜 준비 끝에 1994년 4월 창립되었으며 현재 7개 의료생협 중 가장 규모가 큰 조합이 되었다. 의료생협의 목적은 조합원들의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한 활동들 즉, 예방교육이나 소모임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생활습관과 건강문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현재 1700세대의 조합원이 있으며 출자금도 3억원 이상 모았다.

인력은 양방전문의 2명, 한의사 2명, 치과의사 1명, 당직의사 1명,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진을 포함하여 26명 정도이다. 주요 사업으로 양한방 치과 진료, 조합원 건강검진, 방문진료, 만성 질환자 관리, 건강마을 만들기, 조합원 교육, 소식지 발간, 소모임 활동, 지역단체와 연대

활동 등을 하고 있다.

(나) 시사점

농촌지역에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농민 스스로 조합 형태의 병원을 만들고 농민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창출하게 한 주민주도형 복지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2) 강화 마리교육생협

(가) 특징

1999년 강화도 마리서당으로부터 시작한 마리교육생협은 2001년 2월부터 본격적인 생협 설립 추진작업에 착수하여 2001년 11월 3일에 창립되었고 근시일 내에 생협법인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교육생협은 생명사상을 교육분야에서 실천하려는 '교육공동체'로서 지식중심의 제도권 교육을 넘어서는 대안교육을 실시하려고 한다. 현재 서당(주말학교), 공부방(방과 후 학교), 계절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중학교 과정의 대안학교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서당, 공부방, 농사학교, 역사학교, 계절학교, 몸·마음 공부, 교육사랑방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대사업으로 생명축제, 매향제 등의 공동체문화 살리기, 유기농산물 보급, 차 보급, 강화도 체험 학습가이드, 포럼개최 등이 있다. 이러한 마리교육생협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도시에서 자녀를 이 학교에 보내거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강화로 이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나) 시사점

농민 스스로 조합 형태로 학교를 만들어 농촌지역에 부족한 교육 서비스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례로, 이러한 인프라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 인구유입, 도시자본 투자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4.3 수요-공급 현황조사결과의 종합고찰

1) 어메니티 보전을 기본으로 한 추진이어야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도시민이 농촌 방문시에 가장 좋았던 점에 대해 ‘농촌의 쾌적한 자연환경’(45%, 표 4-13 참조)을 들고 있고, 농촌의 실제 사례(강원도 주포리, 제주도 녹차박물관)에서도 단기적인 관광수익에 목표를 두고 음식판매나 숙박시설 위주의 관광지 형태로 인해 오히려 수려한 계곡이나 경관자원을 훼손한 경우 오히려 수요자의 재방문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자연환경, 농촌 경관, 농촌다움 보전을 토대로 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펜션이나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등 소규모 투자유치의 자본 영세성, 이익추구 지향 등으로 농촌 어메니티를 훼손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으나, 농민 또는 투자자들이 농촌 어메니티 보전의 구체적 방법이나 기술에 대한 접근을 어려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2) 도농교류 또는 농촌관광이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농교류사업을 친환경농업 확대, 유기농산물 판매 등과 연계시켜 도농교류의 활성화가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도시민 수요자가 향후 원하는 도농교류 내용 중 ‘산지직거래’ 또는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 구매’ 의사가 45% 이상이고, 현 시점에서 필요한 농촌과의 교류방식으로서 ‘농업·농촌체험, 농산물 구입, 안전한 먹거리 제공’(54%)을 들고 있다. 농촌의 도농교류 참여 현황 설문조사에서도 직거래, 인터넷 판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도농교류의 시작동기가 농산물 판로 확보나 농외소득 창출 등 소득증대에 있었다는 점에서, 도농교류에 농산물이 중요한 매개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사업의 확대가 친환경농업의 확산 등과 연계되도록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도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 교류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도농교류 추진 과정에서 농촌 주민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서 시설부족을 지적하고 있어 도농교류를 수용하기 위한 농촌공간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도시민이 농촌방문시 불편 사항에 대해 길 찾기와 도로사정, 교통수단 등의 접근성과 주차장·화장실·숙박시설·휴식시설 등의 편의시설이라고 한 반면, 농촌주민이 생각하는 도시민의 불편사항은 하드웨어적인 편의시설을 주로 언급하고 있어 공급자의 입장에서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농교류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급자로서의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농촌내의 시설 정비뿐 아니라 접근성, 프로그램 마련 등의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도농교류 사업간 추진체계 협력 및 조율이 필요하다

현재 마을단위로 추진되는 농촌관광 개발사업은 시설 활용 공간과 범위가 마을로 한정되어 효율적 사용에 문제가 있다. 또한 여러 부처에서 도농교류 또는 농촌관광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지자체내에서도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다. 이로 인해 인근 마을의 추진내용을 알지 못한 채 유사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고, 인근 지역과의 공간적 안배가 고려되지 않아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예산의 효율성이나 마을 상호간 경쟁력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마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시군 지역단위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도시민의 농촌관광 수요(농림부, 2003)에서도 마을단위의 범위보다는 2-3개 시군을 1회 농촌관광시의 지역범위라는 의견이 절반이상인 점을 비추어 볼 때 최소한 시군 단위의 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업간 추진체계의 검토 및 협력을 위해 도농교류센터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인다.

5) 마을지도자 및 도농교류 인력의 육성이 필요하다

도농교류 사업이나 농촌관광 사업 정보에 대해 마을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얻거나 권유받는 반면, 개인 농가나 농원은 교육을 통해 얻거나 자발적으로 실행한 경우가 많아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노령화되고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어 있는 마을의 경우 사업을 아예 포기하거나, 공동사업일 경우 의견수렴 또는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표출되기도 하고 사업비의 운용·이익 배분 과정에서 마을 내부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농촌의 문제들은 특히 마을지도자의 리더십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도자 및 인력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도시·농촌 주민 모두 도농교류 추진에서 농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인력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6) 도농교류의 품질 및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도시와 농촌 주민 모두 도농교류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도농교류 수요자로서 도시민이 지속적 농산물 구매자, 농촌관광 수요자, 잠재적 농촌 투자자로서 관리되어야 한다. 도농교류센터, 농촌 공급주체, 도시 수요단체 등의 네트워크화 및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농촌관광 및 농산물 구입시 만족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도농교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7) 어린이와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의 제도화 추진이 필요하다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행태의 변화와 함께, 현 교육제도인 7차 교육과정에서 현장학습을 중시하고 학교구성원(학교, 학부모, 학생)들의 체험학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황이므로 농촌 체험을 제도화 할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도시민의 수요 내용에서 농업·농촌 체험을 중요한 교류방식으로 인식하고 있고, 농촌주민의 도농교류에 대한 인식에서도 체험을 통한 농촌의 공익적이고 교육적 가치 알리기를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체험을 교육제도화하고, 농촌의 부존자원 및 환경 특성별 농촌체험 시설을 정비하여 이를 프로그램화할 필요성이 시급하다.

4.4 도농교류 관련 DB의 구축방안

4.4.1 도농교류 유형별 DB의 구축

도농교류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축적, 관리하며, 소비자의 선택을 도울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DB 구축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도농교류 관련 DB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DB를 누가 구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도농교류에 관한 정보를 수집·입력·관리하며, 정보를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주체를 정하는 문제이다. 지역의 정보를 잘 아는 지자체나 지역에 소속된 단체에서 담당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전국 단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해서는 중앙 단위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도농교류센터가 설립목적과 전국을 관할할 수 있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 중의 하나라고 본다.

DB를 구축하는 주체가 선정되면, 그 다음에 결정해야 할 일은 무슨 내용을 DB 시스템에 구축할 것인가 하는 DB 목록에 관한 사항이다. 구축해야 할 DB의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DB를 구축하는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는 절차를 먼저 수행해야 한다. 여기에서 DB를 구축하는 목적은 도농교류에 대한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돕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도농교류에 대한 소비자의 의사결정 또는 선택을 돕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의사결정시 고려하는 주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도농교류 유형이나 목적(자매결연 등 인적교류, 관광이나 휴양·체험·숙박, 농산물·특산물 등 물품구매, 교류 장소(지역, 소요시간, 교통수단 등), 투자(토지, 주택 구입, 개발사업 참여 등), 부대 서비스(인근 관광지 정보 등)가 이러한 예에 속한다.

도농교류 수요 유형별 DB 구축을 위한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도농교류 유형별 세부내용

1) 인적교류

- ① 1사1촌
- ② 자매결연(아파트부녀회, 학교, 종교단체 등)
- ③ 회사·단체 연수
- ④ 농촌 일손돕기 : 고향마을 찾기, 제2고향 만들기
- ⑤ 자원봉사

2) 물적교류

- ① 농산물(유기농산물, 친환경농산물)
- ② 지역특산물(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화훼류가공품)
- ③ 농가 임대(대실, 대가)
- ④ 농촌전원마을주택 분양 임대, 토지·주택 매매, 농촌개발 투자

3) 교육·생활 문화체험

- ① 체험내용별: 농사체험, 농산물가공체험, 자연생태체험, 향토지역축제, 전통음식
역사문화유적지, 사찰, 박물관, 전통공예, 재래시장
- ② 시설별: 관광농원, 주말농원, 체험시설, 직거래 판매장

4) 휴양여가

- ① 목적별 : 삼림휴양, 온천, 등산,
- ② 시설별 : 캠프, 콘도, 민박, 펜션,
- ③ 자원별 : 식물원(야생화, 허브정원), 수상스포츠,

나. 시설과 서비스 특성 정보

- ① 구비시설과 제공 서비스 종류
- ② 시설과 서비스의 수준
- ③ 수용 가능 규모
- ④ 숙박, 식사 제공 여부

다. 지역 정보

- ① 행정구역별: 시·도, 시·군
- ② 지대별: 어촌, 산촌, 평야

라. 교통 정보

- ① 접근 교통 수단
- ② 찾아가는 법 (길 안내)

마. 기타 부가 정보

- ① 주변 관광지 정보 (지역 축제 포함)
- ② 해당 시설과 서비스의 독특한 점
- ③ 해당 지역의 독특한 특성
- ④ 기타 특기사항 (경영자의 자격(예를 들면, 관광해설사), 장점(지역안내) 등)

4.4.2 DB 시스템을 이용한 수요-공급의 매칭 방안

도농교류 DB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인터넷에 프로그램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웹상에서 소비자의 선택과 의사결정을 돕도록 한다. 다양한 도농교류 시설과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의 선호 조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원하는 정보를 얻

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소비자가 도농교류 유형과 대상을 선택하기 위해 고려할 만한 사항들을 제시하고 체크하게 한 후(복수 선택 가능), 선택 조건에 맞는 후보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수요자의 요구와 공급자의 공급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수요-공급 매칭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도농교류의 목적

- 휴양·휴식 체험 (농사, 문화, 생활 등) 숙박 관광·축제 농산물 구입
- 레포츠 농촌투자 (부동산 거래, 개발투자, 농산물 가공업 등)

원하는 지대

- 산촌 평야 어촌

원하는 지역

- 시·도 시·군

원하는 교통수단

- 자가용 버스 기차 항공

방문객 규모

- 개인·친구 가족 단체

기타 (식사제공 유무)

- 식사 제공함 식사제공 안함

도농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도농교류시 소비자가 고려하는 다양한 요인을 제시하고, 각 항목에 대하여 선호하는 것들을 체크하게 하여 전국의 수많은 도농교류 시설과 서비스 중에서 자신의 요구에 맞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체계를 하루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농교류 시설 및 서비스와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조사하여 DB 시스템에 입력, 관리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농촌관광의 역사가 깊은 유럽의 경우에는 이 밖에도 농촌관광 경영자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 종류, 신용카드 사용 가능 여부, 인터넷 사용 가능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5.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도농교류를 촉진하여 농촌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고 농촌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와 수준에 대한 전방위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농촌투자 유인책 마련을 비롯한 농촌관광 활성화 여건의 조성, 농촌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것에서부터 농촌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와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농촌관광 자원을 파악하는 일, 농촌경관개선을 비롯한 관광기반의 조성, 농촌관광 관련 시설과 서비스의 확충, 농촌관광 경영자 및 관련 공무원 등 지원자에 대한 능력 개발, 친환경농업의 확산, 농촌관광에 대한 홍보 강화, 사업추진체계의 개선, 농촌관광 시설 및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개선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각 부문별 지원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1 도농교류 활성화 여건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정책적으로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접근 방법은 농촌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규제완화책으로서는 농지와 농촌 주택의 취득 및 농지 전용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있고, 농촌 투자 유인책으로서는 현재 시행 중인 것처럼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의 농촌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2주택에서 예외로 하고, 맞춤형 전원주거단지와 같이 일정 규모(20호) 이상으로 농촌에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곳을 선정하여 정부가 진입로 등 기반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도농교류 여건 조성을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농어촌민박사업의 개념정립 및 민박지정제(농어촌정비법)
- ② 농촌관광사업을 농업관련법인 사업에 포함(농업·농촌기본법)
- ③ 저수지 수변공간 활용을 위한 진흥지역 행위제한 완화(농지법시행령)
- ④ 한계농지 정비 지구내 농지전용 허가제한 개선(농지법)
- ⑤ 「농지등의 재개발사업」이 농어촌정비사업에 해당되도록 개선(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 ⑥ 농촌관광마을에서 소자본으로 식품가공업을 할 수 있도록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완화(식품위생법, 보건복지부)
- ⑦ 정부지정 농촌관광마을에서 폐교임대시 임대료 인하(교육부 및 시·도 지방교육청)
- ⑧ 제7차 교육과정에 농촌체험학습 의무배정(교육부)
- ⑨ 수업 운영방법 중 교외체험 학습내용에 농촌체험학습 도입(교육부)
- ⑩ 초등학교 대상으로 농촌체험학습 시범학교 지정·운영(교육부)
- ⑪ 농촌지역 관광·체육·레저시설 설치에 필요한 국·공유림의 장기임대 및 임대료 인하(산림청)
- ⑫ 도농교류 참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⑬ 한계농지정비지구내 농지전용 규모제한 완화: 농지법시행령 중에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한계농지정비지구내 시설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

5.2 도농교류 관련 기초 정보의 제공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 특성과 변화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제공하고, 농촌관광 자원에 대한 기초조사와 농촌관광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 평가를 실시하여 분석 결과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도시민의 수요와 관련하여서는 실제로 농촌관광에 참여한 사람들과 참여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연령별, 성별, 직업별 등으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수요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수요 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수요의 변화 추이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 등 농촌지역의 관광 자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농촌관광 사업을 통하여 보전 또는 개발하고 활성화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사업을 신청한 농촌관광 마을 등 개발 후보지역의 강·약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농촌관광에 대응한 적정시설 규모나 관광 또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5.3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기반의 조성

농촌관광이나 도농교류가 촉진되고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며 도시민과 농촌주민 모두 기반 조성 또는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농촌의 기반 조성 또는 정비시 고려해야 할 내용으로서 지역단위 개발 및 네트워크화, 도시민 투자 및 유치를 위한 생활기반시설로서 친환경 주거단지의 조성,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로서의 농산물 가공시설, 관광기반시설 조성, 그리고 농촌개발시 어메니티 보전의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역단위의 개발 및 네트워크화

도농교류 관련 농촌개발계획에 있어 특히 지역단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주변 지역이나 유사한 사업간에 연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재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농교류 관련 농촌마을 개발사업 중 사업내용과 추진방법이 유사한 것은, 지자체와 농촌 주민이 공동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농촌에 흠어져 있는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즉, 기존의 마을단위 사업이나 농가단위 사업은 내

실화를 시키고 이들을 지역단위로 네트워크화 하여 도시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줄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사업에 큰 투자없이 기존 자원을 네트워킹만 하더라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시민들이 주 5일 근무제나 여름휴가를 이용해 농촌에서 2~3일 정도 이상 체류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면, 1개 마을 단위뿐 아니라 주변마을 또는 주변관광지와 연계하여 2~3일 정도의 코스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역단위의 개발이 유리하다.

또한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이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농촌관광 시설이 도입되고 체험 관광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농촌관광 공급에 대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곳부터 체계적, 순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세련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친환경적 주거단지의 조성

정주권 개발사업, 문화마을 사업 등으로 농촌에 도시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려는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 사업 초기에는 농민들에게 호응을 받았으나 도시적 주거단지이기 때문에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농민들에게는 적합하지 않고 기반조성 비용 때문에 분양가격이 높아 농민들도 기피하고 있다. 문화마을의 경우 도시인들의 전원생활의 수요가 늘어 일부 도시인들에게 분양되기도 했지만 경관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아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주택이 들어서면서 최근 들어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귀농을 위해서 혹은 노후생활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농촌마을의 가운데 들어가 거주하기에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곤란을 겪고 외진 지역에서 살자니 의지할 데가 없을 것 같아 거주지역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구잡이로 생겨나고 있는 전원주택과 펜션형 단지는 농촌주민과 도시인간의 이질감만 키우고 농촌어메니티를 훼손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농촌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필지만 분할하여 분양하는 방식이나 집을 지어 전원주택 식으로 분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입주 후보자들이 주택조합 등을 결성하여 마을 조성방안이나 경관계획, 건축계획을 합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림부에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원마을조성사업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다.

입주자는 귀농할 사람, 노후생활을 하려는 사람, 예술가 등의 전문직업인, 살지는 않지만 주말이나 휴가에만 이용할 사람 등 다양하게 구성하고, 이러한 다양한 구성으로 인해 인근 부락에서 인적자원을 얻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농촌관광마을로 조성되었거나 환경농업지구로 지정된 자연부락 인근에 마을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하되 마을이 주도적으로 도시자본을 유치하고 도시인들이 거주하도록 유도한다. 지원방안으로는 농림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마을개발사업을 활용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건축,

조정사업은 도시자본 유치를 통해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3) 농산물 가공사업 체계의 구축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고 대다수 농민들에게 그 이득이 분배되지 않으므로 도농교류와 농촌관광을 통해 농산물 판매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1차 농산물의 경우 부가가치가 낮아 높은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고 농산물을 2차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농산물 가공은 농산물의 저장,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 하폐수 처리 등 농민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시설조건과 허가조건이 있다. 식품가공의 경우 하나의 품목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가공품의 생산에 대해 허가를 받기 쉽고 시설을 집적화 하여 위생설비, 하폐수 처리설비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농민들이 일정 영역에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농가단위, 마을단위에서 농산물을 1차 단순가공처리 한 후 완제품을 가공공장에서 만들게 함으로써 농민 스스로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쉽게 가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선군의 경우 다양한 약재를 활용한 농산물 가공을 지원하기 위해 정선군 기술센터 내에 실험실, 파이로트 가공실 등을 갖추어 농민이 의뢰한 농산물의 가공 및 효능 실험을 해주고 있으며,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이템은 제약회사 등을 연결하여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사례가 있다.

지원방안으로는 농산물 가공이 필요한 농촌관광마을, 환경농업마을 등에서 농민들이 공동가공공장 설립을 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가공공장에 필요한 부지조성, 위생설비, 하폐수 처리시설, 기초시설을 지원하고 다양한 자금을 활용하여 창업, 경영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을 들 수 있다. 시설내용에 따라 시설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

4) 농촌관광 기반시설의 체계적 확충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를 활성화시키려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농어촌 도로 체계를 정비하되, 편리성과 안전성, 그리고 친환경성과 심미성을 겸비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은 현지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교통안내 표지판이 많지 않아도 불편을 못 느끼나 외부인의 입장에서는 다르므로, 길을 찾기에 편리하도록 일정 거리마다 도로 표지판 또는 마을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기반시설로서 숙박시설과 주차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도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가족단위의 이용이나 자매결연 또는 1사1촌형 등 이용자 유형을 고려한 쾌적한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체험시설이나 농산물직판장 등의 확충도 요구되고 있는데 특히, 그 지역의 특색있는 자

연·문화자원을 반영하는 한편 지역특산물 구입이나 가공체험이 가능하도록 일정 장소에 농촌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농촌테마공원 조성은 지역의 도농교류 거점시설로서 그리고 도시민과 농촌주민의 휴식시설 역할, 농촌지역의 어메니티 향상 효과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5) 농촌 주요자원으로서의 어메니티의 보전 및 활용

도시민이 농촌을 찾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농촌의 자연환경, 경관 및 농촌다움이 살아 있는 공간으로서의 매력 때문이다. 따라서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을 위한 개발에 있어서도 농촌의 어메니티를 보전 및 향상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농촌 어메니티를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도로의 가로수를 정비하고 꽃길을 조성하는 것에서부터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모습과 색채를 개선하는 데 이르기까지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농촌관광 자원조사 및 자원 평가를 토대로 「아름다운 농촌 가꾸기(가칭)」와 같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벌일 곳을 선정하여, 농촌경관 개선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대한 실천활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경관이나 어메니티 자원은 다수에게 유익을 주지만, 그에 대한 소비를 제한하기 어려운 공공재적 성격을 띠어서 개인이 투자하기 어려우므로 공공투자 형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농촌 어메니티는 자원이기도 하지만 농촌주민들에게는 일상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규제하기 매우 까다로운 측면이 있으므로, 주민 참여를 전제로 한 규제와 주민운동으로 보전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어메니티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지자체 장과 실무자의 인식 전환 및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우선 형성되어야 보전되고 향상될 수 있는 것이어서 규제보다는 교육, 주민운동 등으로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역적으로 보전해야 하는 생태계 보전지역이나 유적지 등은 이미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어메니티를 위해 또 다른 규제나 제한을 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각종 규제를 없애고 있는 정부의 노력에 역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스스로 농촌 어메니티를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규제 마련과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메니티의 보전과 홍보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어메니티 지자체 경진대회

- 농촌 어메니티를 잘 보전하고 진흥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한 지자체를 선발하여 차년도 농촌개발사업(농촌관광마을, 마을종합사업, 지역도농교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우선 배정
- 심사내용에 주민자율적, 주민참여적 어메니티 보전 규약 작성을 포함

② 어메니티 주민 경진대회

- 농촌 어메니티를 잘 가꾼 농촌의 마을, 단체, 농가 등을 선정하여 상금을 시상

- ③ 이러한 지자체와 주민들의 노력한 사례를 전파하여 스스로 어메니티를 보전하고 향상시키려는 국민적인 붐 조성

이러한 정책의 도입을 위하여 지원방안으로는 어메니티 경진대회 개최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마을경진대회에 어메니티 부분을 신설하여 시상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4 도농교류 전문인력 육성 및 농촌주민 교육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관련 인력을 육성하고 관련 분야 종사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확충이 시급히 필요하다. 농촌관광이나 도농교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여 정부의 지원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농촌관광 경영자와 마을 주민 및 관련 기관 종사자가 이에 대해 준비되지 않으면 사업의 성공이 어렵다. 특히 도농교류와 같은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는 주민참여형 농촌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는 특징이 있다. 농촌주민 자신들도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의 육성 지원을 바라고 있다. 도농교류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및 농촌주민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도농교류 관련 인력의 육성 및 교육

(1) 도농교류 및 농촌개발 전문인력의 육성

도농교류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농촌개발 관련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지역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 현재 다양한 농촌개발과 관련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개 전문가를 초청하는 나열식, 강의식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새로운 개념이나 사업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나, 농민들이 농촌지역개발의 주체로서 역량을 갖추는 데에는 미흡하고, 다양한 교육내용을 접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특정한 기관이나 단체가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내용의 질이 떨어지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운영하지 않을 경우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열식,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농촌현장에서 토론과 견학, 실습을 통해 농민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새롭게 평가하고 그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과 역량을 갖추게 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을 시범적으로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젊은 농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과과정이나 학과를 전문대학 등에

설치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도 있다. 중앙 단위와 시·군 단위, 현장 단위 및 전문교육 기관 단위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중앙단위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

① 사업개요

농촌개발과 농촌관광에 관련한 일반적인 지식, 성공사례 등 일반적인 교육과 농업경영, 농장 설계, 마을설계, 농촌관광 가이드 방법, 문화 해설사 등 전문적인 교육을 농민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지원한다.

② 교육내용

농촌개발, 농촌관광, 주민참여형 사업조직, 농촌 비즈니스모델, 농촌관광 가이드 방법, 관광해설, 농장 및 마을 설계, 지역주민 지도방법 등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방안

민간단체, 농촌관련 연구소, 컨설팅 업체 등 다양한 위탁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피교육자들에게 교육비를 보조하는 방법으로 지원, 피교육생 모집은 중앙(도농교류센터)과 시군(지자체)으로 나누어 개별적인 신청과 지자체를 통한 단체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교육기관의 실적과 내용을 평가하여 검증한다.

(나) 시·군 단위의 교육프로그램 지원

① 사업개요

지역 농촌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구상하며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농촌지도자, 농촌활동가, 지역비즈니스 참여자 등을 교육하되 이러한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지역도농교류센터)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교육내용

지역개발, 농촌관광 일반, 자გი지역 가치 발견하기, 지역 비즈니스모델 만들기, 사업계획 작성하기 등을 교육한다.

③ 운영방안

지자체가 스스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고 시군 단위에서 사업계획에 적합하게 피교육자를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

(다) 현장중심형 농촌지도자 양성 시범 프로그램 개발

① 사업의 개요

농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

역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활용하여 농촌개발의 구체적인 대안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내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지원한다.

② 운영방법

농촌관광, 농촌개발의 역량이 갖추어진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파트너십을 맺고 교육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심사하여 시범사업비를 지원, 2004년에 농촌관광 사업이 활발한 시군을 대상으로 도별 1개 시군에 지원한다.

(라) 젊은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장기적 전문 교육프로그램 육성

한국농업전문학교, 풀무환경농업전문학교, 연암축산전문학교 등에 농촌관광, 농촌개발과 관련한 교과과정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배출하는 인력이 농촌개발과 관련된 기본적인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풀무환경농업전문학교는 퍼머컬처, 농장설계 및 실습, 마을가꾸기와 지역사회가꾸기 과목이 운영 중에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교과과정을 다른 교육기관에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농촌관광, 농촌개발과 관련하여 젊은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농민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을 도별로 1개씩 육성, 양성할 필요가 있다.

(2) 도농교류 (가칭)로컬매니저 조직 및 파견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상향식, 내생적 발전전략이 성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의 농업, 지역개발, 환경관련 전공 출신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우리나라 농촌에 파견하고 지역에서 일정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조직을 도농교류 로컬매니저라 하고 육성, 지원한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역할을 지자체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는 지역활동가 그룹과 함께 지역의 자원과 지역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지자체, 농민,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조정하는 “에니메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준공무원적 신분을 가지고 농촌현장에서 농촌개발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을 농촌에 파견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제도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제 3세계에 지역개발을 위해 우리나라의 젊은 인력을 파견하는 방법이 있다.²²⁾

파견인력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인사관리는 중앙도농교류센터에서 담당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초기에는 농촌관광마을을 중심으로 마을단위 도농교류 업무를 수행하고

22) 한국국제협력단은 그 동안 선진국의 원조와 지원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혜택을 환원한다는 취지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원조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1991년 설립한 정부기관이다. 전문인력, 봉사단, 프로젝트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전문인력을 개발도상국에 파견한다(<http://www.koica.go.kr>).

마을, 농가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엮어내어 농촌활성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인 농촌의 일꾼으로 만든다. 교육은 3개월 과정으로 하되 중앙도농교류센터와 외부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농촌관광이나 농촌개발 사업이 활발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30개 시군을 선정하고 1명씩 교육 후 파견하고 파견 후 소속은 중앙도농교류센터로 하여 신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일정비용의 활동비를 보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농촌관광 업무 담당자 교육

농촌관광 업무 담당자에는 지자체 공무원을 포함하여 농업기반공사,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농촌관광과 관련된 여러 농촌기관 종사자가 포함된다. 이들은 자신의 주 담당업무가 농촌관광이 아닐지라도, 농촌관광에 대한 안내자와 홍보자의 역할을 담당할 마음가짐을 갖추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농촌관광 관련사업의 종류와 사업내용, 소속 지역의 농촌관광 명소 등에 대해 안내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고객으로부터 전화나 인터넷 혹은 방문에 의해 농촌관광과 관련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대해 친절하고 명확하게 답변하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며, 자신이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자를 소개해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농촌관광 관련 기관 종사자는 이와 같은 고객의 문의에 답변하는 데에서 나아가 기회가 주어질 때면 적극적으로 지역의 관광을 안내하고, 알리고, 홍보하는 지역관광 가이드 및 홍보요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농촌관광 안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과 일반 직원들의 직무교육 과정에 농촌관광 부분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촌관광이나 도농교류 관련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자는 농촌관광 경영에 대하여 컨설팅하고 기술자문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심화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2) 농촌 주민 교육방안의 마련

(1) 농촌관광 경영자 교육

농촌관광 경영자는 관련 시설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수익을 얻고 경영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감수하는 당사자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농촌관광 교육은 바로 이들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도시민 등 농촌관광객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누리는 데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농촌관광 경영자라고 해서 농촌관광이나 경영 등에 대한 이해수준이나 지식보유 수준이나 이들이 처한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적 요구(educational needs)가 모두 동일하지 않으므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담당기관은 이들을 대상으로 농촌관광 및 경영에 대한 일반사항을 교육하는 것 외에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하고 지도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육내용에는 상황분석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관광 경영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마케팅 기술 및 기법에

관한 교육, 국내외 선진지 사례에 관한 교육 등이 포함되는데, 교육과정(curriculum)을 편성할 때에는 교육대상자의 수준과 특성 및 요구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구성토록 한다. 이러한 교육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① 농촌관광시설 및 설비 개선방안
- ② 영접, 접대, 환송 등 농촌관광서비스 향상 방안
- ③ 농촌관광시설 외부공간의 개선방안
- ④ 농촌관광 체험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방안
- ⑤ 관광시설 홍보 및 마케팅 방법
- ⑥ 종합적인 관광경영개선방안
- ⑦ 관광경영여건 변화 분석기법
- ⑧ 주변관광요소 활용방안 및 주변관광지 안내방법
- ⑨ 기타 체험지도자 육성 교육, 지역관광 가이드 교육 등

(2) 농촌주민 교육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등을 통해 정부에서 공공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주민들 사이에는 정부에서 보조로 지원해 주니까 받고 보자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 마을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올바른가, 그리고 마을의 입지여건과 특성을 고려할 때 어떤 투자가 바람직한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마을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지도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정부의 농촌투자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관광개발사업에 대한 홍보과정에서 마을개발과 투자계획수립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 농촌관광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사회 주민은 창업준비자 및 예비창업자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들 중 장래에 농촌관광에 대한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창업준비 교육이나 예비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농촌마을에 농촌관광이 발전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지도자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를 감안하여 지역 지도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촌관광에 대한 교육은 물론 리더십 개발과 주민참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농촌에 대한 이미지는 관광 경영자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서비스 정신이 어느 수준인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촌관광 경영자와 창업 준비자 외에 지역 지도자 및 일반 주민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촌 마을 지도자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농지관리위원, 쌀전업농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에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에 대한 교육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이 도농교류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과정별 교육 방안

한편 도농교류 관련 인력 및 농촌주민 전체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육과정(curriculum)별 교육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도농교류 일반과정(입문과정)

-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도농교류사업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함
-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교재는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는 등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는 데 주안점을 둠

② 도농교류 마을지도자 과정

- 마을에서 도농교류사업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지도자 및 도농교류사업 담당 공무원 등 교육

③ 도농교류 전문가 과정

- 지도자과정 및 이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마을 지도자 및 담당공무원 등 교육

④ 도농교류 경영자 과정

-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 교육 수준이나 교육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세부 과정을 개설함
-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발표 등 토론식 교육에 주안점을 둠

⑤ 도농교류 특별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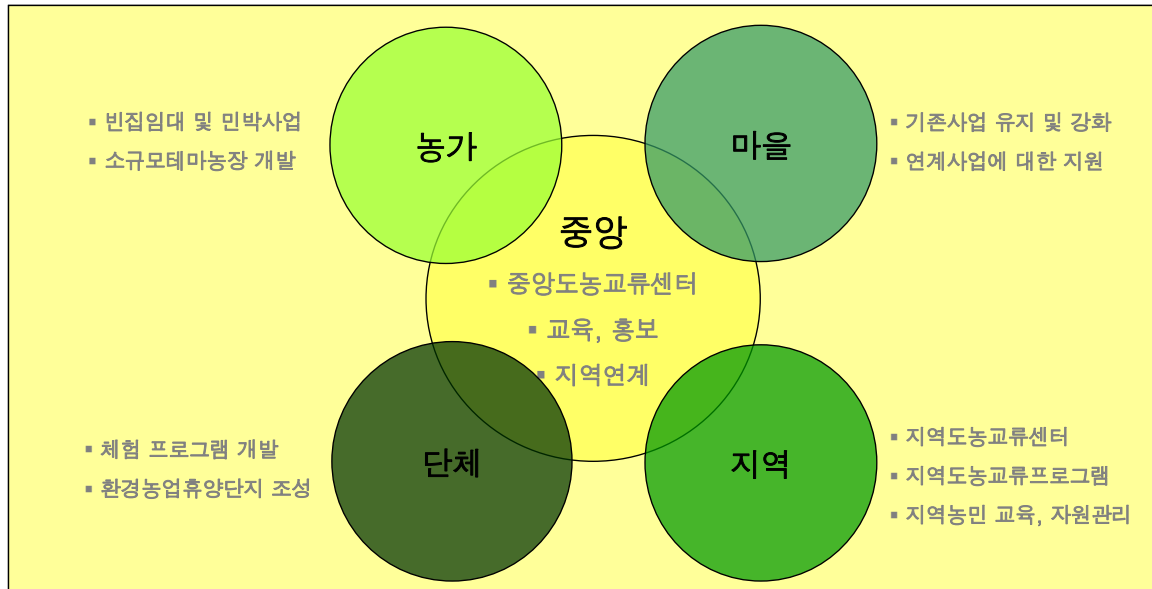
- 정규과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내용이나, 별도의 교육이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여 특별강좌로 운영

5.5 도농교류 관련 사업 추진체계 및 내용의 개선

농촌관광의 경우 그 동안 정부의 노력으로 많은 지자체와 농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참여하는 주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서로 중복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역할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농촌관광, 농촌개발에 참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의 톱니바퀴로 돌아가고 서로 다른 참여주체가 그 톱니바퀴에 맞물려 돌아가면서 농촌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조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습형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도농교류사업협의체 구성 등을 통하여 도농교류 사업 관련 조직을 네트워크화 하고, 서로간에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중앙단위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면서 시군이나 단체, 마을, 농가가 농촌관광과 농촌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환경농업단체, 마을, 개인농가 등의 참여주체는 역량에 따라 사업의 내용, 사업의 규모를 적절하게 결정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농촌의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면서 농촌을 활성화

화시킬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농촌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도농교류 센터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 농가와 마을 및 지역의 도농교류 관련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벌이는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5-1)과 같다.



- 참여주체의 특성에 따른 역할을 정립하고 역할 강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의 활성화
- 각 주체의 역할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 제고

(그림 5-1) 농가와 마을 및 지역의 도농교류 관련 단체의 유기적 협력 모형

1) 도농교류센터의 역할 강화

도농교류와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인프라의 조성, 농촌관광인력의 육성, 대국민을 상대로 한 홍보, 마케팅이 필요한데, 농업기반공사에 설치되어 있는 도농교류센터는 바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다. 특히 도농교류사업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초기단계에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도농교류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민간기구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기구가 성장, 발전하면 도농교류센터는 민간기구들과 협력하며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중앙도농교류센터에서는 다양한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평가, 인증하는 기능을 가지고 농촌관광과 도시자본 유치 분야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중앙도농교류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과 관련한 정보수집 및 제공
- ②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에 관련한 농가, 마을, 기업, 단체에 대한 지원
- ③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에 대한 교육체계 수립 및 교육 지원
- ④ 인적자원 파견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파견 관리

- ⑤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에 대한 대국민 홍보
- ⑥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시설과 서비스의 등급화와 품질 관리
- ⑦ 농촌투자유치에 관한 안내

중앙 도농교류센터에 대한 지원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농촌투자유치센터 확대, 개편에 따른 예산 확보, 인력 확충
- ② 교육예산, 홍보예산, 프로그램 개발 사업비 등을 배정하여 민간부분과 협력하여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역 도농교류 지원프로그램 개발

(1) 지역 도농교류센터의 운영 및 기능 정립

지역의 농가, 마을, 기타 관광,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자원화할 수 있는 지역도농교류센터의 지방조직을 육성하고 활성화한다. 현재 농업기반공사의 도 본부에는 도농교류센터 지방조직이 설치되어 있지만, 담당직원이 1~2명에 불과하고, 담당업무도 겸무형태로 되어 있어 도농교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에 취약한 상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관련 사업의 증가와 함께 지역의 특성을 살려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농교류센터의 지방조직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²³⁾. 여기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도시자본 유치, 개발계획수립 및 사업실행 지원, 협력체계 구축, 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지역 도농교류 시설로는 그린투어, 환경농업, 지역 해설을 할 수 있는 기능, 지역 내 주요 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 기능, 지역의 관광정보를 안내할 수 있는 기능, 간단한 편의시설(화장실 및 세면장, 음식, 간편한 조리, 배낭여행족 및 알뜰 여행족을 위한 숙박시설) 등을 설치한다. 지원방안으로는 지역도농교류센터의 조성비와 같은 직접 지원보다는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하여 민관이 합동으로 지역도농교류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여건이 성숙된 지자체의 경우 지역도농교류센터 조성비를 지원토록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관련사업으로는 지역 농촌관광 기본계획 수립, 지역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교육, 홍보 지원, 컨설팅 등을 들 수 있다.

(2) 지역 인적자원 유치

1996년 전국귀농운동본부가 창립되어 2003년 10월 현재까지 서울본부에서만 총 27기에 걸쳐 귀농학교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지역에도 지역귀농학교가 운영되고

23) 지역단위 도농교류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영국의 전원청(Countryside Agency)이 좋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있다. 귀농학교와 별도로 사단법인 더불어살기생명운동본부에서도 귀농자반과 장기 귀농자반을 통해 귀농교육을 하고 있다. IMF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귀농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귀농운동은 IMF 전에 시작되었고 전국귀농운동본부나 더불어살기생명운동본부의 귀농학교에서 귀농교육에 대한 수요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산업화, 도시화된 삶에서 벗어나 전원적인 농촌생활을 하려는 도시인들의 수요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많은 귀농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기존의 농민들과 융화의 어려움 등으로 다시 역귀농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귀농하려는 도시인들을 농촌지역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귀농인들이 농업이외의 분야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귀농인들이 기존의 농촌주민들과 융화하면서 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귀농하려는 도시인에게 도농교류, 가공, 지역비즈니스 등 지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지역도농교류센터 등에서 지역개발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귀농인들이 정주에 불편하지 않을 주거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귀농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 추진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지자체 자체의 귀농교육 프로그램 운영 : 농민교육과 연계
- ② 귀농인의 지역 일꾼화 : 지역도농교류센터 사업과 연계
- ③ 귀농인을 위한 주거단지 조성 : 생태적 주거단지 조성 및 마을종합개발사업과 연계

3) 마을단위 사업의 내실화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등 농촌관광을 중심으로 한 도농교류 사업은 도시인에게 농촌관광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고 농민들에게는 농촌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해주었다. 마을을 중심으로 한 농촌관광사업은 상향식 공모제, 주민참여의 확대 등으로 농민과 지자체 실무 공무원의 상향식 농촌개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마을사업의 성공이 다른 지역의 농촌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거나 다른 지역 농산물의 유통에 기여하는 사례, 전체 지역의 이미지를 높여 경쟁력을 갖게 되는 사례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농촌관광마을 육성 사업을 단순히 농외소득 증대사업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도시자본 유치, 농촌활성화의 기초 기반을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까지 마을단위 농촌관광 사업이 시범사업이므로 다양한 사업모델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주관부서를 통일하기보다는 다양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의 여러 부서에 이러한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마을단위 농촌관광사업을 활성화하여 도시인을 대상으로 농촌, 농업에 대해 홍보하고 농민과 지자체는 농촌개발에 대해 학습하며 마을을 농촌활성화 거점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기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농촌관광사업을 발전시키는 것

이 바람직하다.

농촌관광마을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농촌관광사업의 기본틀 유지 및 문제점 보완

- 아직까지 시범사업의 성격이고 소득증대 이외에도 상당한 교육적 효과가 있으므로 기존의 계획대로 추진하되, 성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을 보완

② 기 선정 마을에 대한 관리 강화

- 친환경농업과 연계할 수 있는 농업생산기반 정비, 가공공장 설치 등 연계 사업 지원
- 마을이 지역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마을지도자 등 지속적인 교육
- 마을지도자의 업무를 줄이고 마을사업을 보조할 인력파견

4) 농가단위 사업의 내실화

그 동안 정부나 외부의 사업자들에 의해 농촌지역에서 시행된 사업에 농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해 관심을 가지지 못하거나 농촌개발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하였다. 농민들이 경영 마인드가 부족하고 경영에 미숙한 것이 사실이지만 농민이 스스로 주체가 되는 사업을 해보지 않으면 영원히 상향식 농촌개발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부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농민들에게 사업 경영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를 통해 농촌지역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이 발전하게 된다. 사업 초기에는 농민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업모델과 가이드라인, 경영지침을 제공하고 컨설팅 그룹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확률을 높일 필요가 있으나 농민과 지역의 역량이 생겨나면 스스로 다양한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경영하게 될 것이다. 농가중심의 사업에는 가급적 직접적인 지원은 최소로 하고 도로, 상수도, 하수처리 등의 기반시설 조성과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렴한 이자로 융자해 주면서 스스로 도시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민박시설 설치의 지원

마을단위 도농교류 그린투어리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의 집행과 수익 발생 시 분배문제로 마을주민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 갈등으로 인해 마을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마을단위 그린투어리즘 사업 중에 공동으로 해야 하는 사업과 개별농가가 해야 하는 사업을 분리함으로써 이러한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고 마을단위 그린투어리즘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개인농가로 전이할 필요가 있다.

마을단위 공동사업은 마을어메니티 보전, 마을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해야 하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개별 농가들은 기존의 주택을 이용하여 방문객의 숙박이나 식사대접 등으로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민박시설의 설치를 원하는 개별농가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마을단위 농촌관광 사업을 하는 곳을 중심으로 개별농가들이 도시인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숙박시설을 갖추기 위해 기존의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저리로 용자 지원토록 한다. 한 농가가 1-2개의 민박용 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사업내용이 될 것이다.

(2) 소규모 테마농장 개발 - 관광농원의 활성화

마을단위 농촌관광사업은 활발해지고 있으나 관광농원을 비롯한 개인 농장 단위의 농촌관광 사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관광농원주나 개인농장도 농촌관광 사업에 참여하고 농장단위 농촌관광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기존의 관광농원 경영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소규모 농장을 개발하거나 관광농원을 개조하여 농촌관광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의 진행이 빠르고 특성화되며 질 높은 여가, 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농장은 농촌 어메니티를 보전하는 관점에서 체험보다는 여가, 휴양, 장기 체류 등을 주요한 테마로 하고 회원제 중심으로 안정된 수요와 테마와 연관된 농산물, 가공품의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 소규모 농장의 경우 농장 개발 자금이 부족하여 개발하기 어려우므로 도시자본을 유치하여 충당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공부문에서는 도로, 전기, 통신 등의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소규모 농장 단독으로는 도시자본을 투자하거나 도시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소규모 농장들이 지역단위에서 혹은 테마별로 네트워킹 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규모 테마농장의 구성내용에는 ① 지역별, 테마별로 소규모 농장들이 협력하는 사업단체 조직, ② 테마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가공품, 먹을거리, 체험거리, ③ 도시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고급형 숙박시설, ④ 회원제 운영 (하나의 농장에 투자하면 다른 농장도 이용 가능)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지원방안으로는 창업자금, 운영자금을 저리로 용자하고 도시자본을 알선, 유치하며 사업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도로, 상수도, 하수처리 등)을 설치하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다.

5) 친환경농업단체의 도농교류 활성화

도농교류로서 농촌관광사업이 활성화되기 전부터 친환경농업을 하던 생산자 단체는 생산자, 소비자 연대 사업의 일환으로 도농교류 사업을 하고 있었다. 친환경농업단체 중심의 도농교류는 농외소득의 증대보다는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답이었고 소비자들에게 환경농업을 알리고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얻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도농교류 사업에 활용된 도농교류 사업은 농촌관광을 도시인에게 무료로 서비스하여 오히려 농촌관광 상품 시장을 왜곡시킨 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친환경농업단체의 도농교류 사업을 통해 환경농업 농가는 직접적인 소득이 이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 친환경농산물의 소

비중대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는 도시 소비자의 경우는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고 있는 의식있는 소비자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소비자를 농촌관광, 도시자본 유치에 활용한다면 효율적이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농촌을 활성화할 수 있다. 친환경농업단체 지원 프로그램에 담겨야 할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농촌관광마을 선정시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농촌관광마을 선정시 마을의 환경농업비율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시 가점 부여
 - 농촌관광마을 선정시 환경농업단체가 연결되어 도시소비자와의 연대가 가능한 경우에도 가점 부여
- ② 친환경농업 생산지 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친환경농업 생산지를 네트워킹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환경농업단체의 지원 수요를 조사한 후 환경농업단체에 프로그램 개발비와 교육 운영비를 지원한다.
- ③ 한국 WWOOF²⁴⁾ 운영 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들이 환경농업 농가에서 하루 4~5시간 일하면 숙식을 제공받으며 여행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환경농업단체연합회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한다.
- ④ 친환경농업 휴양단지 조성 지원
 - 환경농업단체가 소비자들이 휴양할 수 있는 농촌휴양단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들이 총 사업비의 50%를 마련할 경우 정부가 일정사업 규모 이내에서 50%를 보조한다.

5.6 도농교류 홍보 및 마케팅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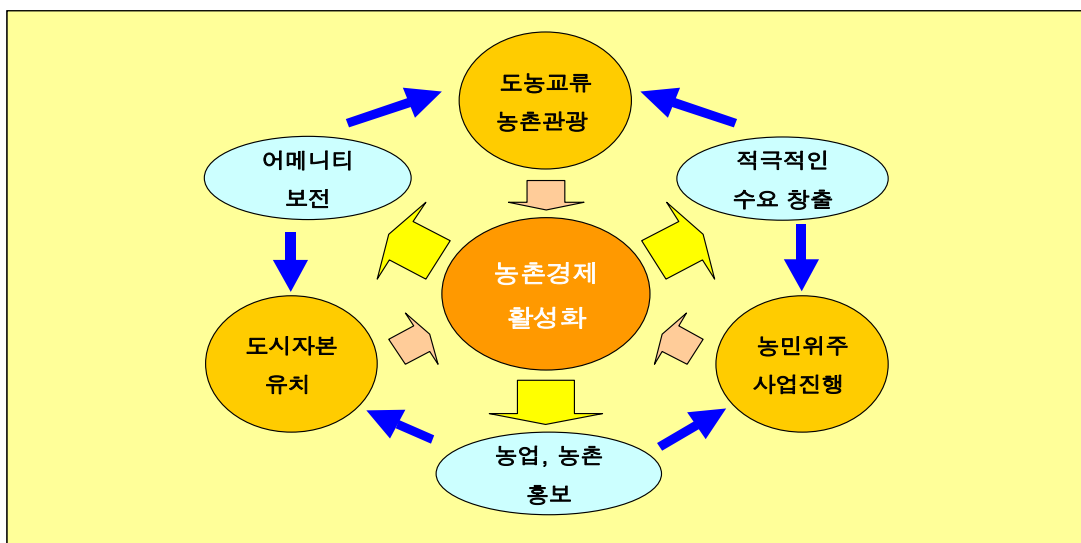
도농교류에 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며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도농교류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① 도농교류 또는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책자 발간, ② 지역관광 지도 제작, 보급 확대, ③ TV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

24) 우프(wwof)는 Willing Workers on Organic Farms의 약자로 '유기농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며 여행 중에 내국인 또는 외국인의 농가에 들어가 하루 평균 4~5시간의 노동의 대가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받는 일종의 farmstay라 할 수 있다. 주말엔 일반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데, 마을 모임이나 행사 등의 문화생활을 농장 가족과 함께 하는 현지체험을 할 수 있다. 우프는 1971년 영국의 SUSSEX 지방의 한 농가에서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일손을 빌리면서부터 시작해 현재는 전세계 60여 개가 넘는 우프 회원국이 있다.

보 프로그램 기획, ④ 이벤트성 경진대회의 개최, ⑤ 도농교류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홍보, ⑥ 도농교류에 관한 사향의 신문 연재 추진 등이 필요하다.

농업이나 농촌에 대한 홍보는 대개 과거 농촌에 대한 향수, 그리움, 낭만적인 전원생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구체적인 도농교류, 농촌관광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은 매우 부족하며 도시 자본 유치는 더욱 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시민들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홍보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한편으로는 수요를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고 환경교육으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도농교류와 농촌관광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마케팅 방안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수요창출과 여건조성을 통해 농촌개발 사업이 활성화되고 농민 사업 역량을 향상하는 기회 제공
- 이를 통해 농촌경제가 활성화되고 다시 농촌에 재투자가 가능해지는 선순환적 농촌발전 조건 조성

(그림 5-2) 홍보와 연계한 도농교류 및 농촌경제 활성화 모형

1) 도시소비자를 위한 홍보, 마케팅

(1) 공익광고의 활용

농촌관광이나 도농교류에 대한 홍보는 공익광고 같이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다수를 향한 광고의 형태가 주를 이루는데 공익광고를 만드는 주체인 공익광고협의회가 준정부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익광고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정부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광고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실시한 '2000년도 공익 광고 평가조사'에 따르면 공익광고의 접촉도 특히, 공익광고협의회의 공익광고에 대한 인지도는 77.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익광고가 사회 문제 제시 기능과 그 해결 기능에 대해 대중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공익광고의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

공익광고의 접촉 매체로는 TV가 단연 압도적(98.6%)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신문(41.1%), 지하철(26.3%), 라디오(12.9%), 극장(12.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익광고의 집행매체 중 강화되어야 할 매체 일순위도 TV(응답자의 87.2%)로 나타나고 있어 TV광고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표현방식에 있어서 상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광고를 보는 즉시 한 번쯤 돌이켜 볼 수 있도록 표현되어야 하며,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광고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익광고협회의 심의위원 중의 한명이 농업, 농촌분야를 대표할 수 있게 하여 최소 년 1회 이상 공익광고를 제작, 방영케 한다.

(2) 공익성을 지닌 오락프로그램 활용

최근에 방영되고 있는 공익성 오락프로그램은 그동안 대중매체에서 다루지 않았던 사회의 소외된 부분을 찾아내어 알리고 도움을 주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인기 연예인들을 동원하여 오락성을 가미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일반 시청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문화방송의 '느낌표'에서 어린이 도서관 지어주기, 불우한 이웃을 위한 '러브하우스', 한국방송공사의 '체험 삶의 현장' 등이 있으며 공익성과 오락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런 공익성 오락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기성 프로젝트 혹은 이벤트 형식으로 제작팀이 농촌마을에 직접 찾아가 그 마을의 어메니티를 살리거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마을주민들과 수행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둘째, 게임형식을 빌려 두 팀으로 나뉘어 한 농촌마을에서 각기 다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그 마을의 어메니티를 얼마나 잘 살리면서 과업 수행을 하는지 평가하여 승자를 가려 상품으로 그 지역의 특산물을 주는 형식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도농교류센터에서 협찬업체를 섭외하여 제작 지원하고 FTA 협약을 계기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3) 다큐멘터리 형식의 마을가꾸기 전 과정 제작

오락프로그램은 특성상 단기적인 프로젝트만을 다루기 때문에 마을이 바뀌는 과정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마을 선정부터 컨설팅 과정, 계획수립, 실행, 완성에 이르는 마을가꾸기 전과정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 방영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 작업은 농촌주민과 제작진뿐 아니라 지자체 혹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협조를 해야 하며 특히 그 지역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는 기업체, 조직,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개입되어야 가능하다.

다큐멘터리의 특성상 자칫 지루해지기 쉽기 때문에 얼마나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지느냐가 중요한 과제이다. 조금은 과장된 홍보, 예를 들어 대통령이 격려차 방문하는 모습을 다큐멘터리에 담으면서 대통령과 농촌주민들과의 진솔한 대화 — 농촌의 어려운 상황, 농촌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등 — 를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농촌지역에 희망이 있음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개 이러한 프로그램은 방송사에서 외주를 받는 제작사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후원으로 제작사가 기획하여 방송국의 편성을 따내고 FTA 체결 등으로 농민단체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대기업의 협찬을 받아서 추진한다.

(4) 농촌드라마 시나리오 공모 및 제작 지원

기존의 농촌드라마는 주로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지만 농촌의 현실이나 새로운 농촌의 발전방향을 제시해주는 데에는 미흡하였다. 농촌의 새로운 것을 보여주기 보다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도시인들이 몰랐던 농촌의 아름다움이나 어메니티를 부각시키면서 새로운 농촌의 발전노력, 미래 비전 등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한 방송사에서 박경리씨의 “토지”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데 이 드라마의 제작을 맡은 제작사가 드라마 세트장을 드라마 세트용이 아니라 영구적인 관람, 체험용으로 조성하고 이를 드라마를 촬영하는 농촌의 활성화에 이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작사, 방송국, 정부가 함께 이제까지와 다른 농촌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드라마의 파급효과는 클 것이다. 새로운 농촌드라마는 공영방송에서 방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공모는 후원하고 공영방송에서 공모하며 드라마 제작은 대기업의 협찬을 받아 제작하여 공영방송에서 방영한다.

(5) 농촌관광 투어버스, 투어기차 운행

중앙도농교류센터 내에서 농촌관광버스를 제작하여 시범운영, 주말에는 인근의 농촌관광 코스를 개발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도시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평일에는 단체 체험여행에 활용한다. 철도청과 협조하여 기차로 가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이에 이용할 수 있는 기차를 제작한다. 중앙도농교류센터가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버스나 기차 제작에 최소의 비용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개발, 운영, 관리의 경험이 있는 외부 단체, 업체에 위탁한다. 버스나 기차에서는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는 각종 홍보자료를 비치하거나 배포하고 농업과 농촌에 관한 영화도 상영한다.

(6) 도시농업의 활성화

도시농업은 도시인에게 농업을 근거리에서 체험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농업과 농촌에 대한 홍보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도시농업은 도시녹지관리, 폐기물관리, 빈민구제 등의 부수적

인 효과가 있으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05년에는 도시농업 활성화 시범 도시를 선정하여 배란다. 옥상, 공공용지, 자투리 땅 등에서 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고 경작에 필요한 자재, 도구, 종자 등의 지원과 영농교육 실시한다.

지원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① 2005년 시범도시 3개를 선정하여 기술센터에 도시농업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한다.
- ② 텃밭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텃밭에서 친환경적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한 도시인을 뽑아 시상한다.

2) 안정적 수요창출 기반 조성

청소년들은 잠재적인 농촌관광의 수요자, 농촌자본투자의 투자자이며 농촌 인적 잠재력의 후보군임에도 불구하고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거의 없다. 도농교류사업은 청소년들에게는 농촌현장을 이해하고 농업, 농촌, 농민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다.

청소년들에게 정기적인 도농교류에 참여하고 그린투어리즘을 체험하게 함으로서 도농교류 수요를 확대할 수 있고 청소년들의 그린투어리즘 체험은 청소년 가족으로 연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초, 중, 고 교과과정에 정규과정으로 포함시키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도농교류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지원방안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수학여행, 졸업여행 등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도농교류, 그린투어리즘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집단적으로 청소년들이 농촌에서 도농교류와 체험프로그램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물과 프로그램의 안전성 확보,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제도의 확립, 청소년 체험 위탁업체의 육성 등이 필요하다. 또한 자매결연 사업을 활성화하여 농촌과 도시간에 직접적인 유대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농촌관광, 농산물 판매, 도시자본 유치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5.7 도농교류에 대한 체계적 품질관리

도농교류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농촌관광을 비롯한 도농교류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등급시스템의 도입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도입,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 ① 농촌관광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등급화 추진
- ② 농촌관광 시설 및 서비스의 등급화 및 품질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
- ③ 인센티브 부여 방식의 사후관리: 등급화 등 품질 평가하여 우수한 곳에 대해 금전적, 비금전적 측면을 포함하여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강구
- ④ 등급화 운영을 통한 품질관리와 경영컨설팅 및 교육 병행

5.8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한 법률의 제정

도농교류의 촉진과 이에 관련된 정책의 체계적,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가칭) 도시와농촌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법에 담을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도농교류의 정의와 유형 분류
- ② 도농교류의 촉진을 위한 농촌관광 자원과 수요에 대한 조사·연구의 실시
 - 도시민 수요 및 요구 조사
 - 농촌관광자원 조사 및 발굴
 - 도농교류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 도농교류 관련 연구의 지원
- ③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 사업추진체계의 정립
 - 사업추진내용별 지원방안 마련
 - 1사1촌운동 등 자매결연
 - 농산물 등 상품직거래
 - 농촌투자 유치
 - 농촌관광 등
 - 사업추진 방법의 제시
 - 공모제의 도입
 - 상향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시행
 - 인센티브의 제공
 - 소요예산 확보 방안의 제시 등
- ④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에 대한 대국민 홍보
 -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 지원
 - 홍보 및 안내책자의 발행 지원
 - TV, 신문, 잡지 등의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 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
- ⑤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인력의 육성 및 교육
 - 도농교류사업 추진 인력의 육성
 - 농촌관광경영자 및 농촌주민의 교육
 - 인력육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⑥ 농촌관광 시설 및 서비스의 등급화와 품질관리
- ⑦ 농촌체험학습의 현 교육제도에 정규과정으로 도입 및 지원

6. 결론 및 제언

도농교류는 도시와 농촌간에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나 자매결연 등을 통해 사람들간에 접촉이 이루어지고, 상품·정보·자본·서비스 등이 양방향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교환되고 거래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도농교류의 유형은 ① 사람들간의 유대와 접촉을 중심으로 하는 인적 교류, ② 친환경농산물이나 지역 특산물의 직접적인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상품 직거래, ③ 농촌의 주거단지, 관광단지, 농업법인 등에 대한 투자에 참여하는 형태의 자본투자, ④ 휴양과 체험 등의 목적으로 농촌을 방문하는 농촌관광으로 나눌 수 있다.

도농교류의 의의 및 중요성은 도시민이 여가에 대한 요구를 저렴하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주고, 낙후된 농촌에 소득 및 고용 기회와 활력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도농교류에 대한 도시민의 수요는 양호한 편이고, 앞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도농교류를 위한 농촌의 공급 여건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그리고 농촌투자에 대한 제약 등 제도적인 면에서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다. 앞으로 늘어나는 도농교류 수요에 부응하여 농촌에서 이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겠지만, 농촌 주민들이 단기간에 높은 소득을 올리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는 방안과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소비자 특성별로 선호하는 도농교류 유형을 추정한 결과, 교육·생활·문화 및 휴양·여가 교류보다 인적 교류를 선호할 확률이 높은 소비자는 농촌방문 횟수가 많고, 여행경비가 적고, 농촌생활 경험이 많은 경우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생활·문화 및 휴양·여가 교류보다 물적 교류를 선호할 확률이 높은 소비자는 농촌생활 경험이 많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기혼자보다는 미혼인 경우로 나타났다. 또한 물적 교류 형태보다 인적 교류를 선호할 확률이 높은 소비자는 농촌방문 횟수가 많고, 미혼인 경우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소비자 특성별 도농교류의 선호를 고려함으로써 도농교류에 적극적인 소비자와 소극적인 소비자를 파악할 수 있고, 도농교류 유형별로 핵심 고객층에 접근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도농교류에 대한 잠재수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홍보와 안내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요자의 요구를 세심한 부분까지 충족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갖춘 휴식시설과 숙박시설을 확충하며, 농촌의 환경과 경관을 고려한 지역정비계획을 통하여 농촌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이미지를 형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농촌관광 관련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전문 인력 육성,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등급화 등을 통한 품질관리 강화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EU 등 농촌관광에 대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와 같은 경우에는 농촌관광의 발생이 2차 대전 이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역사가 깊다. 그리고 프랑스, 영국,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농촌관광을 어메니티 자원을 보전·활용하면서 농촌 주민의 소득을 올리고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농촌관광 경영자를 확대

된 농가 또는 농업 경영체로 보고서 지원, 육성하는 경향이 있으며,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과 농촌관광 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촌 환경보전, 경관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과 연계된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농촌관광 시설에 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사후 감독·관리와 자문 및 교육 등을 통하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서 민간 조직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농촌개발 또는 농촌관광 관련 전문기관을 통하여 농촌관광 시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책자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도와주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도농교류가 국민들에게 여가수요를 충족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식시키는 등 많은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지만, 농촌 주민들에게 단기간에 직접적인 소득을 가져다주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규제개혁 등을 통하여 농촌에 대한 투자와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관광의 발전 단계별로 중점 투자하는 내용과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상황에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농업과 농지, 주택 및 농촌관광휴양 사업 등과 관련된 제도적인 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농촌투자를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둘째,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및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같은 공모방식에 의한 도농교류형 상향식 농촌개발사업을 확대하여 나가고,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공동업무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과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한다.

셋째, 농촌경관을 개선하고,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고양시키는 방식으로 투자를 벌임으로써 농촌이 아름답고 편리한 곳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고 부각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친환경농업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농촌관광 개발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농촌관광의 청정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고 농촌관광의 활성화가 친환경 농산물 등 지역 특산물의 판매 확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미 존재하고 있는 농촌관광자원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생태·문화·인문 자원을 조사하여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전국 농촌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농촌관광개발 등 도농교류 사업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

여섯째, 농촌관광 시설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야 한다. 특히 도농교류의 유형에 따른 DB를 구축, 운영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쉽게 얻도록 한다.

일곱째,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기반을 조성하고 확충하기 위하여 지역단위의 개발 및 네트워크화, 친환경적 주거단지의 조성, 가공사업체계 구축, 교통안내시설, 편의시설, 농산물가공시설

등 농촌관광 기반시설의 확충, 어메니티 자원의 보전 및 개발·활용이 필요하다.

여덟째, 농촌관광에 대한 공급이 양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질적 측면의 개선을 위한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등 품질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주변 관광시설과 네트워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

아홉째,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와 관련된 인력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농촌관광 경영자에서부터 신규 참여 희망자 및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기초과정에서부터 분야별 전문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

열째, 도농교류 관련 사업 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과 중앙의 도농교류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며, 지역별, 마을별, 농가별 다양한 도농교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열한번째로, 도농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하다.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한 정부 차원에서의 마케팅 지원과 함께,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도시민 교육 및 홍보도 지속되어야 한다.

열두번째로, 도시 내에서 도농교류로서 유희지를 활용한 도시농업을 통해 도농교류의 잠재적 수요를 높이는 한편, 농촌주민이나 학생을 도시로 초청하여 농산물 직거래, 농촌 바로 알리기,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인적 교류 등을 도모하도록 한다.

열세번째로, 도농교류 관련 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와농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법의 시행을 통하여 농촌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1사1촌운동, 농산물직거래, 농촌투자유치,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 농촌관광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며, 등급화 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통한 농촌관광의 품질 관리와 농촌관광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병률 외 2인(2000).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병률 외 2인(2001).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소정 협력사업 2차년도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성준, 강영훈(1997). 지역산업진흥정책을 위한 분석의 틀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연구와 Nutt와 Backoff의 제3섹터에 관한 관리전략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 제3호. 제주대학교 법과 정책연구소
- 김순귀 외(2004). SPSS를 활용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이해와 응용. SPSS 아카데미.
- 농림부(2002).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개발모형 정립과 실용화 방안
- 농어촌연구원(2002). 농촌 소득기반과 연계되는 생태·문화자원의 활용방안 연구. 농업기반공사.
- 농어촌연구원(2003). 그린투어와 연계된 생산·생활기반시설의 정비 및 활용방안 연구. 농업기반공사.
- 농정연구센터(2004). 농촌개발의 종합적 전략에 관한 연구. 농림부.
- 도농교류활성화 및 도시자본투자유치 종합 대책반(2003). “현지확인결과보고서”. 농림부
- 도농교류활성화 및 도시자본투자유치 종합 대책반(2004).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촌 가꾸기 종합대책”. 농림부
- 도시·농업공생공간연구회(2003)
- 박윤호 외(2003). 농촌관광 시설 및 서비스의 표준화와 등급화 방안.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 (사)21세기 무라즈쿠리(2000). 프랑스에 있어서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행정지원에 관한 조사보고서.
- 송미령(2003). 도농교류촉진을 위한 농촌 어메니티 형성방안. 「2003년 새국토연구협의회 공동개최세미나: 그린투어리즘과 생활환경정비」. 농업기반공사·새국토연구협의회.
- 심완섭(1995). 도농교류형 소규모 단지개발을 통한 조건불리지역의 경제활성화 방안. 토지연구 6(1)
- 아다치 스미오(2002). 농림어업체험 민박을 통한 도시·농촌간 교류: 21세기의 이상향 다자연거주지역. 월간 자치개발 8(4). 한국자치개발연구원.
- 윤재만 외1인(2002). 「주5일 근무제가 농업·농촌에 미치는 영향」. 농협조사부.
- 이상배(1995). 도시와 농촌의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나남출판사.
- 이주희(1992).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도시와 관광촌·농촌간의 교류방안. 지방행정연수 30.
- 이창수(1995). 도·농 지역사회단위 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충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상봉 외(2002). 농촌 소득기반과 연계되는 생태·문화자원의 활용방안 연구.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 임상봉 외(2004). 농촌개발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 장경곤(1988). 농촌지역사회개발을 위한 도·농간의 자매결연.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국농업기술자협회(2004). 2004년도 제 1차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 지도자 과정.
- 전영미 외5인(2003). 도시민의 선호를 바탕으로 한 농촌마을의 관광자원 실태와 정비방향. 「농촌계획」 9권(1호). 한국농촌계획학회.
- 전영미(2003). 농촌관광을 고려한 마을정비방향. 「2003년 새국토연구협의회 공동개최세미나: 그린투어리즘과 생활환경정비」. 농업기반공사·새국토연구협의회.
- 전영미 외 1인(2003).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마을의 조성방향. 「농어촌과 환경」 통권 제80호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 조재환·김태균(2002). 일본 소비자의 신선딸기 원산지별 선호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제29권 제4호

577-590.

- 최동주(2003). 일본의 그린투어리즘. 계간 농정연구 통권8호. 사단법인 농정연구센터.
- 최원국(2000). 도·농교류 체험학습에 관한 학교구성원들의 의식과 문제점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관광공사(1996). 농어촌관광개발 활성화 방안연구
- 한국관광연구원(2001). 제2차관광개발기본계획.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3).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 방향 및 방안」. 농림부.
- 中川聰七郎(2003). 交流에 의한 지역활성화 전략: 농림업 진흥에의 길. www.greentour.or.kr.
- 都市·農業共生空間研究會 編著(1997). これからの國土·定住地域圏づくり:都市農業共生空間めざして. 島出版會.
- 財團法人農政調査委員會(1991). 日本農業あすへの歩み: 都市と農村の交流.
- 宮崎猛(1997). グリーン・ツーリズムと日本の農村, 農林統計協會.
- 山崎光博(1997). グリーン・ツーリズム,(社)家の光協會.
- 井上和衛, 中村攻, 山崎光博(1996). 日本型 グリーン・ツーリズム, 都市文化社.
- 庄宏行·三橋伸夫·藤本信義(2000), 「都市農村交流の展開と住民意義一新潟縣小國町を事例として一」, 農村計畫論文集 2
- 本庄宏行·三橋伸夫·藤本信義(2000), 「都市農村交流の展開と住民意義一新潟縣小國町を事例として一」, 農村計畫論文集 2
- Amemiya, T.(1981). "Qualitative Response Models;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9: 1483-1536.
- Allen, Lawrence R, Harry R. Hafer, Patrick T. Long, and Richard R. Perdue(1993). "Rural Residents' Attitudes Toward Recreation and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31, No.4, pp.27-33.
- Bliane, Thomas W., Golam Mohammad, and Turgut Var(1993). "Demand for Rural Tourism : An Exploratory Study",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20, No.4, pp.770-772
- Greene, W.H., *Econometric Analysis*, Prentice-Hall Inc., 1997.
- Huang, Yueh-Huang and William P. Stewart(1996). "Rural Tourism Development: Shifting Basis of Community Solidarity",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34, No.4, pp.26-31.
- Maddala, G. S.(1983). *Limited-Dependent and Qualitative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tsuyoshi ANDO(2002). "Interchange between Rural and Urban Japan".
- glossary.eea.eu.int/EEAGlossary/R/rural_tourism
- research.travel.state.tx.us
- www.agroinfo.net. 지역아카데미, Agroinfo issue No.1
- www.sfc.ucdavis.edu/agritourism/definition.html